

은평한옥마을 역사·환경 아카이빙 연구



제 출 문

은평구청 귀하

본 보고서를 「은평한옥마을 역사·환경 아카이빙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시: 2021년 12월 6일

과제수행 참여 연구진

참여 구분	성명	소속 기관
연구 책임자	박 수 진	서울대학교
연구 원	고 동 욱	국민대학교
	김 덕 현	경상대학교
	박 선 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사업단
	박 정 원	조선일보 월간 <山>
	박 찬 열	국립산림과학원
	송 동 하	스마클 (주)
	이 도 원	서울대학교
	조 인 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연구 보조원	장 효 진	서울대학교

목 차

■ 본문 차례

1. 은평한옥마을의 역사적·입지적 조건	1
1. 들어가면서	3
2. 한반도 공간적 위치로서 북한산	6
2.1. 북한산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8
2.2. 입지적 조건으로 북한산의 중요성	11
2.3. 행궁터가 있는 북한산성 축성지로서의 북한산의 가치	15
3. 진관동과 진관사는 조선 왕실에서 어떤 위치였나?	17
3.1. 진관동과 진관사의 유래와 가치	17
3.2. 국행수륙재를 왜 진관사에서 지냈나?	21
3.3. 진관동과 진관사 주변에 무엇이 있었나?	25
4. 진관동에 있는 은평한옥마을	27
4.1. 은평한옥마을의 입지적 조건	27
4.2. 은평한옥마을의 현대적 의미와 미래적 가치	28
5. 참고문헌	31
2. 은평한옥마을의 풍수적 의미와 분석	33
1. 은평한옥마을의 풍수적 특징	35
1.1. 이론적 배경	35
1.2. 용론적 특징	35
1.3. 혈론적 특징	39
1.4. 사론적 특징	40
1.5. 수론적 특징	44
2. 개별 시설물의 위치와 풍수적 특징	46
2.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46
2.2. 화의군 이영의 묘소	48
2.3. 이말산과 여타의 역사유적지	49
3. 글을 마치며	51
4. 참고문헌	51
3. 고지도와 지지(地誌) 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	53
1. 시작하며	55
2. 은평 지역 관련 고지도와 지지(地誌) 속의 지명	56
2.1. 은평 지역 관련한 고지도	56

2.2. 고지도 속의 은평 지역 지명 상황	59
2.3. 은평 지역 관련한 지리지와 지명	63
3. 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의 경관	66
3.1. 자연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	66
3.2. 인문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 : 역참과 고개	69
4. 은평 지역 관련 한국근대지형도 속의 지명	72
5. 소결	76
6. 참고문헌	78
4. 은평역사한옥마을의 문화유산 - 기념, 무덤, 교통, 제사 -	81
1. 은평지역의 성격	83
1.1. 역사지리적 정체	83
1.2. 역사지리 지리구와 자연지리 지리구	84
2. 기념 유산	85
2.1. 고려 현종과 신혈사	85
2.2. 기념 유산	88
3. 한양의 교외 무덤 유산	96
3.1. 조선의 북망산(北邙山) 이말산 일대 묘소군	96
3.2. 진관사 길의 묘역	105
4. 역참과 봉수	108
4.1. 연서역 영서역(延曙驛 迎曙驛)	108
4.2. 검암참(금암참)	111
4.3. 봉현봉수	112
5. 성황당과 산신제	113
5.1. 구파발 금성당제	113
5.2. 진관내동 사신성황당	114
5.3. 진관외동 제각말 산신제	115
5.4. 박석고개 성황당	116
6. 참고문헌	117
5. 은평한옥마을의 지형과 토양	119
1. 시작하며	121
2. 은평한옥마을의 위치와 유역분포	123
2.1. 지형의 분포특성과 광주산맥	123
2.2. 유역의 연결성과 한북정맥	125
3. 화강암과 편마암이 만든 지형경관	128
3.1. 암석분포와 지형경관의 특성	128
3.2. 암석에 따른 지형경관의 차이	131

3.3. 교통요지로서의 은평한옥마을	133
4. 지형 및 토양의 분포특성	133
4.1. 지형의 분포특성	134
4.2. 토양의 분포특성	136
5. 명당으로서 한옥마을의 형성과정	140
5.1. 한옥마을의 지형발달사적 특성	140
5.2. 풍수적 명당의 형성	142
5.3. 한옥마을의 지형발달사적 특성	146
5.3. 사신사 지형의 형성에 따른 은평한옥마을의 생태적 특성	147
6. 요약 및 결론	150
7. 참고문헌	152
6. 은평한옥마을 일대 유역 · 수문 연구	155
1. 은평구 개요	157
2. 대상지의 기상분석	158
3. 대상지의 유역특성 분석	160
3.1. 창릉천 유역 개황	160
3.2. 진관천 유역 특성 분석	163
3.3. 대상 유역의 수문특성 분석	165
3.4. 대상 유역의 홍수 피해 가능지역 분석	171
4. 마치며	172
4.1. 요약	172
4.2. 후속 연구 제안	173
5. 참고문헌	174
7. 은평한옥마을의 식생	175
1. 개관	177
1.1. 복합유산으로서의 식생경관	177
1.2. 식생, 은평구, 은평 한옥마을의 식생	178
2. 식생 현황	179
2.1. 주요 수종과 분포	179
2.2. 한옥마을 인근의 산림 분포와 특성	181
2.3. 특별한 식생	190
3. 식생의 변화	197
3.1. 토지 피복의 변화	197
3.2. 산림 식생의 변화와 반복사진법 repeated photography	200
4. 마치며	210
4.1. 요약	210

4.2. 아카이빙의 의미	211
4.3. 후속 연구 제안	211
5. 참고문헌	212
8.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과 활용	213
1. 대상지의 야생동물 현황 분석	215
1.1. 포유류 현황 및 특성	215
1.2. 조류 현황 및 특성	218
2. 서식지 모형에 의한 중요 서식지 분석	226
2.1. 중요 조류종의 선정	226
2.2. 중요 조류 서식지 선정	227
3. 마을 활성화 및 전시자원으로서 야생동물 자원 발굴	228
3.1. 문화생물종의 발굴 및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228
3.2. 유산코스 및 중요한 서식지의 문화콘텐츠로 활용	232
4. 결론	234
4.1. 요약	234
4.2. 아카이빙으로서 의미	237
4.3. 후속 연구	237
4.4. 기타 주요사항	237
5. 참고문헌	238
9. 재조명과 종합	239
1. 시작하며	241
2. 살펴 읽기	244
2.1. 입지	244
2.2. 풍수	247
2.3. 지명	249
2.4. 문화유산	250
2.5. 지형과 토양	252
2.6. 수문	254
2.7. 식생	255
2.8. 야생동물	257
3. 마치며	260
4. 참고문헌	261
5. 상자글	261
상자글 1: 토양 입자와 물	261
상자글 2: 경관과 식생	264
상자글 3: 은평구와 상수리나무 숲	267

부 록	273
부록 1. 추가령 구조곡 일대의 지형 기복과 단층곡, 용암대지 분포	275
부록 2. 한국 산맥체계	276
부록 3. 중앙Sunday 북한산성 홍수 관련 기사	277

■ 표 차례

<표 3-1> 은평 지역 관련 조선후기 고지도	59
<표 3-2> 은평지역 관련 조선후기 고지도의 지명	61
<표 3-3> 은평지역 관련 지지(地誌)	64
<표 3-4> 「경성」 도엽의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 목록	75
<표 5-1> 편암암과 화강암의 주요지형변수 비교	134
<표 5-2> 한옥마을 주변지역의 토양종류	138
<표 6-1> 서울기상 관측소 기상개황	159
<표 6-2> 창릉천 유역의 토지피복(세분류 기준)별 면적	162
<표 6-3> 진관천 유역의 토지피복(세분류 기준)별 면적	164
<표 6-4> 서대문 AWS 2020 기상개황	166
<표 6-5> 서대문 AWS 2020 월별 강수량	166
<표 6-6> 토지이용별 유출계수	167
<표 6-7> 창릉천의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167
<표 6-8> 진관천의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168
<표 6-9> 창릉천의 대홍수기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169
<표 6-10> 진관천의 대홍수기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170
<표 7-1> 사면별 수종 비율	180
<표 7-2> 산림 임상의 직경급별 면적과 비율	181
<표 7-3> 산림 임상의 영급별 면적 비율	181
<표 7-4> 은평한옥마을 인근의 보호수 목록	193
<표 7-5> 연구지역의 토지피복 변화	198
<표 8-1> 대상지역의 포유류 서식 추정 목록	217
<표 8-2> 포유류상 선행 연구와의 비교	218
<표 8-3> 북한산국립공원 및 진관습지의 관찰 조류 목록의 비교 목록	223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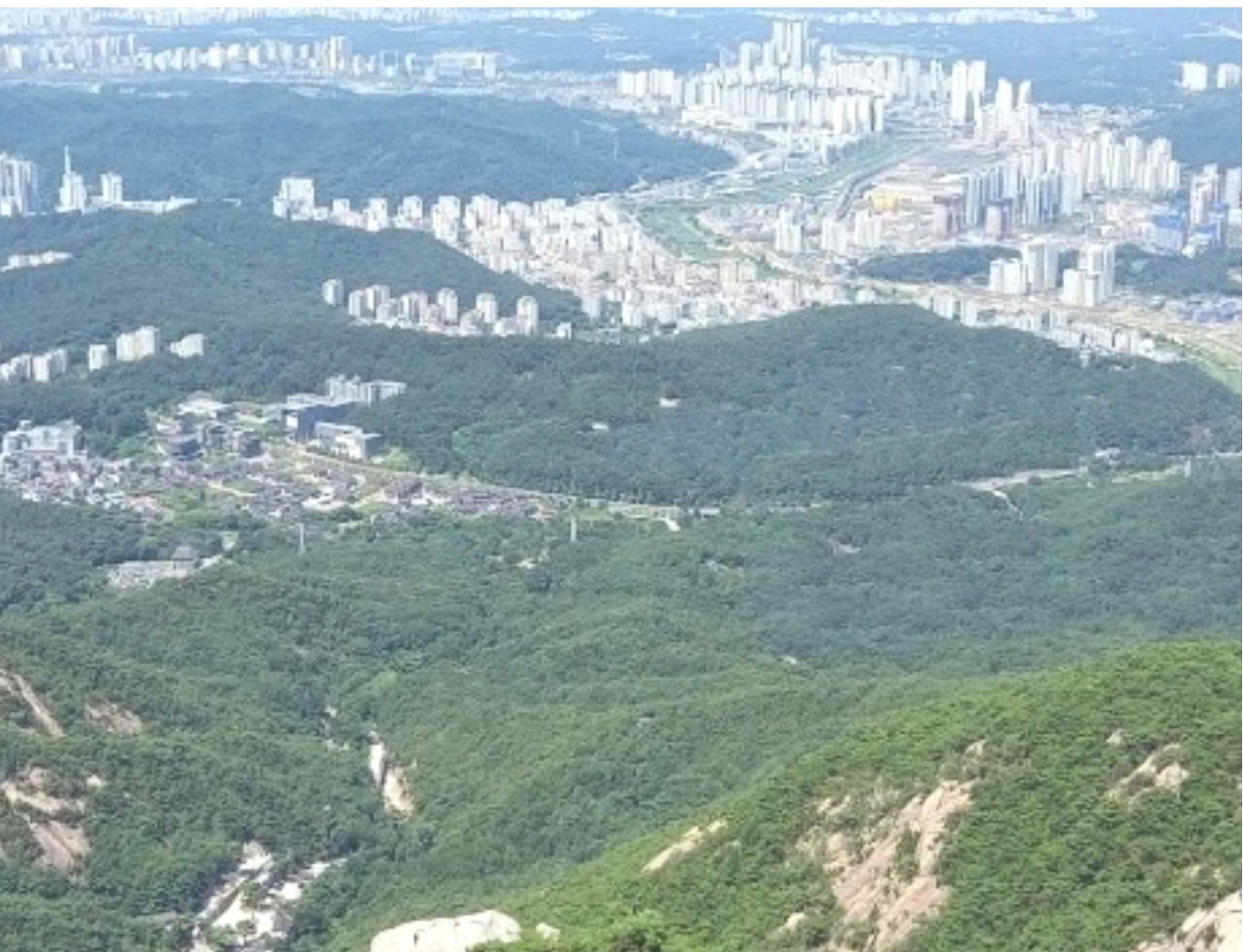
<그림 1-1> 인수봉(왼쪽)과 정상 백운대(오른쪽)	7
<그림 1-2> 인수봉, 백운대, 만장봉 전경	8
<그림 1-3> 삼국시대에 부아악이라 불렀던 북한산(인수봉과 백운대)	10
<그림 1-4>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북한산	11

<그림 1-5> 한양도성 입지조건	14
<그림 1-6> 북한산성 행궁	16
<그림 1-7> 의상봉에서 내려다 본 진관사 일대	18
<그림 1-8> 위성지도로 본 진관동 일대	19
<그림 1-9> 진관사 수록재 의식절차 안내	20
<그림 1-10> 조선시대 국행수록재 감로도의 모습	22
<그림 1-11> 은평구 진관동 이말산에 위치한 수많은 묘지들(좌)과 이말산이 기록된 조선지지자료(우) ..	23
<그림 1-12>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은평한옥마을	27
<그림 2-1> 은평한옥마을의 산줄기도	36
<그림 2-2> 은평한옥마을의 산줄기 개념도	37
<그림 2-3> 생룡의 선형	38
<그림 2-4> 살룡의 선형	38
<그림 2-5> 사룡의 선형	38
<그림 2-6> 은평한옥마을의 혈형-와혈	40
<그림 2-7> 은평한옥마을의 사신사와 주산	41
<그림 2-8> 은평한옥마을의 안대상(案對上)의 주요 봉우리	42
<그림 2-9> 은평한옥마을의 안대상(案對上)의 금봉과 용출봉	43
<그림 2-10> 은평한옥마을 부근 3개의 골짜기에 위치한 사찰들	44
<그림 2-1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47
<그림 2-12>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상층에서 바라본 안대(案對)의 금봉과 용출봉	47
<그림 2-13>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매스(MASS)의 위용	47
<그림 2-14> 화의군 이영의 묘 위치	48
<그림 2-15> 이말산 수치지형도	50
<그림 3-1> 조선후기 은평 지역의 행정구역 범위	57
<그림 3-2> 『동여도』(上左)와 「경조오부」(上右),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경조오부」 일부(下)	57
<그림 3-3> 『해동지도』 「경도」 지도(左)와 『대동여지도』 「경조오부」(右)	58
<그림 3-4> 『동여도』 「경조오부」의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	60
<그림 3-5> 경기읍지(京畿邑誌) 표지와 삽입 지도	65
<그림 3-6> 경기읍지(京畿邑誌) 4책 12-13면, 역원(연서역)과 발참(검암참)	65
<그림 3-7> 경기읍지(京畿邑誌) 삽입 지도의	66
<그림 3-8>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	66
<그림 3-9> 『산경표』의 한북정백 일부분(삼각산-백악-인왕산-목멱산)	67
<그림 3-10> 산경표 대간·정간·정맥(左)과 한북정맥과 지맥의 일부(右)	68
<그림 3-11> 1872년지방지도』 「양주」 지도와 한성부 일대 확대	69
<그림 3-12> 『해동삼국도』와 한양~의주대로 부분	70
<그림 3-13> 『동여도』 「경조오부」(左)와 『여지도』(右) 은평 지역 의주대로 부분	71

<그림 3-14>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72
<그림 3-15> 『조선기본도』 「경성」 도엽(1918년 측도,제판)	73
<그림 3-16> 1914년 고양군의 행정경계	74
<그림 3-17> 도엽의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	76
<그림 4-1> 인조별서유기비 전면	91
<그림 4-2> 인조별서유기비 비각	91
<그림 4-3> 검암(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94
<그림 2-4> 은언군묘소자내사패금표(恩彦君墓所字內賜牌禁標)	95
<그림 4-5> 이말산 내시 노윤선 묘표와 문인석	100
<그림 4-6> 영조생모 숙빈최씨의 부모 최효원부부 묘	102
<그림 5-1>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지형특성(가. 음영기복도, 나. 경사도의 분포)	124
<그림 5-2> 은평한옥마을과 단층선 개략 위치도	125
<그림 5-3> 서울시 한강이북과 경기도의 유역체계	126
<그림 5-4> 한북정맥과 유역의 상관관계 및 위치도	127
<그림 5-5> 은평한옥마을을 구성하는 주요 암석의 모양과 특성 비교	129
<그림 5-6>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지질특성과 지형발달과정	130
<그림 5-7> 수도권 북부지역과 은평한옥마을 주변지역의 암석분포	131
<그림 5-8> 은평한옥마을과 주변 지역의 지질특성 및 주형분류	135
<그림 5-9>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토양분포와 유효토심	137
<그림 5-10> 은평한옥마을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토양의 카테나(Catena)	139
<그림 5-11>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지형과 습윤지수	141
<그림 5-12> 한국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에서 명당(좋은 땅)을 찾는 이론적 틀인 사신도(가)와 서울지형의 풍수적 해석(나)	142
<그림 5-13> (가): 기반운동과 계단상 지형의 형성 (나): 분지와 하천주변평탄지의 형성과정	143
<그림 5-14> 한옥마을 주변의 지형과 암석의 분포	145
<그림 5-15> 한옥마을과 같은 사신사 지형이 가지는 생태적·환경적 장점	147
<그림 5-16> 한옥마을과 주변지역의 습윤지수(wetness index)와 연간 평균일사량의 분포 ·	149
<그림 6-1> 은평구와 창릉천 그리고 진관천 유역의 위치	158
<그림 6-2> 은평구 창릉천과 그 지류들	161
<그림 6-3> 창릉천 유역의 토지피복 (환경부 세분류) 현황	162
<그림 6-4 > 은평 진관천 유역의 토지피복 (환경부 세분류) 현황	164
<그림 6-5> 창릉천 유역에서 하천 수위가 EL. 10 이하일 경우 홍수 피해 가능지역	171
<그림 6-6> 진관천 유역에서 하천 수위가 EL. 40 ~ 41 이하일 경우 홍수 피해 가능지역 ...	172
<그림 7-1> 창릉천의 산림 임상 분포(1:5,000 임상도)	180

<그림 7-2> 은평 한옥마을 인근의 임상. 1:5,000 임상도(산림청, 2020)	182
<그림 7-3> 이말산 등산로 인근의 소나무 조림지	186
<그림 7-4> 2005년 은평뉴타운 개발 시기에 은평구청과 시민단체가 조성한 활엽수림	187
<그림 7-5> 이말산과 못자리골 항공사진	188
<그림 7-6> 이말산과 못자리골 항공사진	188
<그림 7-7> 이말산과 못자리골	189
<그림 7-8> 이말산 못자리골 확대 항공영상.	189
<그림 7-9> 이말산 못자리골의 느티나무 노거수의 하나로 추정되는 수목	190
<그림 7-10> 은평 한옥마을 가로수	191
<그림 7-11> 은평한옥마을 진관내천 및 맹꽁이 서식지 인근의 느티나무 보호수	192
<그림 7-12> 은평 한옥마을의 느티나무 보호수 군락과 맹꽁이 서식지 습지	192
<그림 7-13> 은평한옥마을의 노거수 분포지역(주황색)과 맹꽁이 서식지 습지(파란색)	193
<그림 7-14> 은평한옥마을 노거수 지역 인근 항공영상	194
<그림 7-15> 과거 은평 한옥마을 지역 항공영상	194
<그림 7-16> 진관습지 입구	195
<그림 7-17> 이말산 내 못자리골 도심생태습지 간판	196
<그림 7-18> 서오릉 서어나무 군락	197
<그림 7-19> 은평 한옥마을 인근의 토지피복 변화	198
<그림 7-20> 연구지역의 1986년과 2021년의 Landsat 영상	199
<그림 7-21> 북한산성 행궁터(1890-1900년 추정)	201
<그림 7-22> 북한산성 행궁지	202
<그림 7-23> 북한산성 행궁지	202
<그림 7-24> 북한산성 행궁(1900년대 추정)	203
<그림 7-25> 그림 7-13과 비슷한 위치에서 조망한 북한산성 행궁지	203
<그림 7-26> 그림 7-13 위치에서 조망한 북한산성 행궁지	204
<그림 7-27> 의상봉에서 바라본 북한산 산세(1911년)	205
<그림 7-28> 그림 7-27과 비슷한 위치에서 조망한 북한산	205
<그림 7-29> 그림 7-27 위치	206
<그림 7-30> 그림 7-27 위치 조망	206
<그림 7-31> 그림 7-27 위치 조망	207
<그림 7-32> 삼천사 최근 항공영상	208
<그림 7-33> 삼천사 과거 항공영상	208
<그림 7-34> 진관사 최근 항공영상	209
<그림 7-35> 진관사 과거 항공영상	209
<그림 8-1> 대상지역의 포유류 관찰 종수의 연도별 변화 분석	216
<그림 8-2> 대상지역의 포유류 영양단계별 총 종수의 점유 비율(%)의 변화	217
<그림 8-3> 대상지역에서 연도별 관찰 조류 종 수의 변화	219

<그림 8-4> 한북정맥과 연결된 북한산에서 독수리의 범상 모습	220
<그림 8-5> 조류군집 이동성 측면에서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220
<그림 8-6> 조류의 등지 길드별(수관층, 관목층, 지면)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221
<그림 8-7> 조류의 등지 길드별(나무구멍, 인가, 바위)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222
<그림 8-8> 조류군집 등지 길드 측면에서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223
<그림 8-9> 조사기간 동안 관찰된 조류	225
<그림 8-10> 잠재 조류 서식지 모형 작성을 위해 선정한 6종	226
<그림 8-11> 은평구 및 대상지에서 6개종의 잠재 서식지 적합성(붉은색 1.0, 청색 0.0)	227
<그림 8-12> 조류다양성의 중요 거점(A-진관습지, B-서오릉, C-이말산 연못, D-진관계류)	227
<그림 8-13>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지	230
<그림 8-14>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지 만드는 과정	230
<그림 8-15>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그림(p.116)	231
<그림 8-16> 붉은머리오목눈이(2006.2.9.양평)	232
<그림 8-17> 독수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지역 산줄기와 물줄기	232
<그림 8-18> 화강암과 편마암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대상지역	233
<그림 8-19> 삼천사 계곡의 습지	233
<그림 8-20> 진관사 계곡을 중심으로 한 유산 코스	233
<그림 8-21> 은평한옥마을의 모습(상, 7.24)과 진관사의 생물서식공간(중/하, 7.24)	234
<그림 9-1> 경관 형성 과정	243
<그림 9-2> 경조오부도에 표시해본 주요 지명	245
<그림 9-3> (가) 북한산 능선에서 바라본 창릉천 전경과 (나) 높이 자란 넓은잎나무들 아래 갇혀 위축된 소나무	256
<그림 9-4> 조선후기 홍지문 일대 풍경과 오늘날 모습(동그라미 색은 동일 지역)	265
<그림 9-5> 삼천사 계곡의 활엽수림	267
<그림 9-6> 삼천사 진입로에서 만난 상수리나무들	270



이
은평한옥마을의
역사적 · 입지적 조건

1

은평한옥마을의 역사적·입지적 조건

박정원, 월간山 (前 조선일보)

1. 들어가면서

은평한옥마을의 입지적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명칭과 시 두 수가 있다. 명칭은 '진관'이고, 시는 '계수溪水(계곡의 물)'와 '소사小蛇(작은 뱀)'이다. '계곡의 물'은 '백운봉에서 흘러내리는 한 줄기의 물/ 만경창파 멀고 먼 바다로 향하누나!/ 바위 밑을 스며 흐르는 물 적다고 하지 마라./ 용궁에 도달할 날 그리 멀지 않으리'이고, '작은 뱀'은 '약포에 도사리고 앓은 작고 작은 저 뱀/ 온몸에 붉은 무늬 찬란히 번쩍이네!/ 언제나 꽃밭에만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아침 용 되기란 어렵지 않으리니!' 이다.

이 시는 고려 8대 왕 현종이 대량원군이란 이름으로 지내던 왕자 시절 진관대사 앞에서 지었다고 <고려사>에 전한다. 당시 현종은 다른 왕자와의 권력다툼에서 목숨까지 빼앗길 상황이었다. 진관대사는 대량원군을 신혈사神穴寺에 몸을 안전하게 숨기도록 도와 후일 왕에 오르도록 했다. 당시 숨어 있던 대량원군이 진관대사 앞에서 지은 시가 바로 위 두 시다. 이 시에서 바위 밑의 물이 용궁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훗날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

하고, 작은 뱀이 용이 된다는 것도 대량원군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고 진관대사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고 한다.

고려 8대 현종으로 왕위에 오른 대량원군은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준 진관대사에게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혈사 터 위쪽 지금의 진관사계곡에 진관대사의 이름을 따서 진관사津寬寺를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때가 1011년(현종 2년) 즉위 이듬해다. 그 진관이란 지명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진관동이란 지명유래가 됐고, 신혈사도 양주 신혈리의 유래가 됐다. 따라서 진관이란 지명은 유서 깊은 '천년의 지명'인 것이다.

진관사는 이후 고려시대 역대 왕들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선종은 1090년 진관사에 순행하여 오백나한제를 성대하게 봉행했다. 1099년에는 숙종이, 1110년에는 예종이 진관사에 친행했다고 <고려사>에 전한다.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제법 떨어진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은 진관사의 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주변 지역과 함께 왕실의 원찰 수준으로 관리를 받았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조선시대 진관사는 도성 밖에 있는 '왕실의 사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번창한다. 동쪽 불암사, 서쪽 진관사, 북쪽 승가사, 남쪽 영국사와 더불어 한양 근교 4대 사찰로 명성을 날린다. 조선은 불교국가인 고려와 달리 유교를 국교로 표방했지만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불교의 의식과 의례를 무시할 수 없었다.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려 후손들의 원한을 달래는 동시에 조선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꾀하기 위해 국행수륙재를 거행했다. 그 사찰이 또한 진관사인 것이다. 고려 왕조의 왕족인 왕씨가 지금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조선이 들어서기 전 고려 왕족인 왕씨를 씨를 말릴 정도로 도륙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야사野史이지만 신라의 주요 성씨가 한국의 3대 내지는 5대 성씨에 포함될 정도로 많지만 고려 왕족인 왕씨는 거의 희성에 가까울 정도로 없는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수공이 가는 내용이다. 왕씨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왕씨가 아닌 전씨 등 다른 성씨로 개명했다는 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그 당시 한국의 성씨가 그리 많지 않았고, 양반에게만 성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왕씨가 지금 별로 없는 현실을 보면 조선 개국 당시 많은 왕씨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만큼은 사실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태조는 국행수륙재를 지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진관사에 순행하며, 59칸에 이르는 수륙사水陸社를 진관사 내에 건립하도록 지시했다. 진관사가 본격적인 대찰로서 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수륙사를 건립하면서부터이다. 수륙사는 수륙재를 지내는 국립 전용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세종은 진관사를 왕실의 각종 재를 봉행하는 사찰로 지정했고, 이를 국가에서 정례화했다. 나아가 집현전 학자들에게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할 수 있도록 진관사에 상사독서당上寺讀書堂을 건립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중수에 중수를 거듭하면서 진관사는 명실상부 조선 왕실의 명찰로서 자리하게 된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걸쳐 진관사가 번창하게 된 계기는 수륙사를 건립하면서부터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사항은 입지조건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터에 왕실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찰을 건립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진관사계곡 입구는 명당으로 평가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사찰의 입지조건은 명당이거나 기운이 넘쳐흘러 부처님의 가호로 넘치는 기운을 다스려주는 터에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관사의 입지적 조건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천 년의 세월 동안 한번도 폐찰廢刹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건됐다 사라진 사찰은 남한에서만도 수백, 수천 군데는 족히 된다. 만약 좋은 기운을 가진 터가 아니었다면 이미 사라져 폐사지로 남아 있거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로, 주변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오릉, 삼천사 등 길지吉地가 연속으로 연결된다. 조선시대 왕실의 능은 풍수지리 전문가를 동원해 천하의 명당만 골라 점지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왕릉의 좋은 기운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도록 앞에는 창릉천이 막고 있다. 절묘한 위치가 아닐 수 없다.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그친다는 풍수의 기본을 진관사와 서오릉 등 그 주변을 보면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풍수의 기본인 장풍·득수와도 관련된다.

셋째로, 진관사 뒤(남)쪽으로 진흥왕순수비가 자리 잡은 북한산 비봉이 우뚝 솟아 있다. 진흥왕이 왜 비봉에 순수비를 세웠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그 아래 계곡은 더욱 의미 있게 해석된다. 북한산에서 비봉만큼 사방 조망이 뛰어난 곳도 없다. 남으로는 한강, 서쪽으로

는 서해 바다, 북쪽으로는 고구려 땅이 한 눈에 들어온다. 당시 삼국은 치열하게 영토 다툼을 하고 있을 때라 조망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적을 공격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을 것이다. 순수비를 조성할 때 누구라도 제일의 요소로 조망을 살폈을 것이란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봉과 응봉 능선 사이 계곡에 자리 잡은 진관사는 지금도 명당의 기본 조건인 장풍과 득수가 확실히 보장되는 땅이면서 능선 위로 올라서면 사방이 확 트여 조망되는 천혜의 요새이자 명당인 것이다.

이와 같이 진관사에서 유래한 진관이란 지명은 천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숱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 그리고 전통을 지닌 가치 있는 지명인 것이다. 또한, 입지적 조건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뛰어난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곳에 있는 진관사는 한 번도 폐찰되지 않은 천년의 고찰로서 명당에 자리 잡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찰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관이란 지명과 어울린 은평한옥마을, 그리고 이곳에서 전통을 계승 보존하고 있는 진관사의 국행수륙재, 이어 세계문화유산 서오릉을 잘 연결시켜 널리 알리면 K-culture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전통과 어울린 은평의 문화적 가치는 여타 어느 곳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공간적 위치로서 북한산

북한산北漢山(약 836.5m)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는 고대로부터 유서 깊은 명산으로, 그 공간적 위치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나아가 지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반도 최고의 명산 북한산의 중요성은 역사적, 기록적, 현대적 의미와 가치로 봐도 그 진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산의 공간적 위치는 한반도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동시에 한강을 끼고 있어 천혜의 명당으로 평가받는다. 이른바 명당의 필요충분조건인 산수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위치로 인해 북한산은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도읍 후보지로 거론됐거나 도읍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북한산의 가치에 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한 번 살펴보자. <삼국사기>부터 등장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전국의 명산대천을 대사·중사·소사 삼산오악으로 전략적으로 나

뉘 국가의 중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지정할 때 금강산霜岳, 설악산 등과 함께 소사小祀 부아악負兒岳으로 지정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략적 요충지는 어느 나라든지 서로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방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백제가 천혜의 땅 북한산과 그 인근 한강에 도읍을 정하면서 건국을 했고, 고구려는 끊임없이 남침을 했고, 신라는 영토 확장을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삼국시대 격전의 장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을 도읍으로 정해 나라의 중심을 옮겼으나 고려 후기 삼각산으로 천도를 검토했을 정도로 국가적 논란의 핵심에 있기도 했다. <고려사> 열전 우왕편에 '남경의 진산 삼각산은 화산으로서 목성을 가진 나라의 수도가 될 땅이니, 그곳을 수도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그 사실을 전한다. 고려는 목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도읍으로 천하의 명당과 명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쨌든 기록된 역사 초기부터 전면에 등장했던 명산 명당이 바로 북한산이었다.



〈그림 1-1〉 인수봉(왼쪽)과 정상 백운대(오른쪽)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삼각산으로 불렸다. 북한산이란 지명은 현대 들어서 명명된 지명이다. 사진은 삼각산의 지명유래가 된 인수봉(왼쪽)과 정상 백운대(오른쪽), 중간에 있는 만장봉 세 봉우리가 우뚝 솟은 형세가 삼각산 같아서 명명됐다.

기록적으로 삼각산은 문헌이나 고지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산으로 꼽힌다. 그만큼 기록할 가치 있는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풍수적으로, 국행제로, 명산 지정 등 다양한 소재로 소개된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지>에 소개된 내용도 다른 명산에 대한 분량을 압도한다. 조선 선비들의 <유산록>도 북한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또한, 고대로부터 이름을 가장 많이 가진 산

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명산일수록 여러 지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적 의미로는 한국 등산의 메카로 꼽힐 만큼 많은 산악인들이 암벽 루트를 근대부터 개척해 왔고, 현대 들어서도 인수봉과 더불어 주변 암봉들은 산악인들에게 암벽 등반의 필수코스로 여겨져 왔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암벽루트명을 가진 봉우리가 바로 인수봉이다.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일찌감치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기록을 보유한 명산이다.

이같이 여러 가지 변수로 볼 때 북한산은 한국 최고의 명산이라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2.1. 북한산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북한산에 대한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고구려 장군(왕이)이 말갈과 더불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려고 횡악(橫岳) 아래에 나아가 주둔했는데, 백제가 군사를 내어 역습하여 싸우므로 물러났다.'는 내용이 나온다. 북한산 최초의 지명은 횡악이라는 얘기다. 왜 횡악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그림 1-2〉 인수봉, 백운대, 만장봉 전경

야차산·용마산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면 영락없는 횡악의 모습을 보여준다. 왼쪽에 솟은 암벽 바위가 인수봉과 정상 백운대, 그리고 만장봉이다. 오른쪽 솟은 암벽은 도봉산이다.

얼마 전 아차산~용마산을 종주하면서 그 답을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었다. 용마산 정상에 올라 북한산을 바라보는 순간 '아, 이래서 횡악이라 했구나'가 바로 떠올랐다. 동쪽의 용마산에서 바라본 북한산은 남북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천혜의 요새 같은 방어진지였다. 당시 아차산과 용마산도 삼국의 격전지였다. 한강을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방어와 공격의 진지였다. 아차산·용마산에서 발견되는 기와와 유물에서 '북한산성北漢山城'이란 표기가 나와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북한산은 현재 북한산이 아닌 아차산·용마산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다. 일단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요약한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서는 '부아악'이라고 나온다. 삼국시대에는 북한산이나 삼각산이란 지명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이다. 부아악은 인수봉과 바로 뒤에 있는 백운대의 형상이 아이를 업고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명명됐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삼각산은 한성부 북쪽 15리에 있고, 백제에서는 부아악이라 했다. 또 횡악, 화산, 화악이라고도 불렀다'는 내용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삼각산이나 북한산이란 지명을 찾을 수 없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산은 삼국시대까지 주로 횡악이나 부아악, 화산으로 불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 들어서도 삼각산이란 지명이 대세를 이룬다. <고려사> 여러 장면에서 삼각산이란 지명이 등장한다. 북한산이란 지명은 아예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삼국시대에 불리던 횡악, 부아악, 화산이 왜 삼각산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단지 널리 알려진 대로 삼각산 지명 유래는 정상 백운대, 인수봉, 만장봉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멀리서 보면 마치 세 개의 산으로 이뤄진 듯 보인다고 해서 명명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면서 북쪽에 자리 잡은 북한산은 진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천하의 명산과 명당으로 자리매김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삼각산은 도성 밖 정북에 있으며 일명 화산이다. 신라 때는 부아악이라 일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 외 <국조보감> <동국여지지> 등에는 '중악'으로 소개한다. <동국여지지> 한성부에 대한 형승을 '한양은 북쪽으로 화산에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을 앞에 두고 있으며, 토지가 평탄하게 펼쳐져 있어 백성은 많고 부유하며 변화하다.'고 극찬하고 있다. 천혜의 요새라는 내용까지 나온다.



〈그림 1-3〉 삼국시대에 부아악이라 불렀던 북한산(인수봉과 백운대)

삼국시대에는 북한산이 부아악으로 불렸다. 그 유래가 된 형세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쪽 인수봉과 정상 백운대의 모습이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명명됐다.

<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에 '삼각산은 화산이라고도 하며, 신라 때에는 부아악이라고 했다. 평강현의 분수령에서 잇닿은 봉우리와 겹겹한 산봉우리가 높고 낮음이 있다.¹⁾ 빙빙 둘러서 양주 서남쪽에 이르러 도봉산이 되고, 또 삼각산이 되니, 실은 경성의 진산이다.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비류·온조가 남쪽으로 와서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가 살 만한 땅을 찾았으니 바로 이 산이다. (후략)'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려실기술> <동국여지비고>와 <성호전집> 등 술한 개인문집에서 북한산에 대한 내용을 빠지지 않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도 대부분의 문헌과 고지도에서 삼각산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 북한산이란 지명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산이란 지명은 조선 숙종 때 팔도 승군도총섭(지금 총사령관)을 지낸 승려 성능聖能이 북한산성 축성기록과 연혁을 자세히 기술한 <북한지>(1745년 편찬)에 북한산군과 북한산이란 지명이 몇 차례 언급된다. 사실 당시까지 북한산은 하나의 산으로서보다는 산군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00년대 초 일제가 한반도 행정구역을 일제히 정리한 <조선지지자료>

1) 한북정맥의 봉우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

에 북한산이란 지명이 명확히 나온다. 북한산이란 지명의 최초 공식 기록으로 판단된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산이란 지명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북한산성을 축성한 뒤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일제에 의해 공식명칭으로 정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삼각산보다는 북한산이란 지명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북한산은 신라시대에는 횡악, 부아악, 화산, 화악 등 다양한 지명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부터 삼각산으로 정착한 듯하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삼각산이 일반적 명칭이었으나 조선 후기 들어 북한산성 축성 이후 북한산과 삼각산을 혼용하며 사용하다가 일제 초기 북한산 지명이 공식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명산을 거론할 때 북한산은 빠질 수 없으며, 특히 조선시대 들어서는 한양과 함께 최고의 명산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이는 북한산이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입지적 조건도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산은 한반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최고의 명산이며, 그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북한산을 차지하기 위해 고대부터 여러 국가들이 격전을 벌였던 사실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2.2. 입지적 조건으로 북한산의 중요성

<삼국사기> 백제본기 '백제가 건국되고 온조왕이 즉위하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된다.

'(전략)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가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간언하기를 "생각건대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漢水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니,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비류는 듣지 않고... (후략)'

한산은 서울의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산은 한산의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명명됐다고 전한다. 한양은 한수²⁾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명명된 한산 다음에 사용된 서울

2) 한강의 옛 지명. 고구려에서는 아리수阿利水라 일컬음

의 옛 지명이다. 풍수적으로 강의 북쪽과 산의 남쪽을 양陽으로 본다. 또 강과 산이 같이 있을 때는 강을 우선으로 본다고 풍수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한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라 해서 한양이라 했다고 한다. 부아악은 북한산의 옛 명칭. 강과 산을 끼고 있고, 산의 형세가 천혜의 요새 같이 생겼으니 당연히 도읍지로 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고려사> 열전 우왕편에도 '남경의 진산 삼각산은 화산으로서 목성을 가진 나라의 수도가 될 땅이니, 그곳을 수도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 고려시대에도 삼각산과 그 주변은 기운이 넘치는 땅이라고 판단했던 듯하다. '한양은 북쪽으로 화산에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을 앞에 두고 있으며, 토지가 평탄하게 펼쳐져 있어 백성들이 많고 부유하며 변화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 결정적인 입지 조건도 <고려사>에 이미 소개됐다.

'삼각산은 오덕을 갖춘 땅이다. 오덕이란 중앙에는 면악面岳(남산)이 있어 둥근 형상이 되니 토덕土德이요, 북쪽에는 감악紺岳이 있어 굽은 형상이 되니 수덕水德이요, 남쪽에는 관악산이 뾰족하게 솟아 있으니 화덕火德이요, 동쪽에는 양주 남행산南行山이 곧은 형상이 있으니 목덕木德이요, 서쪽에는 수주樹州의 북악이 있어 모난 형상이니 금덕金德으로 수도를 세우기에 합당하다.'

108

第五 山 岳

第二八表 山岳ノ名稱所在及眞高

道	府郡島	面	名 稱			眞 高			
			山	岳	嶺(峠)	二千米以上	一千米以上	五百米以上	五百米以下
京	京城府	一	南	山					260
	京城府	恩	北	岳山					338
	高陽郡	〃	仁	王山					338
	仁川府	一	月	尾山					105
畿	高陽郡	神	北	漢山	仁壽峰				803
	〃	神	道	仁	* 萬景臺				800
	〃	神	道	仁	白雲臺				836
	〃	神	道	仁	東將臺				602
	〃	神	道	仁	南將臺				715
	〃	〃	〃	〃	元曉峰				508
	〃	〃	〃	〃	露積峰				717
	〃	〃	〃	〃	* 經漢峰				600
	〃	〃	〃	〃	龍 峰				573
	〃	〃	〃	〃	龍穴峰				565
高陽郡	恩	平			* 無學峴				78
京城府	神	道	仁	神 峰					556
高陽郡	神	道	北	漢山	義聖峰				409

<그림 1-4> 조선지리지자료에 기록된 북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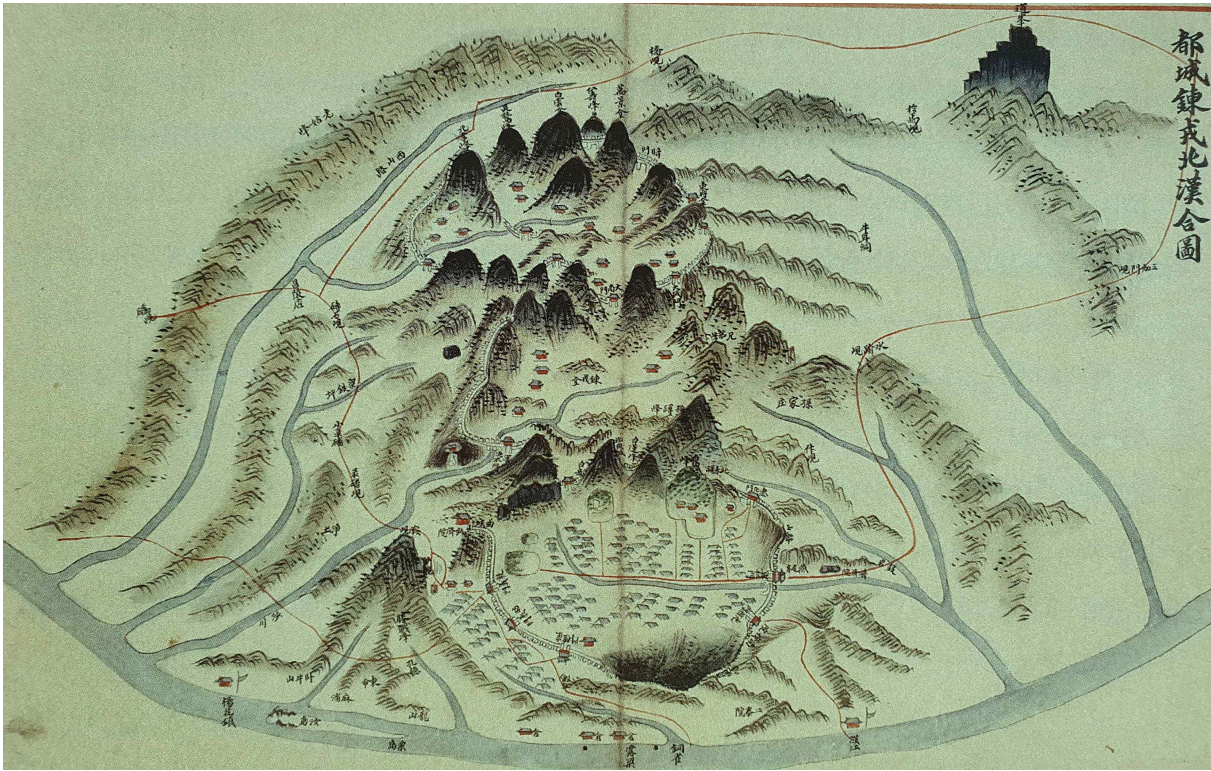
출처: 조선지리지자료

이는 목→화→토→금→수로 이어지는 오행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며, 나아가 오악이 감싸고 있는 도시가 바로 한양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고대 도읍지인 낙양이나 서안의 형세도 이와 같은 것으로 전한다.

조선시대 들어서 한양을 찬양하는 다양한 상소들이 올라온다.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 권근은 '화산이 우뚝하고 한강이 넘실거리니 하늘이 만든 험고함은 금성탕지보다 장엄하다.'고 노래했다. 문신 권우도 '범이 웅크리고 용이 서린 기세이니, 금성탕지 같은 천연의 요새라'는 시를 읊었다. 유성룡도 '우리나라의 형세 중에는 한양만큼 험고한 곳이 없다. 한강과 임진강이 전후로 둘러싸고 있고, 동북으로 높은 산과 큰 산마루의 험조함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감싸고 있으니 바로 천연의 요새라 말하는 곳이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조선 초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예겸도 '북악이 뒤에서 솟아 있어 궁전의 휘황함을 더해 주고 남산이 앞에 우뚝하며 성곽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돼 있는 성현의 <용재총화>에 따르면, '우리 태조가 개국하자 도읍을 옮기자는 의논이 있었다. 먼저, 계룡산 남쪽에서 도읍할 만한 땅을 보았는데, 얼마 안 가서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한양에 도읍을 정했다. 삼각산 서쪽 연서역³⁾들은 땅이 아름답기는 하나 후에 다시 보니 모든 산이 밖으로 등지고 달아나는 형세라, 백악산 남쪽과 목멱산 북쪽이 제왕의 만 년 터가 되어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는 것만 못하였다.'고 주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기 들어서 문신 권문해는 <운옥>에 '도선의 비기³⁾에 서쪽에 공암³⁾이 있고, 또 단서 석벽이 있다고 했는데, 공암으로 말하면 백악산 남쪽이나 연서역 두 곳이 모두 서쪽에 있으니 모름지기 단서를 찾아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단서를 인왕동 돌 위에서 얻고 드디어 백악산 남쪽에 도읍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금 연서역 주변은 도읍지로서 차선택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진관동이나 진관사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당시부터 조선 왕실에서 예의주시했던 장소로 여길 만큼 중요했다.

3) 현재의 연신내역 주변



〈그림 1-5〉 한양도성 입지조건

한양 도성은 그 입지적 조건으로 보면 한반도 정중앙에 차지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북한산과 남으로는 한강이 앞을 막는 동시에 윤택한 평야가 그 가운데 있어 천하의 명당으로 꼽힌다. 지도는 한양 도성과 북한산성과 연결되는 복합도이다. 출처: 북한산성사료총서

또한 '도선의 도참에 왕을 대신할 이취가 있어 한양에 도읍할 것이다.'는 말이 있어, 고려 때 오얏나무를 한양에 심어 오얏나무가 무성해지면 번번이 베어버려서 지기를 눌렀었는데, 이 때 와서 과연 징험하였다. 도읍을 정할 때, 승려 무학無學이 인왕산으로 진산을 삼고, 백악과 남산으로 좌청룡과 우백호를 삼으려고 했는데, 정도전이 어렵게 여기며 아뢰기를 "예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을 향하여 다스렸으니 동향으로 도읍을 창설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무학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는 내용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도읍의 진산을 두고 인왕산과 백악으로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정도전의 뜻을 따라 백악으로 정했다는 내용이다. 정도전의 의견을 따라 백악을 진산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한양은 오행사상이 맞아떨어지고, 오악이 감싸고 있는 완벽한 도시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강과 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요새 같은 곳에 평지까지 갖춰 사람 살기 좋은 천부의 땅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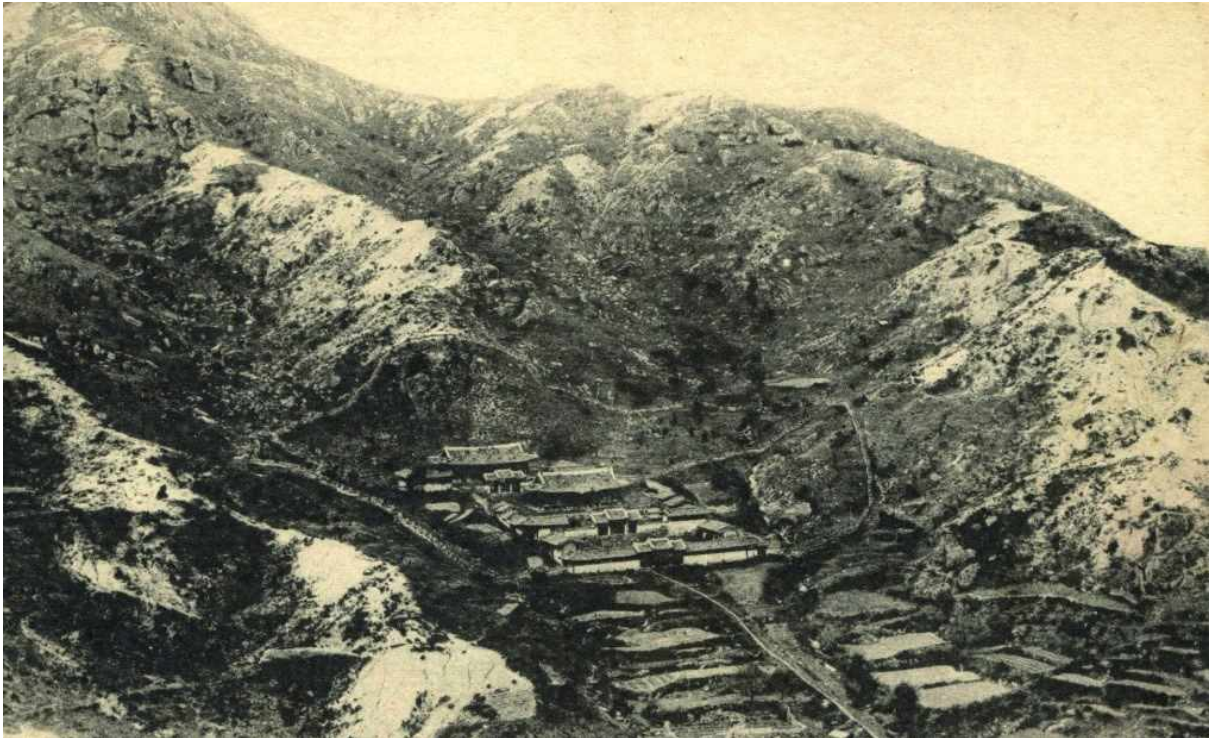
2.3. 행궁터가 있는 북한산성 축성지로서의 북한산의 가치

북한산성을 축성하자는 논의는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 선조 때부터 제기됐다. 1596년(선조 29년) 비변사에서 '중흥동에 옛날 산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석축이 완연하다. 세인의 전언에 고려 최영 장군이 군사를 주둔했던 곳⁴⁾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상봉의 암석에는 아직도 깃대를 꽂았던 구멍이 있다. (중략) 이곳에 별도로 하나의 진영을 설치하고 혹 사찰의 승도를 소집하되 응모하는 자에게 곧바로 면역의 도첩을 주게 되면 머지않아 원근의 중들이 모여들 것이니 이에 한 사람이 통솔하게 하여 화포 등의 기술을 연습하며 훈련을 통해 군을 이루게 하면 이는 경성과 더불어 서로 돕는 형세가 되어 만에 하나 적병이 일면 에 와 핍박하더라도 감히 산후를 포위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선조는 '삼각산 밑에 중흥동이 있는데, 고려 때 현종이 피난한 곳이다. 그 굴곡의 형세는 알 수 없으나 만일 그 형세가 극히 좋다면 그곳은 경도京都에 가까우니 산성을 수축하고 그 가운데 곡식을 저장하며 수장守將 한 사람을 정하여 인민을 소직하게 하고, 그 앞을 개간하여 보장保障을 만들게 하라. 그러면 훗날 백성을 머물려 피난하게 할 수도 있고,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해 지키면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선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북한산성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두 번의 호란을 겪고 난 뒤 숙종대에 이르러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축성하기 시작했다. 북한산성은 애초 계획부터 도성, 북한산성, 그리고 탕춘대성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군량 대부분을 저장하는 평창에 있었던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의 연결 없이는 산성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북한산성 행궁은 원체 험악한 지형으로 장시간 머물 경우, 자체적으로 식량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성에서 유사시 왕이 피난 가는 코스는 평소에 굳게 닫혀있던 경복궁 북문 신무문神武門과 도성 북문 숙청문肅淸門(나중에 숙정문으로 개명)을 통해 탕춘대성을 거쳐 북한산성으로 가는 길을 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임진왜란과 같이 도성이 적에게 점령당했을 경우 왕궁(경복궁)을 버리고 북한산의 험난한 능선을 넘어가야 했고, 능선 위에 쌓은 북한산성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과 일전을 벌이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4) 북한산 장군봉은 최영 장군이 주둔했다고 해서 명명됐다고 전함

따라서 북한산성의 정문은 진관사 인근에 있는 대서문이었다. 승군을 통솔할 중심 사찰은 대서문을 지나 얼마 안 있어 나타나는 중흥사이다. 그리고 중흥사 바로 위(동남)쪽에 왕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행궁이 있다. 몇 년 전까지 터로만 남아있었고, 현재는 복원 중이다.



〈그림 1-6〉 북한산성 행궁

북한산성 행궁은 1910년대 초반까지 있었지만 이후 큰 홍수로 사라져 버렸다.
출처: 북한산성 사료총서

정문 대서문과 중흥사는 진관사와 별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진관사에 수시로 행차하면서 주변 지형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며, 왕이 있는 절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위장이나 방어할 수 있는 좋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관사나 인근 삼천사로 유사시 왕이 위장대피 하기 좋은 사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행궁을 관리하는 사찰인 중흥사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초토화돼 폐사가 된 반면 인근 진관사와 삼천사는 중건과 복원을 반복하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사실에서 증명될 수 있다.

북한산성에 대한 기록은 팔도승군도총섭을 지낸 승려 성능이 30년 기억을 더듬어 정리한 <북한지>에 담겨 있다. 팔도승군도총섭은 북한산성 안 북한 치영(縑營)의 본영인 중흥사에 주석하여 승군을 지휘, 감독하며 북한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 관리자를 말한다. 성능이 쓴 <북한지>는 북한산성에 관한 유일한 역사지리지이다.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 제3권 '기유북한(記遊北漢)'에서 그는 북한산에서 이틀 밤을 묵고 열한 개 사찰과 암자를 두루 방문하고 기록을 남겼다. 진관사에 대한 기록으로 '서문에서 10리(=4km)쯤 나오면 들에는 밭이 많고 높은 곳은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 있다. 남쪽으로 작은 골짜기를 찾아가니 비로소 숲이 있다. 이 절은 바로 고려의 진관대사가 거쳐하던 곳이다. 큰 돌기둥 수십 개가 아직도 시내의 왼쪽에 나란히 있다. 숲과 돌의 아름다움은 비록 내산(內山)만 못하지만 불화(佛畵)의 영이(靈異)함 만은 못지않았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따라서 북한산은, 특히 북한산성은 한양 도성에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고, 진관사는 행궁 외부, 즉 산성 바깥에 있는 차선의 대피처라고 봐도 별 무리 없을 듯하다. 그만큼 가치 있는 장소였다.

3. 진관동과 진관사는 조선 왕실에서 어떤 위치였나?

3.1. 진관동과 진관사의 유래와 가치

'진관'이란 지명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고려 8대 왕 현종이 왕자 시절 그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살펴 준 신혈사 진관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진관사를 창건하면서 주변 일대가 진관이란 지명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그 시기가 서기 1000년 즈음이다. 일부에서는 원래 있었던 신혈사를 진관사로 명칭을 바꿔 중건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문헌과 고지도에 신혈사와 진관사가 공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로 다른 사찰이었던 것으로 확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신혈사도 양주 이말산 남동쪽 신혈리라는 지명유래가 된 점을 고려하면 전혀 다른 사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신혈리는 신비한 바위 구멍을 가진 절이 있는 동네 정도로 해석된다. 이말산 남동쪽이라는 기록을 볼 때 진관사와 비슷한 방향으로 진관사와 신혈사는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사찰로 보인다.



〈그림 1-7〉 의상봉에서 내려다 본 진관사 일대

의상봉 능선에서 진관동을 내려다보면 삼천사계곡 아래로 이말산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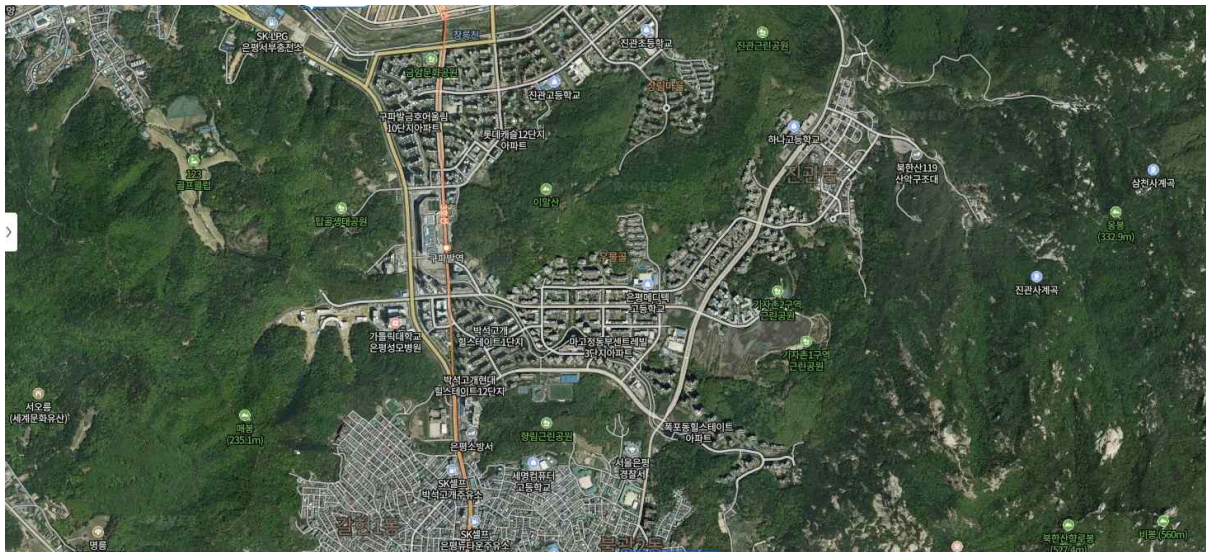
①이말산 ②은평한옥마을 ③진관사 ④삼천사 ⑤창룡천 ⑥의상능선 ⑦응봉능선

진관사에서 시작한 수록재는 문헌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조선 초기 성종의 명을 받아 서거정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인 <동문선> 권근편에 '진관사수록사조성기'가 나온다. 권근(1352~1409)은 여말선초의 문신·학자로 조선 초기 왕권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략)수록무차평등水陸無遮平等의 모임은 더욱 그 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내신 이득분과 중 신하 조선祖禪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조선 태종)가 국가를 맡게 됨은 오직 조종祖宗의 적선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상의 덕을 보답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신하와 백성 중 혹은 국사에 죽고 혹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제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얻어져도 구원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내가 매우 근심한다. 옛절에도 수록도량을 마련하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개설하여 조종의 명복을 빌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하니, 너희들은 가서 합당한 곳을 찾아보게 하라"고 했다. 사흘째 되는 정축일에 이득분 등이 서운관의 신하 상충·양달·중 지상 등과 함께 장소를 찾아 삼각산에서부터

도봉산까지 둘러보고 복명하여 말하기를 “여러 절 중에 진관사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고 하니, 여기서 상이 명령하여 도량을 이 절에 설치하게 하였다. (중략) 모두 59칸인데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제도에 맞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 불우편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된다. 결론적으로 왕이 참관하고 국가가 주관하는 큰 행사인 국행수륙재를 담당할 도읍 근교 사찰 중에 최적합지로 진관사를 꼽은 것이다.



〈그림 1-8〉 위성지도로 본 진관동 일대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

입지적 조건으로 북한산의 중요성부분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조선 중기 문신 권문해는 <운옥韻玉>에서 '서쪽에 공암孔巖이 있고 단서석벽丹書石壁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한다. 공암은 구멍이 있는 암벽이고, 단서석벽은 붉은 책과 같은 바위를 가리킨다. 이로 미뤄 볼 때 공암은 '신혈'과 관련 있어 보이고, 단서석벽은 지금 삼천사 미륵마애석불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권문해는 공암을 백악산 남쪽이나 연서역 두 곳 모두 서쪽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단서를 인왕동仁王洞 돌 위에서 얻었다고 전한다. 인왕산은 지금도 산 전체가 화강암 통바위 같이 온갖 형상을 보여준다. 결국 인왕산 남쪽을 도읍으로 정했으니 단서석벽의 남은 한 곳인 진관사 또는 삼천사 주변은 조선 초기부터 자연히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거나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현종은 즉위 이듬해 진관대사의 법명을 따서 진관사라 명명하고, 1012년 창건 불사로 완공했다. 당시 대웅전이 사방 10칸, 동서 승당이 각 30칸, 청풍당과 명월요가 각 10칸, 제운루, 정재소, 일주문, 해탈문, 종각 창고 등 상당한 규모로 건립했다고 전한다. 완공 그 해에 낙경법회를 개최한 후 진관대사를 국사로 책봉했다. 1090년 10월에 선종이 진관사에 순행하여 오백나한제를 성대하게 봉행했다. 1099년 10월에는 숙종이 진관사에 친행했고, 1110년 10월에는 예종이 진관사에 순행했다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다. 모두 10월에 친행했다는 사실로 봐서, 오백나한제를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림 1-9〉 진관사 수륙재 의식절차 안내

고려시대에 왕실의 특별한 관리를 받은 데 이어 조선시대에는 도읍의 차선지로서 평가를 받은 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번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 진관사의 국행수륙재는 거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는 두 차례 이상 순행하며 태조 6년(1397) 59칸에 이르는 수륙사 건물을 건립하고 매년 2월 15일 수륙재를 거행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진관사는 1414년 말에 개성의 관음굴, 삼척의 삼화사, 거제도의 견암사와 더불어 한반도 4대 수륙

사찰로 향례화됐다. 이후 진관사는 매년 수륙재와 함께 조선 왕실의 제를 올리는 역할을 겸하게까지 했다. 수륙재는 이미 언급한 대로 조선을 건국하면서 죽어간 고려왕실의 영혼을 기리는 목적과 더불어 조선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동시에 기원하는 행사였다. 다시 말해 내면적으로 불안정한 국민정서의 동요를 막는 동시에 조선왕실의 안정을 꾀할 목적도 겸하고 있었다. 국가의 원찰이었던 양주 회암사는 불교의 수법도량(修法道場)으로, 진관사는 수륙도량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국가에서 절에 노비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승려 개인들에게까지 노비를 거느리도록 했다.

세종은 태종 내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재를 올린 이후로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각종 재를 봉행하는 사찰로 국가에서 정례화 했다. 이게 국행수륙재의 시초가 아닌가 판단된다. 1424년(세종 6)에 불교가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되면서 진관사는 국가에서 이전의 토지 60결의 사찰에서 190결로 증액시켜주어 경제적으로도 대찰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른다. 이어 사가독서당을 건립하면서 왕실과 사대부, 그리고 서민들까지 애용하는 전 국민의 사찰로 확대되어 갔다. 문종 때는 중창불사까지 이뤄졌다. 승군 300명, 기와공이 수백 명 참가했던 공사 규모로 봐서 엄청난 사찰로 거듭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공사에 참여했던 승려 218명이 대선사로 제수받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서 진관사는 날로 쇠퇴를 거듭하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서학과 실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3.2. 국행수륙재를 왜 진관사에서 지냈나?

(국행)수륙재는 육지와 바다에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달래고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무제(502~549년)에 의해 시작됐다고 전한다. 불심이 두터운 양 무제는 유주무주(有住無住)의 고히들을 널리 구제하는 것이 제일가는 공덕이라 생각하고, 수륙재의문을 짓게 한 뒤 천감 4년(505)에 강소성 금산사에서 재를 베푼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고려시대 971년(광종 22) 수원 갈양사에서 처음 시행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방향을 중요시했다. 한양 도성 사대문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

그 의미를 부여했다. 동쪽은 인이 흥하라는 흥인지문. 여기서 인은 오상五常의 인의예지신 仁義禮智信의 하나로서 또한 동쪽을 가리킨다. 서쪽은 돈의문, 남쪽은 승례문, 북쪽은 숙정문(애초에는 숙청문)이라 했다. 경복궁 사대문도 동쪽은 건춘문, 서쪽은 영추문, 남쪽은 광화문, 북쪽은 신무문이라 각각 명명했다. 그 의미도 방향에 따라 다르다. 동쪽은 봄이 오고, 해가 뜨는 방향이었고, 서쪽은 해가 지면서 불교의 서방 극락정토를 의미했다. 서방 극락정토는 죽어서 가는 최고의 경지를 말한다. 또한, 북쪽은 사자死者의 땅으로 여겨졌다. 진관사는 경복궁의 북서쪽에 매우 절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도성의 정북쪽은 북한산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틀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비의 단서석벽이 있는 도읍지의 차선지, 서방 극락정토, 사자의 땅이라는 여러 특징을 골고루 지닌 북서쪽이다. 따라서 왕실의 북서쪽에 있는 진관사에서 극락정토 왕생과 사자의 땅이라 불리는 북망산을 두루 아우르는 국행수륙재를 개최한 것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그림 1-10〉 조선시대 국행수륙재 감로도의 모습

출처: 동국대박물관

진관사에서 국행수륙재를 지낸 또 다른 근거로 박석고개(薄石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석고개는 지금 갈현동과 불광동을 양편에 끼고 구파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그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전한다. 첫째, 고개 근처에 궁실의 전답이 많았기 때문에 궁전(宮田)에 오가는 고관대작들이 땅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을 깔았던 것이 그대로 박혀 박석고개가 됐다고 한다. 둘째, 고개가 서오릉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 위치하여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 지맥이 깎이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박석을 일부러 깔았던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셋째, 고갯길은 중국 사신의 내왕로였는데 고갯길 자체가 울창한 숲 언덕이어서 사계절 안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자 조정에서 이 고개에 길을 닦고 상석(床石) 크기의 돌을 깔았기 때문에 박석고개가 됐다는 설도 있다. 몇 가지 설 모두 조선왕실과 관련돼 있다. 왕실과 관련된 사찰을 결코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관사는 조선왕실에서 지원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찰로 보인다. 국행수륙재도 그 일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서석벽이라는 특이한 명당터로 조선의 도읍후보지로 거론될 정도의 터전이었던 진관사 주변 지역, 조선왕실에서는 이 지역을 왕실의 능(서오릉)으로 사용했고, 또한 이곳에 있었던 왕실의 전답을 관리할 기관이나 사찰이 필요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기능을 진관사에서 했고, 유사시에는 북한산성의 행궁이나 중흥사를 대신하는 대피처로서 기능을 전략적으로 세웠을 것이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주변 지명과 유적 내지는 흔적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결국 진관사 수륙재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선 초기 가장 성행했던 수륙재를 가장 크게 치렀던 중심 사찰이었다. 수백 년 동안 국행수륙재를 주도하면서 왕실의 지원을 받은 왕실원찰에 가까웠다. 둘째, 진관사 수륙사는 불교의례를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수륙재를 위한 단독 건물로 최대의 도량이었다. 수륙재를 국가 주도로 운영한 사찰은 진관사뿐이었다. 셋째, 국행수륙재뿐만 아니라 왕실의 재를 대부분 거행한 사찰로서 기능했다. 넷째, 표면적 이유로는 고려 왕실과 무주고혼들의 명복을 비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조선 왕실의 안정과 국민들의 평안을 위한 정치적 목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진관사는 조선시대 국행수륙재를 개최할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한때 수륙재를 지금 충북 영동에 있는 영국사(寧國寺)로 옮기자는

일부 상소(세종 31년)도 볼 수 있지만 소수 의견으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사장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진관사는 도읍 근처의 4대 사찰 중에 조선왕실의 여러 행사를 대표적으로 주도했던 기관으로 남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3.3. 진관동과 진관사 주변에 무엇이 있었나?

한양 도성에서 개성이나 의주로 가려면 반드시 진관동을 지나야 했다. 또한 중국으로 가는 항로의 길목인 강화로 가기 위해서도 진관동을 거친다. 어떻게 보면 한양에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선 진관동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로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10대 대로 중에 서북대로(西路)는 진관동을 거쳐 의주까지 가는 길이었다.

대로에는 역驛이 있고, 주요 역에는 객관客館을 두어 그곳을 통과하는 사신이나 관원들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객관이 사신과 관원들이 머무는 곳이라면, 일반인이 머무는 시설은 원院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흥제원은 유명했으며, 흥제원 다음으로 덕수천(지금 창릉천) 남안에 덕수원이 있었으나 조선 후기 때 없어졌고, 그를 대신해서 금암점黔巖店이 여행객들의 쉼터가 됐다.

주요 역으로는 연서역 혹은 영서역이 있었다. 역은 중앙 정부와 지방 간의 효율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육로에 설치한 교통·통신의 일종으로 역참이라고도 했다. 영서역은 고려시대에는 청교도의 역 가운데 양주(남경) 지역에 있으면서 파주·교하·개경 등지를 연결했고, 조선시대에는 양주 치소에서 서쪽 60리(지금 불광동 일대)에 있으면서 영서도찰방 관할의 중심역으로서 기능을 했다. 따라서 역 옆에 객관과 원이 있어 관리나 일반인들이 이용했다.

길을 따라서 또한 관에서 행정명령을 전달하는 파발이 있었다. 파발은 말을 타고 명령을 전하는 기발騎撥과 군졸이 걸어서 전하는 보발步撥 두 가지로 나뉜다.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서로에는 기발을 두었다. 기발이 있는 곳을 참站이라 부른다. 참은 파발이 한 번 쉬어가는 구간이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묵어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 첫 번째 참이 창릉천을 건너는 나루에 있던 금암참이었다. 이 금암참이 서북제일로의 실질적인 출발지점이었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목이었다. 지금은 구파발이란 지명이 과거의 자취를 전한다. 또한 정조

5년(1781)에 정조가 숙종의 명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영조를 회상하면서 친히 글을 짓고 글씨를 써서 세운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가 이곳에 남아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서오릉도 고양시에 있지만 사실상 진관동 권역에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조선시대 왕릉은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학가들에 의해 최고의 명당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오릉은 좋은 기가 흠어지지 않도록 창릉천을 눈앞에 두고 이말산을 경계로 해서 자리 잡은 명당이다.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천이란 지명도 서오릉에서 유래했다.

서오릉에는 조선 왕실의 창릉·익릉·명릉·경릉·홍릉 등 5기의 왕릉이 있어 명명됐다. 구리시의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실의 족분군(族墳群)이다. 세조는 1457년(세조 3) 원자였던 장璋(덕종으로 추존)이 죽자 길지를 물색하게 했다. 이 때 지금의 서오릉터가 순산순수(順山順水)의 길지로 간택되어 세조가 직접 답사한 뒤 경릉(敬陵)터로 정한 뒤부터 조선 왕족의 능으로 자리 잡게 됐다. 앞서 언급했던 차선의 도읍지로 거론됐던 단서석벽의 영향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덕종의 동생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창릉(昌陵),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 김씨의 익릉(翼陵),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쌍릉과 제2 계비 인원왕후 김씨의 능을 합쳐 부르는 명릉(明陵), 영조의 비 정성왕후 서씨의 홍릉(弘陵)이 들어서면서 서오릉이라 불렀다.

서오릉엔 그 밖에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와 공빈 윤씨가 묻힌 순창원이 있고, 영조의 후궁이며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묘를 옮겨온 수경원,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의 대빈묘가 있다. 서오릉은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서오릉 북쪽을 감싸며 흐르는 북한산에서 발원한 하천 이름을 원래 덕수천이라 불렀으나 서오릉의 하나인 창릉이 서오릉의 제일 외곽지인 창릉천에 가깝게 위치하고, 또한 가장 먼저 조성된 왕릉이라 창릉천이라 명명했다. 덕수천은 흥제원 다음에 있던 덕수원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창릉천보다는 덕수천이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덕수원이 없어지면서 덕수천보다는 창릉천으로 굳어지게 됐다.

이 외에도 서오릉 인근에는 고려시대 공양왕릉과 최영 장군의 묘, 조선시대 왕릉인 서삼릉 등도 있다.

4. 진관동에 있는 은평한옥마을

4.1. 은평한옥마을의 입지적 조건

은평한옥마을은 진관사 앞 널찍한 평지에 조성돼 있다. 한국 최고의 명산 북한산의 서쪽 자락에 자리 잡은 그 입지적 조건은 이미 진관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진관사가 북한산 능선 사이 좁은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면 은평한옥마을은 계곡이 끝나는 지점부터 평야가 시작돼서 남쪽으로 한강까지 계속된다. 그 평야의 중심에 조선시대 도읍지 후보지로 검토됐던 지금의 연신내가 있다. 동서북 세 방향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막고 있다. 말 그대로 산수를 갖춘 천부의 땅이면서 유사시에는 천혜의 요새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지형인 것이다. 북쪽은 고대 중국 도읍인 낙양과 서안에 있었던 북망산 같은 '조선의 북망산' 이말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말산은 사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만한 입지적 조건이 어디 있겠는가.



〈그림 1-12〉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은평한옥마을

사실 동양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자와 생자의 공간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사람 몸을 받을 때까지 정처 없이 떠돈다는 동양의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다. 따라서 한쪽 공간을 사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사자와 생자가 불가분 공생관계라는 의미다. 이것은 우리가 사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생사불이(生死不二)' 해탈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불교의 윤회설과 같이 사자는 생자로, 생자는 사자로 언제든지 순환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을 지닌다.

다만 전통적 가치로 볼 때 방향성에 있어서는 은평한옥마을은 조금 미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에 있어서 각각의 방향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남향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경복궁만 하더라도 남쪽 광화문은 왕의 가치가 널리 남쪽으로 빛을 발하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 메시지를 전한다. 일반인이 거주하는 집도 남향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현대 들어서 그 방향성은 조금 쇠퇴하고 있다. 어느 방향이든지 살기 편하고, 본인의 취향이 맞는 장소면 상관없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평한옥마을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두루 갖춘 명당자리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로는 조선의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현대적 가치로는 산수를 겸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풍수학자 최창조 선생의 평가대로 "내 마음이 편하면 바로 그곳이 명당이다."라고 했듯이 은평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기 너무 좋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은평한옥마을은 이제 서서히 서울 최고의 힐링타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4.2. 은평한옥마을의 현대적 의미와 미래적 가치

한옥은 한국의 전통 주거 양식이자 K-건축이다. 한옥의 우수성과 신비성은 K-culture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이미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K-culture는 게임과 영화·드라마, 음식, 음악, 그리고 한글까지 세계인들이 배우고 즐기는 주요 문화가 됐다. 나아가 'Made in Korea'라는 한국제품까지 인기를 끌어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해서는 한옥의 편안함과 아늑함, 그리고 그 운치에 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은평한옥마을을 방문하고는 감탄을 금치 못한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전파되기도 했다. 이른바 '한옥 열풍시대'가 도래했다. 한옥은 외국인들이 반할 만큼 한옥 그 자체의 과학적 구조와 운치를 가졌는데, 종로 서촌과 북촌 한옥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조성된 은평한옥마을은 이에 덧붙여 산수까지 즐길 수 있는 입지적 조건에 조성됐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뒤(동쪽)로는 북한산, 앞으로는 이말산과 그 너머 서오릉, 북으로는 창릉천, 남으로는 한강까지 온통 산수뿐이다. 산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장소에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은평한옥마을은 지금 단독형 한옥 141곳, 점포 등 근린생활형 시설 14곳, 주차장 등으로 완공됐다. 주말에 은평한옥마을에 가보면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빵집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은 이미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 직원들의 불친절을 하소연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지로 변했다. 그 곳의 빌딩 맨 위층에서 산수와 어울린 은평한옥마을의 전경을 렌즈에 담은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평한옥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광지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방안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체적 실천방안과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서 은평한옥마을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점차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려고 한다. 조용히 쉬는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도심 속에서 나를 찾기보다 산수가 어울린 공간이 더욱 좋을 것이다. 지금 양평이 인기를 끄는 현상과 비슷하다. 양평이나 서울 주변은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취약점이 있는 반면, 은평한옥마을은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다. 산수와 함께 있으면서 출퇴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편의성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 다시 말해 도심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나만의 힐링공간을 가진다는 장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둘째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은평한옥마을이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디지털화 되어 있다. 모든 걸 컴퓨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 편의성은 인간을 더욱 비인간화로 만들어 간다. 인간이 현대화되면서 한편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아날로그적 본성이다. 도심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전원생활을 꿈꾸고, 실제 귀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날로그적 본성을 과감히 실천하는 부류라고 볼 수 있다. 은평한옥마을은 풍수적 명당이라는 전통적 가치와 한옥의 복원이라는 현대적 가치가 적절히 융합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공간이다. 한옥은 과학적 구조와 운치는 인정하지만 편의성 면에서 현대의 주거공간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평한옥마을의 한옥은 현대적 한옥으로 전통 한옥의 단점인 편의성을 과감히 시정했다는 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복합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은평한옥마을을 21세기형 주거공간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편의성을 해결한 한옥은 이미 그 과학적 구조와 운치성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21세기형 완벽한 주거공간으로 널리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K-culture의 확산과 더불어 K-건축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은평한옥마을인 것이다.

전설은 신화를 낳고, 신화는 역사를 생성시키며, 역사는 미래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를 전통은 현재적 가치를 확산시키며, 현재적 가치는 미래적 잠재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해석해본다. 은평한옥마을이 가진 전통과 현재적 가치가 바로 이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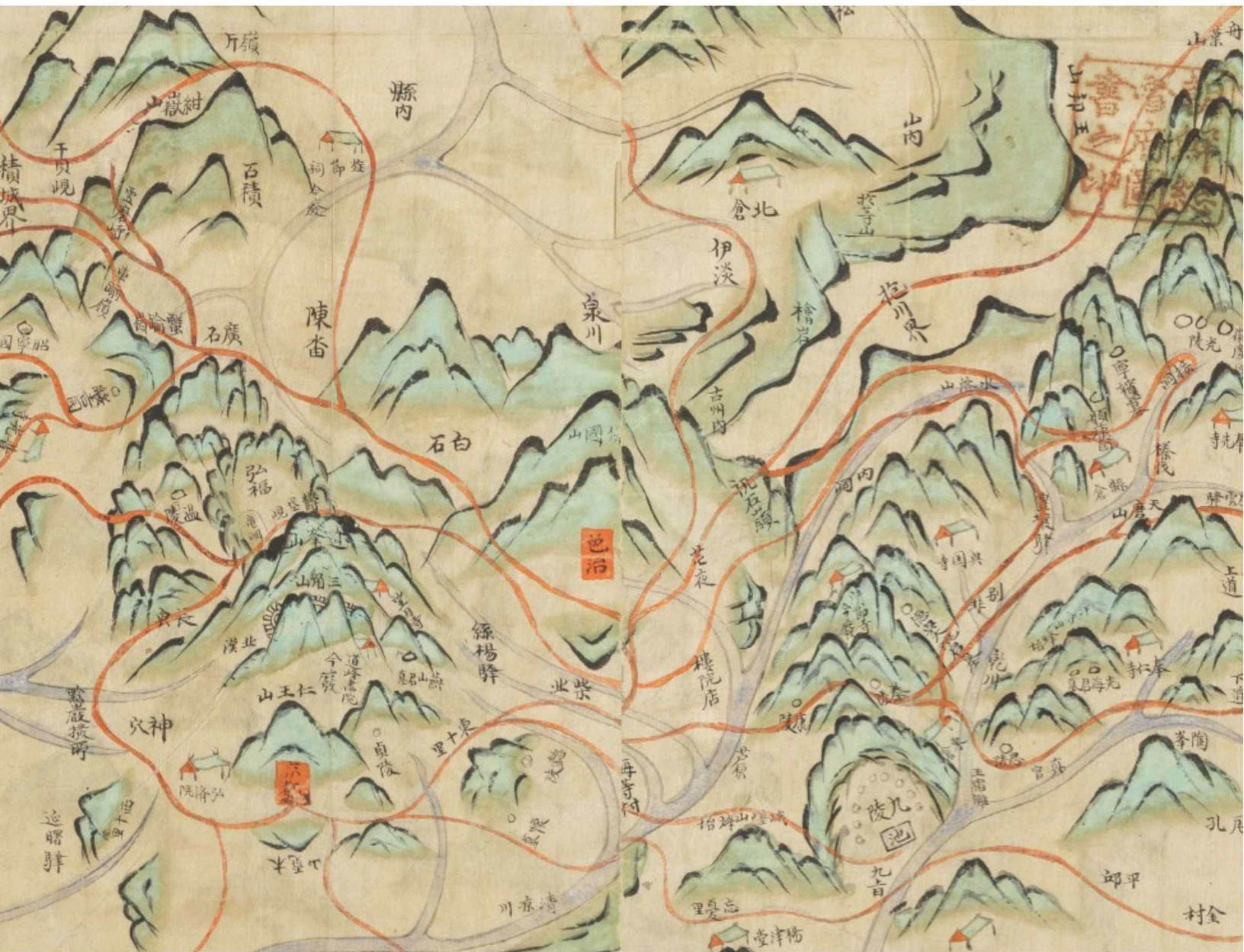
5. 참고문헌

■ 논문, 보고서, 저서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7, 북한산성 사료총서 제1권-고지도·옛사진 모음집, 경기M&A.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7, 북한산성 사료총서 제2권-다시 읽는 북한지, 경기M&A.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7, 북한산성 사료총서 제3권-북한산성 유산기, 경기M&A.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7, 북한산성 사료총서 제4권-북한산성 인물총서, 경기M&A.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7, 북한산성 사료총서 제5권-풍천유향, 경기M&A.
김원중 옮김, 2013,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서울.
김응철, 2009, 진관사 수록재의 역사와 성격. 한국미술사연구소, 서울.
김창균, 2009, 진관사 영산회 괘불화. 한국미술사연구소, 서울.
문명대, 2009, 진관사의 수록재의 역사와 성격. 한국미술사연구소, 서울.
박정원, 2021년 11월호, 월간<山> 조선뉴스프레스, 서울.
박정원, 2018년 2월호. 월간<山> 조선뉴스프레스,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1, 서울 동의 역사, 디자인공방, 서울.
윤은희, 2009, 진관사 수록재의 의식절차, 한국미술사연구소, 서울.
이강근, 2009, 진관사의 수록사, 한국미술사연구소, 서울.
이병주 역주, 1996.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서울.

■ 인터넷 자료

- 한국고전종합DB 허목 기언집.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고려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고려사절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삼국사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삼국유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02

은평한옥마을의 풍수적 의미와 분석

2

은평한옥마을의 풍수적 의미와 분석

조인철,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1. 은평한옥마을의 풍수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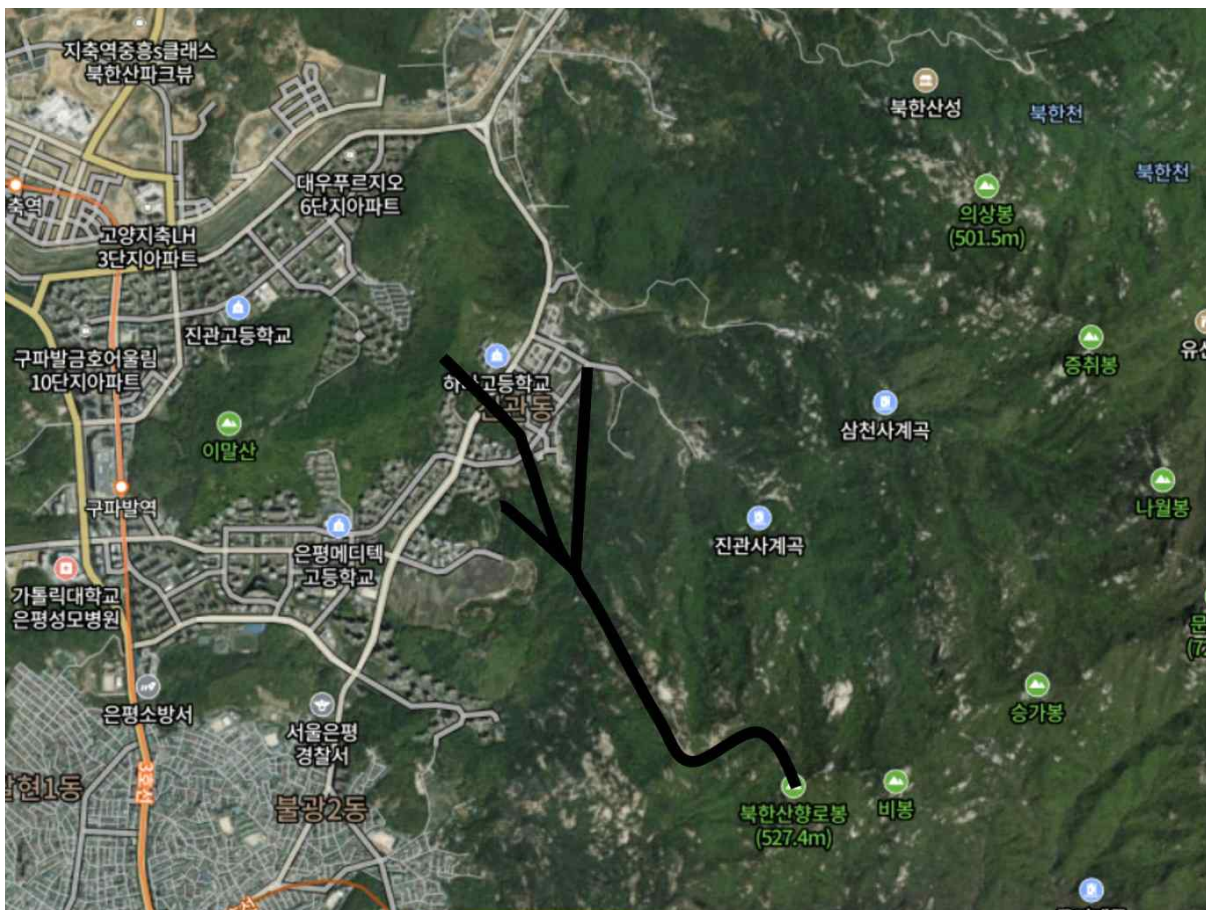
1.1. 이론적 배경

특정한 터나 지역에 대한 풍수적 분석이나 해석을 할 때는 풍수고전에 등장하는 풍수이론을 근거로 한다. 풍수이론은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를 지리오과(地理五科)라고 한다. 지리오과의 세부적 내용은 용론(龍論), 혈론(穴論), 사론(砂論), 수론(水論), 향론(向論)으로 요약이 된다.

1.2. 용론적 특징

용론(龍論)은 산줄기를 상상의 동물인 용(龍)에 비유하면서 전개하는 풍수이론으로 특정한 터의 뒤쪽으로 연결된 산줄기의 성격을 따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의 산줄

기를 따질 때, 광역의 범위에서 본다면 백두산에서부터 논하여야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넓게 살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한옥마을과 직접 접하고 있는 좁은 영역에서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은평한옥마을의 주룡(主龍) 즉 주된 산줄기는 북한산 향로봉(香爐峯, 527.4m)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한옥지구의 주룡은 북서쪽 '발바닥 바위'로 향하여 내려오고 다시 북서쪽으로 내려와서 삼화사(연서로 48길)위에서 두 줄기로 갈라진다. 이들 중 남측의 줄기는 기자촌[제각말 푸르지오5-1단지]과 화의군 이영의 묘터를 이룬다. 이 줄기는 더 나아가서 연서로 48길을 가로 지르는 1생태터널을 건너서 제각말 푸르지오 5-2단지와 붓다마을[인덕재가 노인복지센터]을 남북으로 두고 그 사이를 지나 연서로와 교차하는 2생태터널을 또 한 번 통과하여 이말산으로 마무리된다. 반면, 북측의 줄기는 연서로 48길과 진관길이 T자형 삼거리로 교차하는 지점인 '마음의 정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림 2-1〉 은평한옥마을의 산줄기도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에 저자가 작도



〈그림 2-2〉 은평한옥마을의 산줄기 개념도

한옥마을의 주룡에 대해서 북한산의 여러 산줄기 중에서 주맥(主脈)과 지맥(支脈)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북한산의 주맥이라기 보다는 지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산의 주맥이 북악산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한옥마을로 내려오는 이 주룡은 북한산의 사방으로 뻗어있는 여러 지맥 중의 하나인 것이다. 북한산과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주맥처럼 한 나라의 수도를 뒷받침하는 정도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맥은 하나의 구(區)를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산줄기로서 충분한 생기강도(生氣強度)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론에서 산줄기의 생기강도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 우선, 지각(支脚)인지 혈맥(穴脈)인지의 여부, 그 다음 위이기복(逶迤起伏, 좌우상하로 움직임)이 절도 있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본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용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보는데, 그것이 바로 생룡(生龍), 사룡(死龍), 살룡(殺龍)이다.



〈그림 2-3〉 생룡의 선형



〈그림 2-4〉 살룡의 선형



〈그림 2-5〉 사룡의 선형

은평한옥마을의 주룡은 선형(線形)으로 표현될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한옥마을의 주룡은 북한산 향로봉에서 시작된다. 이 주룡의 시작 부분에서의 선형은 직선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직선적 형태는 사룡(死龍)이거나 살룡(殺龍)으로 분류되는데, 사룡은 죽은 지렁이처럼 가늘고 힘이 없는 직선형이다. 살룡은 창이나 칼날처럼 굽고 힘있는 직선형태로 간주된다.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로봉에서 내려온 직선은 사룡보다는 살룡에 가까운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쪽 뺏어서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직각형태로 두 번 접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풍수에서 생기가 너무 강하면 살기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향로봉에서 발원한 살기에 가까운 강력한 생기의 산줄기가 직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굴곡하면서 다소 순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발바닥 바위'를 거치면서 좀 더 순화되기 시작하여 기자촌에 이르러 위이기복(逶迤起伏)의 곡선형을 이루며 완전히 부드러운 생룡으로 변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풍수에서는 이를 두고 박환(剝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의 거친 부분이 박환을 통해서 순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박환은 직선형이 곡선형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위가 드러나는 능선이 흙으로 덮인 능선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산줄기의 시작점에서 마무리되는 지점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을 보고 풍수의 용론에 근거하여 그것이 생룡인지, 사룡인지, 살룡인지를 구분해보았다. 북한산 향로봉에서 이말산까지 연결된 이 주룡은 초기에 강력한 기운을 띤 살룡이었다가 점차 내려오면서 생룡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주룡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룡이거나 사룡이었다면, 그것은 혈을 맺을 수 있는 용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용이 진행해나가는 데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다리 또는 받침대 역할만 하는 지각(支脚)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론에 근거하여 한옥마을의 뒤쪽 산줄기를 평가한다면, 북한산의 주맥과 지맥 중에서 지맥(支脈)하나이며 생룡, 사룡, 살룡 중에서 생룡(生龍)이라고 할 수 있다.

1.3. 혈론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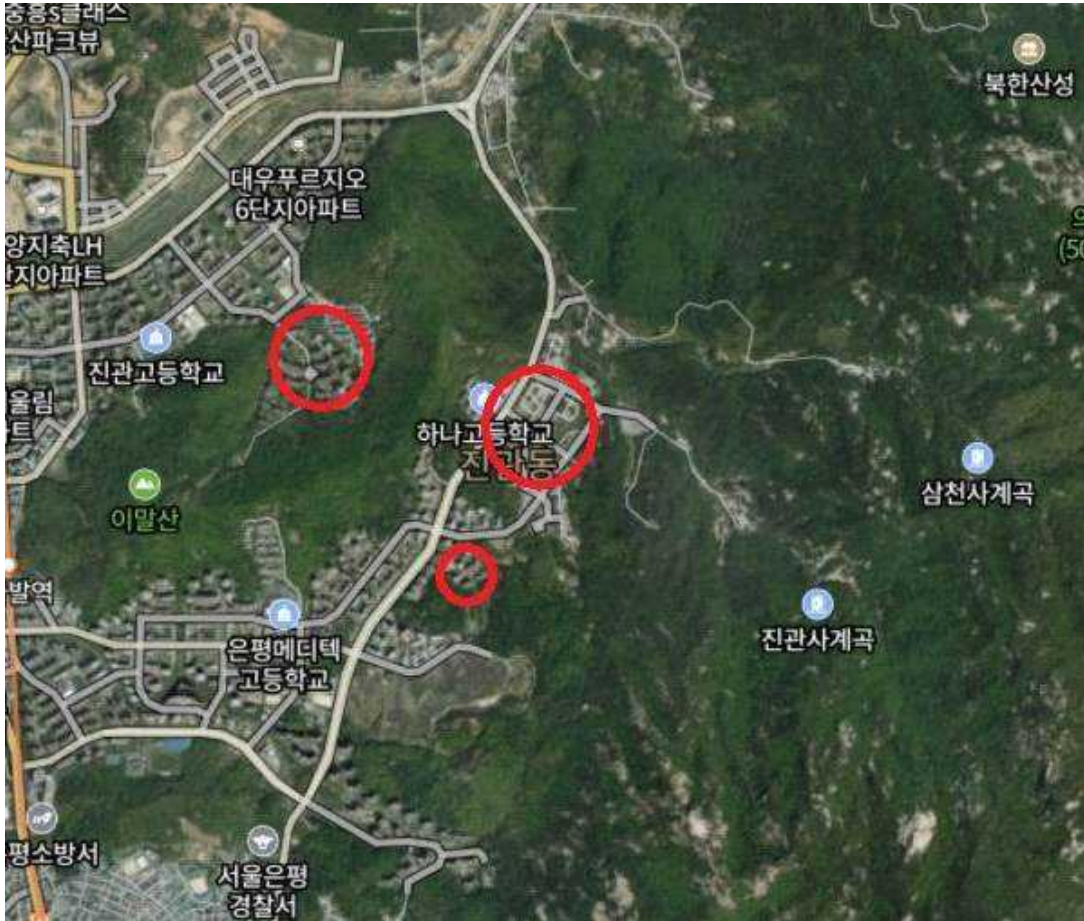
혈론(穴論)은 특정한 자리자체에 대한 형(形)을 보고 길흉화복을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론이 주로 세(勢)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라면 혈론은 주로 형(形)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세혈형(龍勢穴形)이라고 하여 형세론의 중심이론이 바로 용혈론이 된다.

물론 여타의 풍수고전에서 혈형(穴形)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풍수고전 『인자수지(人子須知)』⁶⁾에 의거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풍수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 4가지의 혈형이 바로 와형(窩形), 검형(鉗形), 유형(乳形), 돌형(突形)인 것이다. 와형은 제비집 모양으로 주변의 산줄기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다. 검형은 전면은 험하니 뚫려있고, 후면과 좌우가 둘러싸인 지형을 말한다. 유형은 후면의 산줄기가 높고, 좌우의 산줄기와는 높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지형을 말한다. 돌형은 전후좌우의 산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이 솟아있는 지형이다.

한옥마을은 주변 산줄기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지형으로 제비집 모양을 띠고 있어서 소위 와혈(窩穴)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말산과 기자촌도 모두 와혈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와혈의 지형은 대체로 주변보다 낮아서 장풍(藏風)에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변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득수(得水)에는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이기에 매우 어려운 지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물을 매우 귀하게 다루어야 하는 혈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평한옥마을은 와혈로서 북측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뒷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남쪽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풍의 측면에서도 그리 효과적인 터라고 할 수 없는 국세(局勢)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 『중간인자수지자효지리학통종(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한고조19-59.



〈그림 2-6〉 은평한옥마을의 혈형-와혈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에 저자가 작도

1.4. 사론적 특징

사론(砂論)은 전후좌우의 사신사(四神砂)와 산봉우리를 평가하는 이론이다. 은평한옥마을의 사신사를 평가하기 전에 전후좌우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세의 흐름, 지세향(地勢向)의 관점에서 보면, 은평한옥마을의 전면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래의 <그림 2-7>에서처럼 북동쪽이 전면(前面)이 되고 후면은 남서쪽이다. 이 후면의 봉우리가 주산(主山)으로 한옥마을의 입장에서 볼 때 주룡이 끝나는 부분이다. 주산은 연서로와 연서로 28길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생태 브릿지 사이의 작은 봉우리(97.4m)이다. 후면의 이 작은 봉우리는 <그림 2-7>에서 보는 것처럼 한옥마을의 주산(主山)이면서 후현무(後玄武)라고 할 수 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사신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후면의 나지막한 봉우리가 후현무가 되고, 이말산의 좌청룡에 비해서 북한산 본줄기의 우백호가 강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옥마을은 <그림 2-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백호가 두 겹 세 겹으로 겹겹이 에워싸며 다가오고 있는 국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백호 중의 3번째 것이 앞으로 에워싸며 전주작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말산의 청룡이 등을 보이며 돌아앉아 있는 반면에 우백호는 겹겹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옥마을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사신사의 성격으로 한옥마을의 풍수적 기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후면에 받쳐주는 북한산은 강력하나 그것을 받아서 내려온 결과 주산, 후현무의 세가 너무 미약하니 강력한 조상이 있으나 그 음덕의 혜택을 담을 그릇이 작아서 실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을 의미하는 청룡이 등을 지고, 여성을 의미하는 3겹의 백호가 기세당당하게 다가오니 남성보다는 여성의 권세가 강한 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7> 은평한옥마을의 사신사와 주산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에 저자가 작도

한편, 전면의 안대(案對, 前景) 중에서 주목할 만한 봉우리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안대는 전면에 보이는 안산(案山)과 조산(朝山) 등의 산봉우리를 말하는데, 한옥마을의 북측으로 보이는 산봉우리가 이에 해당한다. 한옥마을의 전면(북동쪽)에는 북한산의 북서쪽의 능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래 그림(그림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효봉(元曉峰, 510.2m) - 의상봉(501.5m) - 금봉(407.5m, 가사당암문의 서쪽으로 보이는 봉우리) - 용출봉(571m) - 용혈봉(581m) - 증취봉(593m) - 응봉(332.9m)이 보인다.

원효봉은 가장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인데, 그 형태를 오행적 성격으로 구분한다면, 격렬한 불꽃모양으로 화성체(火星體)이다. 다음으로 의상봉은 한옥마을에서 볼 때, 약간 뒤로 젖혀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봉우리는 둥근 모양의 금성체(金星體)이다. 그 앞으로 둥글게 생긴 아주 예쁜 봉우리가 있다.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라 우선 금봉(金峰)이라고 명명한다. 그다음 화성체이지만 목성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용출봉, 그 옆에 우측으로 작은 봉우리가 용혈봉, 그다음 증취봉이 차례로 보인다. 그 다음 진관사 북측으로 자리 잡은 응봉이 보인다.



〈그림 2-8〉은평한옥마을의 안대상(案對上)의 주요 봉우리

출처: 저자(박정원) 촬영

한옥마을의 안대로서 앞에서 거론한 여러 봉우리 중에서 주목할 만한 봉우리라고 한다면, 단연 '금봉(가칭)과 용출봉'이라고 할 수 있다. 금봉은 금성체(金星體)로서 아주 잘 생긴 봉우리에 속하며, 그 위치 또한 좌의 의상봉과 우측의 용출봉 사이에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어서 소위 일월봉(日月峯)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용상선녀형(龍上仙女形)으로 선녀가 용을 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일월봉은 해 또는 달이 떠오르는 모습의 봉우리로서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득 담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용출봉은 한옥마을에서 보이는 봉우리 중에서 아주 특출한 것으로서 화성체(火星體)이면서 목성체(木星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문필봉(文筆峯)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금봉은 금성체로서 부(富)를 보장하고, 용출봉은 문필봉으로 명예[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봉이 여성이라면, 문필봉은 남성으로서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림 2-9〉 은평한옥마을의 안대상(案對上)의 금봉과 용출봉

출처: 저자 촬영

1.5. 수론적 특징

수론(水論)은 물의 득수(得水), 취수(取水), 거수(去水)의 단계별로 어떠한 것이 길하고 어떠한 것이 흉한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다. 물의 득수는 국(局)의 밖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이는 외득수(外得水)와 국의 안에서 생기는 물을 얻는 내득수(內得水)로 나누어지는데, 한옥마을은 외득수는 없고 내득수로 국한된다. 물을 재물(財物)로 간주하는 풍수에서는 외득수를 외부의 지원, 외부에 나가서 벌어오는 재물이자 공적재화로 보고, 내득수는 하늘이 준 재물, 물려받은 것,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로 본다.

한옥마을의 내득수는 주로 우백호의 산줄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에 의존한다. 즉 북한산의 험준한 산줄기에서 발원한 3개의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의 양이 득수의 양이 된다. 3개의 골짜기에 각기 사찰이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데, 삼화사, 진관사, 삼천사가 이에 해당한다. 주룡과 1우백호 사이의 1골짜기에 삼화사, 1백호와 2백호 사이의 2골짜기에 진관사, 2백호와 3백호 사이의 3골짜기에 삼천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3곳의 사찰은 모두 산사(山寺)에 속하는데, 아무리 산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활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생활에 필수적인 물가에 자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개의 산사는 북한산의 서측사면으로 형성된 각각의 골짜기로부터 득수(得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0〉 은평한옥마을 부근 3개의 골짜기에 위치한 사찰들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에 저자가 작도

한편, 화의군 이영의 묘소와 이말산, 기자촌의 득수하는 물은 한옥마을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에서는 수계(水界)가 달라지면 아무리 인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룡(主龍)의 너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룡의 능선을 따라 형성된 분수령에 의해서 물이 갈라져서 각기 다른 수계(水界)에 속해있는 것이다. 즉, 한옥마을의 물은 모두 모여 '상류의 창릉천'으로 합수되지만, 이러한 시설들의 수계에 속한 물은 아래로 흘러 구파발을 거쳐 '하류의 창릉천'에 합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계가 달라져서 다른 국이 되면 길흉화복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한옥마을의 3개의 물줄기는 삼천교(三川橋)에서 최종 합수(合水)가 이루어지며 한옥마을에서는 이곳이 바로 취수처(取水處)가 된다. 취수처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자연형 호수가 되든가, 인공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국세 밖으로 내보기 전에 일단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풍수에서 수관재물(水管財物), 산관인정(山管人丁)이라고 하여, 산을 인재, 물을 재물(財物)로 보는데, 이러한 취수처가 마땅치 않아서 물을 모아두지 못한다면 재물을 축적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내득수의 물이 그냥 흘러가버리면 하늘이 내려준 천수(天水), 천재(天財)를 '주머니'에 담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취수의 과정은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상류 지역에서 오염된 물을 그냥 급하게 흘러 보내지 않고 취수지(取水池)를 통하여 일종의 자연정화과정을 거친 후 하류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 외에도 하류로 급류가 닥치지 않도록 일단 일정량의 물을 모은 후 서서히 내보낸다는 측면, 재난예방의 관점에서도 취수지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옥마을의 득수, 취수, 거수의 3단계를 놓고 볼 때, 그나마 풍수적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은 거수(去水)의 단계이다. 거수단계에서 길하게 보는 것은 삼천교에서 3개의 물줄기가 크게 합수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물줄기가 크게 꺾어져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우백호의 어깨부분의 큰 바위가 물을 걷어 올리는 수구사(水口砂)로서의 1차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곳을 한옥지구의 1수구처라고 할 수 있겠다. 한옥마을의 2차 수구는 제3백호의 머리부분(그림 2-10에서 5번)인데, 이곳에서 또 큰 바위가 물줄을 향해서 돌출되어 수구를 상당히 좁히는 수구사로서 2차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옥지구는 제3백호의 어깨와 머리가 수구사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

구가 잘 관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창릉천과 합수(그림 2-10에서 6) 하게 됨으로써 한옥지구의 물줄기의 득수, 취수, 거수의 3단계가 완료된다.

한옥지구의 득수는 3개의 골짜기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얻는 것인데, 모두 우측의 북한산의 주맥, 우백호의 급경사를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 취수는 현재 적합한 취수지가 형성되지 못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관재물(水管財物)로 보는 풍수의 수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지금이라도 취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의 물줄기가 합수하는 삼천교 부근(그림 2-10에서 4)에 적절한 취수용의 호수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수는 수구관쇄가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주 길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개별 시설물의 위치와 풍수적 특징

2.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한옥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주산(97.4m)의 봉우리 아래 북측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이 비록 주변을 호위하는 사신사의 위세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는 산봉우리의 아래에 자리하고 있지만, 주산의 줄기 아래에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그나마 마을 전체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은 약한 주산의 기운을 북돋우려는 듯이 매스(MASS, 덩어리)가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을 오르듯이 건물 상층으로 유도하는 외부의 경사도와 건물의 덩어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건물 상층의 카페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전면을 향해서 보면, 사론에서 언급한 금봉과 문필봉이 시야에 들어온다. 부귀(富貴)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풍수적으로 봐도 힐링하기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그림 2-12〉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상층에서 바라본 안대(案對)의 금봉과 용출봉



〈그림 2-13〉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매스(MASS)의 위용

2.2. 화의군 이영의 묘소

화의군 이영의 묘소는 박물관의 뒤쪽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을 나와서 연서로 48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올라가면 생태터널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나자마자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瓚, 1425년~1489년)의 묘소이다. 화의군 이영은 조선 전기의 왕족으로, 세종(世宗)의 여섯째 아들이며 서장자이다. 어머니는 영빈강씨(令嬪 姜氏)이다.

화의군 이영의 묘소는 북서향을 하고 있다. 혈형은 유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묘소를 중심으로 사신사를 보면 청룡이 기자촌(제각말푸르지오5-1단지)이며, 백호가 한옥마을로 넘어가는 생태터널이 있는 줄기가 된다. 해발 97.4m의 한옥마을 주산봉우리는 화의군 묘역의 안산(案山)이 되고, 이말산은 주작이며 조산(朝山)이 된다. 화의군의 묘역도 한옥마을과 마찬가지로 백호가 청룡보다 강세인 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14〉 화의군 이영의 묘 위치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

2.3. 이말산과 여타의 역사유적지

이말산은 한옥마을의 청룡에 해당하지만, 그 모양이 말발굽모양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그 자체로 포곡식(抱谷式) 지형으로 좌청룡과 우백호로 둘러싸인 보국(保局)을 형성하고 있어서 예전에 공동묘지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었던 같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상림마을이라고 불린다. 이말산과 같은 말발굽형의 모양을 보여주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자촌(제각말 푸르지오 5-2단지)이다. 이말산 지역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그 형태는 비슷하다. 이말산과 기자촌 지역은 모두 와형(窩形)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말산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말[馬]과 연관시켜 풍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말산은 말이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 아닐까 싶다. 지형적 모양이 평면적으로 볼 때, 말발굽처럼 생겼고, 입면적으로 볼 때 말안장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이 풍수적으로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본다.

이말산에는 최효원의 묘소가 있다. 최효원(崔孝元, 1638년~ 1672년)은 조선시대 후기의 무신으로 숙빈 최씨의 친정아버지이며 영조의 외할아버지이다. 최효원의 묘는 양말산을 뒤로 하고 남동향으로 북한산의 죽두리봉(370m)을 바라보고 있다. 최효원의 묘는 회룡고조혈(回龍顧祖穴)의 명당으로 불린다. 그 외 여러 민묘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은평구에 속하지는 않지만, 근처에 서오름이 있다. 서오름에는 '창릉천'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는 창릉이 있고, 그 외 홍릉, 경릉, 익릉, 명릉이 자리하고 있다. 서오름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지로 풍수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많은 곳이다. 특히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의 능으로 허우지(虛右地)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허우지는 왕비가 먼저 승하하였을 경우, 차후에 왕이 묻힐 자리로 왕비 옆의 오른쪽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말한다. 영조는 허우지를 만들어두었지만, 사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비워둔 그 허우지로 가지 못하고 구리시의 동구릉에 묻히게 된다. 한편, 명릉은 숙종과 계비가 묻힌 곳이고, 익릉은 그의 원비 인경왕후가 묻힌 곳이다. 숙종은 조선의 여러 왕 중에서도 구비문학대계에서 풍수에 일가견이 있는 왕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능지는 풍수적으로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대상이다.



〈그림 2-15〉 이말산 수치지형도

출처: 국립지리정보원 지형도

3. 글을 마치며

은평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수적 분석을 해보았다. 마을의 산줄기 특성은 살기를 띤 살룡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내려올수록 순화되어 생룡으로 변화되었다. 한옥마을의 주산은 해발 97.4m의 이름 없는 작은 봉우리이다. 한옥마을은 북측사면에 자리한 것으로 혈의 형태는 제비집형의 와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옥마을의 사신사적 특성은 유독 우백호의 기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다. 우백호는 북한산의 주능선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백호가 3굽을 이루며 한옥지구의 우측을 에워싸고 있다. 한옥마을의 북측 전면으로 보이는 산봉우리 중에 탁월한 것은 금봉과 용출봉이며, 이 두 봉우리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각기 부귀의 기운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옥마을의 수론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북한산의 급경사의 골짜기를 통해서 득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수의 과정은 생략된 상태로 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구가 두 차례에 걸쳐 관쇄되어 있는 점은 아주 길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옥마을 안에 있는 박물관은 건축의 형태나 위치가 적절한 것이며, 규모는 좀 더 확장하여도 풍수적으로는 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옥마을 전체의 주산이 너무 나약하여 비보책으로 건축물로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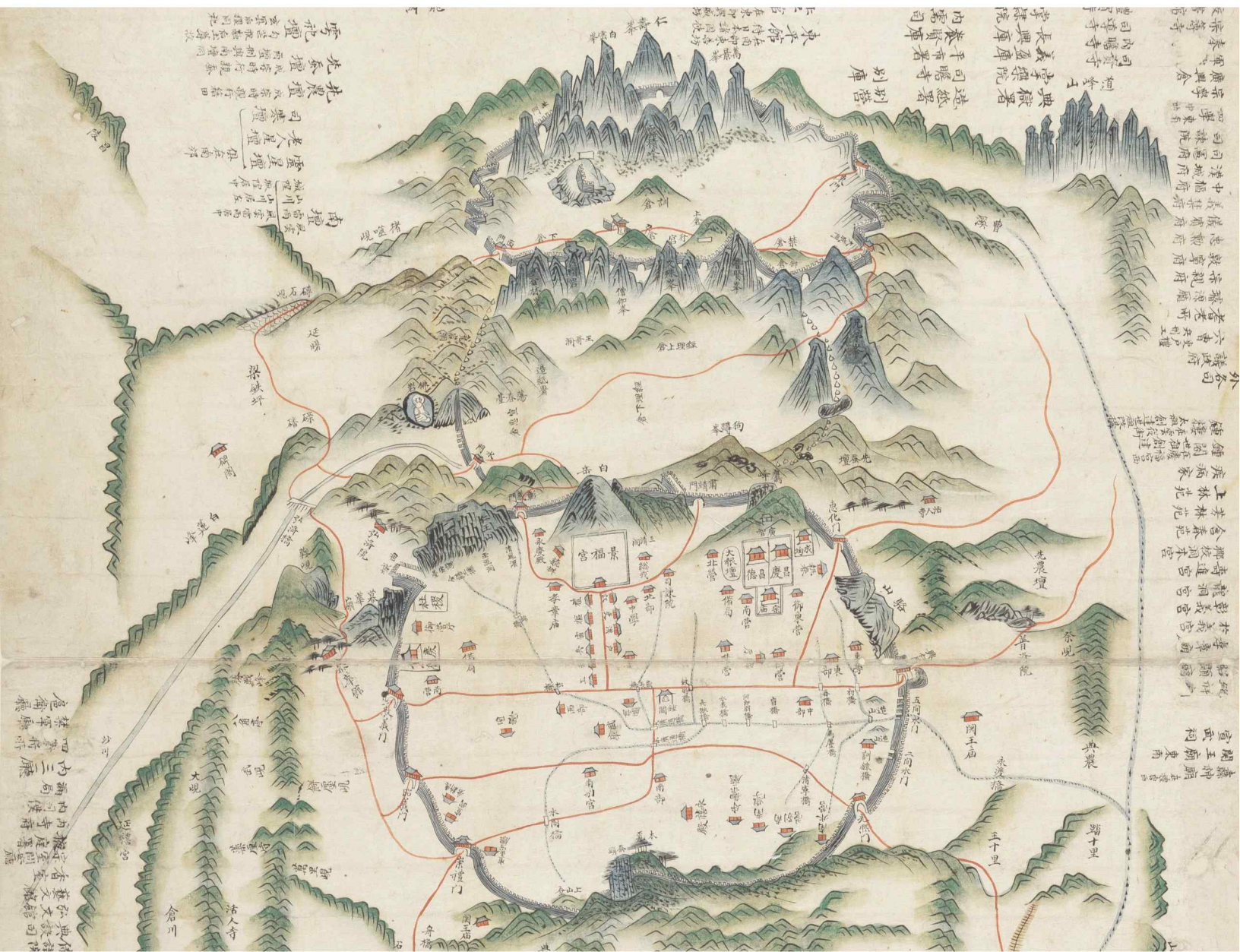
그 외 이말산과 화의군 이영의 묘소에 대하여 간략히 풍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서오릉과 여타의 유적지에 대해서도 풍수적으로 언급할 거리가 많다고 하겠으나, 지면 관계상 그 특징적 내용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4. 참고문헌

徐善繼, 徐善述, 『중간인자수지자효지리학통종(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한고조, 19-59.

辜託長老, 『개량입지안전서(改良入地眼全書)』, 상해강동서국, 민국원년(1911).

조인철, 2008,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고지도와 지지(地誌)
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

3

고지도와 지지(地誌) 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

박선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HK+ 사업단)

1. 시작하며

은평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에 고구려·백제·신라의 접경지역으로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백제 때는 <위례성>, 신라 때는 <신주(新州)>,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漢山州)>,景德왕 16년(757)에 <한주(漢州)> 지역이라고 불리었다. 고려시대에 <양주(楊州)>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1067년(문종 21)에 <남경>으로 승격시켜 서경(평양), 동경(경주)과 3소경이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한양부(漢陽府)>로 되었다. 조선시대 1394년(태조 4)에 수도를 '한양부'로 옮긴 후, <한성부(漢城府)>를 5부 52방으로 행정 개편을 하였다. 5부(동·서·남·북·중) 중에 은평 지역은 도성 밖에 있는 '북부' <연은방(延恩坊)>과 <상평방(常平坊)>에 속하였다.

'은평'이란 지명이 연은방의 '연'과 상평방의 '평'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1910년) 한성부는 경성부 5부 35방 8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연은방'과 '상평방' 지역에 36개의 동·리를 포함한 '은평면'을 설치하였다. 당시 은평면은 경기도 고양군에 소

속되었다가 1949년에 서울시로 편입되었고, 1973년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에 소속되었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울시 서대문구로 편입되었다. 1979년 서대문구에서 15개동을 포함한 은평구로 분리되었고, 2008년 법정동 11개동, 행정동 16개동으로 오늘의 은평 지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⁷⁾ 은평 역사 속에 있는 지명과 장소의 위치를 통해 은평의 장소성을 고지도와 지리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은평 지역 관련 고지도와 지지(地誌) 속의 지명

2.1. 은평 지역 관련한 고지도

현재 은평 지역과 관련된 고지도 정리를 위해 먼저 행정구역상 고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던 조선후기 행정구역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까지 은평구는 한성부와 양주 지역에 소속되었다(그림 3-1). 인접 지역에 고양군이 있었지만, 현재 은평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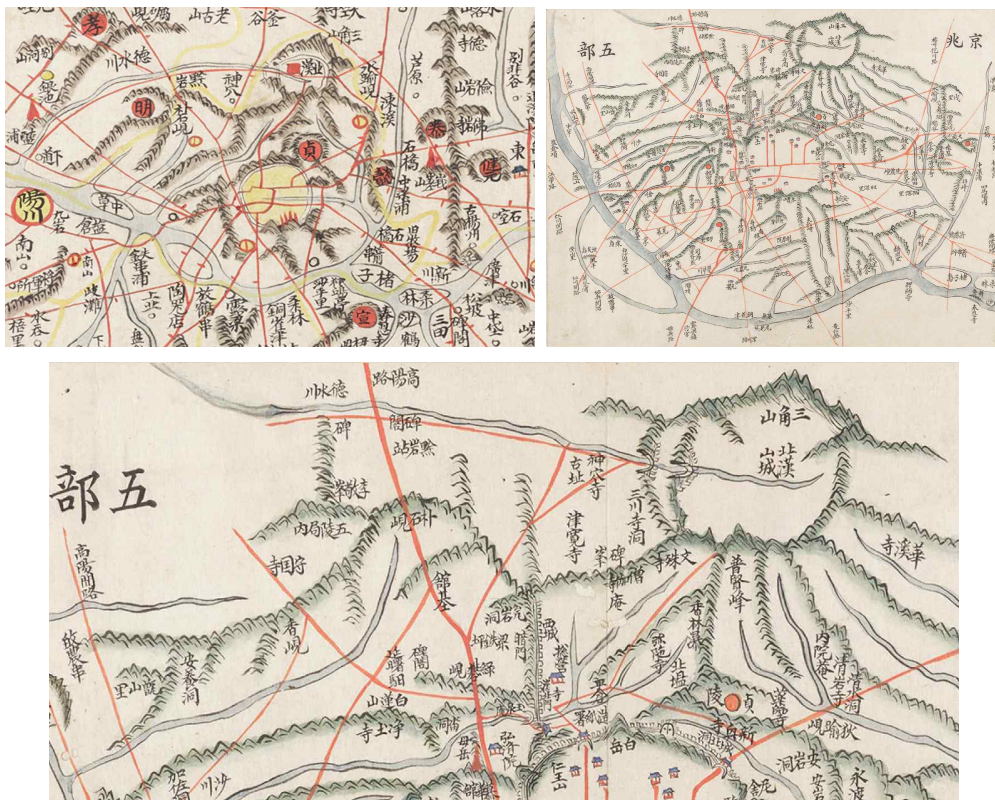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현재 은평 지역과 관련된 조선후기 고지도는 한성부와 양주군 지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은평 지역과 관련된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전도(전국지도)나 도별도 등 여러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이 부목군현(조선시대 행정단위) 명칭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산명(山名) 정도를 표기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군현 단위 수준의 대축척지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주로 18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이 대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도를 제작할 때, 함께 수록한 『도성도(都城圖)』와 『경조오부(京兆五部)』 지도들이 있는데, 이 지도들도 포함하였다.

은평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는 『1872년지방지도』, 『해동지도』, 『조선지도』와 전도는 『대동여지도』, 『동여도』에 수록된 『도성도』와 『경조오부』, 그리고 읍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들이다. 지도에 따라 표현 방법과 지명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근현대에 제작된 지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2).

7) 은평구청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7, 은평역사한옥박물관(상설전시도록),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평구청 문화관광과),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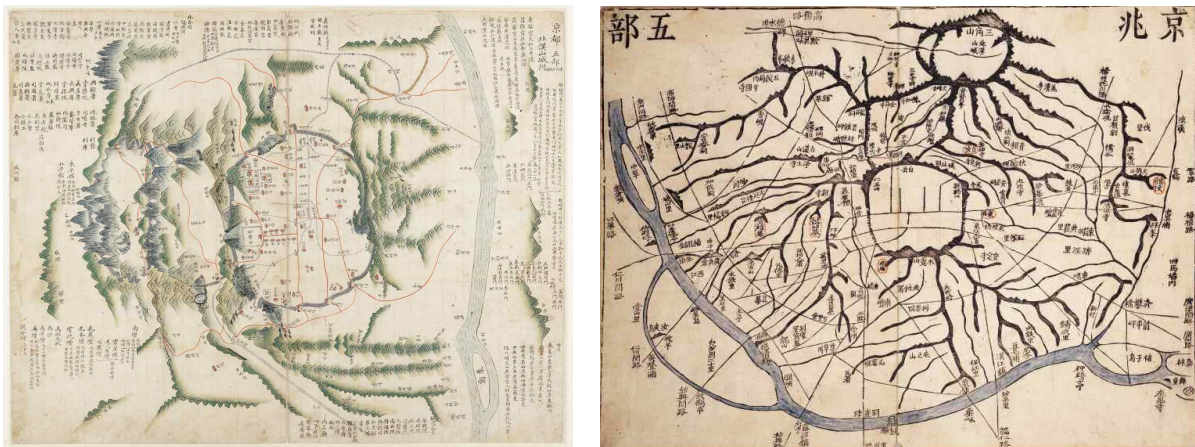


〈그림 3-1〉 조선후기 은평 지역의 행정구역 범위



〈그림 3-2〉 『동여도』(上左)와 「경조오부」(上右),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경조오부」 일부(下)

지도 제작과정에 있어 고지도와 근현대지도는 축척, 투영법, 범례(기호) 등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지도(지형도)나 네이게이션에 익숙한 상황에서 과거에 제작된 고지도들을 보게 되면 실제 지표상의 다양한 자연, 인문 정보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고지도에 표현된 인문·자연 정보들이 간략하고 다른 지도와 상이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고지도를 볼 때는 근현대지도(지형도)를 제작하는 방법과는 다른 지도 제작 전통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 특히, 근현 단위 고지도는 해당 지역의 장소 의미를 재현했던 대표적인 수단으로 당시 거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 장소 의미 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3>의 좌측에 있는 『해동지도』 「경도」 지도의 경우 동쪽 방위를 지도의 위쪽에 배치(삼각산이 서쪽, 목멱산과 한강이 동쪽)하고 있는데 통상 지도 위쪽을 북쪽으로 인식하던 당시 상황에서 왜 이런 식으로 방위 배치를 달리하여 지도를 제작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그림 3-3> 『해동지도』 「경도」 지도(左)와 『대동여지도』 「경조오부」(右)

이처럼 고지도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당시 시대 환경에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지도가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는 마음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시의 공간인식체계 또는 지리학으로 이해되어 온 장소 배치의 문화인 풍수에 대한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고지도를 현재의 잣대로만 접근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권선정, 2016, 조선 후기 고지도를 통해 본 大田의 장소성, 문화역사지리 28(1), 58.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
를 중심으로 은평 지역의 지명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 11종 16장의 고지도
를 확인하였고 목록은 <표 3-1>과 같다.

<표 3-1> 은평 지역 관련 조선후기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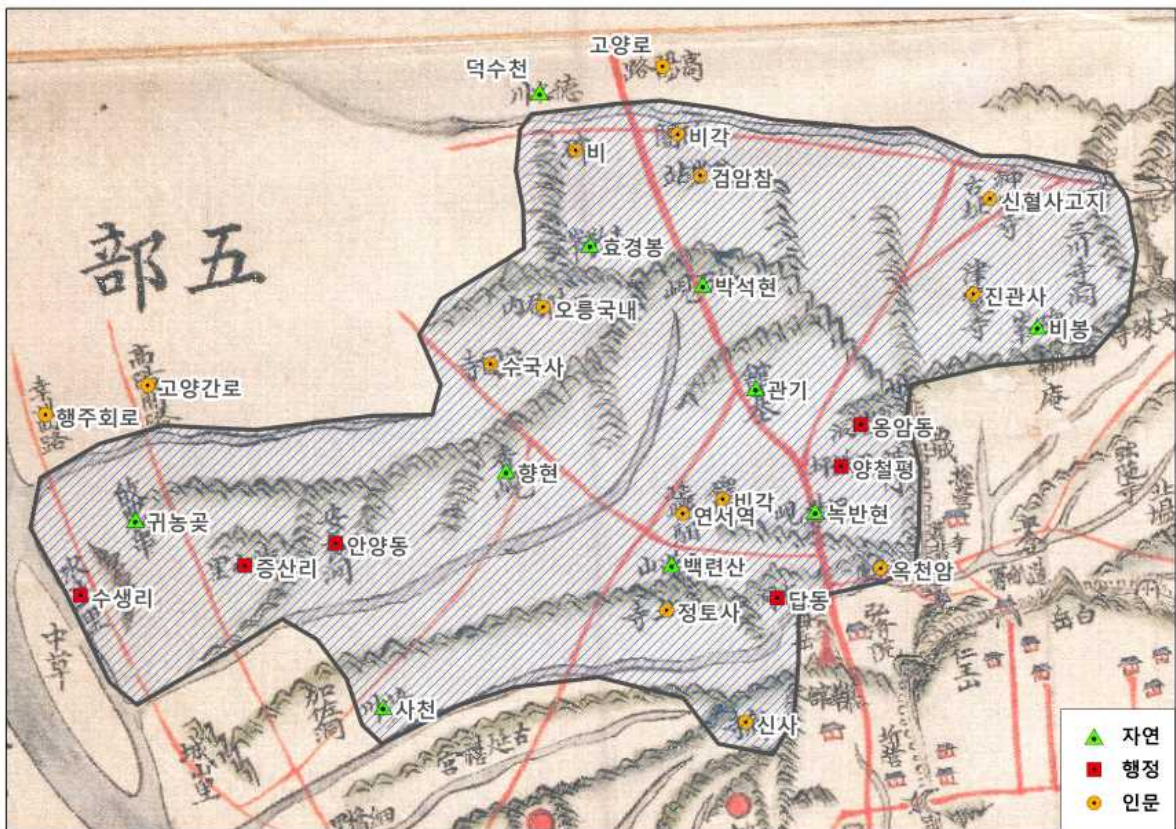
지도명	수록편	간행방법	간행시기	소장처(규장각)
『해동지도』	「경도」	필사본(회화식)	1750년대초	古大4709-41
	「양주지도」			
『1872년지방지도』	「양주지도」	필사본(회화식)	1872년	奎10359
『여지도』	「도성」	필사본(회화식)	간행미상	古4709-68-v.1-6
	「양주지도」			
『동여도』	「도성도」	필사본(방안식)	19세기 중반	奎10340-v.1-23
	「경조오부」			
『대동여지도』	「도성도」	목판본(방안식)	1861년	奎10333-v.1-22
	「경조오부」		1861년	
『동국여도』	「도성도」	필사본(기타)	간행미상	古大4790-50
	「경강부임진도」			
『팔도군현지도』	「양주지도」	필사본(기타)	18세기	古4709-111-v.1-3
『광여도』	「도성도」	필사본(회화식)	18세기	古4790-58
『지승』	「경성」	필사본(회화식)	간행미상	奎15423
『어제수성윤음』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본(기타)	간행미상	奎3756
『수선전도』	-	목판본(기타)	19세기 중반	古軸4709-10

2.2. 고지도 속의 은평 지역 지명 상황

고지도에는 지표상의 다양한 물질적 요소 외에 그것의 언어적 표현인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근현대지도처럼 지역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의 의미 있는 인문·자연요소를 포함해 지명 자체의 연혁이나 행정구역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지도 상에는 실제 지표 공간상에서 확인되는 지명을 모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지명의 선택과 배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지도상에 등장하는 지명을 살펴 보는 작업은 지역 관련된 역사지리적 정보 외에 지역 사회의 의미 있는 인문·자연 경관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례로 박석현(朴石峴), 녹반현(綠攀峴), 향현(香峴)은 흥제원에서 고양으로 넘어가는 의주대로에 있는 고개들을 표기한 것이고, 진관사(津寬寺), 정토사(淨土寺), 신사(新寺) 등 불교경관과 관련된 지명이 반복적으로 고지도에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4).



〈그림 3-4〉『동여도』 「경조오부」의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

고지도에 등장하는 지명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지리지 없이 지도만으로 제작된 고지도를 중심으로 지명을 정리하였다. 지도 간에 등장하는 지명이 차이가 거의 없고, 단지 일부 지리지 첨부지도에 동리 수준의 마을명이 기록되고 있는 점이 조금 다르나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지도는 현재 규장각에서 디지털화한 파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도상 지명의 확인이 좀 더 용이한 측면도 있다.

『해동지도』, 『1872년지방지도』, 『여지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동국여도』 등 총 11종 16장의 고지도를 대상으로 행정명, 자연지명, 인문지명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표 3-2).

〈표 3-2〉 은평지역 관련 조선후기 고지도의 지명

지도명	군현명	구분	표기 지명	지명수
『해동지도』	「경도」	행정	양철평(梁鐵坪), 웅암동(兪岩洞),	2
		자연	사천(沙川), 백련산(白蓮山), 녹번(碌磻),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저서현(猪噬峴)	5
		인문	연서(延曙), 비각(碑閣), 불암(佛岩),	3
	「양주지도」	행정	신혈면(神穴面), 관기(館基)	2
		자연	중흥천(重興川), 소녹현(小綠峴), 대녹반현(大綠磻峴), 원리현(遠里峴)	4
		인문	금암둔파발(黔岩屯擺撥), 석교(石橋), 창릉(昌陵), 고양통로(高陽通路)	5
『1872년 지방지도』	「양주지도」	행정	신혈(神穴)	1
		자연	-	-
		인문	영서역(迎署驛), 금암발소(黔巖撥所), 사창(社倉)	3
『여지도』	「도성」	행정	-	-
		자연	아미산(峨眉山), 백련봉(白蓮峯), 저서봉(猪噬峯), 녹반현(碌磻峴), 관기현(館基峴),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저서현(猪噬峴), 석곶현(石串峴)	8
		인문	영서역(迎署驛),	1
	「양주지도」	행정	신혈면(神穴面)	1
		자연	창릉천(昌陵川), 대녹반현(大碌磻峴), 소녹반현(小碌磻峴), 관기현(館基峴),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4
		인문	금암둔파발(黔岩屯擺撥), 고양로(高陽路)	3
『동여도』	「도성도」	행정	답동(沓洞)	1
		자연	사천(沙川), 녹반현(綠磻峴), 백련산(白蓮山)	3
		인문	옥천암(玉泉庵)	1
	「경조오부」	행정	수생리(水生里), 안양동(安養洞), 양철평(梁鐵坪), 웅암동(兪岩洞), 증산리(甞山里), 답동(沓洞)	6
		자연	덕수천(德水川), 사천(沙川), 녹반현(綠磻峴), 관기(館基), 박석현(朴石峴), 백련산(白蓮山), 비봉(碑峯), 향현(香峴), 효경봉(孝敬峯), 귀농곶(故農串)	10
		인문	영서역(迎署驛), 금암참(黔岩站), 진관사(津寬寺), 수국사(守國寺), 신사(新寺), 신혈사고지(神穴寺古址), 정토사(淨土寺), 옥천암(玉泉庵), 비(碑), 비각(碑閣)(2곳), 오릉국내(五陵局內), 고양로(高陽路), 고양간로(高陽間路), 행주회로(幸州回路)	15

지도명	군현명	구분	표기 지명	지명수
『대동여지도』	「도성도」	행정	답동(沓洞)	1
		자연	사천(沙川), 녹반현(綠礮峴), 백련산(白蓮山)	3
		인문	옥천암(玉泉庵)	1
	「경조오부」	행정	수생리(水生里), 안양동(安養洞), 양철평(梁鐵坪), 웅암동(瓮岩洞), 증산리(甌山里), 답동(沓洞)	6
		자연	덕수천(德水川), 사천(沙川), 녹반현(綠礮峴), 관기(館基), 박석현(朴石峴), 백련산(白蓮山), 비봉(碑峯), 향현(香峴), 효경봉(孝敬峯), 귀농곶(故農串)	10
		인문	영서역(迎署驛), 금암참(黔岩站), 진관사(津寬寺), 수국사(守國寺), 신사(新寺), 신혈사고지(神穴寺古址), 정토사(淨土寺), 옥천암(玉泉庵), 비(碑), 비각(碑閣)(2곳), 오릉국내(五陵局內), 고양로(高陽路), 고양간로(高陽間路), 행주회로(幸州回路)	15
『동국여도』	「도성도」	행정	양철평(梁鐵坪), 웅암동(瓮巖洞)	1
		자연	사천(沙川), 백련봉(白蓮峯), 녹반현(礮礮峴), 소녹반(小泉礮),	4
		인문	정토(淨土), 정토후로(淨土後路)	3
『팔도군현지도』	「양주지도」	행정	신혈면(神穴面)	1
		자연	사천(沙川)	1
		인문	영서(迎署), 금암참(黔岩站)	2
『광여도』	「도성도」	행정	대조리(大棗里)	
		자연	아미산(峨眉山), 백련봉(白蓮峯), 저서봉(猪噬峯), 녹반현(礮礮峴), 기(基),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저서현(猪噬峴), 석곶현(石串峴), 비봉(碑峯)	8
		인문	영서역(迎署驛),	1
	「양주지도」	행정	신혈면(神穴面)	1
		자연	창릉천(昌陵川), 대녹반현(大礮礮峴), 소녹반현(小礮礮峴), 관기현(館基峴),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5
		인문	금암둔파발(黔岩屯擺撥), 고양로(高陽路)	3
『지승』	「경성」	행정	대조리(大棗里)	1
		자연	아미산(峨眉山), 백련봉(白蓮峯), 저서봉(猪噬峯), 녹반현(礮礮峴), 관기(館基),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저서현(猪噬峴), 석곶현(石串峴), 비봉(碑峯)	9
		인문	영서역(迎署驛),	1
	「양주지도」	행정	신혈면(神穴面)	1
		자연	창릉천(昌陵川), 대녹반현(大礮礮峴), 소녹반현(小礮礮峴), 관기현(館基峴),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5
		인문	금암둔파발(黔岩屯擺撥)	2
『어제수성윤음』	「도성삼군문분계지도」	행정	양철리(梁鐵里), 불광리(佛光里)	2
		자연	녹반현(礮礮峴)	2
		인문	영서(迎署), 전석현(磚石峴, 박석현)	2
『수선전도』	한성부	행정	양철리(梁鐵里), 답동(沓洞)	2
		자연	사천(沙川), 녹반현(礮礮峴), 비봉(碑峯)	3
		인문	진관사(津寬寺), 정토사(淨土寺),	3

2.3. 은평 지역 관련한 지리지와 지명

조선시대 들어서 왕권 확립을 위하여 지리지 편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전에 지리지가 역사서에 포함되어 편찬되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상도지리지』(1425), 양성지의 『팔도지리지』(1479), 『동국여지승람』(1486) 등 독립적인 지리서가 편찬되었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완성편으로 지리지의 집성편이다. 이 책은 경제, 군사, 행정 관계 등 지방 통치에 필요한 내용이 소략하게 서술되는 반면 인물, 예속, 시문 등이 보강되어 있다. 각 장소에 대해 거리 표현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도총도」와 『도별도』가 첨부되어 지리지와 지도가 결합되기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⁹⁾

조선 후기 동아시아의 정세는 지리지 편찬과 고지도의 제작에 큰 변화를 유발하였다. 16~17세기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여러 사찬 읍지 등이 편찬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서는 지역사회가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이전 지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국여지승람』의 개정 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이 작업은 완결되지 못한 채 18세기 중반 『여지도서』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이 지리서의 주목되는 점은 내용에서 지방 통치에 필요한 행정적, 실용적 측면을 추구한 것 외에 읍지의 앞머리에 채색 군현지도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읍지 앞에 지도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가장 초기의 것으로 이후의 읍지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조선의 전통과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은 실증적인 학풍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의 지리와 영토를 다룬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유형원의 『여지지』, 신경준의 『강계고』, 『산수고』, 홍양호의 『백두산고』, 『해로고』 등이 저술되었다. 또한, 농업 발달에 따른 상업 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간 유통이 활발해 지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 대한 답사기들이 많이 저술되었으며, 이중환은 『택리지』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들어 각 고을의 지리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은 읍지가 중앙 정부의 지시로 여러 차례 편찬되었고, 지도도 함께 첨부되었다.¹¹⁾

이와 같이 제작된 지리지 중에 은평 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국을 대

9)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정신문화연구 30(3), 122~123.

10)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 배경과 그 성격, 대한지리학회지, 27호(1983), 51~71.

11)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정신문화연구 30(3), 124.

상으로 혹은 도별로 제작된 범위에 비해 지역 자체가 협소하고, 협소한 만큼 지명이 많이 수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규장각에 원문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지리지를 중심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3-3).

〈표 3-3〉 은평지역 관련 지지(地誌)

지도명	간행시기	소장처(규장각)	특징
『한경지략(漢京識略)』	1830년	가람古 915.11-Y9h	조선후기 서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
『경조부지(京兆府誌)』	1851년	奎6599	서울에 관한 地誌
『택리지(擇里志)』	18세기 이후	古4790-55	이중환(1690-1753)이 지은 조선 전국에 관한 인문지리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19세기 중반	古4790-10-v.1-2	조선시대의 국가 및 서울의 제도·지리·인문적 사항을 적은 인문지리서
『경기지(京畿誌)』	1842년	奎12178	경기도 34개 고을의 읍지를 합철한 경기도도지(京畿道道誌)
『경기읍지(京畿邑誌)』	1871년	奎12177	경기도 35개 고을의 읍지를 합철한 경기도도지(京畿道道誌)
『[기전]읍지([畿甸]邑誌)』	1895년	奎12182	경기도 11개 고을의 읍지를 합철한 경기도도지(京畿道道誌)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	1895년	奎10733	1895년(고종32) 이후에 편찬된 경기도 양주군 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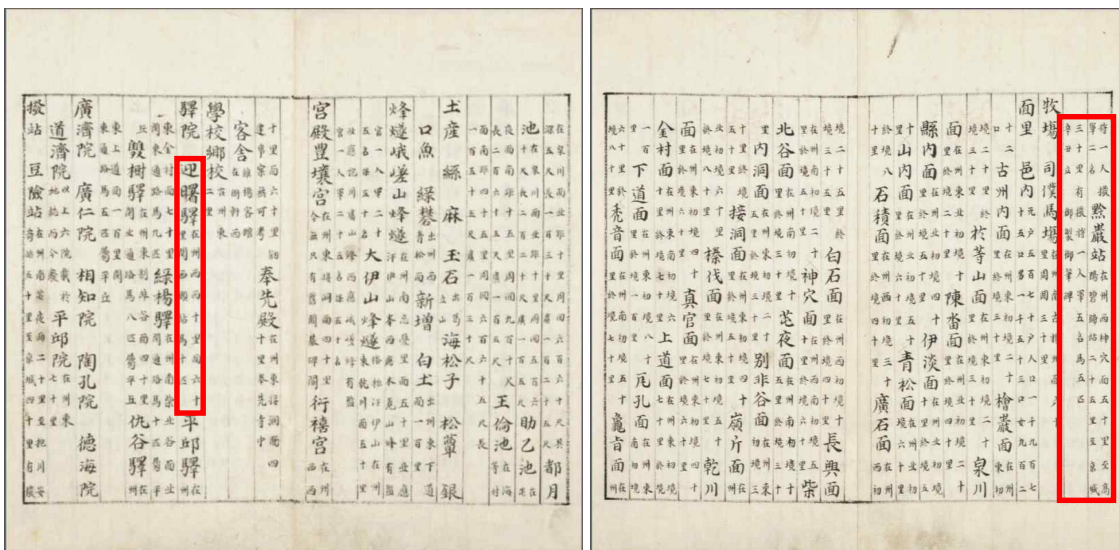
<그림 3-5>는 경기도 양주목의 읍지 표지와 삽입지도의 모습이다. 양주는 남면을 제외한 양주군, 와부읍과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청산면, 고양시 덕양구 일부, 서울시 은평구 일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일대에 해당한다. 서두에 1장 2면의 채색지도가 있다. 본문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성씨(姓氏), 산천(山川), 제언(堤堰), 토산(土産), 봉수(烽燧), 궁전(宮殿), 학교(學校), 역원(驛院), 광제원(廣濟院), 발참(撥站), 목장(牧場), 면리(面里), 불우(佛宇), 사묘(祠廟), 능묘(陵墓), 고적(古蹟), 명관(名官), 인물(人物), 제영(題詠), 진공(進貢), 장시(場市), 교량(橋梁), 민호(民戶), 전부(田賦), 군액(軍額), 조적(糶糴), 공해(公廩), 관방(關防), 형승(形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 경기읍지(京畿邑誌) 표지와 삽입 지도

출처 : 『경기읍지(京畿邑誌)』 4책, [楊州](奎12177), 규장각 소장

역원 항목에서는 연서역(延曙驛), 평구역(平邱驛) 등 양주 일대 5개 역의 위치 정보와 마필수, 광제원(廣濟院), 광인원(廣仁院) 등 옛 양주에 있었던 6개 원과 읍지 편찬 당시까지 남아있던 평구역(平邱院)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다. 발참 항목에는 두험참(豆險站), 금암참(黔巖站) 등 파발참의 위치와 연결 발참과의 거리를 기재했다. 불우 항목에는 진관사(津觀寺在業漢西門外)가 한성 서쪽문 밖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그림 3-6). 경기읍지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 좌측 하단에 보면, 연서역과 검암발소(黔巖發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7).



〈그림 3-6〉 경기읍지(京畿邑誌) 4책 12-13면, 역원(연서역)과 발참(검암참)



〈그림 3-7〉 경기읍지(京畿邑誌) 삽입 지도의
은평 지역 일대



〈그림 3-8〉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
삽입 지도(1895년)

3. 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의 경관

3.1. 자연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

은평 지역은 전근대 시기 한성의 북서쪽과 고양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백두대간에서부터 한북정맥을 형성하는 삼각산(북한산)에서 지맥으로 이어져 내려와 백악, 인왕산, 모악, 와우산, 잠두봉을 종점으로 하는 정맥과 지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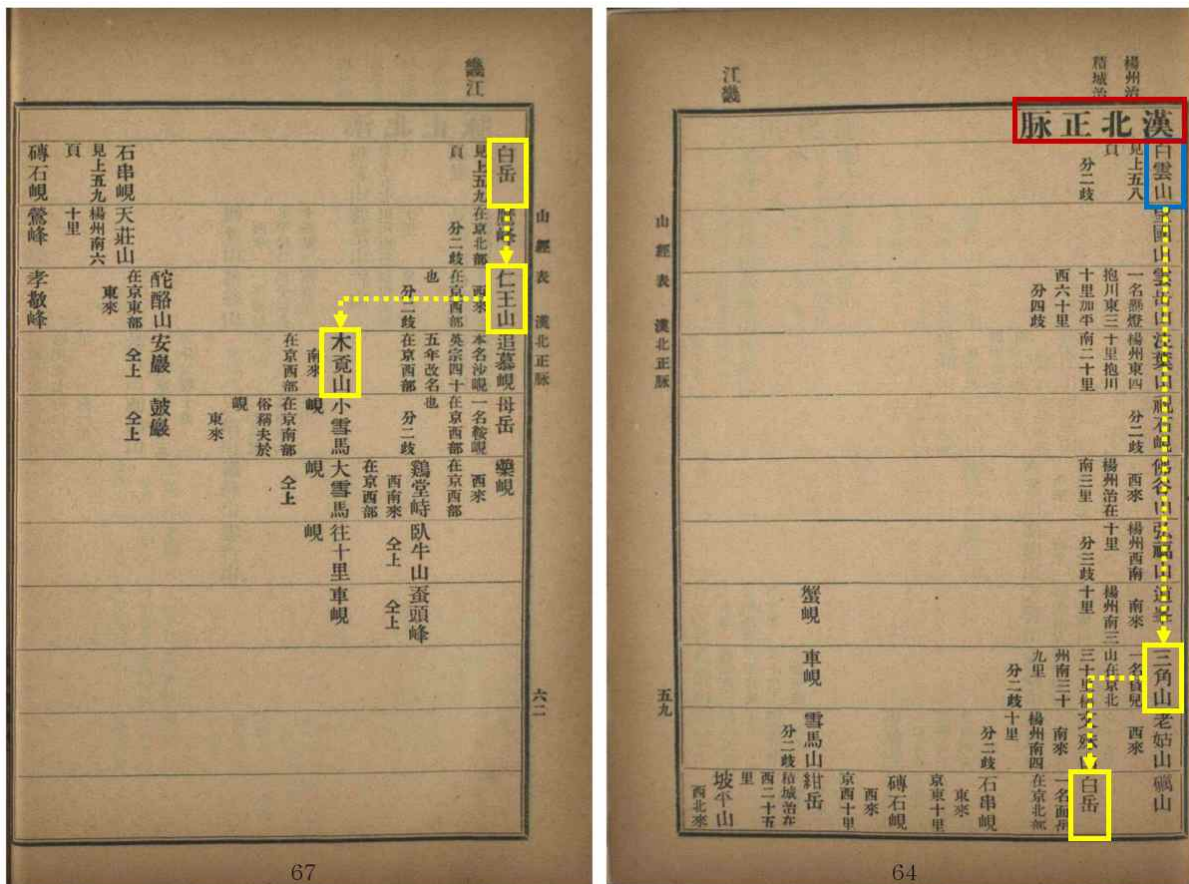
『산경표』¹²⁾에서는 한북정맥과 지맥의 흐름을 보면 장명산으로 종점으로 향하다가 도봉산에서 삼각산으로 내려와 백악산, 인왕산, 응봉, 타락산, 목멱산을 주요 지점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10). 이 흐름은 산과 하천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내사산을 산맥의 주요 흐름 속에 포함시켰다는 의미는 전근대시기 한성

12) 『산경표』(18C 후반, 1913년)(想白古915.1-Si61s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산경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여러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광문회본 『산경표』는 조선 영조대에 申景澐의 여지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산경표』는 한반도의 산맥에 소속된 山과 嶺 등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음. 白頭大幹과 長白正幹을 시작으로 洛南淸北淸南海西臨津北禮成南漢北洛東漢南錦北湖南正脈 으로 총 15개의 산줄기가 족보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소속 山峯嶺峙鎮岬 등의 위치를 각각 거리와 방향으로 표시. 또한 근접 군현을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국 군현의 진산(주산)이 유의하여 표기되어 있다.

의 중심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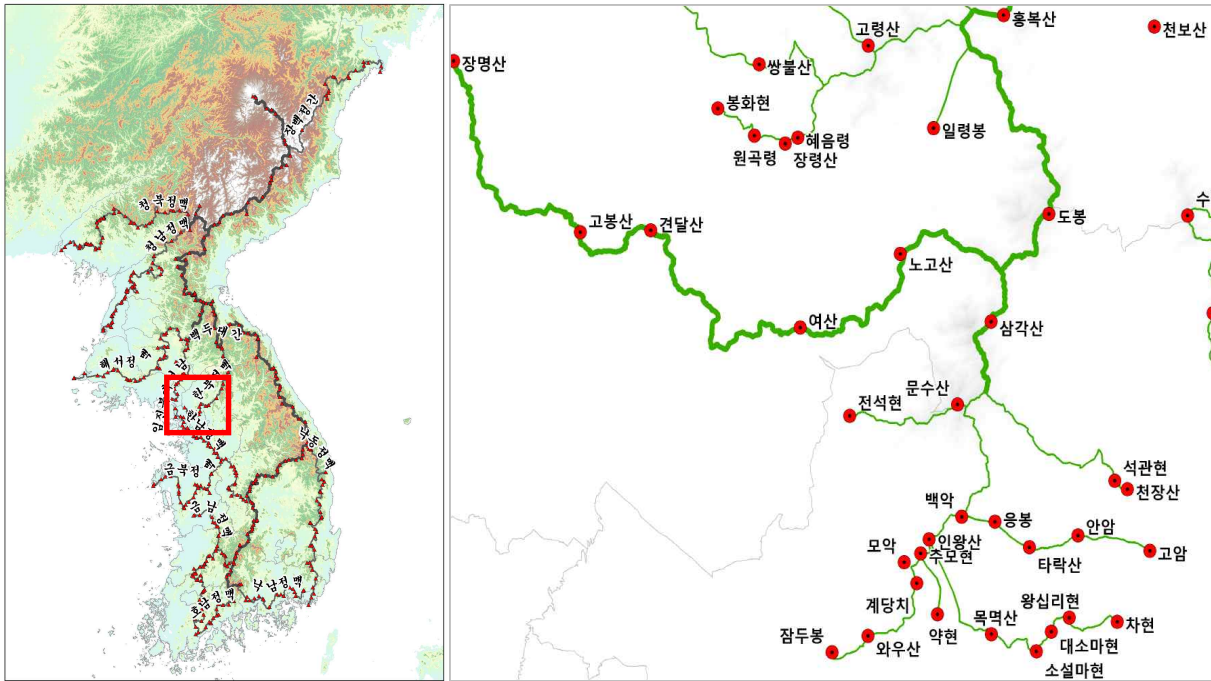
<그림 3-11>와 같이 『1872년 지방지도』 「양주」 지도에서 보면 한성을 중심으로 삼아도봉산, 삼각산, 인왕산, 목멱산으로 내려오는 산줄기의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과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은평 지역은 정맥과 지맥 사이에 위치하였고, 녹지 비율이 높은 분지 지역으로 볼 수 있다.¹³⁾



<그림 3-9> 『산경표』의 한북정맥 일부(삼각산-백악-인왕산-목멱산)

출처: 『산경표』(想白古915.1-Si61s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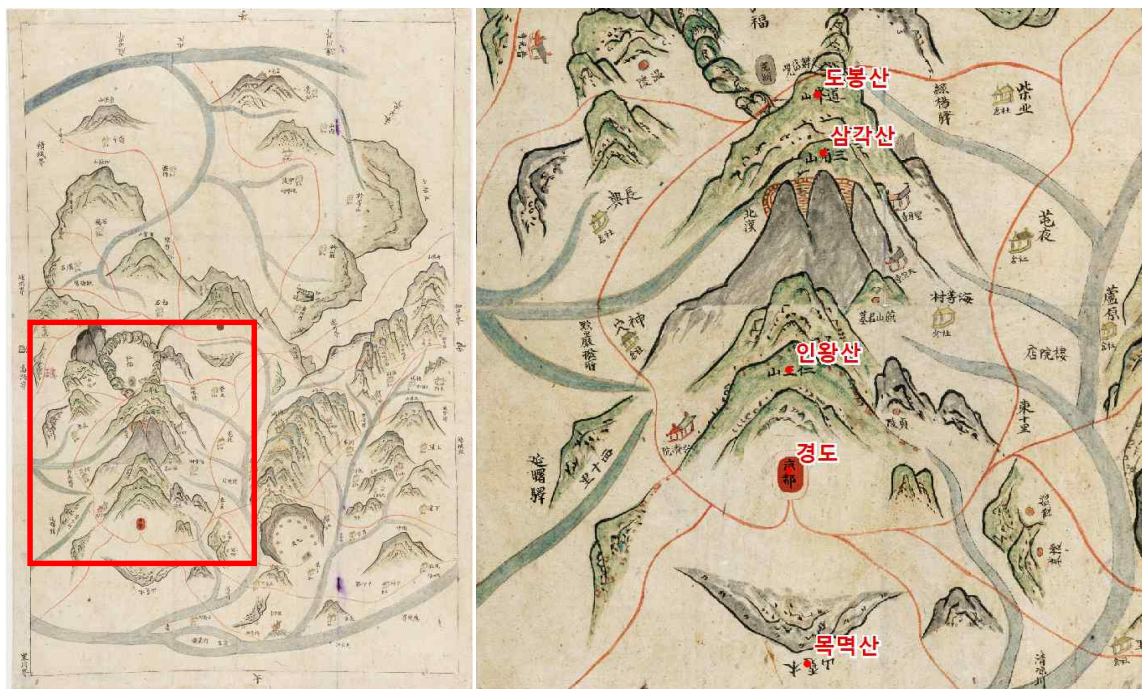
13) 송여정, 김현희, 2017, 은평한옥마을의 문화관광자원화 연구, 지역과문화 4(4), 61.



〈그림 3-10〉 산경표 대간·정간·정맥(左)과 한북정맥과 지맥의 일부(右)

주: 필자 작성

『1872년지방지도』 「양주」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성부의 산은 도봉산에서 삼각산으로 연결되는 큰 산줄기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백련산이 자리하고, 동쪽으로는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이 있다(그림 3-10). 하천은 백현산의 서쪽으로 불광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사천(沙川)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성부의 많은 하천들이 현재는 복개되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은평 지역으로 흐르는 불광천, 사천은 현재도 확인할 수 있어 과거와 현재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동여도』 「경조오부」에는 은평 지역의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흐르는 창릉천이 덕수천(德水川)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3-11〉 1872년지방지도 『양주』 지도와 한성부 일대 확대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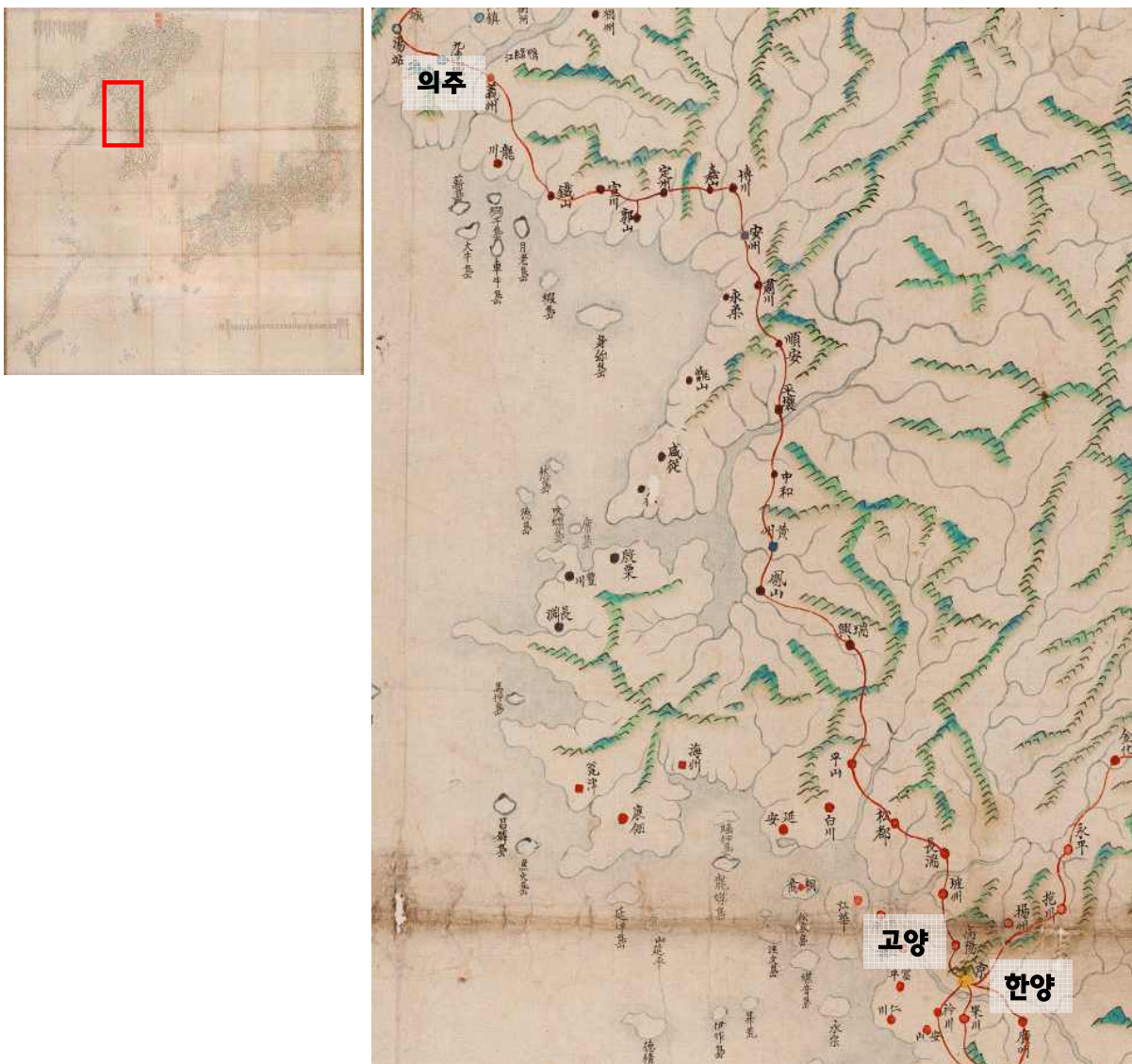
3.2. 인문지명으로 본 은평 지역 : 역참과 고개

은평 지역의 인문지명을 고지도와 지지(地誌)에서 본 결과, 교통지명과 불우(사찰)지명, 창고지명이 확인되었다. 전근대시기 은평 지역의 특징을 지명으로 본다면, 의주대로의 시작 지점으로서의 역할과 사찰의 준비해 있는 종교문화의 장소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교통 지명을 중심으로 역참과 고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고지도나 지리지에는 교통지리정보들을 기록하여 도로의 체계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특정 세계지도 뿐만 아니라 전국지도, 도별도 및 군현지도에는 수도(한성)이 중심이 된 전국적인 도로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도로망과 시가지 가로망이 그려져 있다. 고지도에서 주요 교통경관으로는 길, 역(驛), 점(店), 파발, 도진(渡津), 고개(峴·峙), 교량 등이 지명 또는 기호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¹⁴⁾

14) 최원석, 2016, 조선후기 고지도에 재현된 지역경관 -남해안 및 진주를 사례로-, 남명학연구 49, 265~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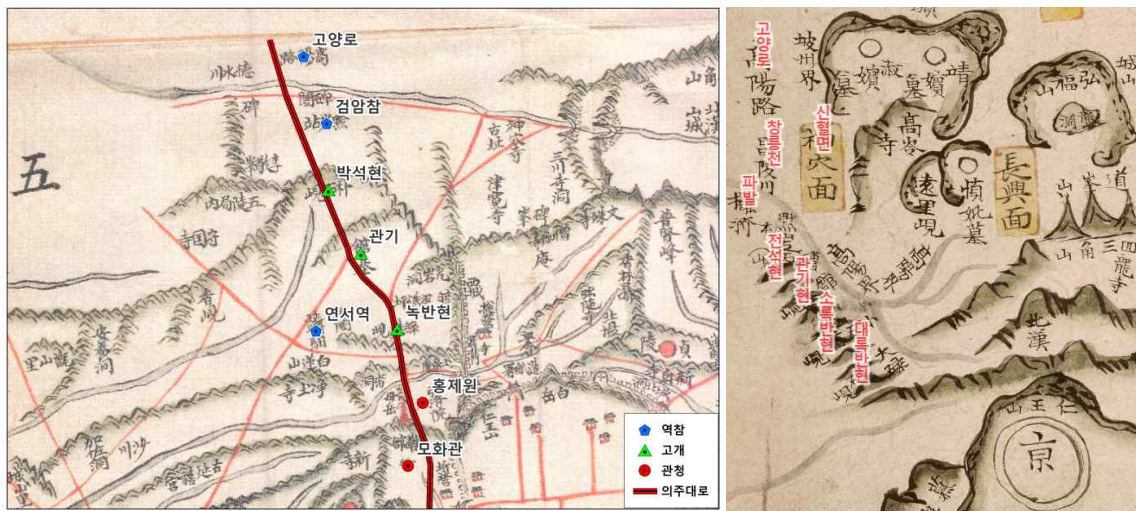
한국·중국·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해동삼국도』에는 조선후기의 간선도로망이 대로(大路) 체계가 한양(서울)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한양을 중심으로 보면, 의주대로는 【고양▶파주▶장단▶송도▶평산▶서흥▶봉산▶황주▶중화▶평양▶순안▶숙천▶안주▶박천▶가산▶정주▶곽산▶선천▶용천▶의주】 이후 중국의 황성(북경)까지의 연행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2). 은평 지역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고양까지 거쳐가는 의주대로 초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2〉 『해동삼국도』와 한양~의주대로 부분

출처 : 『해동삼국도』(奎15506), 규장각 소장

고지도와 지지(地誌)에 기록된 은평 지역의 교통로와 관련된 지명은 연서역(迎署驛), 금암참(黔岩站)¹⁵⁾ 혹은 금암둔파발(黔岩屯擺撥)과 녹반현(碌礮峴), 관기현(館基峴), 전석현(磚石峴) 등의 고개 관련 지명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참, 고개 지명들은 고지도에 확실히 드러나 있다. 『동여도』 「경조오부」 지도를 보면, 역참으로 연서역과 검암참이, 고개는 녹반현, 관기(현), 박석현으로 한성에서 고양으로 이어지는 길이 확인된다(그림 3-13). 의주대로는 흥제원, 모화관이 있는 곳을 지나 3개의 고개(녹반현, 관기현, 박석현)를 넘어 고양으로 향하고 있다. 『여지도』, 『광여도』, 『지승』 3개의 지도에서 고개길이 잘 묘사되어 있다(그림 3-13).



〈그림 3-13〉 『동여도』 「경조오부」(左)와 『여지도』(右) 은평 지역 의주대로 부분

의주대로의 시작 지점에 있는 흥제원과 모화관은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명으로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던 건물이었다. 흥제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원제를 실시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중국으로 가는 의주대로에 위치하고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던 원(院)이었다.¹⁶⁾ 모화관은 1407년 8월에 모화루(慕華樓)라는 이름으로 건축되어 1430년에 모화관으로 개명되었는데, 중국 사신을 서대문 밖에서 영접하고 전송하던 장소였다.¹⁷⁾

15)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8, 의주로 가는 길, 은평의 역과 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60~61.

한자 표기로 黔岩站(검암참)으로 되어 있으나 금암참으로 불린다. 검암(黔岩)은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켜 불리진 것으로, 검은 색의 바위라 하여 근처 있는 있는 검암리(黔巖里), 한글이름으로 검바윗골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자음 '검암'은 발음하기 편한 '금암'으로도 불리는 것이다.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흥제원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4390>

연서역은 고지도별로 '延曙驛'과 '迎曙驛'으로 두 가지 지명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본고에서는 연서역으로 함). 의주대로를 출발하는 시작 위치에 있는 첫 번째 역으로 중요한 교통 지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¹⁸⁾

조선 후기에 봉수제도를 보완하고자 명나라의 파발제를 참조하여 조선에도 파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양주에 설치되었던 파발이 금암참으로 고지도별로 '黔岩站', '黔岩屯擺撥', '擺撥'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본고에서는 금암참이라고 함). 금암참의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대로 현재 '금암기적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14).¹⁹⁾



〈그림 3-14〉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출처: 문화재청

4. 은평 지역 관련 한국근대지형도 속의 지명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크게 변화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1914년에 행정구역 대개편을 통해 '도·군·면·동·리'의 하위단위까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변경되기 전의 은평 지역은 도성 밖 성저십리(城底十里)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보면 "성저십리의 동쪽은 양주(楊州) 송계원(松溪院) 및 대현(大峴)에 이르고, 서쪽은 양화도(揚花渡) 및 고양(高陽) 덕수원(德水院)에 이르고, 남쪽은 한강 및 노도(露渡)에 이른다."고 하였다.

17) 이현군, 2004, 조선시대 한성부 도시구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4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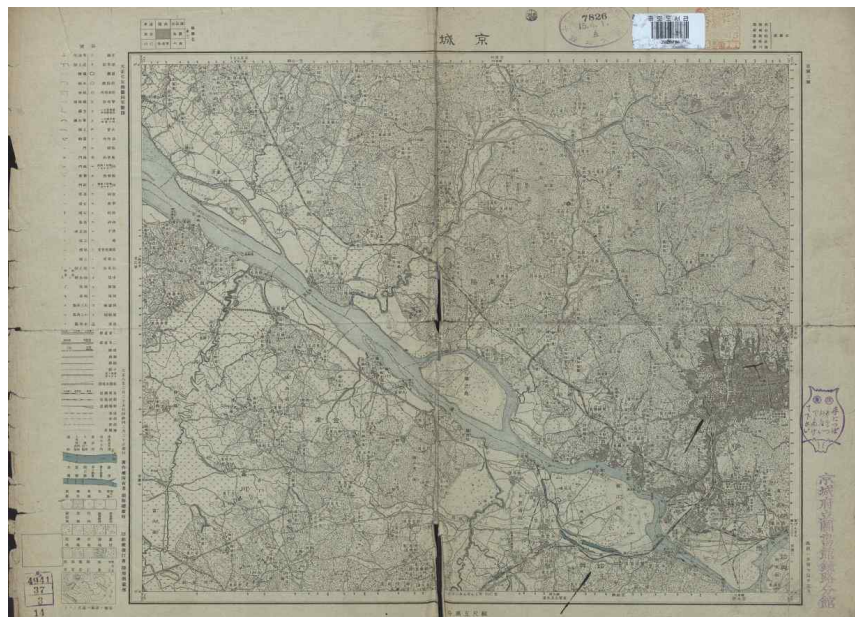
18)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8, 의주로 가는 길, 은평의 역과 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44.

19) 문화재청 금암기적비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1111003800008&pageNo=1_1_2_0

위치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45-5 이고, 의주로 가는 역의 건물로 사용했던 곳으로, 현재 역사 건물들은 없어지고 비만 남아있다.

성저십리의 경계를 기록한 북한지에 의하면 북한산성 쌓기 이전의 한성부의 북쪽 경계선은 북한산성 남쪽의 보현봉, 비봉을 연결하는 산맥이었고, 이후 1711년 북한산성을 쌓은 이후 북한산성의 북쪽 백운대, 원효봉을 지나는 산맥이 한성부의 경계가 되었다.²⁰⁾ 서쪽 경계의 기록은 대동지지에서 '박석현(朴石峴)'이라고 되어 있다. 박석현은 은평구 갈현동에서 구파발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대동지에 이곳이 한성부와 양주의 경계가 된다고 했다.

연은방, 상평방에 속해있던 은평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경성부로 축소되어 경기도 고양군으로 편입하게 되었다(그림 3-16). 이 시기 행정구역과 지명에 대해서는 한국근대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한일병합 이전부터 한반도 전역을 측량하여 전국에 대해 1:50,000 지형도를 제작하였다.²¹⁾ 3장에서는 제3차 시기에 제작된 『조선기본도(朝鮮基本圖)』의 「경성(京城)」 도엽(종로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명을 확인하고자 한다(그림 3-15).



〈그림 3-15〉 『조선기본도』 「경성」 도엽(1918년 측도,제판)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4, 국역 북한지(北漢誌), 서울사료총서 제5권. 해제.

21) 박선영, 2019,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특징-국내외 주요 소장처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1(1), 93-116, 박선영, 2021,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조선지형도』(제2차지형도)의 특징_문화역사지리 33(2), 13-34. 두 논문의 내용을 보면, 한국근대지형도 1:50,000지형도는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로 제작되었다. 한일병합 전에 비밀리에 측량하여 제작된 제1차지형도이다. 1910년 한일병합 직후, 제1차지형도를 수정·보완하여 제2차지형도를 제작하였다. 제3차지형도가 제작되는 시기에는 축척이 다른 1:25,000, 1:10,000, 1:200,000, 1:500,000(輿地圖)도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하였다. 또한 지형도의 명칭을 제1차지형도를 '구한말지형도(舊韓末地形圖)', 제2차지형도를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 제3차지형도를 '조선기본도(朝鮮基本圖)'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에 표기된 지명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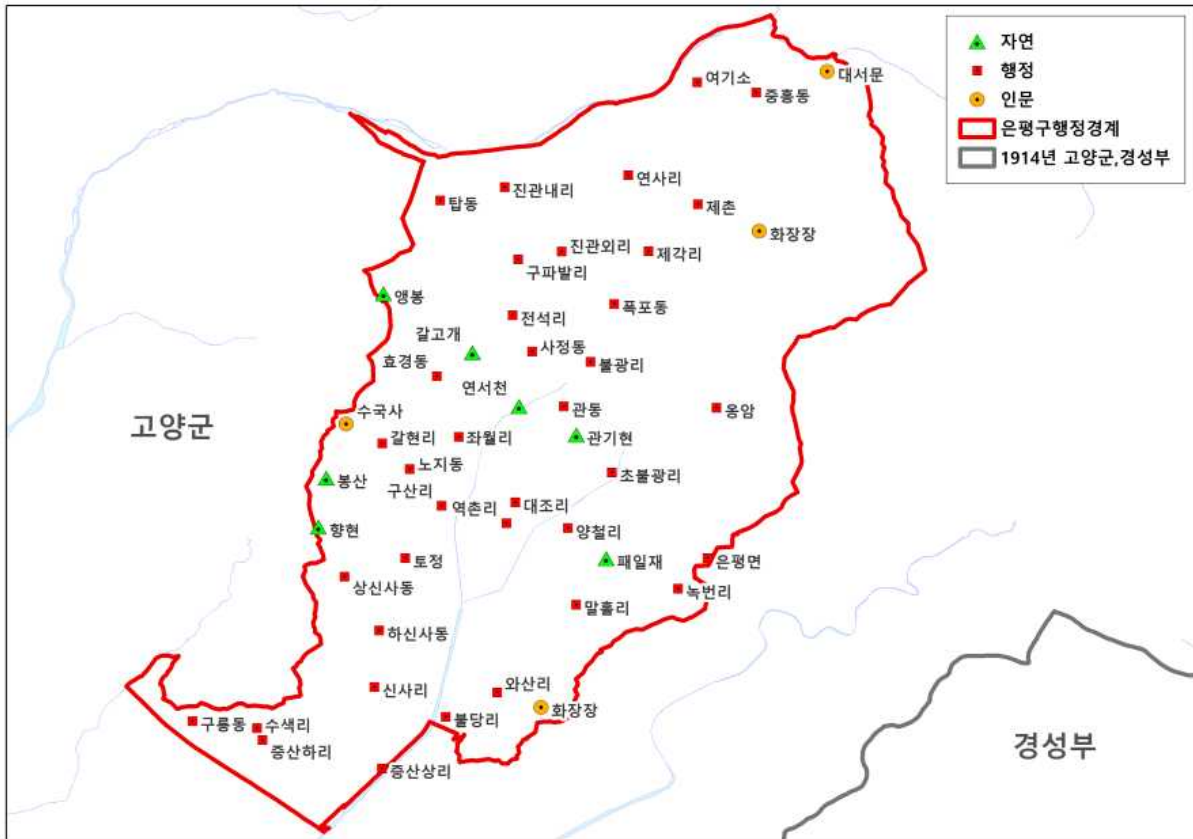


〈그림 3-16〉 1914년 고양군의 행정경계

1914년 고양군에 속한 현재 은평 지역이 지명을 자연지명, 행정지명, 인문지명으로 분류하였다. 자연지명으로는 봉산, 앵봉, 갈고개, 관기현, 패일재, 향현, 연서천으로 주로 고개 지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행정지명은 은평면과 동리(32개), 촌락(4개) 지명, 그리고 인문지명으로는 수국사, 대서문, 화장장(2개) 이다(그림 3-17, 표 3-4).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표기된 지명과 「경성」 도엽의 지명들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개지명에서 박석현(전석현)이 갈고개로, 녹번현이 패일재로 개명되어 표기되어 있다. 또 고개지명이 행정지명(동리)으로 활용된 지명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녹번현에서 녹번리로, 전석현(박석현)에서 전석리로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찰지명이 행정지명으로 활용된 경우도 있는데, 진관사 지명이 진관내리, 진관외리로, 신사에서 신사리로 된 경우이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고지도나 지지(地誌)에서 기록된 지명들이 『조선기본도』가 제작되면서 지명이 변경·변화·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경성」 도읍의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 목록

순번	한글명	한자명	유형01	유형02	순번	한글명	한자명	유형01	유형02
1	봉산	烽山	자연	산	25	역촌리	驛村里	행정	동리
2	앵봉	鶯峯	자연	산	26	연사리	淵寺里	행정	동리
3	갈고개	葛古介	자연	고개	27	와산리	臥山里	행정	동리
4	관기현	館基峴	자연	고개	28	전석리	磚石里	행정	동리
5	패일재	牌一在	자연	고개	29	제각리	祭閣里	행정	동리
6	향현	香峴	자연	고개	30	좌월리	坐月里	행정	동리
7	연서천	延曙川	자연	하천	31	중흥동	中興洞	행정	동리
8	은평면	恩平面	행정	면	32	증산상리	繪山上里	행정	동리
9	갈현리	葛峴里	행정	동리	33	증산하리	繪山下里	행정	동리
10	관동	館洞	행정	동리	34	진관내리	津寬內里	행정	동리
11	구룡동	九龍洞	행정	동리	35	진관외리	津寬外里	행정	동리
12	구산리	龜山里	행정	동리	36	초불광리	初佛光里	행정	동리
13	구파발리	舊把撥里	행정	동리	37	탑동	塔洞	행정	동리
14	노지동	老芝洞	행정	동리	38	폭포동	瀑布洞	행정	동리
15	녹번리	碌磻里	행정	동리	39	하신사동	下新寺洞	행정	동리
16	대조리	大棗里	행정	동리	40	효경동	孝經洞	행정	동리
17	말흘리	末屹里	행정	동리	41	여기소	女妓所	행정	촌락
18	불광리	佛光里	행정	동리	42	옹암	甕岩	행정	촌락
19	불당리	佛堂里	행정	동리	43	제촌	齊村	행정	촌락
20	사정동	射亭洞	행정	동리	44	토정	土井	행정	촌락
21	상신사동	上新寺洞	행정	동리	45	수국사	守國寺	인문	사찰
22	수색리	水色里	행정	동리	46	대서문	大西門	인문	건축물
23	신사리	新寺里	행정	동리	47	화장장	火葬場	인문	시설물
24	양철리	梁鐵里	행정	동리	48	화장장	火葬場	인문	시설물



〈그림 3-17〉 도읍의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

5. 소결

은평 지역은 삼국시대에 고구려·백제·신라의 접경지역으로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백제 때는 <위례성>, 신라 때는 <신주(新州)>,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漢山州)>, 경덕왕 16년(757)에 <한주(漢州)> 지역이라고 불리었다. 고려시대에 <양주(楊州)>, 1067년(문종 21)에 <남경>으로 승격시켜 3소경 중에 하나였고, 1308년(충렬왕 34)에 <한양부(漢陽府)>로 되었다.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에 성저십리 지역으로 도성 밖에 있는 <연은방(延恩坊)>과 <상평방(常平坊)>에 속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고양군 은평면으로 소속되었다가 1946년에 서울시에 편입되었고, 2008년에 오늘날의 은평 지역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은평 지역은 행정구역의 변화를 많은 겪은 지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은평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고지도와 지지(地誌),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지형도(조선기본도)에 표현된 지명을 중심으로 은평 지역의 장소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11종 16장의 고지도를 통해 은평 지역 범위에 해당하는 지명들은 파악하였다. 특히 『대동여지도』 「경조오부」와 『동여도』 「경조오부」에서 다른 고지도에 비해 자연·행정·인문지명(31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지도』 「도성」, 『광여도』 「도성도」, 『지승』 「경성」에서는 고개길에 대한 지명과 묘사가 탁월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8종의 지지(地誌)에 서술된 은평 지역은 항목별로 볼 때, 역원 항목에서 연서역(延曙驛)에 대한 자세한 위치 정보와 마필수 등을 기록하였고, 발참 항목에서 금암참(黔巖站)에 대해 파발팸의 위치와 연결 발참과의 거리를 상세히 적어놓았다. 특히 경기읍지나 양주군읍지에는 삽입지도가 첨부되어 있어 지명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본도』 중에 1919년 발행(1918년에 측도·제판)이 된 「경성」 도엽에서 현재 은평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48개)을 확인하였다. 48개 지명 중에 조선후기 고지도와 지지(地誌)에 표기된 지명과 상이한 지명이 다수 확인이 되었다. '박석현(전석현)'이 '갈고개'로, '녹번현'이 '패일재'로 변경되고, '녹번현'에서 '녹번리'로 '전석현(박석현)'에서 '전석리'로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에 제작된 고지도나 지지(地誌)에서 기록된 지명에서 일제강점기, 현대까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명의 변경·변화·추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통해 조선후기에서 현대까지 지명의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은평 지역의 장소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 논문, 보고서, 저서

- 권선정, 2016, "조선후기 고지도를 통해 본 大田의 장소성," 문화역사지리, 28(1), 55~74.
-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정신문화연구 30(3), 119~142.
- 박선영, 2019,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특징-국내외 주요 소장처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1(1), 93-116.
- 박선영, 2021,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조선지형도』(제2차지형도)의 특징," 문화역사지리, 33(2), 13-34.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4, 국역 북한지(北漢誌), 서울사료총서 제5권. 해제.
- 송여정·김현희, 2017, "은평한옥마을의 문화관광자원화 연구," 지역과문화, 4(4), 51~68.
- 양보경, 1983, "16~17세기 읍지의 편찬 배경과 그 성격," 대한지리학회지, 27(1983), 51~71.
- 은평구청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7, 은평역사한옥박물관(상설전시도록),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평구청 문화관광과).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8, 의주로 가는 길, 은평의 역과 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60~61.
- 이현균, 2004, 조선시대 한성부 도시구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원석, 2016, "조선후기 고지도에 재현된 지역경관 -남해안 및 진주를 사례로-," 남명학연구 49, 243~276.

■ 고지도류

- 『해동지도』(古大4709-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1872년지방지도』(奎1035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여지도』(古4709-68-v.1-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동여도』(奎10340-v.1-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대동여지도』(奎10333-v.1-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동국여도』(古大4790-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팔도군현지도』(古4709-111-v.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광여도』(古4790-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지승』(奎154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어제수성윤음』(奎375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수선전도』(古軸4709-1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지지류

- 『산경표(山徑表)』(想白古915.1-Si61s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한경지략(漢京識略)』(가람古 915.11-Y9h),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경조부지(京兆府誌)』(奎659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택리지(擇里志)』(古4790-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古4790-10-v.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경기지(京畿誌)』(奎1217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경기읍지(京畿邑誌)』(奎1217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기전]읍지([畿甸]邑誌)』(奎1218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奎1073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한국근대지형도류

「경성」도엽(1918년 축도,제판), 종로도서관 소장

■ 인터넷 자료

문화재청 금암기적비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111100380000&pageNo=1_1_2_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제원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4390>



04

은평역사한옥마을의 문화 유산
- 기념, 무덤, 교통, 제사 -

4

은평역사한옥마을의 문화 유산 - 기념, 무덤, 교통, 제사 -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 은평지역의 성격

1.1. 역사지리적 정체

은평구(은평한옥마을)의 역사지리적 정체(正體 Identity)는 조선시대 도읍 한양의 교외 문화와 의주로(서로)의 노변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은평구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교통로인 서로(西路)가 시작되는 지역이며, 도읍 한양의 서북쪽 교외(郊外)이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첫째, 서로와 관련해서 조선의 가장 중요한 노변(路邊)문화 지역이다. 은평의 노변 문화는 한양-개성-평양-의주를 잇는 서로(西路; 의주로, 연행길, 그리고 현대의 통일로) 길과 관련된다. 은평구의 역참(驛站) 및 능행(陵幸)과 관련된 유적이 대표적이다. 둘째, 6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의 도읍 한성부의 연은방(延恩坊)과 상평방(常平坊)을 결합한 지명 '은평(恩平)'은 한양의 '성저십리(城底十里)'인 서북편 교외이다. 한양의 교외이자 서로의 노변인 은평구는 각종 기념 유산과 사찰, 무덤, 교통, 제사 시설과 같은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하는 지역이다.

조선시대 노변문화와 교외문화가 결합된 은평의 유형 문화유산은 각종 사적비, 역참, 왕릉과 공동묘지를 포함한 분묘군(墳墓群), 그리고 북한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수많은 불교사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와 관련된 성황당 등 제례(祭禮) 시설과 놀이문화가 있다. 현대에는 서울의 도시 확산에 따라 1956년부터 불광동에 집단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진관동의 '은평뉴타운'과 한옥마을 조성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대표적 주택지역이 되었다.

은평의 노변문화와 교외문화는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인물 사건 설화와 그와 관련된 유형 기념 유산은 물론 제례와 놀이 문화 등 다양한 무형 문화경관을 창출하고, 이는 마침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립의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²²⁾

1.2. 역사지리 지리구와 자연지리 지리구

은평구의 역사적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역사 지리적, 자연 지리적 측면에서 2가지 지리구를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역사 지리적 지리구는 한양에서 의주를 향하는 서로(西路)가 서쪽으로 내려오는 북한산 줄기를 무악재, 녹번재, 박석고개 등에서 넘어가는 축선을 따라 형성된 남북 방향 의주로의 노변(路邊)으로 인식된다. 의주로 축선의 주변은 역참(驛站)과 제당(祭堂), 축선의 동측은 산록지형으로 사찰과 분묘 군, 의주로 서측은 평지지형으로 경지와 촌락이 입지했다.

자연 지리적 지리구는 북한산의 서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창릉천 유역(고양시와 연접)과 불광천(연서천) 녹번천 모래내 등 2개의 하천 유역(서대문구와 연접)이다. 이 유역의 상류부에는 수많은 사찰과 분묘 군이 입지하고 하류부에는 농경지와 촌락이 발달했다. 상류부는 지금의 진관동 갈현동 불광동 녹번동 홍은동이 해당하고, 하

22) 본 과제는 '은평한옥마을' 아카이빙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은평구 전체의 역사문화 아카이빙으로 확충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사업 경험을 앞으로 전개될 다른 지자체의 지지 자료 아카이빙 사업에 활용한다는 전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제 수행 방향에서 '디지털 시대의 지역 역사 문화 아카이빙 내러티브의 틀을 모범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아카이빙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이빙 틀이란 포괄적 항목 구성, 검색에 용이한 표제어 설정과 관련 검색어 제시, 그리고 서술 체계에서는 정보제시형의 간략한 문장 등을 들 수 있다.

류부는 구산동 대조동 역촌동 신사동 응암동 증산동 수색동 등이다.²³⁾

이상의 역사적 자연 지리적 맥락에서, 은평구의 문화유산으로서 기념 교통 유산과 무덤 제사 유산을 수집 정리한다. 다만 본 과제의 목적과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공간적으로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기술한다. 원고 작성에 참고한 자료원을 명시하고, 사진과 그림은 연구자의 직접 촬영이거나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만을 채택한다.

2. 기념 유산

2.1. 고려 현종과 신혈사

관련어: 신혈사(神穴寺), 목종, 천추태후, 강조, 대량원군, 진관조사, 진관사, 삼각산

삼각산 서쪽 기슭 서로(西路) 길에 위치한 은평구가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 설화는 고려 현종[顯宗, 991년(성종 10년)~1031년(현종 22년)]과 관련된다. 현종은 고려 제 8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1010년~1031년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여덟 번째 아들인 안종(安宗) 옥(郁)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태조의 아들 대종(戴宗) 옥(旭)의 딸 헌정왕후(獻貞王后) 황보씨이다. 헌정왕후는 본래 5대왕 경종(景宗)의 비였는데, 경종이 승하하자 왕륜사(王輪寺) 남쪽의 사제(私第)에 나와 살다가 이웃에 살던 안종(安宗) 옥(郁)과의 사이에 대량원군(大良院君)으로 봉해진 수(詢)을 낳았다. 7대 목종에게 후사가 없었으므로 대량원군은 태조의 후손 가운데 유일한 왕위 계승권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목종의 생모인 천추태후(千秋太后)가 김치양과 사통(私通)하여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는 자들이 유력한 경쟁자인 12세의 대량원군을 승려로 만들어 개경의 숭교사(崇敎寺)에 유폐시켰다. 대량원군은 목종과 숭교사 내 승려들의 도움으로 1006년(목종 9) 삼각산 신혈사(神穴寺)로 거처를 옮겼다. 신혈사의 터는 현재 삼천사 입구 사슴목장 자리라 하는데 폐사지가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는다. 당시 신혈사는 진관조사(津寬祖師) 혼자서 수도하고

23) 필자는 연구지역의 범위를 2개 스케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제1차원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한옥마을이 입지한 진관사-삼천사-이말산 구역(진관동)에 초점을 두고, 제2차원은 은평구 전체를 범위로 하는 주요 역사 문화유산이다.

있던 작은 암자였으므로 몰래 죽이기가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진관조사가 방 밑에 지하굴을 파고 그 위에 침상을 놓아서 대량원군을 숨겼으므로 천추태후가 보낸 자객도 대량원군을 찾지 못하고 암살기도는 실패한다.

신혈사에 은둔하던 대량원군은 어느 날 자신의 심정을 시로 읊었다. 『고려사(高麗史)』에 전하는 2수의 시는 멀지 않아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자기 암시를 함축하고 있었다.

시냇물(溪水)

한 줄기의 물 백운봉(白雲峰)에서 흘러내리니,	一條流出白雲峯
만리 먼 바다로 향해 가서 통하는구나!	萬里滄溟去路通
바위 밑에서 흐르는 물 적다 하지 말라,	莫道潺湲巖下在
멀지 않아 용궁에 도달할 날 있으리니.	不多時日到龍宮

작은 뱀(小蛇)

약방 난간에 도사린 작고도 작은 뱀,	小小蛇兒繞藥欄
온몸에 붉은 비단 두른 듯 절로 찬란하네.	滿身紅錦自斑斕
언제나 꽃밭 속에 머문다 하지 마라,	莫言長在花林下
하루아침 용 되기 어렵지 않으리니.	一旦成龍也不難

시에서 용궁은 왕궁을 상징하고, 용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 꿈에 닭 우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가 들려 술사(術士)에게 물었더니, 방언(方言)으로 풀이하기를, “닭 우는 소리는 ‘꼬끼요’[고귀위(高貴位, 높고 귀한 자리)]이고, 다듬이 소리는 ‘어근당’[御近當, 임금 자리가 가깝다]이니, 이는 왕위에 오를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신혈사에 머문 지 3년 만인 1009년(목종 12년) 강조(康兆)의 정변에 의하여 목종이 폐위되자, 18세의 대량원군은 왕위에 올라 제8대 현종이 되었으며, 진관조사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절을 중창하여 진관사라 하였다. 후대에 진관사는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 되어 여러 임금이 행차하고 국가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우여곡절을 거쳐 왕위에 오른 현종은 건국 초기 고려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국초 이래 계속되어 온 집권적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983년(성종 2년) 전국에 양주(揚州)

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晉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해주(海州)황주(黃州) 등 12목(牧)을 설치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종 9년(1018년)에 더욱 정비하여 4도호부(都護府)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 등의 지방 행정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전국적 통치체제를 완성하였다. 또 성종 때 두었던 개성부(開城府)를 없애고 대신 경중(京中) 5부(部)와 경기(京畿)를 두었으며, 경기는 다시 개성현(開城縣)과 장단현(長湍縣)으로 나누고 개성현에 속현(屬縣) 3개, 장단현에 속현 7개를 관할하게 함으로써 개경 및 경기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도 완성하였다.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방 세력을 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첫째로는 백성(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현의 크기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향리의 수를 정하였다. 둘째로는 향리들이 입는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향리의 신분과 등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초부터 큰 위협이 되었던 거란의 침략은 현종 대에도 계속되었다. 성종 때인 993년(성종 12년) 거란의 제1차 침입을 당하여 송과 외교관계가 단절하고 거란과 사대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동 6주를 돌려받고 강화를 맺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와 송의 비공식적인 관계가 계속되자 거란은 다시 침략하였다. 거란의 제2차 침입은 현종이 즉위한 직후인 1010년(현종 1년)에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강조(康兆)의 정변'을 문죄한다는 구실로 시작되었다. 이때 통주(通州)에서 강조가 패함으로써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개경에서 나주로 가는 길에 삼각산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전쟁은 현종이 직접 거란에 가서 친조(親朝)할 것을 약속하여 종식되었지만, 거란군이 물러간 뒤에도 국왕의 친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송에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의 재개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거란은 현종의 친조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1018년(현종 9년) 제3차 침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거란군의 3차 침입은 귀주(龜州)에서 강감찬(姜邯贊)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승전으로 좌절된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이듬해 거란과 강화를 맺었고 이후 거란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13세기 중엽 몽고의 침입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고려에는 평화가 큰 전쟁이 없었다. 현종의 능은 선릉(宣陵)으로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 곡령리 능현(陵峴)에 있으며, 시호는 원문(元文)이다.

2.2. 기념 유산

○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유지(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遺址)

관련어: 진흥왕, 순수비, 신주(新州), 추사 김정희, 삼각산, 비봉

진관사 쪽에서 오르는 등산로에 가까운 북한산 비봉(碑峰) 정상에는 국보 제3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가 있었다. 비가 있던 자리는 사적 제 228호로 지정되었다. 1972년에 진흥왕 순수비를 경복궁으로 옮기고 비석이 있던 자리임을 표시하는 화강암 비석을 세워 놓은 것이다.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삼국시대 신라 진흥왕이 세운 4개의 순수비 가운데 하나이다. 진흥왕은 고구려 백제와 싸워 영토를 확장한 후 새로 확장한 영토를 친히 둘러보고 그를 기념하여 비석을 세웠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북한산 순수비를 비롯하여 창녕 진흥왕 척경비(拓境碑),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등 4개이다.

진흥왕은 551년에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다음, 553년에는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지역마저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阿飡) 김무력(金武力)을 군주(軍主)로 삼아 이 지역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 비석은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한 뒤 점령 지역을 친히 돌아본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비석의 재료는 질 좋은 화강암으로, 윗부분이 일부 마모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높이 155cm, 너비 79.5cm, 두께 16.6cm이다. 비석의 앞면에만 글을 새겼는데, 약 3cm 크기의 해서체 글씨로 음각하였으며, 1행에 32자씩 모두 12행이다. 비석은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여 지금 읽을 수 있는 글자는 150여 자 정도이다. 그중 일부는 자획만이 확인될 뿐이고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135자에 불과하다. 비문에는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간지나 연호가 없으므로 건립 시기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다. 진흥왕 16년(555)이나 진흥왕 29년(568) 무렵으로 보는 견해이지만 확정되지 못했다. 전자는 진흥왕이 16년(555)에 북한산을 순수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이 때에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고, 후자는 북한산비의 내용이 568년에 세워진 마운령비, 황초령비와 비슷한 점과 비문 중의 '남천군주(南川軍主)'를 근거로 한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진흥왕 29년(568) 10월에 북한산을 폐하고 남천주를 설치했다"라는 내용과 연결하여 이 비는 568년 10월 이후에 세

워졌다는 것이다. 후자의 설에 따르면 진흥왕 29년에 왕이 황초령(黃草嶺)과 마운령(摩雲嶺)을 순행하고 두 곳에 순수비를 세운 사실이 있으므로 진흥왕이 황초령과 마운령을 순행하는 길에 북한산을 거쳤고 그 때 이 순수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북한산순수비에 기록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제목, 순수배경과 경과, 그리고 왕을 수행한 사람 등이다. 보이지 않는 글자가 많아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내용 중에서 당시 상황을 알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 비의 첫머리에 '진흥태왕(眞興太王)'이 나타난다. 그런데 진흥왕 이전의 왕인 지증왕과 법흥왕은 왕의 명칭으로 마립간, 매금왕, 태왕 등으로 일컬었지만, 진흥왕은 자신을 태왕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에서 사용한 태왕을 본떠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신라의 달라진 국력과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왕호이다. 다음으로 김유신의 할아버지 되는 김무력이 비문에 보인다. 이 비에는 '사돌부 출신인 무력지가 잡간'이라고 하는데, 잡간은 신라 17관등 중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김무력은 한강유역으로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장군으로 550년 무렵에는 5등급인 아간지였으나 창녕비의 내용으로 보아 561년 이후에는 잡간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석굴에 거주하는 '도인'이다. 도인은 불교의 도를 닦아 깨달은 사람인 승려로서, 새로이 편입된 지역의 백성들을 교화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진흥왕은 단지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는 것에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정복지의 백성들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비에 보이는 '남천군주(南川軍主)'는 진흥왕대의 지방제도와 군사제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비석은 세워진 뒤로 오랫동안 잊혀졌고,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의 국사였던 무학(無學)대사의 비석이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즉, 조선 건국 직후에 무학대사가 국도의 후보지를 찾아 한양에 왔을 때 북한산 일대를 답사하다가 백운대로부터 맥을 밟아 만경대를 거쳐 서남 방향으로 비봉에 이르러 비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無學枉尋到此(무학이 길을 잘못 들어 여기에 이른다)”라고 새겨져 있었다는 전설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금석학자인 김정희(金正喜)에 의해 비로소 진흥왕이 순수비임을 밝혀졌다. 김정희는 1816년(순조 16년) 7월 김경연(金敬淵)과 함께 비봉에 올라 이 비석을 처음 조사하였는데, 그때는 비 갓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며 비문도 해독하지 못하였다. 다음 해 6월 6일 조인영(趙寅永)과 함께 다시 올라가 비문을 조사한 결과 68자를 해독하고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비석 옆면에 “이것은 신라 진흥대왕의 순수비이다. 병자년

7월에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읽었고, 정축년 6월 6일 김정희와 조인영이 함께 와서 남아 있는 글자 68자를 살피서 바로잡았다.(此新羅眞興大王巡狩之碑 丙子七月 金正喜金敬淵來讀 丁丑六月六日 金正喜趙寅永同來 審定殘字六十八字)“라고 새겨두어서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1943년에 국보 제 34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았지만,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비석의 아래쪽 귀가 떨어져 나갔고, 6.25 동란 때 총탄 자국이 나는 등 훼손이 심하여 보호책으로 1972년 8월 17일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이때 비석 아랫부분이 길이 7cm, 두께 3cm의 철심으로 암반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 이전 작업이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1986년 8월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

관련어: 능양군, 인조, 인조반정, 숙종, 연서역(영서역), 별서, 주정소

국가지정 보물 1462호 '인조별서유기비'는 은평구 역촌동(9-12번지) 주택가의 구릉지 위에 비각으로 보호되고 있다. 주변에 하마비(大小人皆下馬)가 있다. 이 비석은 숙종 21년(1695), 인조반정을 통해 조선 제16대 왕이 된 인조(仁祖, 재위 1623~1649)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머물렀던 별서(別墅)에 세운 것으로서,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하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인조반정비'라고도 하는데,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의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인조가 '임금이 되기 전(龍潛之時)' 이곳에 머물면서 광해군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기 때문이다.

능양군(綾陽君;인조)은 1623년(광해군 15) 3월 12일에 장단부사 이서(李曙)와 이천부사 이중로(李重老) 군사와 이곳에서 합류하고 홍제원에서 김류(金瑬)의 군과 합세하여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彰義門)으로 입성하여 반정에 성공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일설에는 이곳에서 합세할 때 이서의 군사가 늦게 도착하여 연서(延曙)라는 지명이 생겼다고도 한다. 1695년(숙종 21) 7월에 인조의 증손 되는 숙종이 기념비와 비각을 세우고 담장을 둘러 관리인을 두었다. 이곳은 임금이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주정소(晝停所) 역할도 했다.

비석 앞면의 큰 글씨는 숙종(肅宗)이 직접 쓴 어필(御筆)로 '인조대왕용잠지시별서유기

비(仁祖大王龍潛之時別墅遊基碑)라고 쓰고 뒷면 음기(陰記)는 숙종이 짓고 글씨는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이 썼다. 비석 몸체는 오석(烏石)이며 비의 받침돌(臺座)은 조선 초기 양식으로 맨 아래에 십장생(十長生)을 뜻하는 10각 화강석 2중 기단과 그 위에 거북모양의 귀부(龜趺)가 있는데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비석 지붕돌은 이무기 머리 모양 대신 간결한 한옥 양식으로 조선 후기의 변화된 비석 양식을 보여준다. 이 비각 일대에서 역촌동 도당굿을 했다고 하나 지금은 중단되었다.



〈그림 4-1〉 인조별서유기비 전면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자료



〈그림 4-2〉 인조별서유기비 비각

출처: 저자 촬영(2021.11.29)

○ 검암(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관련어: 명릉, 서오릉, 영조, 정조, 연잉군, 주정소, 파발, 발참, 창릉천(덕수천), 이성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호 '검암기적비'는 은평구 진관내동 428번지에 있다. 조선 시대에 검암참(黔巖站 혹은 금암참)이라 하여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도로의 파발참(擺撥站)이 있었던 자리이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正祖)가 1781년(정조 5) 명릉(明陵:숙종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렀다가 할아버지인 영조(英祖: 재위 1724년~1776년)의 옛 미담(美談)을 회상하면서 친히 글을 짓고 세운 것이다. 세운지 200여년이 지났지만 보존상태가 좋고 글씨도 뚜렷하며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정조임금의 친필[御製] 비로서 문학사와 서예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비문의 내용은 1721년(경종 원년) 영조가 왕자인 연잉군(延昞君)일 때, 부왕인 숙종의 탄신일을 맞아 지금 고양시 용두동 서오릉(西五陵) 경내의 명릉(明陵)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금암참에서 쉬게 되었다고 한다. 잠시 후

덕수천(德水川; 창릉천)을 건너가는 소도둑을 잡았다는 말에 참장(站將)을 불러놓고, "필시 흥년에 춤고 배가 고파 도둑질을 했을 것이니 선처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튿날 새벽에 궁궐로 돌아가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이 사건이 이후 영조가 50년간 선정을 베푸는 징조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8월 15일 기사에 의하면, 정조가 1781년 숙종의 능을 참배[謁陵]하고 돌아갈 때 검암(黔巖)의 비각(碑閣)에 이르러 따르는 신하들에게 입시(入侍)를 명하고. 하교(下敎)하기를, "오늘은 곧 숙묘(肅廟)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곧 영고(英考)께서 저사(儲嗣)로 세워진 달이다. 60년이 지나 다시 신축년이 돌아와 선릉(先陵)에 전배(展拜)하니, 슬프고도 사모하는 마음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검암의 사적은 실로 관계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나 소자(小子)가 그옥이 숙조(肅祖) 때 연서(延曙)에 비석을 세운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직접 짓고 직접 써서 회포를 펴는 도리를 붙인 것이다. 옛터를 둘러보니, 나의 감회가 매우 절실하다." 하였다.

'검암기적비'는 1978년 12월 18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기적비의 형태는 방형대석(方形對石)의 2단으로 된 비신 받침과 오석(烏石)으로 된 비 몸체 위에 옥개형(屋蓋形)의 개석(蓋石)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에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비 몸체 높이는 148cm이며, 폭은 68cm, 두께는 26cm로서 크지 않은 편이다. 기적비 우측 약 50미터 지점에는 이곳이 성역임을 표시하는 하마비(下馬碑)가 있다. 참고로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실린 검암기적비 비문을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다.

검암기적비명병서(검암기적비명) 신축년

서쪽으로 고양군으로 가다가 삼십리 못되는 곳에 검암(黔巖)이라는 발참(撥站)이 있는데, 서쪽에는 수십 곳의 발참이 있지만 특히 검암이 이름난 데는 까닭이 있다. 우리 황백고조(皇伯祖考) 경종께서 왕위에 오른 이듬해 신축년(1721년 경종 1)에 우리 황고조(皇祖考; 영조)께서는 잠저(潛邸)에 계셨다. 8월 15일에 숙조(肅祖; 숙종)의 탄신일이라 명릉(숙종의 능)을 참배하고 고령의 농막에서 5일 동안 머물다가 대궐로 들어오시려고 저물녘에 말 한 필에 시동 둘을 데리고 출발하여 덕수천(德水川)에 이르자 밤이 깊고 불도 없어 검암 발참에서 쉬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앞 시내를 건너는데, 뒤쫓아 오면서 도둑이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다. 황조고께서 이를 보시고는 안타깝게 여겨 참장(站長)을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저 소도둑은 흥년을 맞아 굶주림을 못 이겨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농사꾼이 소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참장이 비록 직위는 낮으나 그래도 관직이니 그대가 재량으로 해결하라." 하여, 참장이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소도둑을 관가에 고발 않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했다. 날이 밝아 말을 타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세자가 타는 수레(鶴駕)가 의례를 갖추고 궁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이미 황조고께서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모두 참장의 벽기(壁記)에 실려 있는데, 참장 이름은 이성신(李聖臣)으로 연안인(延安人)이다.

병자년(1756, 영조32) 봄에 황조고께서 또 명릉을 배알하고, 그 발참에 잠시 머물며 성신을 찾았더니 성신은 이미 죽은 뒤였다. 나중에 그의 아들 인량(仁亮)을 찾아서 궁시(弓矢)를 주고 그 아버지의 관직을 주어 세습(世襲)하도록 하셨다. 아, 천지의 큰 덕(德)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성인(聖人)이 본받아 그것을 가장 좋은 조짐으로 삼고, 적문주자(赤文朱字) 따위의 자질구레한 상서(祥瑞)는 그 축에 들지 못한다. 아 아름답구나! 검암에서 우리 황조고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에는 곡진하게 만물을 살리는 인(仁)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천지와 그 덕을 함께하며 50년이 넘는 재위 중에 세상에 많은 은덕을 베푸신 치적이 있었으니, 이것이 그 조짐이었다. 더구나 한밤중 전사(傳舍)에서 제왕의 덕을 감추고 있을 그 날 마침 중요사직을 맡으라는 부탁을 받지 않으셨는가! 이는 마치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기 전에 서광이 먼저 태양이 앞으로 갈 길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 이를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삼가 생각건대, 신축년(辛丑年)은 우리 집안에 하늘의 복이 내린 해이다. 신축년(1721, 경종 1)은 숙조(肅祖; 숙종)의 회갑이 되는 해인데 우리 황조고께서 그 달에 왕위를 계승할 세제(世弟)가 되시어 성신(聖神)이 서로 이어받음으로써, 우리나라 태평 만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60년이 지나서 지금 또 신축년(1781, 정조5)이 되었다. 소자(小子)가 중추에 명릉을 배알하는 길에 검암에 이르러 황고조께서 남긴 자취를 둘러보고자 하는데, 이는 나의 작은 정성의 발로이지 조상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아니다. 검암 발참이 오래되어 퇴락했기에 경기관찰사에게 새롭게 고치도록 이르고 약간의 터를 닦아 비를 세우고, 눈물을 닦으면서 삼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명(銘)을 붙인다. 명은 다음과 같다.

상서로운 붉은 구름

검암 위에 떠 있네

비를 피하는 곳이런가

옥돌을 감춘 산이런가

왕의 수레 빛을 발하자

백가지 신령 분주히 호위하네

이 비석 오래 남으리

영고께서 쉬었던 이곳에

소자가 왕위를 이은 지 5년 뒤인 신축년 8월 초하루에 삼가 짓고 써서 15일에 세우다.



〈그림 4-3〉 검암(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출처: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

○ 은언군묘소구역 금표비

관련어: 은언군, 사산금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사패(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야외에 금표 비석이 있다. 조선 25대왕 철종의 할아버지 은언군의 묘를 보호하기 위한 금표 비석이다. 비석의 앞면에 '은언군묘소자내사패금표(恩彦인 君墓所字內賜牌禁標)'라고 새겨져 있다. 즉, 은언군의 묘소 구역으로 나라에서 하사한 땅으로 보호하는 곳이니 출입과 훼손을 금한다는 표지 비석이다. 이 금표비(禁標碑)는 은언군 묘역이 황폐화된 후 삼천동 사슴목장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림 2-4〉 은언군묘소자내사패금표(恩彦君墓所字內賜牌禁標)

저자 촬영(2021.11.29)

○ 통일로기념비

관련어: 박정희, 은평뉴타운, 근대 문화유산

구파발 사거리 롯데몰 은평점 앞의 '통일로기념비'는 1971년 12월 서울 구파발~파주 임진각을 잇는 통일로(국도 1호선) 준공을 기념해 세워졌다. 가로 4m, 높이 3.2m 크기로 제작돼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과 파주 임진각 입구 등 두 곳에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졌다. 이 기념비는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만든 이일영 전 남산미술원장이 제작했고, 기념비에 새겨진 글씨 '통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이다. 뒷면에는 "이 길은 국토의 남북을 잇는 길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일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 주셨으므로 이 뜻을 돌이켜 새겨 길이 전한다. 1971년 12월 1일"라고 새겨져 있다. 40년 전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표지에도 나왔다고 한다.

2개 기념비 가운데 통일로 시작 지점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앞에 있던 기념비는 2003년 은평뉴타운이 추진되면서 이곳이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으로 편입

돼 주차장 한복판에 서 있게 됐다. 또 공영주차장이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지로 변경되면서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주)삼성물산에 의해 2010년 5월 약 300m 떨어진 은평구 진관동과 고양시 경계 지점으로 이전됐다. 그러나 기념비는 부실하게 이전된 데다 관리도 전혀 되지 않은 채 숲속에 방치되었다.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구리동판으로 된 기념비 설명문은 부식돼 검게 변해 버렸다. 서울신문 등 언론이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기념비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을 받자, 서울시 SH공사가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지 펜스 안 풀숲에 방치됐던 '통일로 기념비'를 바깥에서 보이게 하고 주변도 단장하였다.

3. 한양의 교외 무덤 유산

3.1. 조선의 북망산(北邙山) 이말산 일대 묘소군

관련어: 북망산, 공동묘지, 성저십리, 은평뉴타운, '진관근린공원(津寬近隣公園)', 진관동.

이말산(荊萊山)은 진관동에 위치한 해발 132m의 구릉형 산지이다. 화강암 산지의 북한산 연봉들 가운데 비봉에서 낮은 산줄기가 동북방향에서 내려와 시내(창릉천)를 만나서 건너편에 말발굽 모양의 편마암 토산을 이룬 것이 이말산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77년 이곳 이말산 일대 약 98만 m²를 '진관근린공원(津寬近隣公園)'으로 지정했다.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이 갖추어 있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되었다.

이말산 일대에는 약 이백이 넘는 분묘가 남아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은평뉴타운 문화재 발굴 당시 이들 중 약 80여 개의 무덤에서 묻힌 사람의 성씨가 확인됐고, 그 신분도 왕족, 양반, 중인, 상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말산에 공동묘지처럼 많은 무덤이 많이 발굴된 것은 이 지역이 조선시대 도읍 한양의 성저십리(城底十里; 한양도성 사방 10리)까지의 매장 금지 구역 경계 밖에 있는 구릉성 산지로 무덤이 많이 조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내시, 궁녀, 역관 등 한양의 중인계층의 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말산은 중국 낙양성 밖의 북망산(北邙山)과 비슷한 상징성을 있다. 여러 차례 중국 고대 국가의 도읍지였던 낙양의 북쪽에 있는 북망산은 BC 8세기 동주(東周) 시대이후 낙양에 도읍한 역대 제왕과 귀인 명사들이 묻혔던 곳이다. 북망산은 사람이 죽으면 가야 하는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알려졌다. 낙양의 북망산은 인기 가요로까지 불렸던 남도민요 성주풀이의 가사 “낙양성 십리 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그 누구며,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이니.”는 살았을 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죽으면 묻혀서 잊히는 인생의 허망함을 함축한다. 낙양의 북망산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한양 서북 교외 성저십리 밖에 있는 조선의 공동묘지 이말산을 ‘조선의 북망산’이라 부를 수 있다. 다만 많은 무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석물들은 대체로 쓰러지거나 흙에 반쯤 묻힌 채, 은평뉴타운의 산책로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말산 무덤 가운데 상징성이 큰 몇 개의 묘소를 살펴본다.

○ 은언군 이인과 묘소의 영욕

관련어: 제각말, (사패)금표, 전계대원군, 철종, 은언군 신도비, 흥창사

이말산 일대에는 마치 현대의 공동묘지처럼 조선 후기에 조성된 수많은 묘소가 모여 있다. 이들 묘소 가운데 은언군 이인(恩彦君 李裨, 1755년~1801년)의 묘소(은평구 진관외동 산47-1, 산 78-6번지)는 19세기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진관외동 145번지 일대 길가에 은언군의 신도비각이 있었고 주변에 제각이 있었다고 해서, 이 동리를 ‘제각말(제각리 祭闕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은언군 묘소의 제각은 한국전쟁 때 영국군이 추위를 막기 위해 땀감으로 헐어가고, 1960년대 후반부터 묘소를 장식했던 신도비를 비롯한 석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묘역은 개인집 경계철책 안에 들어갔다. 지금 묘터에는 묘표 비좌 받침만이 남아 있다고 하니, 무상한 세월을 절감케 하는 사례가 되었다. 『은평구지』에 따르면, “은언군의 묘소가 은평구 진관외동 산78의 1호에 있었고, 그 때문에 마을 이름을 제각말이라 하였다. 그러나 묘는 일제 강점기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고, 묘 앞에 있던 비각(碑閣)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그것도 6.25때 소실되었다.”라고 하였다. 현재 묘소는 사라지고 석물들도 엉뚱한 곳으로 옮겨졌다. 유일하게 금표 비석만이 묘소에서 가까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앞마당에 옮겨

아무런 설명 없이 있으니, 궁금증을 더한다. 비석 앞면에 '은언군묘소자내사패금표(恩彦인君墓所字內賜牌禁標)'라고 새겨져 있어 은언군 묘역을 보호하기 위한 비석임을 알 수 있다.

은언군 이인은 살아서나 죽은 후에도 파란만장한 인물이다. 은언군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서자(庶子)로서 정조의 배다른 동생이며, 조선 25대 왕 철종(哲宗)의 할아버지이다. 살았을 때는 가족과 본인이 여러 차례 역모사건과 천주교 박해에 휘말렸다. 맏아들 담(澐)은 흥국영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자살하고, 부인과 며느리는 천주교 신자로 주문모 신부를 숨겨주었다고 해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은언군 자신도 죽이라는 수많은 탄핵을 받았으나 정조의 배려로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지만, 정조가 승하하자 곧 강화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향년 48세로 생을 마감한다. 시신은 경기도 양주군 신혈면(神穴面) 진관리(津寬里,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78-1번지 이말산 서쪽 유좌(酉坐) 언덕에 안장되었으며, 부인인 상산군부인 송씨는 그의 묘소 오른쪽에 합장되었다. 근처에는 다른 왕족인 성종의 13째 서자 영산군 일가의 제각도 있다.

은언군은 이말산에 묻힌 다음에도 영욕(榮辱)이 극적으로 반복되었다. 손자가 왕위(철종)에 오른 후 은언군은 복권이 이루어지고 무덤도 격에 맞게 치장하였으나 조선왕조가 멸망한 20세기에 무덤이 겪은 수난은 유래를 찾기 힘들다. 먼저 은언군 사후의 영예는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고, 그해 6월 8일 은언군의 서자 전계군 이광의 서자이자 셋째 아들인 손자 원범(元範)이 왕위에 추대되어 25대 철종으로 즉위하면서 시작되었다. 은언군의 작위가 복구되었고, 이해 9월 12일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명에 의하여 은언군 일가의 역모에 관한 모든 문적(文蹟)이 세초(洗草)되거나 없애버렸다. 1850년(철종 1) 4월에는 국왕이 조부 은언군과 부친 전계대원군의 사당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은언군 등에 대한 신원(伸冤)을 위해서 전 현직 대신이 의견을 모아 은언군의 불명예를 변무(辨誣)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해 1월 왕의 명으로 대제학 서기순(徐箕淳)이 은언군을 변무하는 주문(奏文)을 작성해서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주문에서는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권력을 농단할 때 은언군이 사교(邪敎)에 물들었다고 지목하여 죽게 했다고 하였다. 1851년 변무를 마친 뒤, 은언군 내외의 사당에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

1849년 6월 9일에 철종이 즉위하자 곧 조부 은언군과 부친 전계대원군의 묘소 수축(修築)이 시작되었다. 은언군이 유배지에서 죽고 철종이 자란 강화(江華) 땅에서 석재(石材)

를 채취하여 석물을 제작하였는데, 1851년 10 월경 신도비가 완료되어서 묘소 개수가 끝났다. 이때 제작한 석물들은 거북 받침돌(龜趺神道碑)와 무석인(武石人), 장명등(長明燈) 등이었는데, 귀부신도비와 무석인은 당시 매우 희귀한 작품이었다. 왕의 선조이지만 왕위에 있지 않았던 인물에 대한 석물을 제작하는 전거(典據)를 선조(宣祖)의 사친(私親)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묘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선원록(璿源錄)에 의하면 은언군 묘역 좌측에 3자인 전계대원군의 무덤이 있었는데 7년 만에 포천 왕방산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은언군 묘의 비석들은 제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훼손되거나 이설되었다. 은언군 부부의 묘표는 1989년 후손이 천주교에 기증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절두산 천주교 순교성지로 옮겨졌다. 은언군의 신도비문은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짓고, 손자인 철종(哲宗, 1831~1863)의 친필이다. 비석의 상단에 "어필은언군지비(御筆恩彦君之碑)"라고 쓴 큰 글씨 두전(頭篆)이 있으며, 비명(碑銘)은 해서로 쓰여 있다. 기구하게도 은언군의 신도비는 은평구에 있는 불교 사찰 흥창사 대웅전 옆으로 옮겨져 이 절을 창건한 사람의 송덕비로 둔갑한다. 이 비의 뒷면에 페인트로 덧칠한 속이 드러나면서 은언군의 신도비로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절 뒤 등산로를 올라가면 흥창사 창건주 이창근의 묘역이 있는데, 여기에 은언군의 묘를 지키던 장군석 1쌍,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장명등, 향로석, 상석 등 석물이 본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키고 있다.

○ 상선 노윤선(尙膳 蘆允千) 묘역

관련어: 내시(내관), 상선, 승전색

이말산 공동묘지 구역에는 내시의 묘가 있다. 봉분은 훼손이 심해서 식별이 쉽지 않지만 묘표(墓標)와 문인석이 남아 있어 이 묘소가 높은 지위의 내시 묘임을 알 수 있다. 내시 노윤선(蘆允千)은 명종 즉위 때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내시 곧 승전색(承傳色)으로서 왕명을 잘 전달한 공으로 1545년(명종 즉위 원년)에 가자(加資)되었고 이듬해 정월에 위사원종공신(衛社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상선(尙膳)은 조선시대 내시(內侍)부의 종2품 관직이다. 이 묘역에는 머리 부분을 연잎 모양으로 장식한(荷葉形)의 묘표와 상석 문인석 1기가 있다. 묘표 전면에 社原□□臣 □□大夫守尙膳蘆允千之□라고 새겼다. 뒷면의 기록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되었다.



〈그림 4-5〉 이말산 내시 노윤선 묘표와 문인석

출처: 저자 촬영(2021.11.29)

○ 영조생모 숙빈최씨의 부모 최효원(崔孝元)부부 묘역

관련어: 숙종, 인현왕후, 연잉군(영조), 민유중, 소령원(昭寧園), 육상궁(毓祥宮), 칠궁(七宮)

영조의 외조부이자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아버지 증영의정(贈領議政) 최효원(崔孝元) 부부의 묘는 은평뉴타운 두산위브 228동 뒤편 이말산 자락에 있다. 최효원(1637~1672)은 자(字)가 의경(義敬)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무관 출신으로 관직은 선략장군(宣略將軍) 충무위 부사과(종6품)이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둘째 딸이 연잉군 이금(李吟 나중에 영조임금)을 낳고 빈(嬪)에 오르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부 합장으로 묘비 상석 향로석 망주석을 갖추었다. '능원(陵園)'에 설치하는 석양(石羊) 한 쌍이 있었으나 1988년경 도둑맞았다. 묘역 뒤편 좌측에 장인 홍계남, 우측에 처

남 흥계웅의 묘가 있고, 앞줄에는 아들 만호 최후, 우측에 증손 최진해, 손자 최수강의 묘도 있다. 1734년(영조 10)에 세운 묘표는 옥개형 2면 비인데, 앞면에 3줄로 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조선국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 政府領議政崔公孝元之墓(정부영의정최공효원지묘) 貞敬夫人南陽洪氏附(정경부인남양홍씨부)라고 새겼다. 옥개석은 팔작지붕 모양으로 처마 끝에 귀꽃을 장식했고, 처마 아래 부분에는 공포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비좌대 문양은 뒷면이 복련으로 앞면은 상하 2로 나누어 위에는 당초문 아래는 운문으로 화려하다. 비문은 영조 임금이 친히 지었으며, 글씨는 당대 명필 서평군(西平君) 이요(李堯)가 썼다. 입석 연대는 증직을 받은 1734년(영조 10)이다. 이 묘역에는 최효원의 아들 소기만호(所己萬戶) 후(垺), 손자 맹산현감(孟山縣監) 수강(壽崗) 등 3대의 묘가 있다. 또 조선 후기 여항문인으로 유명한 홍우필(洪禹弼)과 홍우택(洪禹澤) 등 최효원 처가 남양홍씨 묘도 함께 있다.

숙빈 최씨는 일곱 살에 궁에 들어가 1693년(숙종 19)에 숙원(淑媛)에 봉해졌고 다음 해에 왕자 연잉군을 낳아 숙의(淑儀)에 올랐다. 이듬해에 귀인으로 다시 1699년(숙종 25)에 내명부 정1품 숙빈에 올랐다. 병으로 궁을 나와 요양하다가 49세인 1718년(숙종 44)에 사망하였다. 묘지는 파주지 광탄면의 소령원(昭寧園)이다. 설화에 의하면 숙빈 최씨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는데,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閔維重)이 영광군수로 부임할 때 초라한 모습의 어린 소녀를 만나 가여워하는 마음에 자기 딸(인현왕후)와 함께 키우다가 7살에 입궁시켜 무수리가 되었다가 1781년 인현왕후가 되자 가까이 모시게 하였다. 8년 뒤 인현왕후가 폐출되자 밤마다 정안수를 떠놓고 인현왕후를 위해 기도하다가 숙종에게 발각되었으나, 처벌받지 않고 감동한 숙종의 성은을 받아 왕자 연잉군을 낳는다. 연잉군은 경종이 일찍 죽자 왕세제(王世弟)로서 왕위에 올라 영조가 된다.

영조는 즉위 직후 정식 왕비가 아니어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사당인 숙빈묘를 건립하였다. 즉위 10년에는 외할아버지 최효원을 영의정으로 높이고 외증조도 추증하는 등 외가의 격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영조가 가진 모계(母系) 신분 콤플렉스에서 비롯한 것이다. 1753년(영조 29) 숙빈묘는 육상궁(毓祥宮)으로, 무덤 소령묘는 소령원으로 격상시켰다. 종로구 궁정동 자하문길 옆에 있는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사당 육상궁(毓祥宮)은 왕을 낳은 후궁 5명의 신위(神位)를 합하여 육궁(六宮)이라고 하였다. 1929년 영친왕의 생모 엄비의 신위가 합쳐져 칠궁(七宮)이라고 하였다.



〈그림 4-6〉 영조생모 숙빈최씨의 부모 최효원부부 묘

출처: 저자 촬영(2021.11.29)

○ 조선의 대표적 역관 가문 우봉 김씨 묘역

관련어: 역관, 김득련, 『환구음초』, 조선 최초의 세계일주 인물, 『통문관지(通文館志)』.

이말산에는 조선시대 92명의 역관을 배출한 대표적인 역관 가문인 우봉(牛峰)김씨 가문의 묘역이 있다. 시조 김계동을 비롯한 후손들의 무덤 가운데는 조선 최초의 세계일주자 김득련(金得鍊, 1852~1930)의 묘소가 있다. 김득련의 자는 윤구(允九)이고, 호는 춘파(春坡)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저자인 김지남(金指南)의 7대손이다. 숙종 대 조선 정부가 청나라와 국경을 획정할 때, 김지남은 그의 첫째 아들 김경문과 함께 백두산정계비 건립을 위해 파견되었던 부자 역관이다. 또한 김지남은 『동사일록』, 『통문관지』, 『신전자초방』 과 『북정록』 등의 명저를 남겼다.

김득련은 1873년(고종 10) 계유 식년시(式年試) 역과(譯科)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봉사(奉事), 교회(教誨)·첨정(僉正)을 지냈다. 1888년(고종 25) 박문국주사(博文局主事)가 되

었다가 같은 해 부사과(副司果)로 옮겼다. 1890년(고종 27) 한학당하역관(漢學堂下譯官)으로 가자(加資)의 은전을 받았으며, 부호군(副護軍)에 올랐다가 이해 10월에 오위장(五衛將)으로 승차하였다. 또다시 부호군으로 옮겼다가 1894년(고종 31)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의정부참의(議政府參議)를 역임하고, 1895년(고종 32) 내각참서관(內閣參書官) 4등에 임용되었다.

1896년(고종 33) 4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戴冠式)에 부아특명전권공사(赴俄特命全權公使) 2등 참서관(參書官)과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되어 특명전권공사 민영환(閔泳煥)을 수행하여 다녀왔다. 이때 인천을 떠나 상해(上海)·나가사키(長崎)·도쿄(東京)·밴쿠버·뉴욕·런던·베를린·바르샤바를 경유하여 모스크바에 여장을 풀었고, 다시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견학한 후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이해 10월 하순 귀국하였다. 조선 최초의 세계일주 여행자가 된 것이다. 그는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회를 한시 136수로 읊었으며, 여행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읊은 시집"이라는 뜻의 사행 기록 『환구음초(環瓊吟艸)』를 출판하였다. 역관으로서 김득련이 남긴 사행 기록은 '환구일기', '부아기정' 등이 있다. 여기에는 4월 1일 인천항을 떠날 때부터 그해 10월 21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행과정 중에 각 지역에서 견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의 저서는 당시 러시아의 사회 문화와 서양문물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환구음초』는 2010년 송학문화사에서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다. 1902년(광무 6) 군부대신관방원(軍部大臣官房員)에 임용되었으며, 1907년(광무 11) 남양군수(南陽郡守)가 되었고, 1910년(융희 4) 정3품에서 종2품으로 가자되었다.

○ 상궁 옥구임씨 묘비

관련어: 궁녀, 상궁, 숙종, 명안공주

이말산에는 조선시대 궁녀의 묘가 많았다는데, 지금 남은 묘비는 몇 안 된다. 상궁 임씨(尙宮 林氏, 1635-1709)의 묘는 봉분은 없지만 묘비와 상석이 남아 있고, 묘비의 비문(앞면 尙宮沃溝林氏之墓 8자, 뒷면 180자, 총 188자)에는 그녀가 궁에 들어간 이후 평생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서 당시 상궁들의 삶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상궁 임씨는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대에 걸쳐 궁궐에서 왕실을 모신 상궁이었다.

비문 뒷면에 기록된 임상궁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본관이 옥구(沃溝)이며,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임효원(林孝元)이고, 어머니는 해주오씨 오금쇄(吳錦金)의 딸이다. 13살 때인 1648년(인조 26) 액정서(掖庭署, 왕명의 전달, 왕이 쓰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 열쇠의 보관, 궁궐 정원의 설비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에 배속되어 궁궐생활을 했다. 이후 조선 제18대 현종이 되는 원손(元孫)의 동궁(元孫宮)에 소속되어 30년을 한결같이 하여 여관의 최고 직위인 상궁이 되었다. 또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 김씨(숙종의 어머니)를 모셨는데 1683년(숙종 9) 명성왕후가 돌아가시자 다시 인조 계비인 장렬태후 조씨를 모셨다. 일찍이 임상궁을 이모처럼 특별히 아꼈던 숙종은 1688년(숙종 14) 장렬태후가 돌아가시자 그녀를 궁 밖에 나가 살도록 명하고 요절한 자신의 누이동생 명안공주 집으로 배속시켜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1709년(숙종 35), 임 상궁이 75세로 병사하자 관재(棺材)와 포백을 하사해 신혈리 서쪽 임상궁의 선영인 옥구임씨 묘역에 장사지내게 했다. 4년 뒤에 묘비를 세웠다. 현지 답사자를 위한 참고로 임상궁의 묘비 앞 뒷면의 비문은 아래와 같다.

〈앞면〉

尙宮沃溝林氏之墓(상궁옥구임씨묘)

〈뒷면〉

尙宮姓林籍沃溝父孝元同知中樞以輕財濟急稱於閭里祖
(상궁성임적옥구부효원동지중추이경재제급칭어여리조)

檜通政母海州吳錦金之女生於崇禎乙亥五月二十六日年
(회통정모해주오금쇠지녀생어송정을해오월이십육일년)

十三入掖庭屬元孫宮時顯廟新升元孫位供奉左右三
(십삼입액정속원손궁시현묘신승원손위공봉좌우삼)

十年未嘗犯過受女官階至尙宮明聖太后薨三年制畢移
(십년미상범과수녀궁계지상궁명성태후홍삼년제필이)

屬莊烈太后殿后薨上思亡妹明安公主嘗林尙宮如
(속장렬태후전후홍상사망매명안공주상임상궁여)

姆命出居主第視供祭祀以己丑正月十一日病年七十
(모명출거주제시공제사이기축정월십일일병년칠십)

五上念其服勞多年小心畏愼賜棺材布帛葬西郊神穴
(오상념기복노다년소심외신사관재포백장서교신혈)

里辰向之原從父母及祖兆也葬後四年癸巳五月立石
(리진향지원종부모급조조야장후사년계사오월입석)

3.2. 진관사 길의 묘역

○ 화의군 묘역(和義君墓域)

관련어: 단종복위 운동, 금성대군, 장릉, 신도비, 세종

세종의 아홉째 왕자(서자로는 맏아들)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瓊)의 묘는 구파발에서 진관사로 들어가는 어귀 진관외동 산 60-2호에 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 24호이다. 화의군은 1455년(단종 3)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을 때 금성대군(錦城大君)과 결탁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외방에 부처(付處)되었으며, 이후에도 단종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직이 삭제되었다. 정확한 사망년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489년(성종 20년) 화의군이 자신의 서자를 종적에 편입시켜줄 것을 호소하였다는 화의군의 행적에 관한 『성종실록』(성종 20년)기록이 마지막이므로 1489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의군은 일찍이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세종대의 한글창제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훈민정음처의 감독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791년(정조 15)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구축하면서 단종에 대한 충절이 인정되어 정단(正壇)에 배식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화의군은 18남 4녀에 달하는 세종의 많은 자녀들 중 가장 장수하였고, 또 제일 마지막에 사망하였다. 1518년(중종 13) 손자 윤(綸)의 요청으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현재 묘소에는 봉분 뒤 3면을 둘러싼 담장[曲墻]이 있고, 봉분에는 12지상을 새긴 호석(護石)이 둘러쳐 있다. 봉분 앞에는 비석과 상석(床石), 장명등(長明燈)이 차례로 서 있고, 양 옆에 문인석과 무인석, 망주석(望柱石)이 한 쌍씩 서 있다. 이 가운데 비석과 상석, 장명등, 문인석, 망주석은 원래의 것이지만, 곡장과 호석, 무인석은 최근에 보수한 것이다. 비석 앞면에 해서체로 '和義君之墓'라고 새겼다.

화의군 묘역에는 화의군의 둘째 아들인 여성군(礪城君) 번(輶)과 셋째 아들인 금난수(金蘭秀) 식(軾), 그리고 증손자인 태산군(泰山郡) 황(凰)의 묘가 함께 있으며, 재실인 충경사(忠景祠)에는 화의군 부부와 화의군의 생모인 영빈강씨의 신위가 봉안되어 있다. 그리고 묘소와 재실 입구에는 최근 1984년에 세운 '조선국종실화의군증시충경공신도비(朝鮮國宗室和義君贈諡忠景公神道碑)'가 있는데, 비문은 국어학자이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승녕(李崇寧)박사가 지었다.

○ 숙용심씨묘표(淑容沈氏墓表)

관련어: 제각말, 16세기 양식 묘표, 성종, 숙용(淑容)

은평구 진관동 진관사 입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묘표이다.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다. 제각말에서 진관사 방향으로 가다가 넘는 고개 꼭대기에 숙용심씨 묘표와 진관외동 '유물산포지1'이 있다. 실전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숙용심씨(1466~1515) 묘표(墓表)는 일본 금융계의 중진으로 수상(首相)·대장상(大藏相) 등을 역임하다가 1936년 암살된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 조성된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기념공원 안(日本 東京都 港區 소재)에 있다가 2001년 후손들에 의해 국내로 반환된 석비(石碑)이다.

비 몸돌 전면에 '숙용심씨지묘(淑容沈氏之墓)'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성종 대왕의 후궁으로 성종과의 사이에서 2남(利城君과 寧山君) 2녀(慶順翁主·淑惠翁主)를 낳은 숙용심씨(淑容沈氏)의 묘표로 추정된다. 이 비가 언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동안 후손들에게도 분묘 자체가 실전(失傳)된 것으로 전해 왔으므로 성종과 중종의 능이 훼손되기도 했던 임진왜란 때로 추정된다. 현재는 은평구 진관외동 50번지에 조성된 단위에 모셔져 있다.

숙용심씨는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워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된 심말동(沈末同)의 딸인데 후궁이 된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성종실록』의 성종 24년 4월 14일 조의 "... 심숙원(沈淑媛)이 이번에 부상(父喪)을 당했으니..."라는 기록으로 보건데, 1493년(성종 24) 이전에 이미 후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왕실록』에 실린 성종대왕 묘지문(墓誌文)에는 성종이 왕비 3인, 후궁 7인을 둔 것으로 나오는데, 내명부의 4품 품계인 '숙원심씨(淑媛沈氏)'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씨는 성종이 세상을 떠날 당시까지 '숙원'이었다가 후세에 3품의 숙용(淑容)으로 추봉(追封)된 것 같다.

이 묘표는 심씨가 세상을 떠나 분묘가 조성되던 해 또는 숙용으로 추봉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인데, 전주이씨 장흥군파 종보에는 숙용심씨가 1515년(중종 을해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무렵 묘비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묘표 자체도 16세기의 양식을 보인다. 비는 머릿돌[碑首; 螭首]과 몸돌[碑身], 받침[碑座; 碑臺, 龜趺]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릿돌과 몸돌이 하나의 돌로 조성되고 이렇게 조성된 비가 2단의

비 받침에 꽃혀 있는, 이른바 통비(通碑)형태이다. 비 머릿돌과 몸돌은 백대리석(白大理石)을, 받침돌은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비 머릿돌 이수(螭首)는 이무기 한 마리가 여의주를 잡고 몸을 비틀어 바라보는 역동적 모습이다. 이무기 주변과 후면에는 운문[구름무늬]을 조각했다. 비 머리에 구름무늬가 사용된 예는 조선 초기부터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묘표의 경우처럼 구름무늬에 용이 조각된 예는 드문 편으로 16세기 석비 문화를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비 받침은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중대에 안상(眼象)을 새기고 하대에 운족을 표현하여 비좌를 받치고 있다. 숙용심씨의 묘표 남쪽 능선에 심씨의 차남 영산군(寧山君)의 묘가 있다.

○ 영산군 이전 묘역

관련어: 조선후기 묘제, 쌍분, 이수형 묘표,

영산군 이전(寧山君 李愴, 1490 성종 21~1538 중종 33)은 성종의 13남이다.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아버지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 묘소는 어머니 숙용심씨 묘포 남쪽 능선 위에 있다. 200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다. 북서향의 좌향 능선 가장 위쪽에 영산군의 묘가 있고, 아래에 차례로 아들 장흥군 이상(長興君 李祥), 손자 이경의(李鏡義), 증손자 이종(李琮) 등 4대의 묘가 있다.

영산군 묘역은 쌍분삼위장(雙墳三位葬)이다. 당초 영산군과 후취인 교성군부인 경주정씨의 합장묘 1기였으나, 진관사 뒤편의 금릉군부인 첨송심씨의 묘를 1970년에 이전하여 2기의 묘가 되었다. 묘표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장명등 등이 옛 석물이고 근래에 건립한 비석이 2기이다. 묘표는 이수(螭首) 형으로 봉분 우측이다. 머릿돌인 이수 앞면에 이무기가 여의주를 잡고 고개를 틀어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수 후면은 달 모양을 가운데 새기고 주변을 구름 모양으로 조각하였다. 문인석은 좌우의 것 모두 전체 높이가 2m가 넘는 아주 큰 규모로 조성되고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금관의 옆에는 비녀를 꽂은 모양을 표현하였고 관의 끈을 턱 아래에서 묶어 양 옆으로 나눈 모습으로 표현했다. 문인석의 얼굴은 16세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문인석처럼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되었다. 향 좌측 문인석은 오른쪽 옆에 총탄 자국이 세 군데 나 있고 향 우측의 문인석은 코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영산군 이전 묘역과 그의 후손 묘역들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묘제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전의 묘역, 묘역 내 다른 분묘와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는 문인 석 등 석물들은 당대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보아 서울시 기념물 제 26호로 지정 보존하고 있다. 아들 장흥군(長興君) 이상(李祥), 손자 이경의(李鏡義), 증손자 이종(李琮) 등 후손 묘역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문화재로는 지정하기 어려우나 영산군 묘역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완충지대로 보아 묘역, 은평구 진관외동 산47-2와 산47-3 등 2필지, 총 1,146㎡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4. 역참과 봉수

은평구는 조선시대 1번 국도에 해당하는 서로(의주대로)의 노변(路邊) 지역이다. 노변 지역 은평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유산이 연서역과 검암참(금암참)이다. 역사적으로 연서역은 인조반정이 태동하고 거사가 시작된 곳이며, 검암참은 숙종과 비빈의 능이 있는 서오릉에 인접하여 영조와 정조가 능행(陵幸)을 하고 휴식하던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비가 연서역과 검암참 부근에 남아있어 이 두 역사적 장소의 중요성을 문화유산으로 전하고 있다.

4.1. 연서역 영서역(延曙驛 迎曙驛)

관련어: 영서역, 역도(驛道), 찰방, 인조별서유기비, 인조반정, 이서, 양철평(梁鐵坪), 연신내, 역촌동

연서역(延曙驛 혹은 迎曙驛)의 위치는 은평구 역촌동 8-12번지 예일여고(예일디자인고) 앞이다. '역촌동'이라는 지명은 연서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현재 '연서역터(迎曙驛趾)'라는 표지석이 지하철 역촌역에서 구산역 방향의 서오릉로 대로변에 있다. 표지석에 '조선시대 서울을 왕래하는 공무여행자에게 말(馬)과 숙식을 제공하는 역터'라는 설명이 쓰여있다.

조선시대의 국가 도로교통 체제는 역원제(驛院制)라고 한다. 역에는 마필(馬匹)과 역정(驛丁)을 두어 공문의 전달, 공무 여행자에 대한 말의 제공, 숙식 알선을 하였다. 대체로 30리마다 역을 두었는데, 인접한 속역(屬驛)을 묶어 역도라 하고 주요 역에는 종6품의 문관인 찰방(察訪)을 두어 관할 역을 지휘 감독했다. 찰방역은 관물(官物)의 수송까지 담당하였다. 역 주변에는 역에 종사하는 사람[驛民]이 거주하는 역마을[驛村]이 형성되었고 역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驛田]이 있었다. 원(院)은 역의 인근에 설치한 국립 숙박업소로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연서역은 찰방역(察訪驛)으로 조선 시대 한양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로 가는 제1로의 첫 번째 역으로 영서도(迎西道) 6개 역을 관할했다. 조선 전기에는 영서역(迎曙驛)으로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주목(楊州牧)」에, “영서역(迎曙驛)은 찰방이 주재하던 곳으로 벽제(碧蹄)·마산(馬山)·동파(東坡)·청교(靑郊)·산예(狻猊)·중련(中連) 등 속해 있는 역이 6개이다.”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연서역(延曙驛)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여지도서(輿地圖書)』 경기도 양주 역원조). ‘영서(迎曙)’라는 말은 새벽을 맞는다는 뜻이다. 연서역의 위치에 대해서 다른 주장도 있다. ‘은평향토사학회’ 박상진 씨는 1509년(중종 4) 경에 중국 사신의 요청에 따라 부평으로 이전했다가 불광동에 영서역을 다시 옮겨 이름을 연서역으로 바꾸었으며, 고지도에 나오는 관기(館基), 관기현(館基峴)이라는 이름이 연서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서역은 조선시대 서울인 한양에 인접하고, 관서지방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 길이므로 관련 설화가 많다. 특히 연서역 인근에 능양군(인조)의 별서(別墅)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귀 김류 등과 반정을 모의하고, 이서의 장단군사와 연서역에서 합류하여 인조반정을 성공시켰다. 이를 기념하여 숙종이 ‘인조별서유기비’를 별서 터로 추정되는 곳에 건립하였다. 연서역은 중국으로 드나드는 길목에 자리한 역으로 사신을 영접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잡기(雜伎)를 관람하던 소주정(小晝亭) 역할을 했다. 『태조실록 10권』 (1398) 8월 4일 자에는 중국에서 온 “사신 우우(牛牛) 등이 영서역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태조실록 10권』 5년(1415) 8월 4일 자 기사 『태종실록 29권』 15년(1415) 6월 29일 자 기사에는 “소나기가 내려 영서역의 정자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가 벼락을 맞았다.”라는 기록도 있다. 능행(陵幸)에 나선 국왕의 주정소(晝停所)로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까운 양철평(梁鐵坪)에서 시행하는 강무(講武; 군사훈련으로서 사냥이나 진법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서울 인근 의주로 가까이 위치한 연서역은 사건, 권세가에 의한 마위전(馬位田) 등 역토(驛土)의 사유화, 그리고 옥사(獄事) 기록도 있다. 1447년(세종 29)에는 평양 대성산에 소굴을 만들어 살인과 강도질을 일삼다가 수감된 죄수 중 20여 명이 탈옥하여 연서역에 몰려와 관군에 저항한 사건이 발생했다. 1690년(숙종16)에 왕이 장희빈의 부친 옥산부원군 장형(張炯)의 묘소 석물(石物) 공사에 역민을 동원하고 비용을 역민의 역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으나, 비변사에서 반대하자 병조에서 대신 충당하도록 했다. 1696년(숙종 22)에는 연서역 장형묘소 흉물(凶物) 매립 옥사가 있었다. 연서 가까운 곳에 장희빈을 배출한 인동장씨의 마을이 있고 장희빈 부친 장형(張炯)의 묘소가 있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의 가족이 장형의 묘소에 목동자(木童子)와 사모 입힌 인형, 나무칼 등 흉물을 묻어두었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이들은 문초를 받고 환국(換局)를 도모했다고 자백하였다 한다.

연서역은 중요한 역이므로 역도를 관리하던 찰방을 임명할 때에도 품계가 높고 명망이 있는 문관을 선발하여 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시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나 황해도 평안도로 출장하는 관리들은 도성에서 나와 연서역에서 본격적인 공무를 시작했는데, 1583년(선조 16)학봉 김성일(鶴峰 金誠一, 1538~1593)이 황해도순무어사(黃海道巡撫御史)로 나갈 때 지은 연서역 시가 전한다.

도성을 나와 연서역(延曙驛)을 바라보니 살구꽃이 만발하였다.
울타리 희미하니 마을이 어디인가
나무엔 살구꽃인데 문에는 눈 쌓였네
풍진 속에 몇 달이나 병 앓던 나그네가
어느 날 도성을 나서니 봄 경치 한창이네

出城望延曙驛杏花爛開
籬落依稀何處村
杏花千樹雪堆門
風塵數月病吟客
一日出城春事繁

연서역 주변을 흐르는 시내 '연신내' 이름도 인조반정과 관련 있다. 1623년 음력 3월 12일 밤 능양군(인조)은 연서역에 나가 쿠데타의 주력부대인 장단부사 이서(李曙)의 군대를 기다렸다가 합류했다. 임금이 되는 능양군(인조)이 신하인 이서를 기다렸는데 늦어서야 연서천에 이르렀다하여 이름이 '연신내(延臣川)'가 되었다는 설이 전한다. 연서역 주변의 마을이 '역촌' 또는 '역말'이 되었으며, 지금의 역촌동이 되었다. 연신내는 불광천의 옛 이름으로 영서천, 연서천, 연서내, 까치내 등으로 불렸다. 이 일대의 도로명에 연서로가 있다.

4.2. 검암참(금암참)

관련어: 검암기적비, 역참, 영조, 정조, 명릉, 능행, 주정소

검암참(黔巖站)은 은평구 진관내동 428번지 '검암기적비(黔巖記蹟碑)'가 있는 금암문화공원 근처로 추정된다. '검암'이란 이름은 검은색의 큰 바위 검암(黔巖)이 인근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발음에 편한 '금암'으로 부르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국가 교통체제의 틀은 역참제(驛站制)라 할 수 있다. 역(驛)은 말을 보유해서 공무(公務) 인원과 물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참(站)은 파발(擺撥)을 운영해서 변방으로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통신의 거점이다. 조선 전기까지의 중앙과 변방을 연결하는 통신망은 봉수제(烽燧制)와 역제(驛制)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봉수제는 날씨나 봉수대 근무자의 형편에 따라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봉수제의 약점을 보완한 통신체제가 임진왜란 이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파발제(擺撥制)이다. 파발은 긴급한 공문을 포졸(鋪卒)이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보발(步撥)과 기마(騎馬)로 전달하는 기발(騎撥)로 구분된다. 조선의 파발노선은 서발(西撥) 북발(北撥) 남발(南撥) 등 3개 노선이 있었다. 서발은 한성 돈화문 밖에 설치한 기영참(畿營站)에서 의주(義州) 관문참(官門站)에 이르는 41참 1,050리 거리이다. 1597년(선조 30) 설립된 검암참은 도성 밖에 있는 첫 번째 참(站)이다. 정조 때 인물 홍경모(洪敬謨)의 「관서유기(關西遊記)」에 검암참은 관리들이 역으로 활용하였으며, 임금의 왕릉 행차(陵幸)에 주정소(晝停所; 휴게 장소)로 활용되는 행궁이 있었으며, 그 위치는 '검암기적비'가 세워진 곳이라고 기록하였다.

"신해년(1791, 정조15) 가을 8월에 나는 서로(西路)에 갔다. 승례문을 나서 사현(沙峴; 무악재)을 넘었다. 사현 북쪽에 홍제원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 사신이 옷을 갈아입는다. 녹번고개를 넘자 관로는 넓고 평단해서 바르다. 말을 타고 십리를 가서 검암역(黔巖驛 黔巖站)에 이르니 행궁(行宮)이 우측에 우뚝하다. 이곳이 능행 때 주정소(晝停所)인데 들에 어제비(御製碑)가 있었다." - 冠巖 洪敬謨, 『冠巖存藁』 「關西遊記」

검암참은 도성을 나서 만나는 첫째 참이라는 특성도 있었지만, 그 중요성은 정조가 건립한 '검암기적비(黔巖記蹟碑)'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신축년(1721, 경종 1) 영조가 즉위하기 전 연잉군(延祜君)이었던 시기에 아버지 숙종의 회갑이 되는 날 숙종의 명릉(明陵)을 참배(謁陵)하고 돌아갈 때 일어난 미담과 상서롭게도 그날 왕위를 이을 왕세제로 책봉된 의의를 60년 뒤 다시 돌아온 신축년(1781, 정조 5)에 손자 정조가, 숙종이 연서역(延曙驛)에 비석을 세운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글을 직접 짓고 직접 써서 회포를 편 것이 바로 '검암기적비'이다.

검암참은 파발 기능으로 시작되었으나, 숙종의 명릉이 조성된 이후 역대 국왕의 능행(陵幸)이 많아지고 국왕 일행이 휴식을 취하는 주정소(晝停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검암참에는 영조가 건립한 구사(舊舍)와 정조가 건립한 신사(新舍)가 있었고 행궁과 출입문까지 건립되어, 인근에는 주막 검암점(黔巖店)과 있었다. 북한산성 축성 이후 군량 확보를 위한 둔전(屯田) 경영을 위한 검암둔(黔巖屯)이 경영되었다.

4.3. 봉헌봉수

관련어: 봉수, 봉령산, 벌고개, 향현(香峴), 봉산해맞이공원, 해포봉수, 서오능, 경릉

은평구 갈현동에서 서오능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벌고개 혹은 봉현이라고 하는데, 봉헌봉수(峰峴烽燧)는 이곳의 봉산 혹은 봉령산(鳳嶺山)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봉수이다. 2011년 은평구청에서 봉령산에 '봉산해맞이공원'을 조성하고 봉수대를 복원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봉헌의 봉수는 고양의 고봉성산(高峯城山)의 봉수를 받아 무악재 서봉수대에 전달하고 다시 남쪽으로 목멱산(木覓山; 남산) 제4봉수에 전달했다. 목멱산 봉수대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마지막으로 보고되는 봉수이다. 봉수란 전망이 좋은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축조하여 밤에는 햇불(烽), 낮에는 연기(燧)로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통신으로 흔히 봉화(烽火)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봉수제는 삼국시대부터라지만, 고려시대부터 제도화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양군 봉수조에는 “봉헌봉수는 군 동쪽 15일 지점에 있다. 서쪽으로 고봉성신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경성 무악에 통한다.” 봉헌 봉수의 위

치는 조선 후기에 행주산성에 가까운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봉대산 해포(醞浦) 봉수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봉현봉수의 '봉현'은 '벌고개(罰峴, 蜂峴)'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 고개가 풍수적으로 서오릉에 있는 덕종(德宗)과 덕종비의 경릉(敬陵)의 좌청룡(左靑龍)에 해당하는데, 지반이 낮아 통행이 많아지면 지기(地氣)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통행을 금하고 벌(罰)을 준다고 하고 또 벌(蜂)이 많다고 소문이 나게 해서, 통행을 구산동 시립병원 뒤 향현(香峴)으로 우회하도록 했다고 한다.

5. 성황당과 산신제

5.1. 구파발 금성당제

관련어: 금성대왕, 금성산신, 금성대군, 금성당제, 무신도, 샤머니즘박물관, 이말산

서울 은평구 구파발(진관동 175-836)에 금성당제를 모시는 금성당(錦城堂)이 있다. 금성당은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단장돼 2008년 7월 22일 국가민속문화재 제 258호로 지정되고, 2016년 5월 25일 금성당 샤머니즘박물관으로 거듭났다.

금성당(錦城堂)은 전라도(全羅道)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금성대왕(錦城大王)과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 그리고 다른 신(神)들을 모신 신당(神堂)이다. 금성대왕은 나주 금성산신(錦城山神)으로 고려 시대 때부터 나주 금성산에서 금성대왕을 모시는 국가 제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조선왕실에서도 금성대왕을 모시는 제례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 차원의 행사를 유지하면서 매년 봄과 가을에 향, 축문, 폐백을 내려 웅대한 규모로 금성당제를 개최하였다. 나주의 금성신앙이 조선 시대 한양에 도입되면서, 구파발에 2곳, 노들(마포 망원동), 각실점(장위동)에 사당이 있었다.

어린 조카 단종의 복위운동을 하다가 처형된 세종대왕 여섯째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숙종 때 복권되자 금성당에 함께 모셨다. 오늘날에도 서울곳에서는 <금성당 대신>, 평안도곳에서는 <전남 나주 금성이 본> 등 곳 서두에서 청배할 만큼 금성산의 금성대왕신

은 중시되고 있다. 금성당은 조선시대 호국사찰과 같은 개념으로 알려진 당으로 경사곳이나 천신(天神)곳을 많이 했다고 한다. 왕실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의 사람들이 봄과 가을에 금성산으로 몰려들어 한해의 풍년과 태평함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풍속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자 조정에서 이를 금하려 하였지만, 축소된 규모로 일제강점기 때까지 존속되었다고 전해진다.

서울 지역의 금성신앙은 세 곳에서 돌아가며 나라의 평안을 빌었다 한다. 1970년대 이후 도시개발로 모두 옛 자취를 잃고 지금은 진관동 구파발 금성당만 남았다. 진관동 금성당에서는 매년 봄가을 금성당제(錦城堂祭)를 개최하여 이말산(荊萊山)에 묻힌 궁인을 추모하고, 더불어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時和年豐]을 기원하며, 또 지역민의 부귀영화와 대동단결을 축원한다. 구파발 금성당에는 16본의 무신도(巫神圖)가 있었는데 현재는 8점이 남아있다. 도난 이전의 금성당의 무신도는 1972년 민속학자 장주근이 촬영하여 2003년 국립민속박물관 발행의 사진첩 『민속의 어제와 오늘 2』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금성당 건물은 19세기 후반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많은 신당(神堂)이 사라진 지금 옛 신당 모습을 간직한 금성당은 중요한 건축적 가치가 있다. 금성당의 구조는 본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고, 본채는 금성대왕 등 여러 신을 모시고 의례를 베푸는 신당이다. 본채 앞에 행랑채를 두었다. 본채 동쪽의 'ㄱ' 자형 안채는 금성당에서 일하는 시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안채 형태는 중부지방 민가와도 같은 'ㄱ'자 형이며, 동쪽 방은 '전(田)'자 형태로 크게 지었다.

5.2. 진관내동 사신성황당

관련어: 중국 사신, 사신서낭당(성황), 무신도, 서로(의주로)

은평구 구파발 일대 진관동은 조선시대 중국과 통하는 서로(西路)의 노변이다. 조선시대에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평안을 비는 사당이 이 길 주변 곳곳에 분포하였다. 은평구 진관내동 못자리골 산 68번지에 무당의 개인 신당으로 사신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말에 제작된 무당(巫堂)내력(來歷)에 의하면, 명나라 때에는 사신이 수로를 이용하여 왕래하였기 때문에 사신이 출발할 때마다 모화(慕華)문 밖 사신서낭당에서 무사히 돌아오기

를 비는 곳을 행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인 적송지성추엽옹(赤松智城秋葉隆)의 『조선의 무속연구』에 의하면, 사신서낭을 사신성황으로 표기하고 있다. 서울의 동서남북 4개 성황 중에 서쪽 성황이 당시 서대문 밖 몽학현에 있었다고 한다. 의주가도가 확장되면서 홍제동의 말바위라는 곳으로 잠시 이전하였다가 불광동으로 옮긴 것이 현재의 진관내동 민가로 이전한 것이다. 사신성황당 당주에 의하면, 사신성황당에는 80여 매의 무신도가 있다. 뒤주대왕을 비롯해서 최영장군도, 중국사신도, 삼불제석도 등 4매의 무신도는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5.3. 진관외동 제각말 산신제

관련어: 제각말, 산신제, 삼각산, 조라술, 소지(燒紙)

은평구 진관외동 진관사 아래쪽에 있는 제각말에서는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었다. 제삿날은 음력 2월 1일과 10월 1일 2차례이다. 제당은 진관사 입구에 자리한 사회복지시설 인덕원 맞은편 삼각산 진좌봉 중턱이다. 오르는 길은 사찰 삼천사에 이르러 개울을 건너기 전 좌측 봉우리로 산길을 다시 10분 정도 올라가야 한다. 제당에는 소나무와 노간주나무 등이 둘러선 공간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2003년에 세워진 비석의 앞면에는 '山檀'이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제사의 유래를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을 섬기며 땅의 평화와 인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단인 이곳은 수 백년 전부터 산 치성터로 전해오고 있으며, 잣말(삼천동) 제각마을 주민의 성금과 정성으로 참여 매년 음력 이월 초하루와 시월 초하루 소를 잡아 제물을 마련 제를 올리며 각 가정의 세대주 성명을 적어 소지를 올리는 절차로 진행한다.”

2003. 쉐 10 1 주민일동 건립

제물은 통소와 삼색과일 삼색나물 북어 조라술 등을 준비하는데, 현재는 간략화해서 통소는 양지머리로 대체하고 조라술도 직접 담그지 않고 구입해서 쓴다. 제사에는 부녀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제관 6~7 명이 참여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정해진 축문을 읽는다. 제

사를 마치면 산에 치성을 드리는 회원들 각자의 소지(燒紙)를 올리며 제단의 소나무에 폐백을 건다.

5.4. 박석고개 성황당

관련어: 박석고개, 대동제, 성황제, 성황당, 도당

은평구 박석고개 마을에서는 대동제와 성황제를 지냈었다. 이 제사는 '대동제사'라고 불렀는데 음력 10월 1일에 지냈다. 1967년 발간된 『한국의 마을제당-서울 경기도』에 의하면, 제사는 집마다 5백원씩 내어 제물을 마련하는 마을 대동제이다. 제당은 마을 뒤편의 큰 소나무가 있는 도당(都堂)에 먼저 제사를 드린 후 성황당으로 옮겨 지낸다.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져 온 성황당은 1978년 남북적십자회담 때 도로확장공사로 헐렸다. 헐리기 전에 세 칸 규모의 당집 안에는 여러 장의 무신도가 걸려 있었고, 성황당 주변에는 울긋불긋한 오색 천을 잡아맨 신목(神木)과 나무 밑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던져 놓은 돌맹이가 높이 쌓여 석단(石壇)을 이루었다. 성황당의 금줄(원새끼줄)은 잡신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곳이 신성(神聖) 공간임을 상징한다.

박석고개 성황당은 매우 영험하다고 알려졌는데, 중국 사신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옛날 중국 사신이 이 성황당 앞을 지나치다가 별안간 말이 큰 소리를 지르더니 꼼짝 않고 움직이지 못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에게 물으니 말에서 내려 성황께 빌면 다시 말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니, 중국 사신은 마을 사람이 일러주는 대로 정성껏 빌고 나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조선시대 한 관찰사가 이 성황당 앞을 말을 타고 당당히 지나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소문이 있은 후 성황당은 더욱 유명해졌다.

1983년에 성황당 터가 다시 마련되고 1993년에 현재의 당이 마련되어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석고개마을 단위의 대동제 전승은 중단되고 전에 성황당을 관리하던 손숙정 씨의 딸 박용자 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6. 참고문헌

■ 논문, 보고서, 저서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문화유적 지표조사종합보고서, 제Ⅲ권.

서울역사박물관, 2009, 서울발굴유물특별전 -은평발굴 그 특별한 이야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7,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상설전시도록.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8, 2018년 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은평의 옛길과 통신 -우역 파발 봉수-'.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8, 의주로 가는 길, 은평의 역과 참.

이성형, 2001, 재미있는 은평이야기.

한글학회, 2012, 한국지명총람(서울편).

■ 고문헌, 지도 자료

『고려사』

『여지도서』

『은평구지』 10장 문화유적 인물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재전서』 제15권

金誠一, 『鶴峰全集』

洪敬謨, 『冠巖存藁』

■ 인터넷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소장품,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85>

네이버 블로그 개미실 사랑방

서울신문 2012년 11월 12일자 10면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25025033>

더코리아뉴스, 이말산, 스토리텔링가득한 곳! 왜?, <http://thekoreanews.com/detail.php?number=4911>

위키백과, 은언군, http://m.isplu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8749992&ctg=1700&tm=i_if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사머니즘박물관홈페이지, <http://www.shamanismmuseum.org/main.php>

은평문화원 홈페이지, <http://eunpyeong.kccf.or.kr>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6JOd_A1852_1_0034052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 기타 현장자료

이말산 노윤선 묘역 안내판

이말산 숙빈 최씨 묘역 안내판



05

은평한옥마을의 지형과 토양

5

은평한옥마을의 지형과 토양

박수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아시아연구소

장효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 시작하며

은평한옥마을은 서울과 의주를 잇는 의주로 인근에 위치하여 근대 이전에는 수도 한양과 연계된 다양한 역사적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한강을 따라 건설된 도로가 서울 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주요한 교통로로 역과 참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수도 한양과의 접근성이 높아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자원들이 분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은평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마을을 지나는 연서로와 북한산로를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의 지형경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동쪽은 급경사의 화강암 산악지형이 마치 병풍과 같이 펼쳐지는 반면, 서쪽은 비교적 낮은 구릉성 산지가 나타나고 있어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화강암과 편마암의 암석 특성 차이에 기인한다. 특히, 두 암석의 경계 부분을 따라 하천과 고개가 형성되고 있어, 한양과 연결하는 교통로를 형성하게 된 조건이 되었다.

은평한옥마을은 삼천사와 진관사 계곡이 있는 배후산지와 더불어 전면에는 말밭굽 모양의 이말산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보인다. 이 지형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말산에 의해 만들어진 좁은 수구를 지나면서 그 내부에 넓은 평지를 만들고 있다. 소위 사신사 지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풍수경관을 나타내며, 그 내부에 많은 역사적 기록과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은평한옥마을과 그 주변지형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런 특성이 나타난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고자 한다. 지형, 즉 땅의 형태는 지표면에서 물과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하는 1차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형의 형태에 따라 토양 특성이 달라지고, 그 결과 그 위에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의 분포와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인간의 삶과 그 변화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토목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근대 이전에는 교통로와 주거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역사를 변화시키는 1차 요인이 된다. 2차적으로는 지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상징과 문화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요인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최근 관광과 휴양, 그리고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형의 이해와 역사와의 상호관련성은 은평한옥마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장의 2절에서는 은평한옥마을의 입지 특성을 서울과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서울과 경기북부의 지형과 유역 분포특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3절에서는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형 및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암석의 차이가 유역과 교통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4절에서는 은평한옥마을과 그 주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의 분석을 통해 한옥마을의 지형 및 토양학적 특수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5절에서는 풍수 명당으로서 한옥마을의 발달과정을 지형발달사적 측면에서 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생태적 특징점들을 기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지형경관적 특성이 지역 역사적 발전과정과의 상호작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평한옥마을의 장소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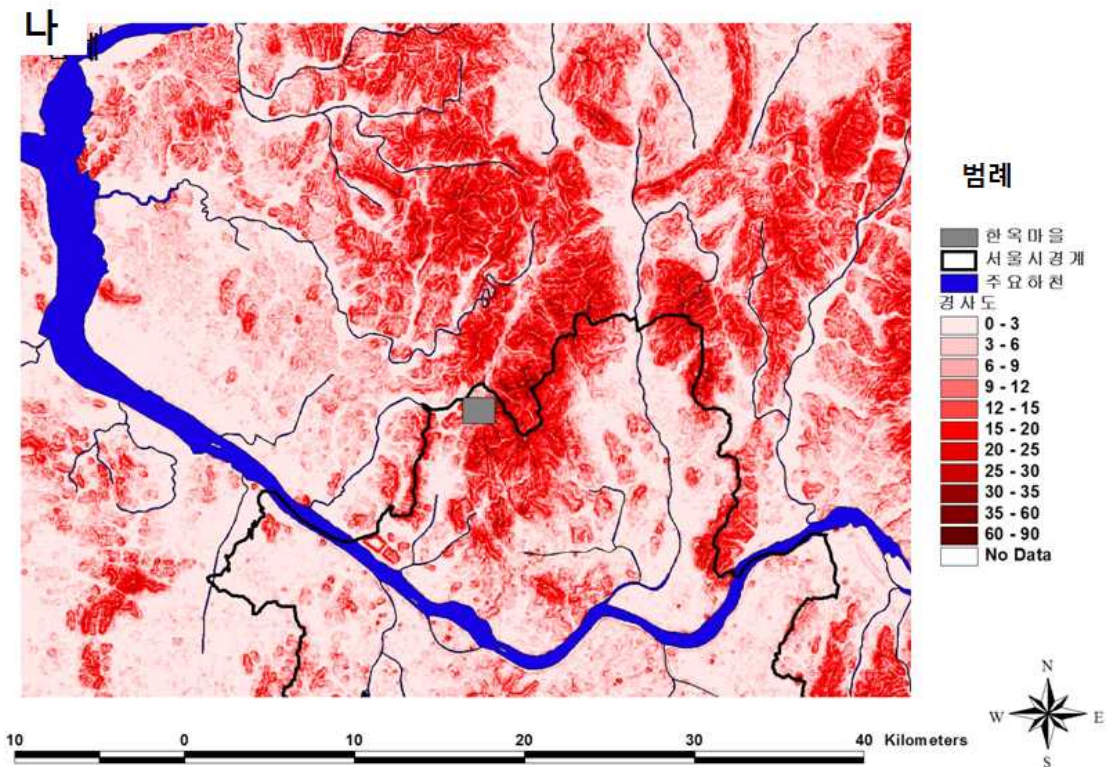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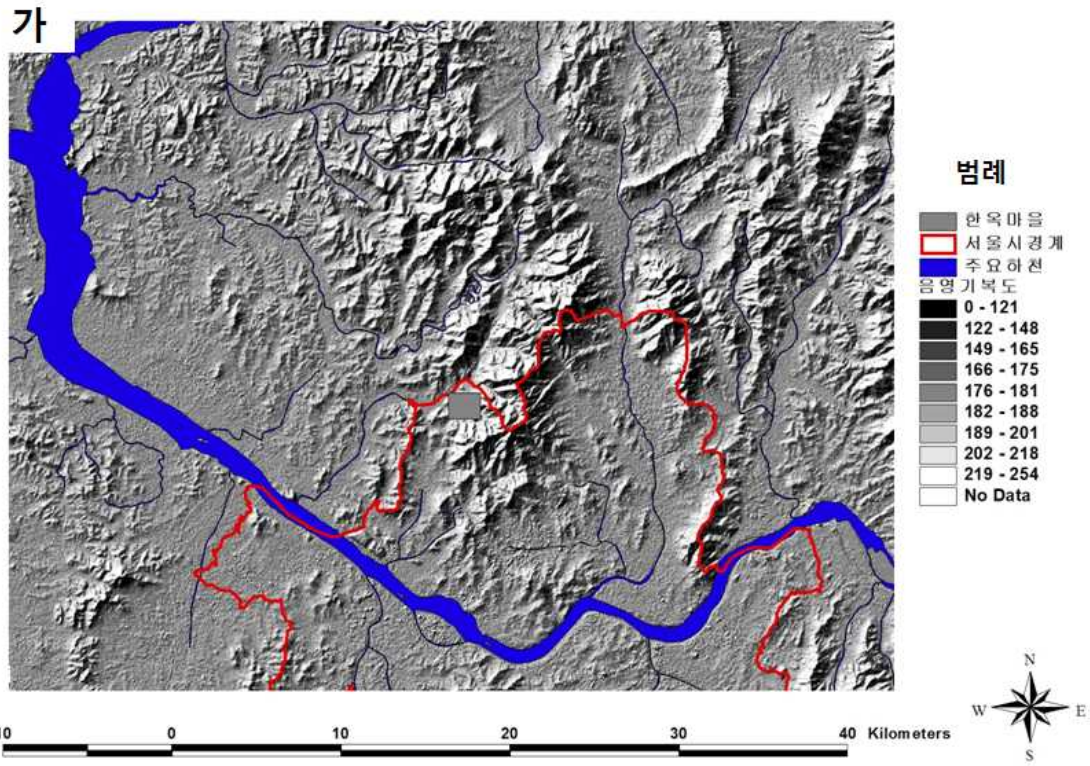
2. 은평한옥마을의 위치와 유역분포

2.1. 지형의 분포특성과 광주산맥

서울시 북서부에 위치한 은평한옥마을은 지형적으로는 경기도 북쪽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넓은 산지지형의 서쪽 사면에 위치한다(그림 5-1). 이 산지지형은 흔히 광주산맥으로 불리며, 원산에서 시작하여 서울까지 이어지는 추가령구조곡의 남쪽 경계를 형성한다. 광주산맥은 추가령구조곡의 북쪽 경계가 되는 마식령산맥과 함께 중부지방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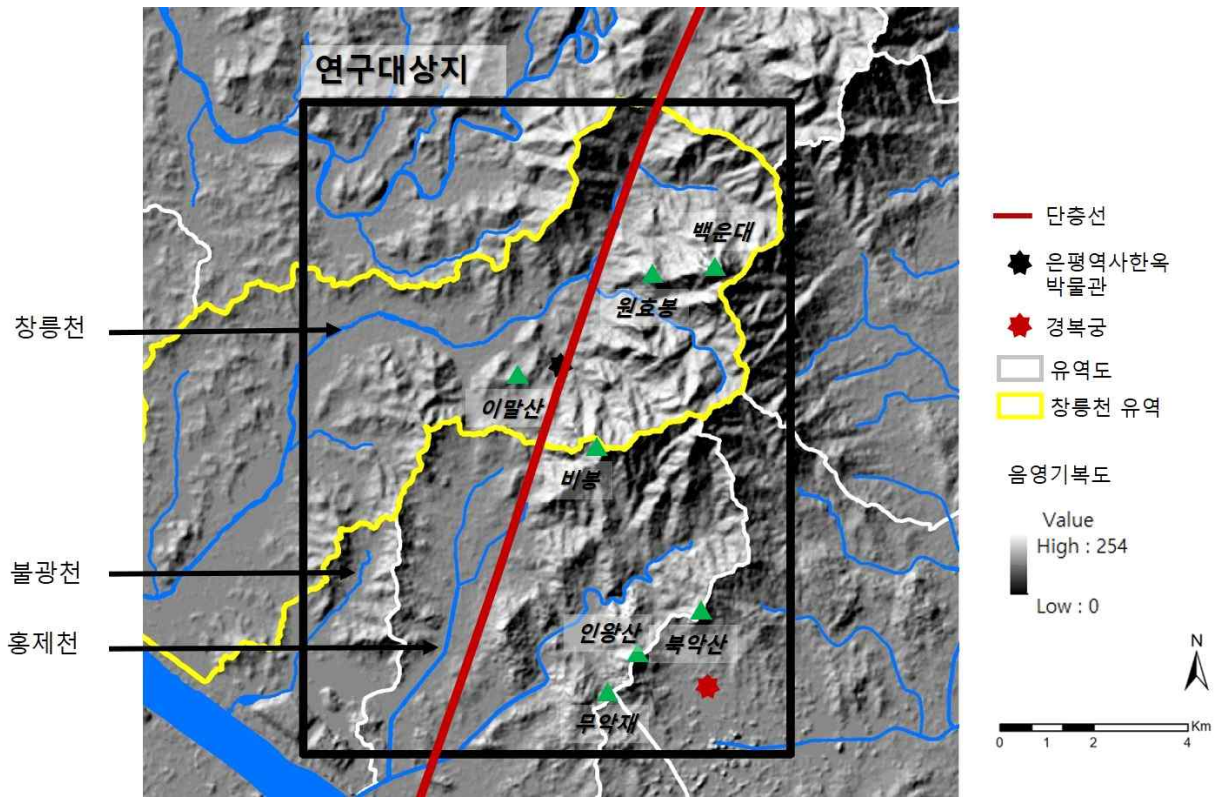
추가령구조곡은 제4기(250만 년 전~현재)에 형성된 열곡(Tectonic Valley)으로, 마그마가 지질적으로 약한 부위를 따라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지각이 벌어진 곳이다. 열곡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용암분출과 단층 등의 지구조 활동을 동반하여 지질·지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강원도 평강군의 오리산(453m)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굳어진 철원-평강용암대지가 추가령 구조곡을 채우면서 넓게 발달하고 있다. 또한, 함경남도 원산과 서울 사이 160km에 걸쳐 북동-남서의 사선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어(그림 5-2, 부록 1, 2 참고)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자연적인 교통로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민부·이광률, 2016).

한반도의 중부지방에는 많은 수의 단층대가 추가령구조곡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란히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단층선을 따라서는 하천이 흘러 주변에 평지를 만들거나 협곡을 형성하게 된다. 은평한옥마을을 지나 경기도 양주로 연결되는 북한산로는 광주산맥의 화강암 산악지를 관통하는 단층선 혹은 지질적인 연약부를 따라 형성된 하천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이다. 주변의 험준한 산악지 때문에 서울의 서부지역에서 양주로 갈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림 5-1〉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지형특성(가. 음영기복도, 나. 경사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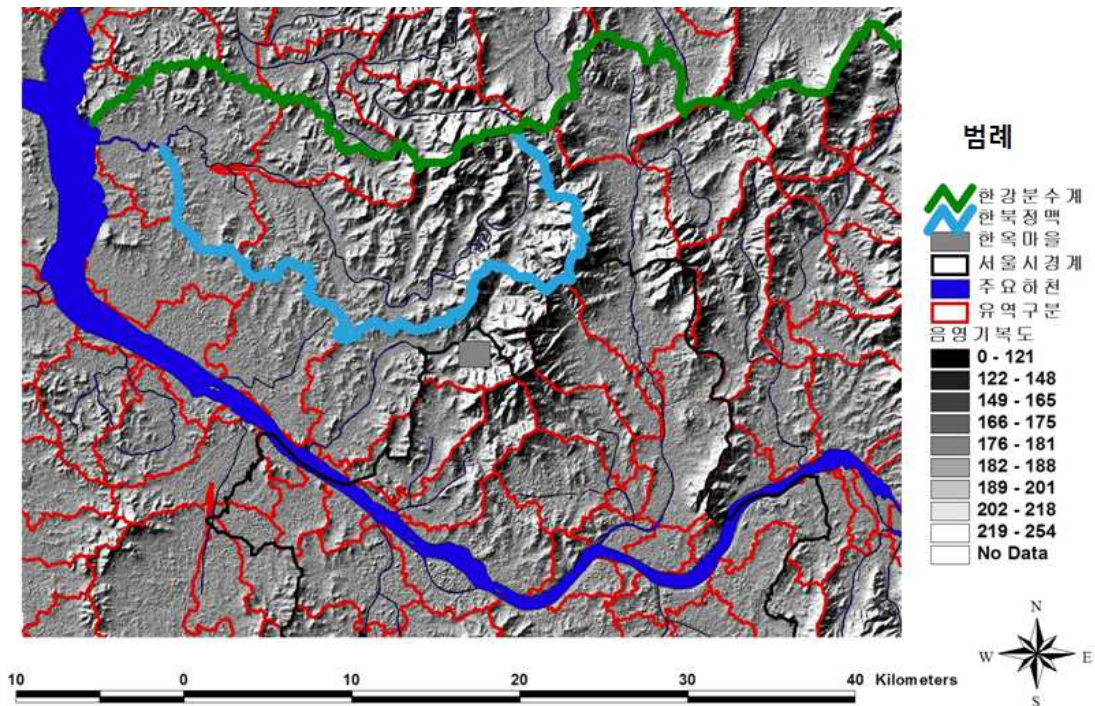
주: 국립지리원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필자가 제작



〈그림 5-2〉 은평한옥마을과 단층선 개략 위치도

2.2. 유역의 연결성과 한북정맥

앞서 광주산맥이 전체적인 지형의 분포특성을 설명하였고, 한국의 전통적인 산지인식 체계인 백두대간과 정맥의 분포로 은평한옥마을의 위치적인 상관관계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조선후기 발행된 산경표에서는 한반도를 1 대간과 1정간, 그리고 13 정맥을 기술하고 있으며,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한반도의 산줄기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산줄기를 따라서 흐르지만, 정맥들은 한반도의 주요 강의 유역분수계를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양보경, 1993; 박수진·손일, 2005).



〈그림 5-3〉 서울시 한강이북과 경기도의 유역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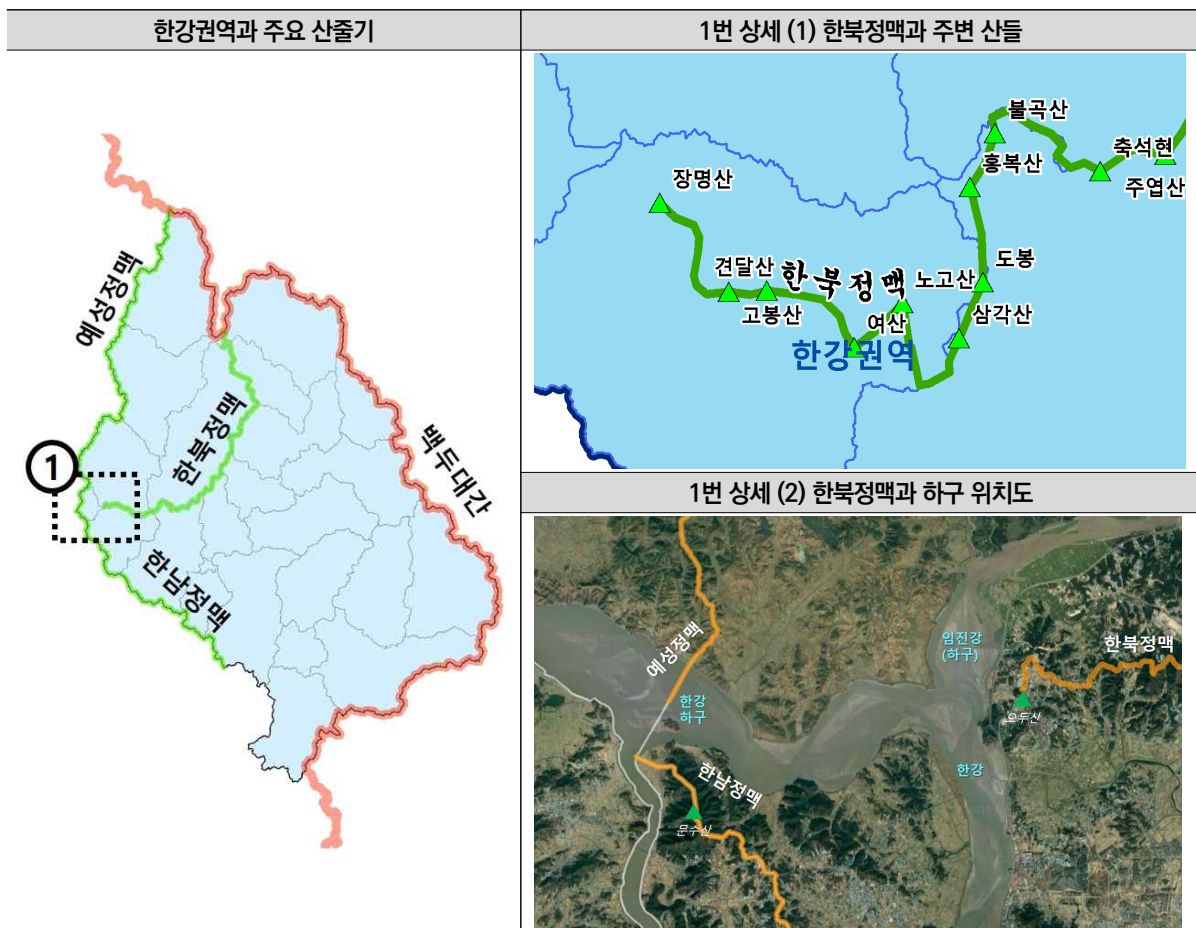
주: 은평한옥마을은 한북정맥을 마주 보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은평한옥마을이 위치한 곳은 한북정맥(한강의 북쪽을 따라서 흐르는 산줄기)을 북서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그림 5-3). 한북정맥은 추가령에서 시작하여 백암산(1,110m), 대성산(1,175m), 광덕산(1,046m), 백운산(904m), 청계산(849m), 운악산(945m) 등의 한반도 중서부의 명산들을 거쳐 도봉산(739m)과 북한산(836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이다. 북한산에서는 곡릉천의 남쪽 분수계를 형성하면서 은평한옥마을 앞을 지나 서쪽으로 경기도 파주 교하의 장명산(102m)까지 이어진다.

한옥마을 북쪽에 위치한 이말산으로 인해 마을에서 한북정맥을 직접 조망하기는 어렵지만, 은평한옥마을의 특성을 기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맥은 일반적으로 8대강의 유역분수계와 유사하고, 수자원단위지도²⁴⁾와 비교할 경우 대권역 경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4) 수자원단위지도는 국가 차원의 수자원 업무에 활용되는 자료의 수집, 분석과 물관련 기관 간 자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지형공간 상에 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으로 유역을 구분하여 설정한 지도를 말한다(국가공간정보포털, <http://data.nsdi.go.kr/dataset/12607>)

하지만, 한북정맥은 정맥 중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임진강의 유역분수계에서 벗어나서 북한산을 경유하여 한강의 지류인 곡릉천 유역의 남쪽 분수계를 이루고 있다. 이를 현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임진강 하구를 기준으로 한강유역(대권역)을 상하로 분할했을 때 한북정맥이 이 유역분수계를 지나게 된다(그림 5-4). 아마도 조선의 수도 한양의 풍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권역을 분할하여 의도적으로 정맥의 흐름을 바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3장 박선영 원고 참고).



〈그림 5-4〉 한북정맥과 유역의 상관관계 및 위치도

주: 저자 박선영과 장효진이 작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풍수적으로 한반도의 지기(地氣)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산줄기를 따라서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산줄기가 하천(물)을 만나기 전 발현하여 명당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한다(최창조, 1984). 따라서 북한산 자락에서 남쪽으로 뻗어 한강을 만나기 전, 지기가 발현하여 경

북궁터가 풍수적으로 적합하다는 상징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는 한북정맥이 한양의 상징적인 산인 북한산의 대표적인 산들을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한북정맥에서 산줄기가 분기하여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을 만나기 전에 동쪽과 서쪽으로 몇 개의 소하천과 그에 따른 유역분수계가 발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우이천과 성북천(안암천), 그리고 한양도성을 관통하는 청계천이 차례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서쪽에는 은평한옥마을이 위치한 창릉천, 한옥마을 남쪽의 불광천과 홍제천들이 차례로 발달하고 있다. 이들 하천은 모두 한강분류로 유입하게 된다. 그리고 한북정맥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남쪽으로 이어져서 북악산을 주산으로 그 아래에 한양도성이 입지하고 있다.

3. 화강암과 편마암이 만든 지형경관

3.1. 암석분포와 지형경관의 특성

은평한옥마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형경관은 북한산로를 경계로 동쪽과 서쪽의 지형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동쪽은 높은 산지에 기암괴석들이 노출된 대표적인 화강암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험준한 화강암 산지지형을 이용하여 북한산성을 축조하였고, 각 계곡마다 많은 사찰들이 입지하고 있다. 경관의 우수성으로 인해 1983년부터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처럼 대도시에 위치한 자연공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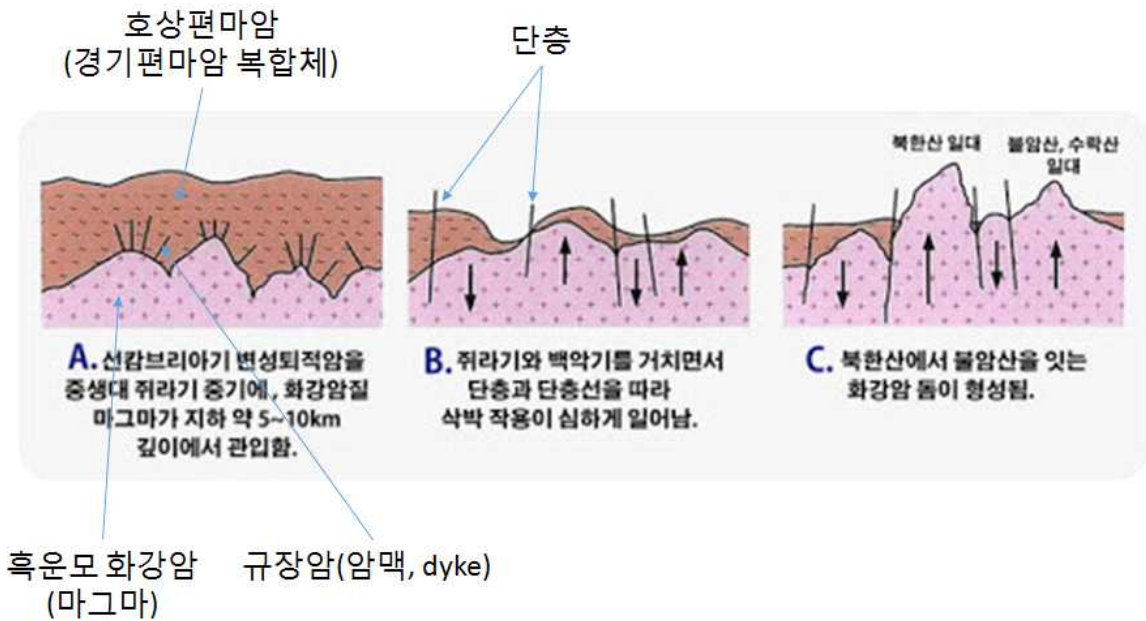
이에 반해 북한산로의 서쪽은 북한산과는 달리 낮은 산지들이 연속되어 나타나며, 산의 모양 역시 암반 노출이 적고 토양으로 덮혀 있는 구릉성 산봉우리를 가진 육산(肉山)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형 및 경관의 차이는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즉 화강암과 편마암의 특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흑운모 호상 편마암	흑운모 화강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시기: 선캄브리아기(23억 년에서 19억 년 전) • 경기편마암 복합체의 주요암석 • 석영과 장석이 주성분인 백질과 흑운모가 주성분인 우흑질이 띠를 이룬 호상구조 • 아름다운 모양을 지녀 조경석으로 활용 • 풍화를 받아서 화강암보다는 깊은 토양층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시기: 중생대 쥐라기 중기(205±15Ma) • 경기도 지역을 이루는 경기편마암 복합체를 저반 흑운암주의 형태로 관입한 심성화강암 • 검은색 흑운모의 함량이 높은 조립질 화강암 • 화강암의 특성상 기암괴석의 악산 혹은 침식분지를 형성 • 풍화에 강한 조립질 광물로 인해 토양발달이 불량

〈그림 5-5〉 은평한옥마을을 구성하는 주요 암석의 모양과 특성 비교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와 위키백과 사진 참고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 중서부 지역은 시생대와 원생대의 편마암류와 변성암류,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제4기의 퇴적물이 전체 암석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박수진, 2016). 시생대와 원생대의 편마암류와 변성암류는 수도권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암석이다(그림 5-5). 이 암석의 형성 시기는 대체로 약 19억 년에서 23억 년 전으로 추정된다. 오랜 기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암석의 특성과 형성과정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암석을 통칭하여 경기편마암복합체라고 부른다. 이 암석은 석영, 장석으로 구성되어 백색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흑운모를 함유하여 흑색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호상구조(互相構造)가 특징이며, 그 형태가 아름다워 조경석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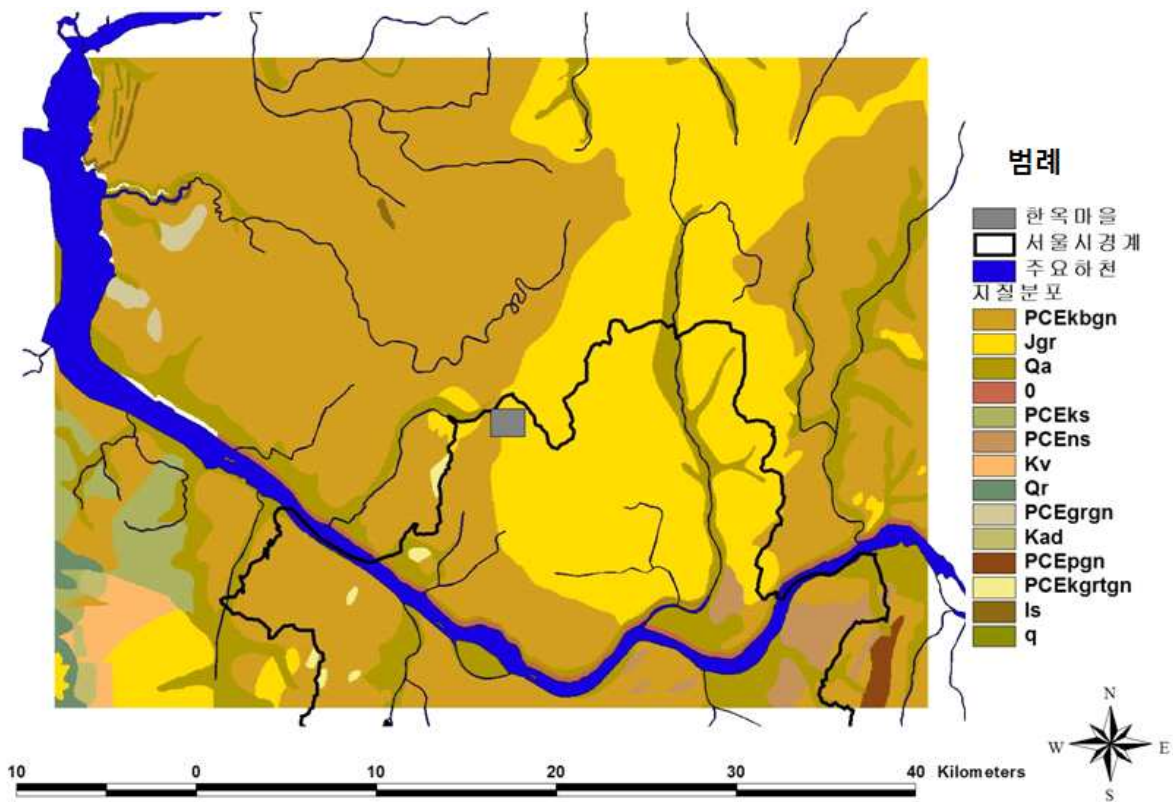


〈그림 5-6〉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지질특성과 지형발달과정

출처: 문화재청

경기편마암복합체를 원호형으로 관통하고 있는 암석은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 즉 대보화강암이다. 서울에는 두 개의 원호형 화강암체가 나타나며, 서울의 북쪽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강암체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관입한 화강암 저반(底盤)의 남쪽 말단부로 북한산국립공원을 거쳐 경복궁이 위치한 청계천까지 뻗어 있다. 반면, 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타나는 관악산 주변 지역의 화강암체는 암주(岩主)로 서울 남부지역에 나타나는 산지지역을 형성하는 중심이 된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른 마그마가 지하 10km 이상의 깊이에서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결정화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강암이 현재와 같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암석들이 지표침식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화되지 않은 제4기 퇴적층들은 편마암과 화강암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강은 북쪽의 화강암 저반과 남쪽의 관악산 화강암 암주 사이를 가로지르면 형성되어 있으며, 한강과는 거의 수직 방향으로 만나는 중량청, 홍제천, 불광천, 창릉천이 한강으로 유입되게 된다.



〈그림 5-7〉 수도권 북부지역과 은평한옥마을 주변지역의 암석분포

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5,000지질도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3.2. 암석에 따른 지형경관의 차이

화강암은 어떤 곳에서는 저평한 구릉성 산지 및 평야를 만들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험준한 기암괴석의 암산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서울분지, 춘천분지, 여주이천분지 등이고 저구릉성 지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금강산과 설악산, 그리고 은평한옥마을의 배후산지에 놓인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등과 같은 거대한 화강암 암체가 산정상부에 노출된 악산(嶽山)을 만든다.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화강암 지형의 특성은 화강암이 다양한 광물결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능한 일이다. 즉,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광물결정(석영, 장석, 등)을 만들게 된다. 화강암이 풍화 환경에 놓이게 되면, 각 조암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광물별로 풍화특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석은 상대적으로 빨리 풍화되면 반면, 석영은 풍화에 가장 잘 견디는 광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일부 광

물은 심하게 풍화되는 반면, 다른 광물은 풍화되지 않고 남게 된다. 이 경우 외견상 암석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구성광물들이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는 레고리스(regolith, 석비레)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레고리스는 상대적으로 물에 의해 쉽게 침식되어 낮은 기복의 구릉성 산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화강암의 풍화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온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물의 공급 여부이다. 물은 가수분해(hydrolysis)라는 풍화과정을 통해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광물들을 풍화시키게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물이 지속적으로 화강암 내부로 침투되는 환경에서는 풍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지만, 반대로 물의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쉽게 풍화되지 않고 남아 거대한 암체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의 화강암들이 높은 산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강이 화강암 저반과 암주 사이를 흐르면서 저지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화강암이 나타나는 지역의 물들이 한강으로 빠르게 배수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격자 형태의 단층선과 그에 따른 하계망의 발달은 현재 서울의 중요한 관광 및 경관자원인 화강암 산지들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경기편마암복합체란 형성시기가 불명확한 퇴적기원의 편마암류와 혼성암 등을 편의상 통칭하는 것이다(대한지질학회, 1999). 이 암석은 석영, 장석으로 구성되어 백색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흑운모를 함유하여 흑색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호상구조(互相構造)가 특징이다. 이러한 호상구조는 다양한 시대에 퇴적된 이질(泥質) 내지 이질사암(泥質砂岩)과 화강암이 심한 변성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후기 시생대에서 전기 원생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여러 번의 조산운동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형성과정을 거친 편마암은 광물들의 결정구조가 파괴되어 풍화에 취약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풍화를 받으면서 화강암과는 달리 깊은 토양층을 만들게 된다. 화강암 산지는 토양층의 발달이 불량하여, 퇴적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묘지와 같은 인위적인 토지 이용이 어렵다. 반면, 토양발달이 양호한 퇴적암에서는 상대적으로 묘지로 활용하기에 양호하다. 한옥마을 주변 지역에서 다량 발굴되고 있는 조선시대 무덤의 경우에도 이러한 토양 조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3. 교통요지로서의 은평한옥마을

현재 은평한옥마을은 한양 도성의 북서쪽에 있으며, 홍제천 유역과 불광천 유역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한양도성에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곳이 교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지역을 형성한 암석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중생대 화강암이 선캠브리아기 편마암과 접하고 있는 지점들을 따라 하천의 유로와 분수계를 넘는 고개를 형성하게 되었다.

도성을 이루는 청계천 유역과 홍제천 사이에는 무악재, 그리고 홍제천과 불광천 유역을 잇는 녹번재는 화강암과 편마암을 잇는 경계부에서 발달하였고, 이 도로는 조선시대에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고 현재는 1번 국도가 지나가는 핵심 교통로이다. 1번 국도에서 은평한옥마을을 연결하는 연서로 역시 불광천 유역과 창릉천 유역의 고개를 통과하고 있다. 일명 박석고개라 불리는 이 고개는 은평한옥마을을 지나 북한산로와 접하게 된다. 북한산로는 역시 화강암과 편마암의 경계 부분을 따라서 발달한 교통로이다. 북한산로는 서울 은평구에서 양주를 잇는 도로로 험준한 광주산맥을 관통하여 서울시 서부와 양주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4. 지형 및 토양의 분포특성

이 절에서는 은평한옥마을의 지형과 토양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창릉천 상류지역을 포함하는 약 10×8km의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일부지역이 포함되었다. 지형분석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10m 격자 크기의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사용하였으며, 토양정보는 농촌진흥청의 1:5,000 토양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지형변수들은 박수진(2004)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1. 지형의 분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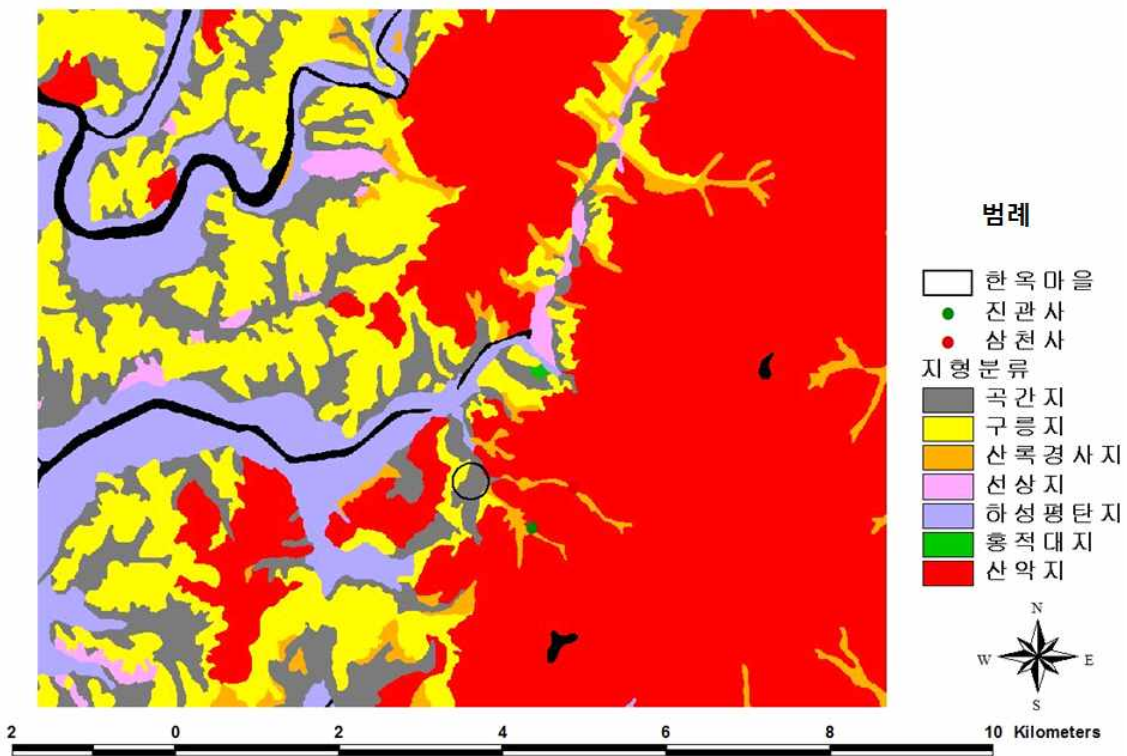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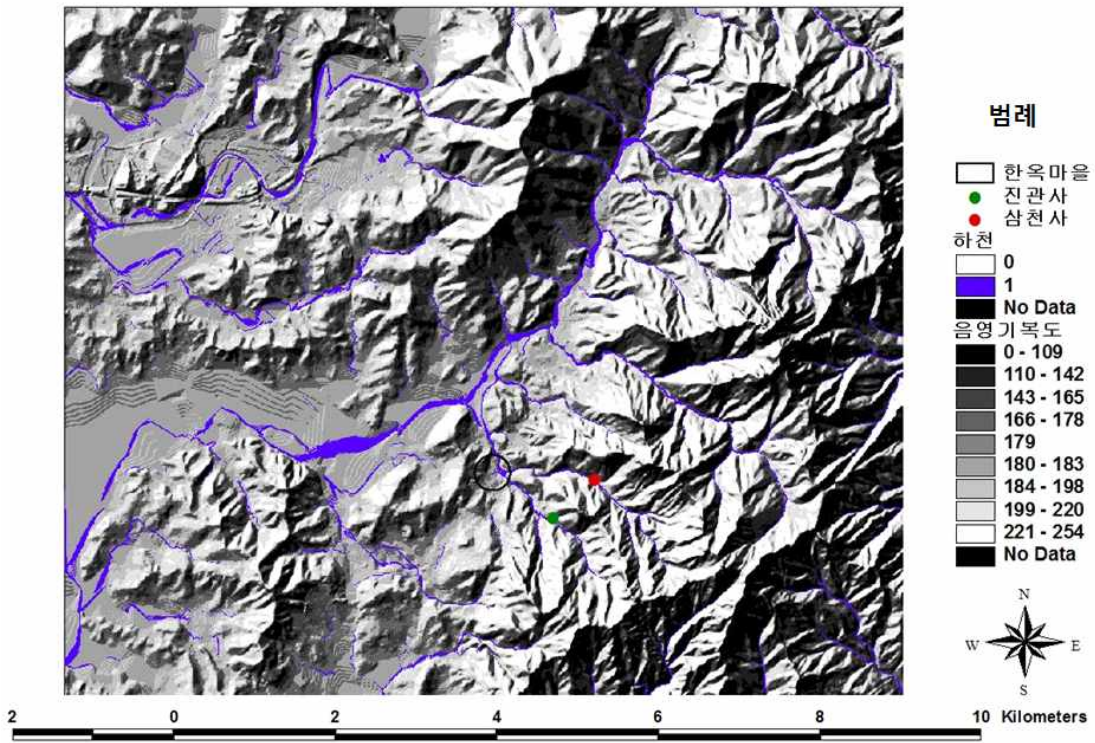
한옥마을과 인접한 창릉천 상류 지역의 지형을 분석하면, 산악지가 전체의 51.8%, 구릉지가 20.2%, 곡간지가 12%, 그리고 하성평탄지가 10.9%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8). 기타 산록경사지가 3% 내외, 선상지가 1.4% 정도를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악지는 대체적으로 화강암 산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면, 구릉지는 편마암 지역과 화강암 산지의 산록부를 따라 발달하고 있다. 곡간지는 계곡 사이를 퇴적물이 메워서 평평해진 지형으로 한옥마을이 곡간지에 입지하고 있다. 한옥마을이 입지한 곳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배후산지와 한옥마을 북쪽에 놓여 있는 이말산 사이에 만들어진 곡간지로,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명당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 지형의 형성 과정은 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5-1〉 편암암과 화강암의 주요지형변수 비교

지형변수	편암암			화강암		
	평균	표준편차	CV	평균	표준편차	CV
고도	74.1	39.6	53.4	406.7	125.3	30.8
경사도	10.0	8.1	80.4	28.1	8.5	30.3
습윤지수	8.0	4.1	50.6	5.2	1.6	31.8
LS factor	6.7	7.0	104.9	23.8	15.7	66.0
일사량	1,840.5	197.4	10.7	1,650.3	370.1	22.4

주: 국립지리원 10m DEM을 활용하여 필자가 작성

은평한옥마을 주변 지형의 지형특성을 암석별로 분석하면 <표 5-1>과 같다. 화강암에 발달한 지점은 평균 고도 406m, 경사도 28.1도 편암암의 74.1m, 10.0도에 비해 현격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한 지점의 침식가능성을 보여주는 LS factor(Land-use and Slope factor)는 23.8로 6.8을 보인 편암암 지역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분의 상대적인 양을 표시하는 습윤지수의 경우에는 편암암이 8.0, 그리고 화강암이 5.2로, 편암암의 풍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 년간의 평균일사량 역시 편암암 지역이 화강암 지역에 비해 높아서 지형과 토양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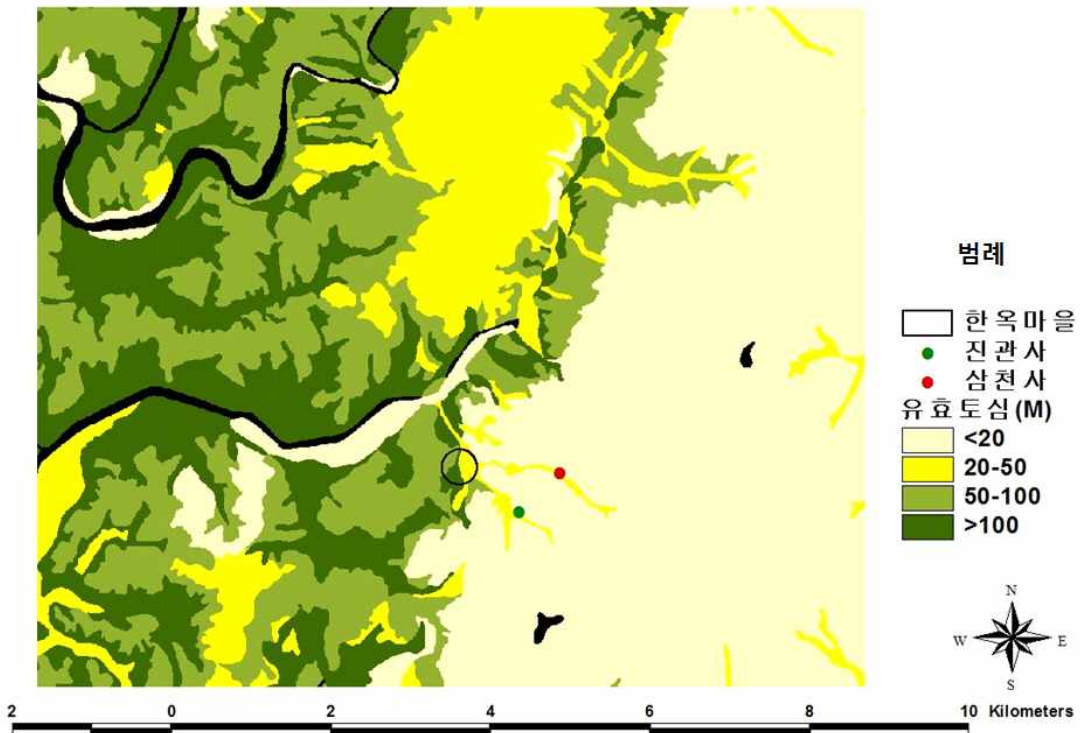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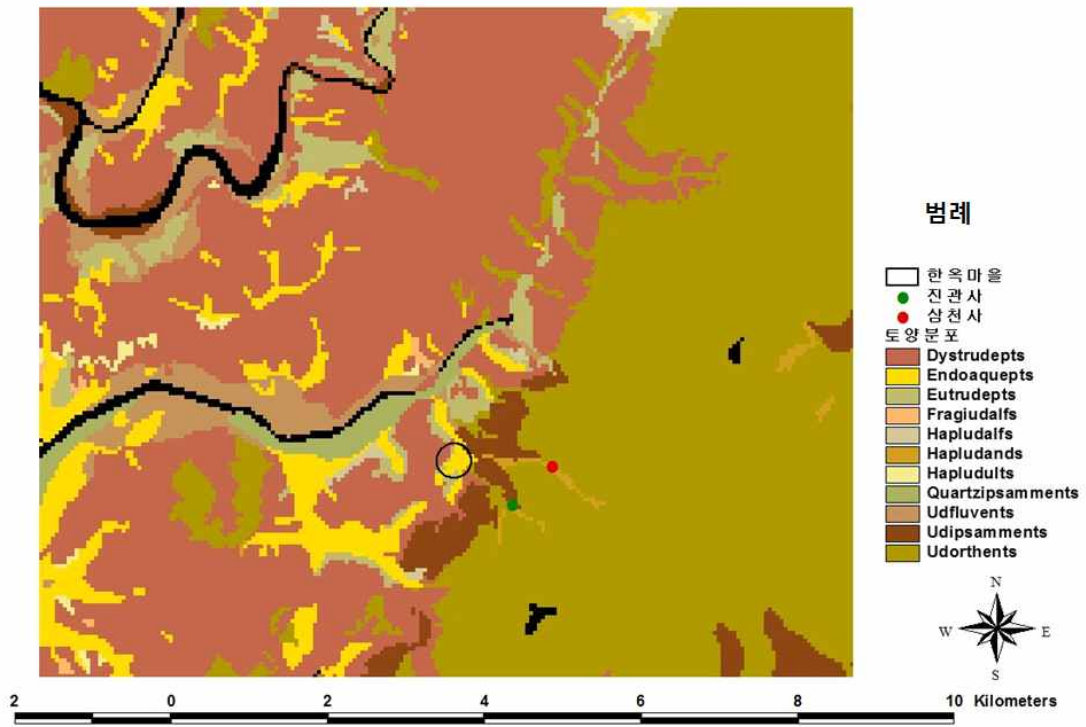
〈그림 5-8〉은평한옥마을과 주변 지역의 지질특성 및 주형분류
 주: 지형분류도는 농촌진흥청 1:25,000 토양도를 근거로 저자가 제작

4.2. 토양의 분포특성

토양은 광물질을 공급하는 암석 혹은 퇴적물이 기후와 식생, 그리고 지표면의 기복에 따른 물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변형되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토양은 그 지역의 환경 특성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지시자의 역할을 한다. 토양은 다시 농작물을 포함하는 식생과 지표면에서의 물과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한국의 토양분류는 현재 미국의 농무성이 제안한 신분류법(Soil taxonomy)을 사용하고 있다(박수진, 2016). 신분류법은 특징적인 토양층의 존재 유무와 농업에 필요한 토양속성에 따라 토양을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에 사용되었던 지형과 기후, 모재 등의 토양형성요인 중심의 구분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토양분류법에 의하면 한옥마을과 주변 지역은 토양층의 발달이 불량한 미성숙토인 엔티솔(Entisols)과 토양발달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지만, 특징적인 토양층이 나타나지 않는 인셉티솔(Inceptisols)이 각각 47.5%, 51.1%로, 전체 연구지역 면적의 약 98.6%를 차지하고 있다(표 5-2). 특히 화강암이 주류를 이루는 창릉천의 동쪽 지역은 엔티솔(Udorthents)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토양인데 반해, 편마암 지역인 창릉천 서쪽 지역은 인셉티솔(Dystrudepts)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다(그림 5-7). 이 외에도 토양의 하부에 점토집적층(argillic horizon)이 나타나는 알피솔(Alfisols)과 울티솔(Ultisols), 그리고 화산암에서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안디솔(Andisols)이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그 분포 면적은 0.5% 미만으로 극히 적다.

토양층은 장기간에 걸친 토양형성작용의 결과가 누적된 것으로, 특정한 토양층이 모식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조건이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징적인 토양층이 없는 인셉티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표환경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경사지에서는 토양침식으로 인해 표토들이 지속적으로 제거되며, 선상지, 계곡부 및 하천변에는 퇴적물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토층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름에 편중된 강우 역시 토양의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고온다습한 여름의 기후는 토양층 유기물의 축적을 어렵게 해서 토양형성작용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겨울철의 결빙작용 역시 토양층의 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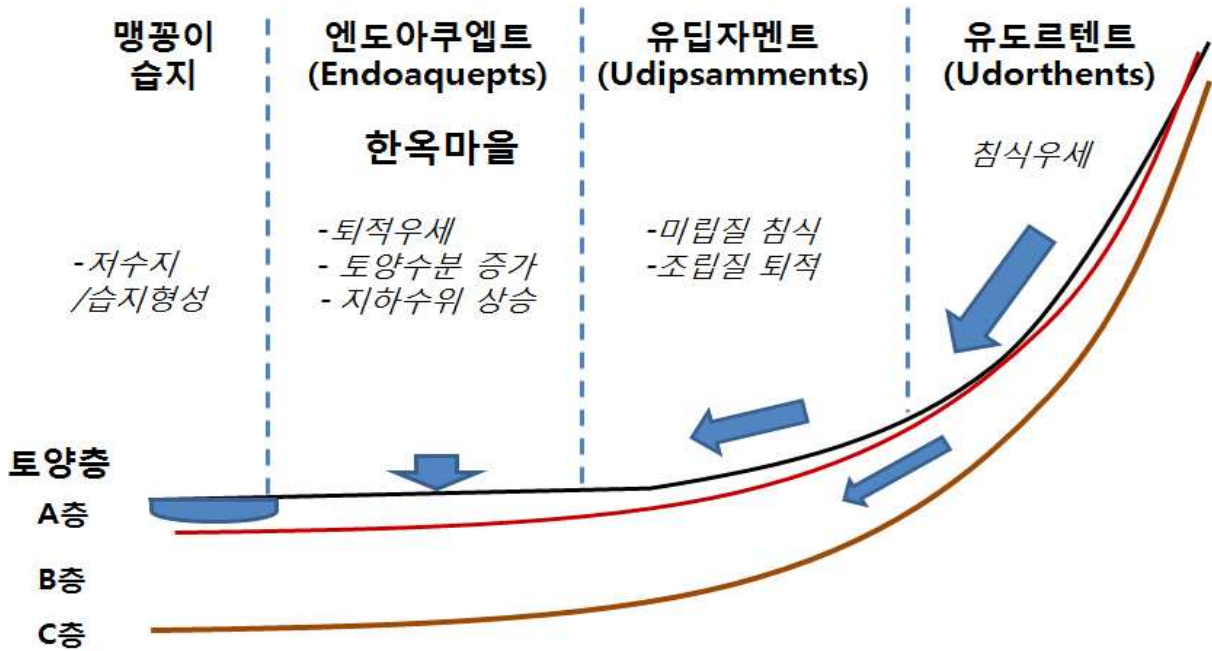
〈그림 5-9〉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토양분포와 유효토심

주: 농촌진흥청 1:25,000 토양도를 근거로 하여 제작

〈표 5-2〉 한옥마을 주변지역의 토양종류

토양목	토양아군	면적비(%)
Inceptisols	Dystrudepts	41.0
	Endoaquepts	6.8
	Eutrudepts	3.3
Entisols	Udorthents	38.7
	Udfluvents	4.3
	Udipsamments	3.2
	Quartzipsamments	1.3
Andisols	Hapludands	0.3
Ultisols	Hapludults	0.5
Alfisols	Hapludalfs	0.4
	Fragiudalfs	0.2

한옥마을이 입지한 곳의 토양은 엔도아쿠엵트(Endoaquepts)로 토양층 발달이 불량하지만, 비교적 영양분이 많고 토양하부에 수분포화도가 높은 토양이다. 이 토양은 한옥마을 이외에도 계곡의 하류부나 평야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배후산지에서 물과 퇴적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토양으로, 다른 토양에 비해 농경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한옥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의 산록부에는 모래성분이 절대적으로 높은 유딤자멘트(Udipsamments), 그리고 산지부에는 유도르텐트(Udorthents)가 경사에 따라 대상(帶狀)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삼천사와 진관사 계곡부에는 합루단트(Hapludands)가 발달하고 있다. 지형의 이러한 대상(帶狀)분포는 산지에서 침식된 토사 중에서 거친 입자인 모래가 산록부에 먼저 퇴적되었으며, 미립질 물질들은 곡간지에 퇴적되는 카테나(Catena)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카테나는 사면을 따라서 물과 물질의 흐름이 달라지면 횡적으로 연관된 토양이 발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양의 발달과정은 <그림 5-10>의 모식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0> 은평한옥마을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토양의 카테나(Catena)

배후사면에서 침식된 토양들이 입자크기별로 순차적으로 퇴적되면서 토양유형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양배수와 토양조성을 살펴보면 <그림 5-10>에 제시된 카테나 모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옥마을 내부의 맹꽁이 습지가 있는 지역은 토양배수가 매우 불량한 곳이다. 한옥마을 밖의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토양배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이 지역이 배후의 북한산과 전면의 이말산 사이의 저지에 많은 수분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양조성에서도 배후사면의 사양질토양이 사질토양을 거쳐서 한옥마을내부의 식양질토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은평한옥마을이 입지한 지역의 지형·토양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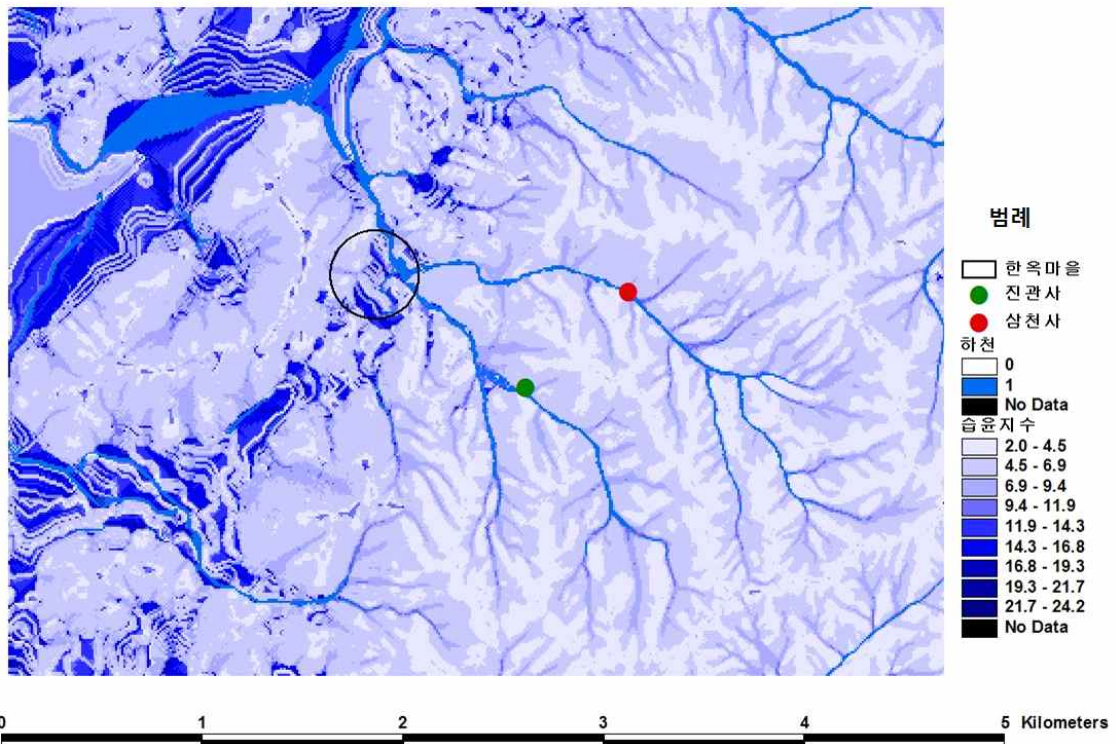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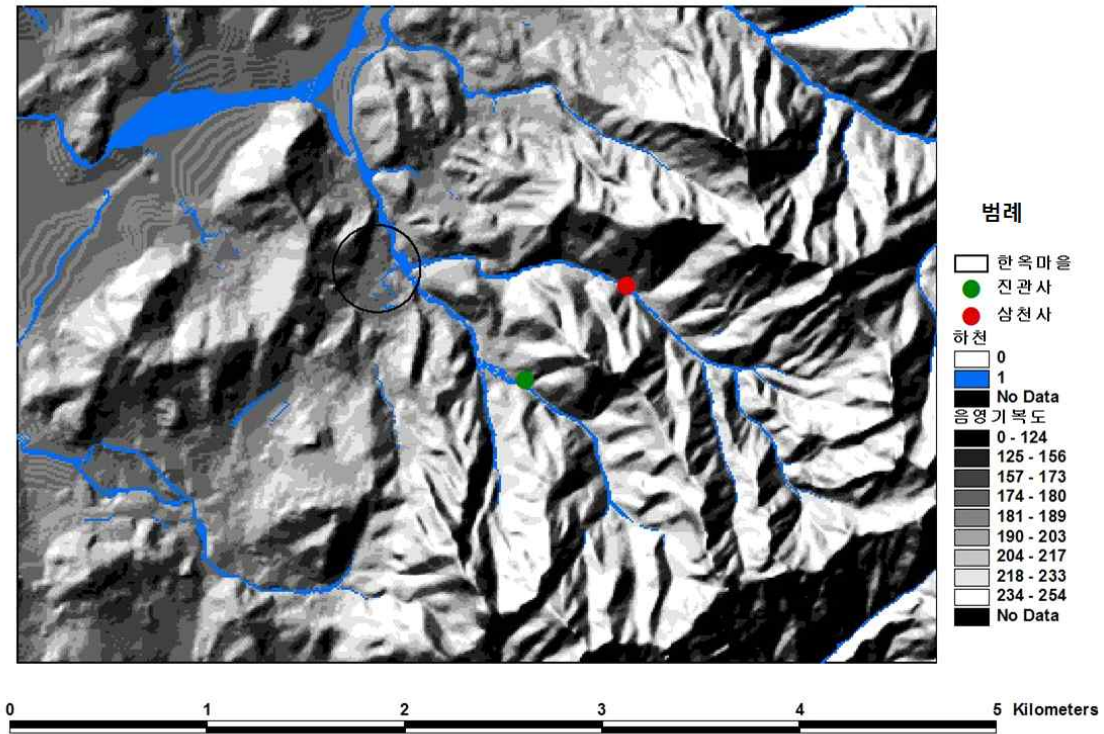
5. 명당으로서 한옥마을의 형성과정

5.1. 한옥마을의 지형발달사적 특성

지형분석에 따르면, 은평한옥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명확한 소규모 유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진관사 계곡과 삼천사 계곡을 따라서 흘러온 물이 합류하여 하천을 만들고, 이 하천은 이말산이 만든 좁은 수구를 통과하면서 생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서로를 따라 흐르던 진관천이 창릉천 본류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좁은 수구로 인해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내부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높은 습윤지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토양은 주변과는 명확하게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은평한옥마을 내에는 도심 생물다양성 습지로 지정이 된 맹꽂이 습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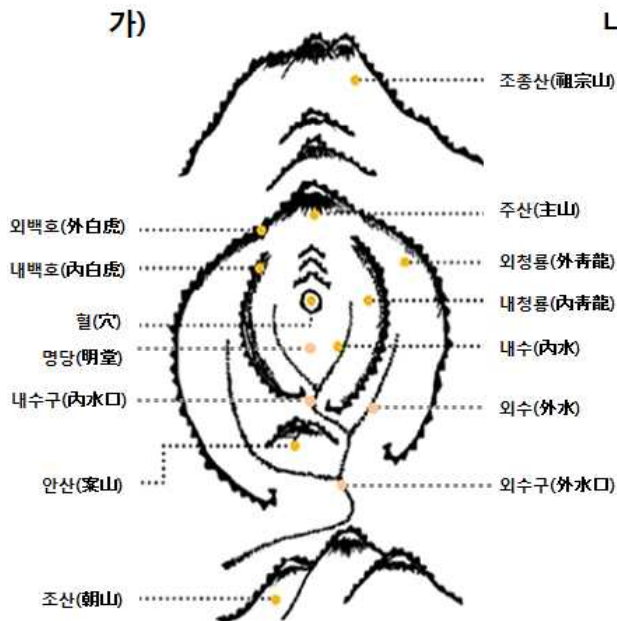
한옥마을이 입지한 곳과 그 주변 지형은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명당인 사신사(四神砂) 지형과 동일하다(박수진 외, 2016). 풍수이론에서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있는 산을 사신사라고 칭하며, 혈의 후면과 전면에 있는 산을 각각 현무(玄武)와 주작(朱雀),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산을 각각 청룡(靑龍)과 백호(白虎)로 칭하게 된다. 만약 청룡과 백호가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면 혈에 가까운 산줄기를 내청룡 혹은 내백호, 그리고 그 바깥쪽에 위치한 산줄기를 외청룡 혹은 외백호로 명명한다. 이러한 사신사 지형이 마주하고 있는 반대편에는 하천을 넘어 안산(案山)이 위치하고 그 안산은 다시 그 뒤의 조산(朝山)을 등지게 된다.

풍수에서 찾으려고 하는 좋은 땅은 주로 배산임수의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을 가까이 하고 있다(윤홍기, 2001).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전면이 남쪽 방향으로 트이고 나머지 세 방향이 산이나 언덕으로 에워싸인 곳을 의미한다. 한옥마을은 전체적인 방향이 북향이라서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명당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지형의 형태적인 특성은 풍수의 사신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림 5-11〉 은평한옥마을 주변의 지형과 습윤지수

한옥마을은 이말산이 전면부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좁은 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사신사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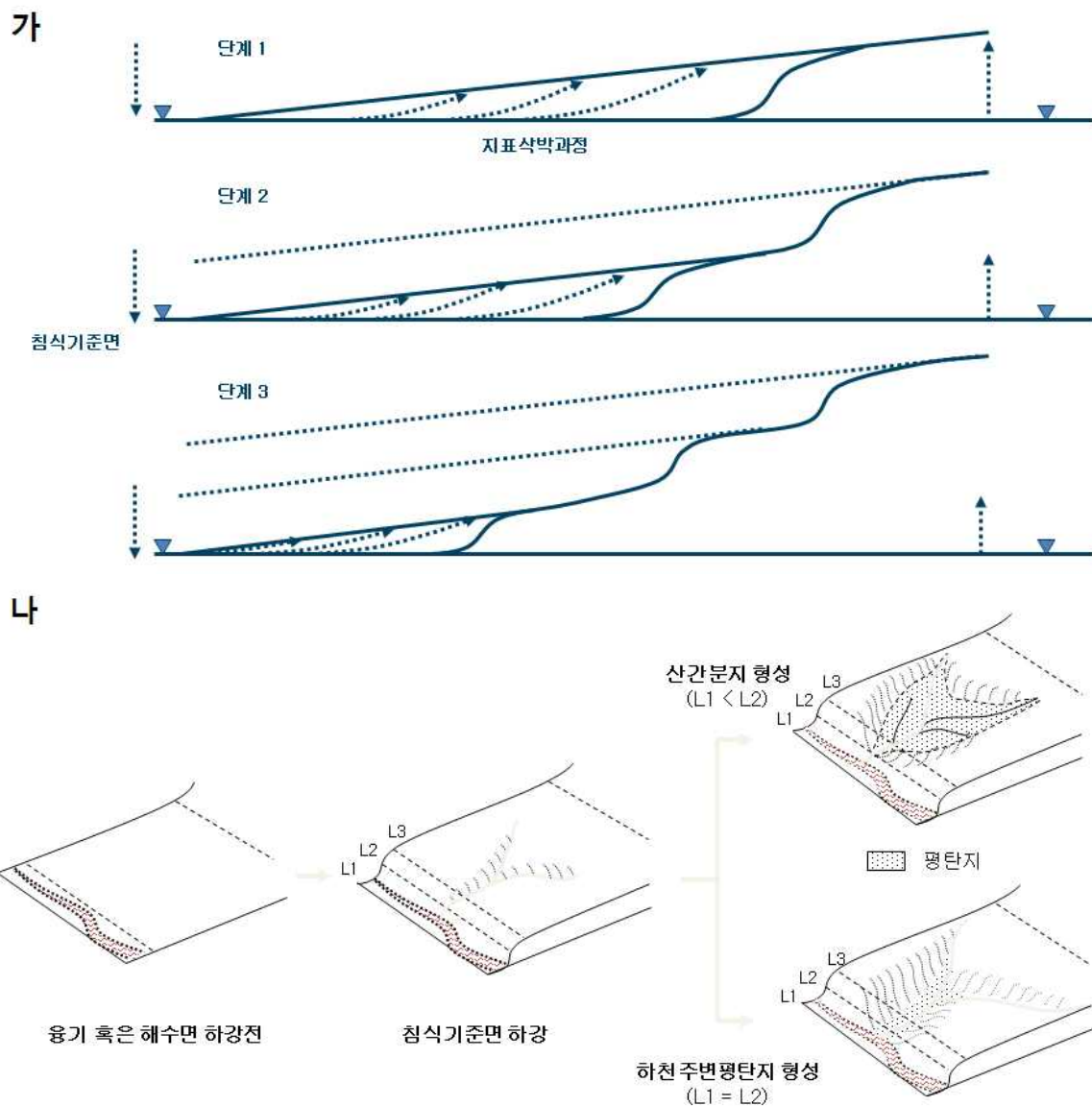
〈그림 5-12〉 한국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에서 명당(좋은 땅)을 찾는 이론적 틀인 사신도(가)와 서울지형의 풍수적 해석(나)
출처: (가) 박수진 외, 2014. (나) 매일경제(<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20100212084336475.daum>)

5.2. 풍수적 명당의 형성

풍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신사의 지형형태는 현대 지형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유역(drainage basin)의 형태를 상징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박수진 외, 2014). 유역은 물과 물질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땅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빗방울, 빗방울이 모인 물, 물에 쓸려가는 토양 등의 모든 물질은 유역의 경계가 되는 분수계를 기준으로 사면 방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 분수계를 가로지르지 못한다. 아래로 흐르고 흐르다 보면 물질 에너지를 소실하며 하구 또는 하천 하류에 도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역의 형태와 특성은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242 쪽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풍수의 사신사와 현대지형학에서 유역 간의 큰 차이는 사신사에서는 산 혹은 산줄기의 연결성과 흐름을 강조하여 땅의 모양을 바라보는 반면, 유역이라는 개념에서는 하천의 흐

름을 통해 땅의 모양을 바라보고 있다. 유역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기술하면서 사신사라고 하는 산의 흐름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은 독특한 한국적인 접근법이다(박수진·손일, 2005). 그 대표적인 예로 산경표에서는 산의 분포를 족보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산줄기의 연결성을 통해 특정 도시 혹은 주거지, 무덤 등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그림 5-13〉 (가): 지반운동과 계단상 지형의 형성 (나): 분지와 하천주변평탄지의 형성과정

출처: (가) 박수진, 2007), (나) 박수진(2009)의 그림 5를 부분적으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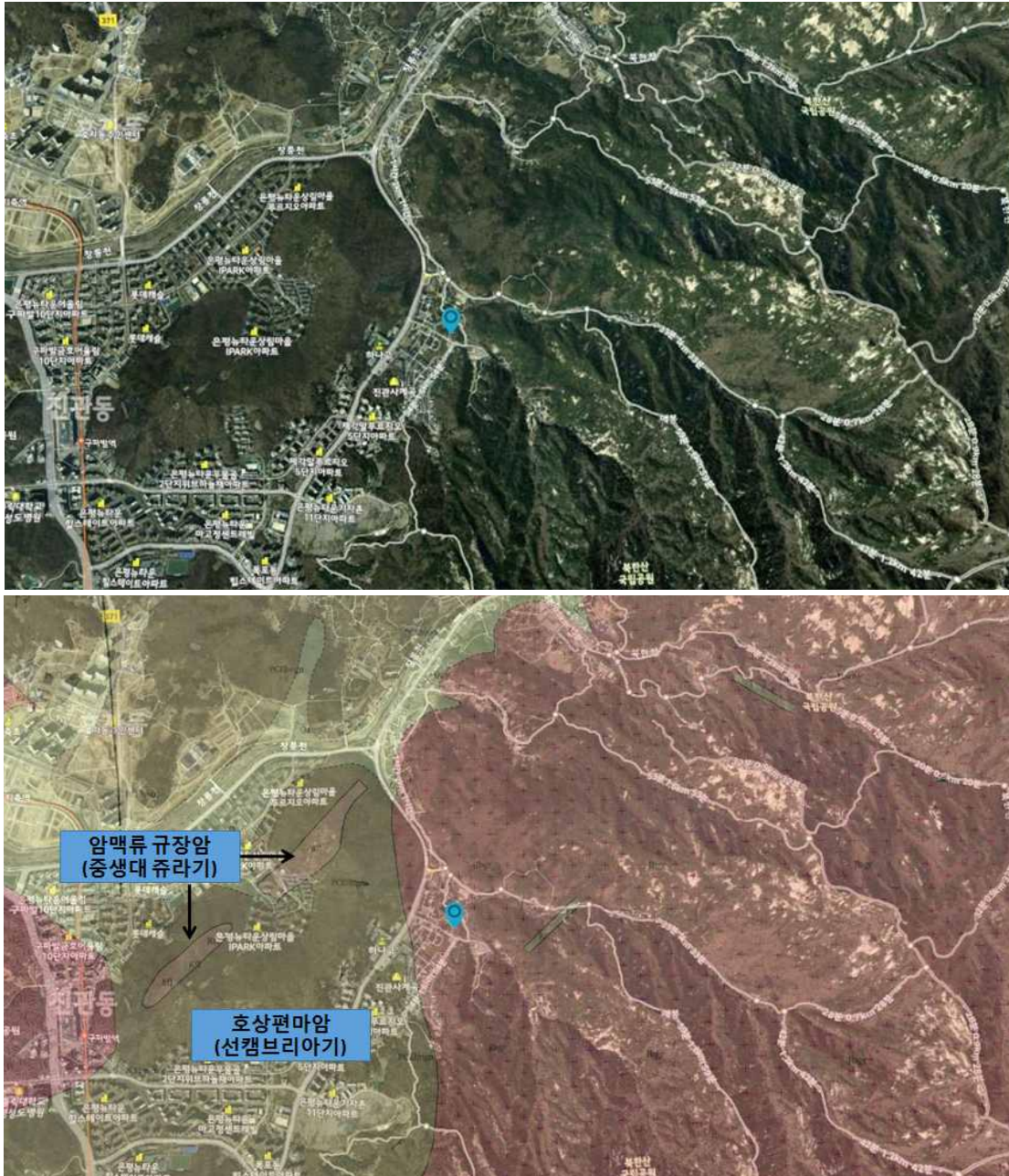
풍수의 사신사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설명하면 <그림 5-13>과 같다. 지표면은 지속적인 침식 혹은 지반용기로 인해 침식기준면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된다. 지반의 용기 혹은 해수면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침식기준면으로부터 용기축의 방향으로 삭박작용이 진행된다. 이때 삭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점에서는 단애면이 형성되고, 단애면의 양쪽으로는 평탄한 지형이 발달한다(단계 1). 삭박된 면이 용기축에 도달하기 전에 또다시 용기가 일어날 경우(단계 2, 단계 3), 용기축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복수의 계단상 지형이 형성된다(그림 5-13).

침식기준면 하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형발달을 3차원적으로 살펴보면 사신사 지형의 형성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림 5-13). 지반의 용기 혹은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해 침식기준면이 낮아지면, 하천을 따라서 개석작용이 시작되며 그 측면에 소규모 유역이 형성된다. 이때 만들어지는 유역의 형태는 침식기준면의 하강속도와 하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침식기준면의 하강속도가 빠른 경우, 하천의 하각작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깊은 요철지형과 더불어 직선형의 유역이 형성되게 된다. 반면, 침식기준면의 하강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하천이 주변사면을 삭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의 후퇴 혹은 사면 각도의 저하에 의한 평탄지, 즉 하천주변 평탄지가 하천주변에 형성된다.

하천주변 평탄지와는 달리 사면에 발달하는 유역 내부에 평탄한 지형이 만들어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은 하천의 하각 및 삭박작용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좁은 하곡(수구)의 존재 여부이다. 하곡이 넓은 경우에는 하천의 흐름을 제한하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침식기준면에 도달하기 위한 활발한 하각작용이 진행된다. 반면, 하곡이 좁은 경우에는 좁아진 하곡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을 늦추게 되어 국지적으로 침식기준면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상류지역에서는 삭박작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그곳에서 공급된 퇴적물들이 좁은 하곡 상류부분에 퇴적되어 유역 내 평탄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박수진, 2009).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형태는 결국은 <그림 5-12>에 표현되어 있는 내청룡과 내백호가 명당을 감싸 안고 있는 지형형태이다. 반면, 하곡이 넓은 경우에는 배후에서 공급되는 암설²⁵⁾들이 하천을 통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깊은 계곡과 더불어 하천 주변에 평지가 발달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를 부양할 만한 충

분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때문에 마을이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조건을 가지게 된다.



〈그림 5-14〉 한옥마을 주변의 지형과 암석의 분포

출처: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이말산은 선캠브리아기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구형의 양 끝단에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암맥류 규장암이 분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 암반에서 풍화·침식작용으로 인해 생긴 작은 암석 조각을 말한다.

5.3. 한옥마을의 지형발달사적 특성

창릉천 상류가 비교적 좁은 협곡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에 비해, 한옥마을은 비교적 넓은 평야와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명당의 형성과정에서는 이말산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말산은 완벽에 가까운 반원형의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고 있어, 지형적으로는 그 형성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산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옥마을의 형성과정에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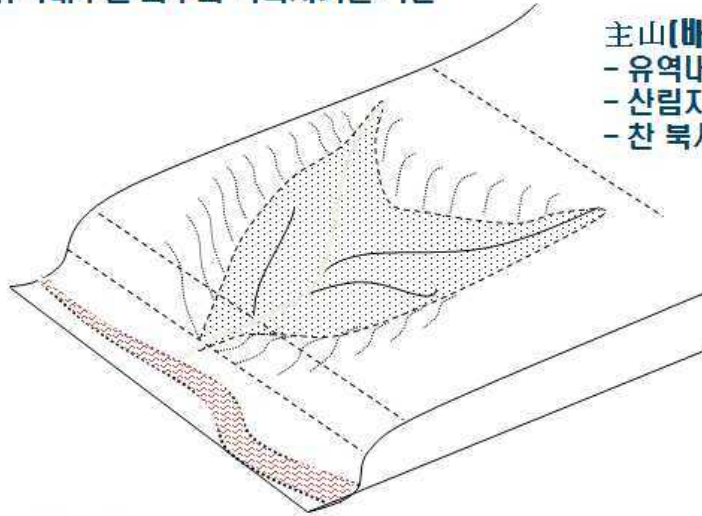
진관사와 삼천사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말산에 막혀 자유롭게 창릉천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좁은 수구를 따라 흘러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물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상류로부터 하천에 의해 운반된 각종 토사(퇴적물)가 수구 안쪽에 쌓이게 되는 과정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성과정에서 한옥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맹꽁이 습지는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만들어진 저습지 혹은 저수지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말산이 현재의 위치에 없었다면, 진관사나 삼천사 계곡에는 평탄지의 발달 없이 좁은 협곡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말산이 왜 현재와 같은 반구형의 구릉이 만들어졌는지는, 지질적인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말산의 산체는 주변지역과 같은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 화강암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낮은 구릉성 산지와 깊은 토양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편마암 지역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은 원호형의 양단에 중생대 쥬라기에 관입된 암맥류 규장암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다.

암맥(dyke)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관입을 할 때, 암석의 약한 부분을 따라 침투하여 굳어져서 만들어진다. 고온고압하에서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물질들이 암맥으로 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형성된 규장암은 암석의 주요 구성물질이 규소와 장석으로 편마암과 비교하여 풍화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말산은 규장암 암맥이 반구형의 양끝면에 관입하여 현재 노출되어 있고, 풍화와 침식에 강한 이런 규장암의 영향으로 편마암이 침식되지 않고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左靑龍右白虎:

- 유역내부로 물질이동을 유도하는 경계;
- 기후적 측면에서 좌우로부터의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
- 유역내부의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 유역내부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역할



主山(배후산지):

- 유역내로 물과 물질을 공급;
- 산림자원을 공급
- 찬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는 역할

좁은 수구:

- 유역내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물과 물질의 속도와 양을 감소;
- 유역내 지하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
- 유역내에 물질의 퇴적을 축적시켜 평탄지를 형성;
- 외부에서 내부를 보기가 어렵게 하는 역할;

〈그림 5-15〉 한옥마을과 같은 사신사 지형이 가지는 생태적·환경적 장점

출처: 박수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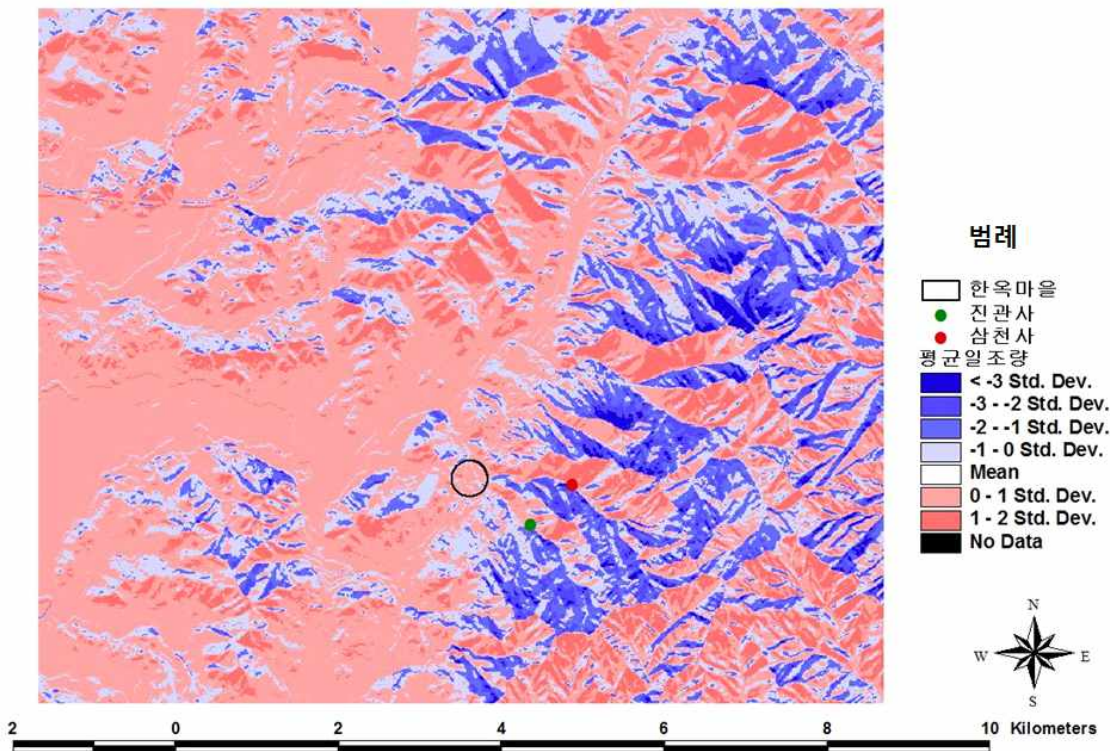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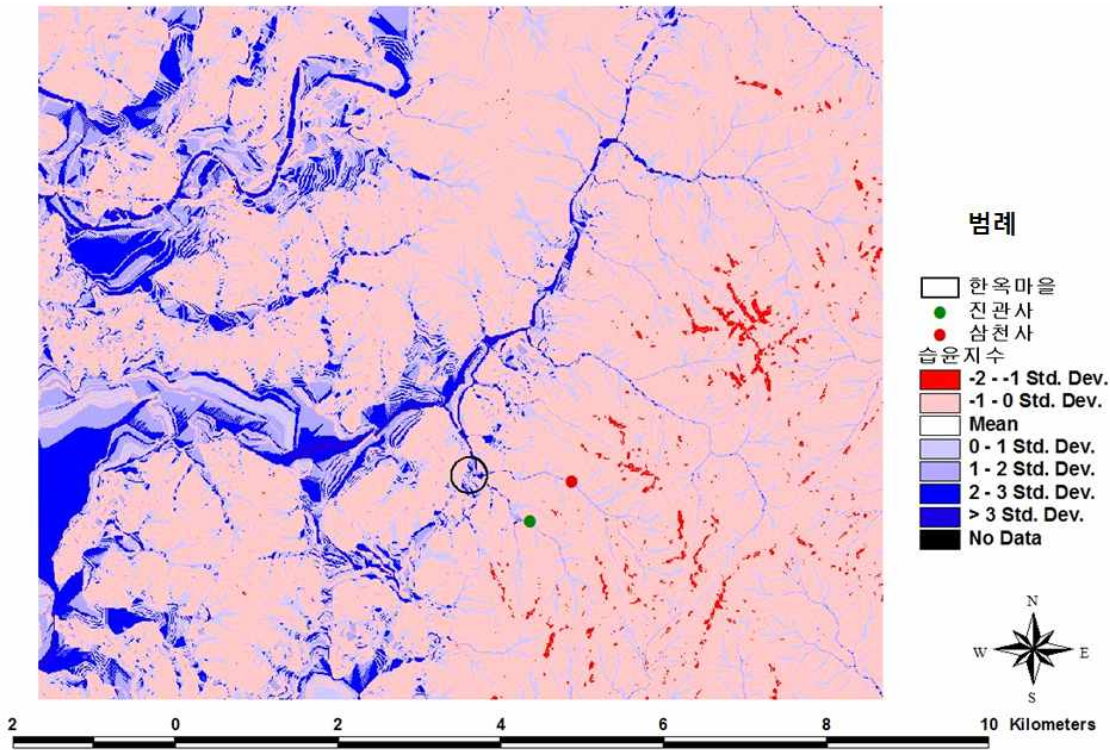
5.3. 사신사 지형의 형성에 따른 은평한옥마을의 생태적 특성

사신사 지형이 가지게 되는 환경적, 생태적 이점은 명확하다. <그림 5-15>은 일반적인 언급되고 있는 사신사의 환경적 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기후적인 측면에서 주산의 역할을 하는 배후산지는 한겨울의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옥마을 경우에는 북쪽을 면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조량을 보인다는 점(그림 5-16 참조)을 고려하면, 북쪽에 놓인 이 말산이 이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좌청룡과 우백호 역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해

석을 풍수이론에 적용하자면 혈에서 요구되는 장풍(藏風) 조건의 확보로 설명될 수 있다. 풍수론의 원칙에서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氣乘風則散)."고 하므로 이것을 방지하는 요건이 요구되는데, 사신사 지형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사신사가 표현하는 원호형의 유역분지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좌청룡·우백호는 유역면적의 증가를 가져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특히 청룡과 백호가 합쳐지면서 하천의 유로를 좁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천에 의해 이동된 토사들을 그 내부에 퇴적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퇴적된 토사들은 지형발달과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도가 낮은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류에서 운반된 물질들이 유역 내부에 축적됨으로써 영양분의 공급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마찬가지로 하천의 유속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갈수기에도 토지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해석을 풍수이론에 적용하자면 혈에서 요구되는 득수(得水) 조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전통농업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사신사의 수문학적 장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한반도의 기후와 지형조건 하에서는 적당한 수리시설 없이 논을 확대하기 어려웠다(문중양, 2000). 한반도는 파종기인 3~5월의 강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어려운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6~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주변의 총적지들이 주기적으로 홍수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높은 산지비율과 얇은 토양층은 홍수기의 침투유량에 도달하는 지체시간(lag time)을 단축시키며, 하상계수를 극단적으로 증가시켜 작물피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높인다. 따라서 수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적당한 지형적 조건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형이 곡저형, 즉 구릉사면부 혹은 단구면(선상지)의 개석곡지였다(문중양, 2000; 곽종철, 2002; 정치영, 2008). 이러한 지형에서는 대규모 치수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은 적지만 안정적인 개울물 등을 이용해 간단한 취배수가 가능해 논의 조성과 운영이 가능하였다. 더불어 하천범람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더불어 곡내 평탄화와 곡내 습지화하여 논의 조성과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산지는 평탄지와 급사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계곡부에서 비교적 적은 노동력으로 소규모의 제방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림 5-16〉 한옥마을과 주변지역의 습윤지수(wetness index)와 연간 평균일사량의 분포
한옥마을의 습윤지수와 연간 일사량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환경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사신사 내에 입지하는 마을은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유역의 내부에서는 바깥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청룡과 백호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를 보기가 용이하지 않아 장소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은평한옥마을의 경우에도 지금은 연서로로 인해 다른 지역과 쉽게 오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서쪽의 박석고개, 그리고 북쪽의 이말산으로 인해, 그 내부에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지형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이 절에서는 지형과 토양의 분석을 통해 은평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정체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은평한옥마을은 지질학적으로 화강암과 편마암의 지형발달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고, 지형학적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신사 지형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토양학적으로 산지에서 분지로 이어지는 카테나 발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러한 지형경관적 특수성은 곧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강암과 편마암의 접촉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유역을 관통하는 교통로의 발달을 만들어냈으며, 지형적으로 풍수의 명당으로 전통적인 토지이용의 전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생태학적으로도 거친 화강암산지에서 저습지로 유입되는 연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장소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 밝혀진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은평한옥마을이 위치한 곳은 지형적으로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산지인식체계에 따르면 한북정맥(한강의 북쪽을 따라서 흐르는 산줄기)을 북서쪽으로 마주보고 있다. 마을의 북쪽에 있는 이말산으로 인해 한북정맥을 직접 조망하기는 어렵지만, 은평한옥마을의 특성을 기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은평한옥마을은 한양 도성의 북서쪽에 있으며, 홍제천 유역과 불광천 유역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 한양도성에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지만, 이곳이 교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지역을 형성한 암석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중생대 화강암이 선캠브리아기 편마암과 접하고 있는 지점들을 따라 하천의 유로와 분수계를 넘은 고개가 형성되게 되었다.

3) 은평한옥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강암과 편마암 지형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한옥마을 동쪽은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노출된 대표적인 화강암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산로의 서쪽은 북한산과는 달리 낮은 산지들이 연속되어 나타나며, 산의 모양 역시 암반이 노출이 적고 토양으로 덮여 있는 구릉성 산봉우리를 가진 육산(肉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질적 지형발달의 차이는 이 지역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4) 한옥마을이 입지한 곳은 배후의 산지에서 물과 퇴적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지형으로 주변의 다른 토양에 비해 농경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토양이다. 삼천사와 진관사 계곡에서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사면에서는 산지에서 침식된 토사층에서 거친 입자인 모래가 산록부에 퇴적되고 난 뒤, 미립질 물질들이 곡간지에 퇴적되는 전형적인 카테나(Catena)적 토양발달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카테나는 사면을 따라서 물과 물질의 흐름이 달라지면 횡적으로 연관된 토양이 발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5) 지형분석에 따르면, 은평한옥마을이 있는 곳은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명확한 소규모 유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진관사 계곡과 삼천사 계곡을 따라서 흘러온 물이 합류하여 하천을 만들고, 이 하천이 이말산이 만든 좁은 수구를 통과하여 창릉천 본류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옥마을이 세워져 있는 곳에 넓은 평지가 나타난다. 좁은 수구로 인해 물의 배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평지 내부에는 높은 습윤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토양은 주변과는 명확하게 다른 특성을 지녔으며, 도심생물다양성 습지로 지정이 된 소위 맹꽁이 습지가 은평한옥마을 내에 있다.

6) 이말산이 왜 현재와 같은 반구형의 구릉이 만들어졌는지는, 지질적인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말산의 산체는 주변지역과 같은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풍화와 침식에 강한 규장암 암맥이 반구형의 양끝면에 관입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편

마암이 침식되지 않고 구릉성 봉우리를 형성했다. 편마암의 풍화로 형성된 깊은 토양층은 묘지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7) 은평한옥마을은 풍수에서 명당으로 간주하는 사신사 지형이 모식적으로 발달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형발달과정의 해석이 용이하며, 그 결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마을의 공간구조의 활용은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은평한옥마을의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이러한 풍수적 입지특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참고문헌

■ 논문, 보고서, 저서

- 곽종철, 2002, "우리나라의 선사~고대 논밭 유구,"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한국고고학회, 25-87.
-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 권동희, 2007, "한국의 화강암 풍화지형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지형학회지, 14(2), 21-31.
- 권혁재, 1999, 지형학, 법문사.
- 대한지질학회, 1999,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 문중양, 2000,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 집문당.
- 박수진, 2004, "생태환경특성파악을 위한 지형분류기법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39(4), 495-513.
- 박수진, 2008, "한반도 지형의 발달사적 특성과 전통수리시설의 입지," 노중국(편), 고대의 농업과 수리시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1-56.
- 박수진, 2009, "한반도 평탄지의 유형분류와 형성과정," 대한지리학회지, 44(1), 31-55.
- 박수진, 2016, "서울의 지형과 토양," 한국지리지 서울특별시, 국립지리정보·서울특별시
- 박수진, 최원석, 이도원. 2014. 풍수 사신사의 지형발달사적 해석. 문화역사지리 26(3). 1~18.
- 박수진·손일, 2005, "한국 산맥론(I) : DEM을 이용한 산맥의 확인과 현행 산맥도의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40(1), 126-152.
- 양보경, 1993, "조선시대의 자연인식체계," 한국사 시민강좌, 14, 일조각.
- 윤흥기, 2001b,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 343-365.
- 이도원·신준환·강신규, 2003, "백두대간 체계안에 내포된 유역개념과 문제점," 한국생태학회지, 24, 215-221.
- 이민부·이광률, 2016, "추가령 구조곡의 지역지형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1(4), 473-490.

- 장재훈, 2002, 한국의 화강암 침식지형,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치영, 2008, "여지도서를 이용한 조선후기 제언의 지역적 특성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4), 620-637.
- 최원석, 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주요 산줄기 조사, 산림청 보고서.

■ 인터넷 자료(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un8899s&logNo=220162853465>
- 위키백과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D%98%B8%EC%83%81%ED%8E%B8%EB%A7%88%EC%95%94_KU



06

은평한옥마을 일대

유역 · 수문 연구

6

은평한옥마을 일대 유역 · 수문 연구

송동하, 스마클(주)

1. 은평구 개요

서울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은평구는 동경 126°와 북위 37°에 위치하며, 시가지 우측에는 백두대간(白頭大幹)에서 분기된 한 줄기가 멈춰선 북한산이 남북으로 접해 있다. 그 진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들이 평지를 둘러싸고 있어 시가지 전체는 장방형(長方形)의 분지 형태다. 북한산으로부터 남쪽의 한강을 향해 서서히 지세가 낮아지는 지역으로, 지형은 대부분이 임야와 분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주위에는 북한산(836m)의 지봉인 남장대(715m)를 비롯한 비봉과 백련산 등의 봉우리가 있다. 북한산 계곡으로부터 발원된 깨끗한 물은 은평의 중심부인 불광천과 창릉천으로 나뉘어 흐른다. 은평구의 기후는 시가지 지역이 분지형인 관계로 연평균 90여 일의 맑은 날과 1200mm~1600mm의 강수량 그리고 12°~13°C의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이는 녹번동 삼거리를 중심으로 인왕산, 북악산에 연한 비봉과 문주봉, 석가봉 그리고 멀리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으로 연결되는 산악군이 대륙성 기후의 한냉(寒冷)한 기온을 순화시켜 주는 덕분이다(은평구, 2020).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한옥 마을이 위치한 진관천 유역은 은평구의 북부에 위치한다. 비봉에서 발원한 물이 진관사를 거쳐 창릉천으로 흘러들고, 이말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과 합쳐 고양시를 경유하여 한강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관천과 창릉천을 대상으로 수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1〉 은평구와 창릉천 그리고 진관천 유역의 위치

2. 대상지의 기상분석

하천의 수리특성은 강우에서 출발해서 유역의 토양과 식생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근 관측소의 강수량을 포함한 기상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 강수량

한옥마을과 최인접한 기상청 관측소는 서울기상 관측소이므로, 이곳에서 관측된 지난 10년간 자료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연간 강수량은 1,313.4mm이며, 최근 10년 동안의 최대 강수량을 보인 해는 2010년의 2,043.5mm, 최소 강수량은 2015년의 792.1mm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총 강수량의 60.0%(788.5mm)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었다(기상청, 2010~2019).

〈표 6-1〉 서울기상 관측소 기상개황

구분	기온(°C)	강수량(mm)	상대습도 (%)	풍속(%)		일조시간 (hr)	
				평균	최대		
서울	2010	12.1	2,043.50	62.8	2.6	14	1,854.40
	2011	12	2,039.40	59.5	2.7	10.9	2,071.80
	2012	12.2	1,646.30	56.6	2.8	13.7	2,406.70
	2013	12.5	1,403.80	60	2.8	12.6	2,418.70
	2014	13.3	808.9	62.9	2.7	11.1	2,432.30
	2015	13.6	792.1	59.8	2.7	11.1	2,579.30
	2016	13.6	991.7	59.1	2.3	9	2,497.80
	2017	13	1,233.20	57.7	2.2	8.5	2,621.80
	2018	12.9	1,284.10	57.4	1.7	8.8	2,609.10
	2019	13.5	890.7	56.7	2	11.8	2,551.9
	연평균	12.9	1,313.40	59.3	2.4	14	2,404.40

출처: 기상연보, 2010~2019, 기상청

○ 기온

연평균 기온은 12.9°C, 계절별로는 봄 12.4°C, 여름 25.4°C, 가을 14.9°C, 겨울 -1.2°C이며, 극최고 기온은 8월에 39.6°C로 나타났으며 극최저 기온은 1월에 -18.0°C로 나타났다.

○ 상대습도

연평균 상대습도는 59.3%로 나타났으며, 7월에 73.7%로 가장 높고 2월에 51.9%로 가장 낮았다.

○ 풍향 및 풍속

평균풍속은 2.4m/s이며, 월별 풍속은 3월과 4월이 2.8m/s로 가장 높았고 9월이 2.1m/s로 가장 낮았다. 계절별(평균)로는 봄에 2.7m/s로 가장 높았고, 가을에 2.2m/s로 가장 낮았다. 연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풍향은 서(W)풍으로 16.2%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 일조시간

연간 총 일조시간 평균은 2,404.4시간이며, 월별 일조시간은 5월이 257.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7월에 144.1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3. 대상지의 유역특성 분석

강우로 내린 물은 분수령을 경계로 나뉘어져서 지형의 경사를 따라 흐르다가 일정한 물이 모이면 실개천을 이룬다. 실개천들은 더 모여서 소하천을 만들고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천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형 정보는 유역의 고도와 토지피복 그리고 토지이용이 있다. 유역의 경사도는 하천의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피복과 토지이용은 하천의 표면 유출량에 영향을 주어 하천의 유량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기반으로 하천의 유출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하천 수위의 변화에 따라 홍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지역은 유역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상지의 유역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3.1. 창릉천 유역 개황

창릉천은 성사천과 순창천, 북한천 그리고 진관천을 지류로 구성되어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창릉천 유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 점유면적은 고양시가 65.22km², 서울시가 11.5km²로 고양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역면적은 76.72km²이고, 유로연장이 22.0km 이며 유역 평균폭은 3.49km

으로 비교적 북서로 길쭉한 형상을 보인다. 창릉천 유역은 하구로부터 10.0km 구간까지는 비교적 평지의 농경지가 하천변을 따라 발달해 있다. 중류부에서는 양안에 고수부지가 발달하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상류부는 북한산을 형성하고 있는 급경사의 산악지형으로 유역의 평균고도는 EL. 126.80m 이다(경기도, 2002).

하폭은 하류부에서는 약 170m, 중류부에서는 약 100m이고 상류부는 약 45m 정도이다. 하상경사는 하류부가 1/850, 중류부는 1/260, 상류부는 1/40의 급경사로 소하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상은 하류가 Silt질 Loam으로 형성되어 있고, 중류부는 굵은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가 분포되어 있으며 상류부로는 호박돌로 분포되어 있다(경기도, 2002, 조용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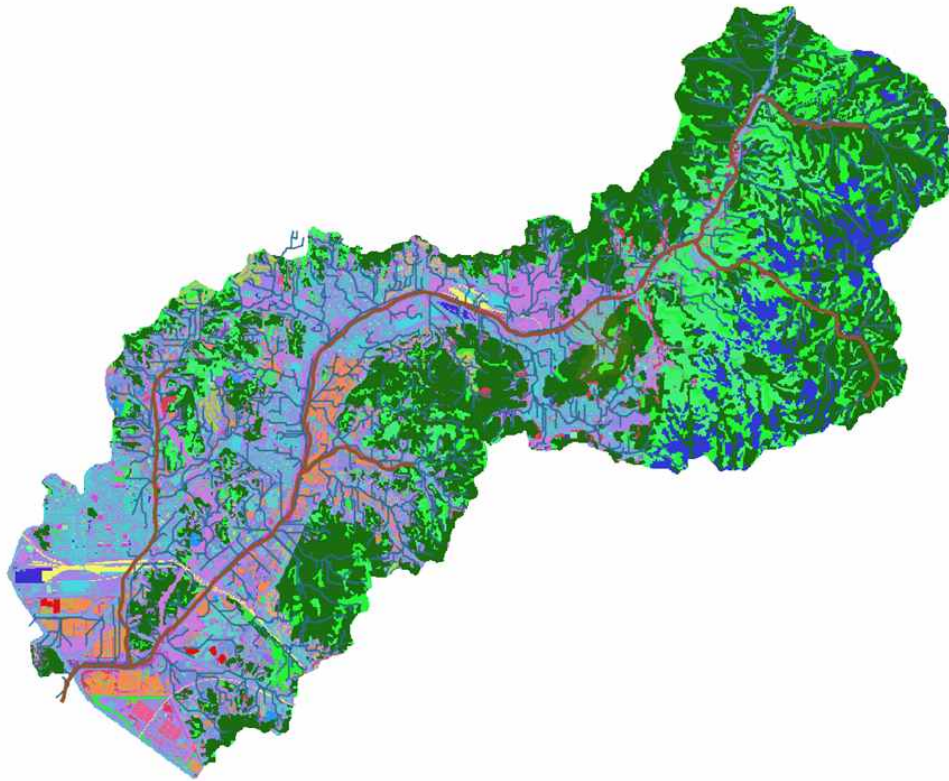


〈그림 6-2〉 은평구 창릉천과 그 지류들

창릉천 유역의 토지피복²⁶⁾ 구성을 보면 총 유역면적 80km² 중에서 활엽수림이 33%로 가

26) 환경부 토지피복 세분류 2019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음.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도로가 1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혼효림과 기타초지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림 6-3〉 창릉천 유역의 토지피복 (환경부 세분류) 현황

〈표 6-2〉 창릉천 유역의 토지피복(세분류 기준)별 면적

토지피복				면적		
				m ²	km ²	구성비(%)
시가화/ 건조지역	주거지역	111	단독주거시설	743,261	0.743	0.93
		112	공동주거시설	872,724	0.873	1.09
	공업지역	121	공업시설	72,151	0.072	0.09
	상업지역	131	상업·업무시설	1,412,321	1.412	1.76
		132	혼합시설	2,259	0.002	0.00
	문화·체육·휴양시설	141	문화·체육·휴양시설	244,702	0.245	0.30
	교통지역	153	철도	486,819	0.487	0.61
		154	도로	8,130,607	8.131	10.12

공공시설지역	155	기타 교통·통신시설	597	0.001	0.00	
	161	환경기초시설	193,682	0.194	0.24	
	162	교육·행정시설	198,379	0.198	0.25	
	163	기타 공공시설	342,626	0.343	0.43	
농업지역	논	211	경지정리가 된 논	87,252	0.087	0.11
		212	경지정리가 안 된 논	660,859	0.661	0.82
	밭	221	경지정리가 된 밭	295,422	0.295	0.37
		222	경지정리가 안 된 밭	4,408,395	4.408	5.49
	시설재배지	231	시설재배지	2,557,042	2.557	3.18
	과수원	241	과수원	154,235	0.154	0.19
	기타재배지	251	목장·양어장	92,994	0.093	0.12
		252	기타재배지	886,751	0.887	1.10
산림지역	활엽수림	311	활엽수림	26,833,623	26.834	33.41
	침엽수림	321	침엽수림	6,086,914	6.087	7.58
	혼효림	331	혼효림	7,124,743	7.125	8.87
초지	자연초지	411	자연초지	776,624	0.777	0.97
	인공초지	421	골프장	385,904	0.386	0.48
		422	묘지	498,770	0.499	0.62
		423	기타 초지	6,901,136	6.901	8.59
습지	내륙습지	511	내륙습지	1,206,528	1.207	1.50
나지	자연 나지	612	강기습	207,684	0.208	0.26
		613	암벽·바위	3,209,670	3.210	4.00
	기타 나지	622	운동장	202,260	0.202	0.25
		623	기타 나지	4,512,457	4.512	5.62
수역	내륙수	711	하천	452,475	0.452	0.56
		712	호소	75,757	0.076	0.09
합계			80,317,623	80.318	100.00	

3.2. 진관천 유역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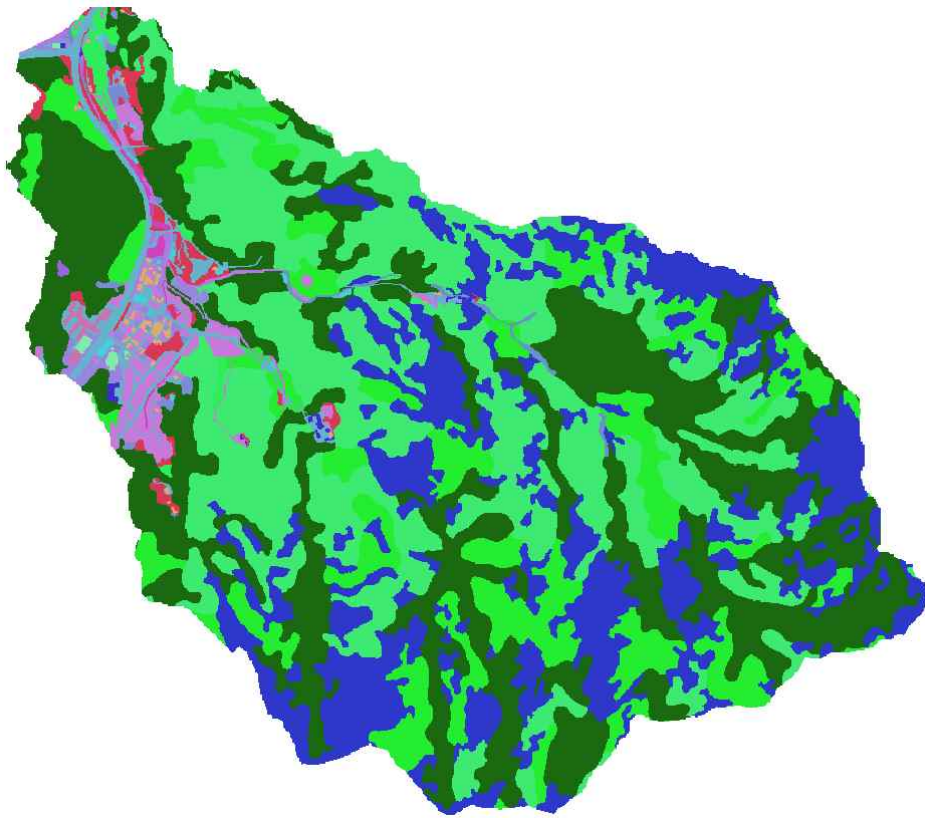
은평한옥마을이 포함되는 유역의 하천은 98년 05월 25일 소하천으로 지정된 진관천이다. 이의 유역 특성에 대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5m*5m DEM²⁷⁾과 토지피복 세분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7)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 진관천 유역 개황

진관천의 구간연장은 2.00km이며, 하천 폭은 10~20m 내외(조용모, 2015), 전체 유역면적은 5.6km² 이므로 유역 평균폭²⁸⁾은 2.8km이며, 유역형상계수²⁹⁾는 1.4로 계산된다.

진관천의 유역 내에서 활엽수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31%로 가장 높으며, 침엽수림이 27%로 두 번째, 암벽·바위가 20%로 세 번째, 그리고 혼효림이 14%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진관천은 북한산의 비봉을 포함하는 유역의 특성으로 인해 산림지역이 전체의 92%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의 비율이 2% 정도로 다른 토지피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4〉 은평 진관천 유역의 토지피복 (환경부 세분류) 현황

28) 유역 평균폭(km) = 유역면적/유로연장

29) 유역형상계수 = 유역면적/유로연장²

〈표 6-3〉 진관천 유역의 토지피복(세분류 기준)별 면적

토지피복				면적		
				㎡	km ²	구성비(%)
시가화/건조 지역	주거지역	111	단독주거시설	13,451	0.013	0.24
	상업지역	131	상업·업무시설	8,445	0.008	0.15
	문화·체육·휴양시설	141	문화·체육·휴양시설	5,796	0.006	0.10
			도로	124,427	0.124	2.21
	교통지역	154	기타 교통·통신시설	70	0.000	0.00
			교육·행정시설	10,196	0.010	0.18
	공공시설지역	163	기타 공공시설	7,127	0.007	0.13
경지정리가 안 된 논			17,055	0.017	0.30	
농업지역	논	기타재배지	32,153	0.032	0.57	
		활엽수림	311	활엽수림	1,750,592	1.751
산림지역	침엽수림	321	침엽수림	1,521,876	1.522	26.98
	혼효림	331	혼효림	784,982	0.785	13.91
	자연초지	411	자연초지	70,022	0.070	1.24
초지	인공초지	묘지	2,125	0.002	0.04	
		기타 초지	35,364	0.035	0.63	
		내륙습지	511	내륙습지	11,711	0.012
나지	자연 나지	강기슭	18,304	0.018	0.32	
		암벽·바위	1,112,762	1.113	19.73	
	기타 나지	623	기타 나지	97,839	0.098	1.73
수역	내륙수	711	하천	17,016	0.017	0.30
합계				5,641,313	5.641	100.00

3.3. 대상 유역의 수문특성 분석

○ 유출량 산정을 위한 강수량 조사

하천의 유출량 산정을 위해 가장 최근의 강수량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은평한옥마을과 최인접한 AWS 관측소인 서대문 관측소에서 2000년에 관측된 자료가 최신 자료여서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연평균 강수량은 1603.5mm 이며, 시간당 최다 관측 강수는 37.5mm 였고, 1일 최대 강수량은 2020년 8월 11일에 103.5mm로 관측되었다. 월별로는 8월에 총 644mm가 내렸으며, 그 다음이 7월에 280mm 가 내렸다.

〈표 6-4〉 서대문 AWS 2020 기상개황

관측소		기온							바람				강수량		
지점 번호	지점명	평균 (°C)	최고			최저			평균속 (%)	최대순간			총량 (mm)	최다	
			평균 (°C)	최고 평균 (°C)	나타난날	평균 (°C)	최저 (°C)	나타난날		풍속 (%)	풍향 (16)	나타난날		매정시 (mm)	나타난날
412	서대문	12.9	18.2	36.4	06/22	8.6	-13.4	12/31	1.3	15.1	SE	11/03	1603.5	37.5	08/10

출처: 기상청, 2020, 방재기상관측연보

〈표 6-5〉 서대문 AWS 2020 월별 강수량

요소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전 년
강수량 (mm)	합계 00~24h	53.0	47.0	15.0	15.5	99.0	142.0	280.0	644.0	183.5		122.5	2.0	1603.5
	1일	43.5	16.0	12.0	10.0	24.5	68.5	99.0	103.5	63.0		88.5	1.0	103.5
	나타난 날	7	25	10	19	18	30	23	11	7		19	28	08/11
	최다 매정시	5.0	4.0	2.5	3.0	17.0	16.5	30.0	37.5	15.5		24.5	1.0	37.5
	나타난 날	7	25	10	19	18	30	19	10	2		19	28	08/10

출처: 기상청, 2020, 방재기상관측연보

○ 합리식을 적용한 유출량 산정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의 산정에 사용하는 합리식을 적용하여 유역별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여 보았다. 합리식은 가장 일반화된 식으로 유달 시간에 상당하는 강우 강도의 비가 배수 구역 내에 균등히 내릴 때 지체 현상이 생기지 않는 최대 유출량 산출법이다(적용 범위는 대개: 500ha 미만).

$$Q = 1/360 C \cdot I \cdot A$$

여기서, Q :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m³/sec), C : 유출 계수, I : 유달 시간(T)내의 평균 강우 강도(mm/hr), A : 배수 면적(hr)이다.

유출계수는 유역의 형상, 지표면 피복상태, 식생 피복상태 및 개발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토지이용별로 값을 적용할 수 있어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 계산에 활용하였다. I는 시간당 최대 관측 강수인 37.5mm(2020년 8월 10일)을 적용하였다. 산정 결과, 창릉천의 하천유출량은 613m³/sec, 진관천은 44m³/sec였다.

〈표 6-6〉 토지이용별 유출계수

토지이용	표준 범위	적용 값
시가지, 주택지역	0.70 - 0.80	0.8
밭, 평야	0.60 - 0.70	0.6
논	0.70 - 0.75	0.7
산지	0.75 - 0.80	0.75
수체		0.95

〈표 6-7〉 창릉천의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토지피복				C	I	ha	유출량 (m ³ /sec)
시가지 /건조지역	주거지역	111	단독주거시설	0.8	37.5	74.33	6.194
		112	공동주거시설	0.8	37.5	87.27	7.273
	공업지역	121	공업시설	0.8	37.5	7.22	0.601
	상업지역	131	상업업무시설	0.8	37.5	141.23	11.769
		132	혼합시설	0.8	37.5	0.23	0.019
	문화체육휴양시설	141	문화체육휴양시설	0.8	37.5	24.47	2.039
	교통지역	153	철도	0.8	37.5	48.68	4.057
		154	도로	0.8	37.5	813.06	67.755
		155	기타 교통·통신시설	0.8	37.5	0.06	0.005
	공공시설지역	161	환경기초시설	0.8	37.5	19.37	1.614
		162	교육·행정시설	0.8	37.5	19.84	1.653
		163	기타 공공시설	0.8	37.5	34.26	2.855
	농업지역	논	211	경지정리가 된 논	0.7	37.5	8.73
212			경지정리가 안 된 논	0.7	37.5	66.09	4.819
밭		221	경지정리가 된 밭	0.6	37.5	29.54	1.846
		222	경지정리가 안 된 밭	0.6	37.5	440.84	27.552
시설재배지		231	시설재배지	0.6	37.5	255.70	15.982
과수원		241	과수원	0.6	37.5	15.42	0.964
기타재배지		251	목장·양어장	0.6	37.5	9.30	0.581
		252	기타재배지	0.6	37.5	88.68	5.542
산림지역	활엽수림	311	활엽수림	0.75	37.5	2,683.36	209.638

	침엽수림	321	침엽수림	0.75	37.5	608.69	47.554
	혼효림	331	혼효림	0.75	37.5	712.47	55.662
초지	자연초지	411	자연초지	0.6	37.5	77.66	4.854
	인공초지	421	골프장	0.6	37.5	38.59	2.412
		422	묘지	0.6	37.5	49.88	3.117
		423	기타 초지	0.6	37.5	690.11	43.132
습지	내륙습지	511	내륙습지	0.95	37.5	120.65	11.940
나지	자연 나지	612	강기슭	0.75	37.5	20.77	1.623
		613	암벽바위	0.75	37.5	320.97	25.076
	기타 나지	622	운동장	0.8	37.5	20.23	1.686
		623	기타 나지	0.8	37.5	451.25	37.604
수역	내륙수	711	하천	0.95	37.5	45.25	4.478
		712	호소	0.95	37.5	7.58	0.750
합계							613.280

〈표 6-8〉 진관천의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토지피복				C	I	A (ha)	유출량 (m3/sec)
시가화/건조 지역	주거지역	111	단독주거시설	0.8	37.5	1.35	0.112
	상업지역	131	상업업무시설	0.8	37.5	0.84	0.070
	문화체육휴양 시설	141	문화체육휴양시설	0.8	37.5	0.58	0.048
			도로	0.8	37.5	12.44	1.037
	교통지역	154	기타 교통통신시설	0.8	37.5	0.01	0.001
			교육행정시설	0.8	37.5	1.02	0.085
	공공시설지역	162	기타 공공시설	0.8	37.5	0.71	0.059
163							
농업지역	논	222	경지정리가 안 된 논	0.7	37.5	1.71	0.124
		252	기타재배지	0.6	37.5	3.22	0.201
산림지역	활엽수림	311	활엽수림	0.75	37.5	175.06	13.677
	침엽수림	321	침엽수림	0.75	37.5	152.19	11.890
	혼효림	331	혼효림	0.75	37.5	78.50	6.133
초지	자연초지	411	자연초지	0.6	37.5	7.00	0.438
	인공초지	422	묘지	0.6	37.5	0.21	0.013
		423	기타 초지	0.6	37.5	3.54	0.221
습지	내륙습지	511	내륙습지	0.95	37.5	1.17	0.116
나지	자연 나지	612	강기슭	0.75	37.5	1.83	0.143
		613	암벽바위	0.75	37.5	111.28	8.693
	기타 나지	623	기타 나지	0.8	37.5	9.78	0.815
수역	내륙수	711	하천	0.95	37.5	1.70	0.168
합계							44.045

○ 1925년 대홍수기 유출량 산정

기록에 의하면 1925년 7월 9 ~ 12일, 15 ~ 19일 9일간 748.9mm의 강우로 창릉천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부록 참고). 이에 이때의 하천유출량을 예측하기 위해 현재의 토지피복은 그대로 두고 1시간 강우량을 83.2 mm/hr로 가정(총 강우량을 강우일수로 나눈 값)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창릉천의 하천유출량은 1,360m³/sec였고, 진관천은 97m³/sec였다(아래 <표 6-9>와 <표 6-10>)³⁰⁾.

<표 6-9> 창릉천의 대홍수기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토지피복				C	I	ha	유출량 (m ³ /sec)
시가화/건조지역	주거지역	111	단독주거시설	0.8	83.2	74.33	13.744
		112	공동주거시설	0.8	83.2	87.27	16.138
	공업지역	121	공업시설	0.8	83.2	7.22	1.334
	상업지역	131	상업업무시설	0.8	83.2	141.23	26.116
		132	혼합시설	0.8	83.2	0.23	0.042
	문화체육휴양시설	141	문화체육휴양시설	0.8	83.2	24.47	4.525
	교통지역	153	철도	0.8	83.2	48.68	9.002
		154	도로	0.8	83.2	813.06	150.346
		155	기타 교통·통신시설	0.8	83.2	0.06	0.011
	공공시설지역	161	환경기초시설	0.8	83.2	19.37	3.581
		162	교육·행정시설	0.8	83.2	19.84	3.668
		163	기타 공공시설	0.8	83.2	34.26	6.336
	농업지역	논	211	경지정리가 된 논	0.7	83.2	8.73
212			경지정리가 안 된 논	0.7	83.2	66.09	10.693
밭		221	경지정리가 된 밭	0.6	83.2	29.54	4.097
		222	경지정리가 안 된 밭	0.6	83.2	440.84	61.138
시설재배지		231	시설재배지	0.6	83.2	255.70	35.462
과수원		241	과수원	0.6	83.2	15.42	2.139
기타재배지		251	목장·양어장	0.6	83.2	9.30	1.290
		252	기타재배지	0.6	83.2	88.68	12.298
산림지역	활엽수림	311	활엽수림	0.75	83.2	2,683.36	465.178
	침엽수림	321	침엽수림	0.75	83.2	608.69	105.521
	혼효림	331	혼효림	0.75	83.2	712.47	123.512
초지	자연초지	411	자연초지	0.6	83.2	77.66	10.771
	인공초지	421	골프장	0.6	83.2	38.59	5.352
		422	묘지	0.6	83.2	49.88	6.917

		423	기타 초지	0.6	83.2	690.11	95.709
습지	내륙습지	511	내륙습지	0.95	83.2	120.65	26.494
나지	자연 나지	612	강기습	0.75	83.2	20.77	3.600
		613	암벽바위	0.75	83.2	320.97	55.642
	기타 나지	622	운동장	0.8	83.2	20.23	3.740
		623	기타 나지	0.8	83.2	451.25	83.441
수역	내륙수	711	하천	0.95	83.2	45.25	9.936
		712	호소	0.95	83.2	7.58	1.664
합계							1360.846

〈표 6-10〉 진관천의 대홍수기 토지피복별 우수 유출량 및 하천 유출량

토지피복				C	I	A (ha)	유출량 (m3/sec)
시가화/건조 지역	주거지역	111	단독주거시설	0.8	83.2	1.35	0.249
	상업지역	131	상업업무시설	0.8	83.2	0.84	0.156
	문화체육·휴양 시설	141	문화체육 휴양시설	0.8	83.2	0.58	0.107
	교통지역	154	도로	0.8	83.2	12.44	2.301
		155	기타 교통통신시설	0.8	83.2	0.01	0.001
	공공시설지역	162	교육행정시설	0.8	83.2	1.02	0.189
		163	기타 공공시설	0.8	83.2	0.71	0.132
농업지역	논	222	경지정리가 안 된 논	0.7	83.2	1.71	0.276
		252	기타재배지	0.6	83.2	3.22	0.446
산림지역	활엽수림	311	활엽수림	0.75	83.2	175.06	30.348
	침엽수림	321	침엽수림	0.75	83.2	152.19	26.383
	혼효림	331	혼효림	0.75	83.2	78.50	13.608
초지	자연초지	411	자연초지	0.6	83.2	7.00	0.971
	인공초지	422	묘지	0.6	83.2	0.21	0.029
		423	기타 초지	0.6	83.2	3.54	0.490
습지	내륙습지	511	내륙습지	0.95	83.2	1.17	0.257
나지	자연 나지	612	강기습	0.75	83.2	1.83	0.317
		613	암벽바위	0.75	83.2	111.28	19.290
	기타 나지	623	기타 나지	0.8	83.2	9.78	1.809
수역	내륙수	711	하천	0.95	83.2	1.70	0.374
합계							97.734

30) 당시의 시간당 강우량과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면 좀 더 현실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6-6〉 진관천 유역에서 하천 수위가 EL. 40 ~ 41 이하일 경우 홍수 피해 가능지역

4. 마치며

4.1. 요약

이 세부 연구에서는 창릉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과 유역 정보를 수집하였다. 유역 정보는 환경부의 5*5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DEM)과 1*1m 해상도의 토지피복 세분류 GI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1925년과 2020년의 하천유출량을 계산하고, 홍수범람 위험 지역을 추출해 보았다.

창릉천과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는 서울기상 관측소로 여기에서 지난 10년간에 관측된 기상자료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연간 강수량은 1,313.4mm이며, 최근 10년 동안의 최대 강수량을 보인 해는 2010년의 2,043.5mm, 최소 강수량은 2015년의 792.1mm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총 강수량의 60.0%(788.5mm)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었다.

창릉천은 비교적 북서로 길쭉한 형상을 보이는 하천으로 성사천과 순창천, 북한천 그리고 진관천이 지류로 포함되어 있다. 창릉천의 전체 유역 면적은 80km²이며, 은평한옥박물관이 포함되는 진관천 유역은 5.6km²으로 전체의 7% 정도이다.

하천 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인접한 AWS 관측소인 서대문 관측소의 2020년 강우자료를 활용하였다. 2020년 8월 10일의 시간당 최다 관측 강수인 37.5mm를 적용하였다. 산정 결과, 창릉천의 하천유출량은 613m³/sec였고, 진관천은 44m³/sec였다. 1925년에 발생한 대홍수기의 하천유출량도 산정하였는데, 창릉천의 하천유출량은 1,360m³/sec였고, 진관천은 97m³/sec였으며, 이는 2020년 유출량의 2.2배였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상류부는 하천경사가 급하고, 대부분이 활엽수림이나 침엽수림과 같은 산림지역이며 도로와 바위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유역에 내린 강우는 곧바로 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런 관점에서 홍수피해 가능지역을 도출하였는데, 창릉천 하류부와 성사천 하류부가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의 한계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4.2. 후속 연구 제안

과거와 현재의 상세한 기상자료와 수치고도모형과 토지피복 자료와 같은 GIS 자료 역시 시계열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이용해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하천 유출량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수 범람지의 변화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진관습지의 물 공급원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창릉천 유역에서의 도시화에 따른 수리수문적 변화를 유추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기상청, 기상연보, 2010~2019.

경기도, 2002, 창릉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기상연보.

은평구, 2020, 제35회 은평통계연보 2020.

조용모, 2015, 서울시 실개천의 기능향상과 관리방안, 서울연구원 보고서.



07

은평한옥마을의 식생

7

은평한옥마을의 식생

고동욱,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1. 개관

1.1. 복합유산으로서의 식생경관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관(landscape)이란, 인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태계가 시공간적으로 얽히고설켜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대상으로서의 특정 지역을 일컫는다. 특히 경관유산(landscape legacy)에 대한 연구는, 어떤 지역의 경관이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질, 기후, 식생 및 천이, 동물, 그리고 인간의 영향이 켜켜이 쌓여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마치 고고학자가 발굴조사할 때 조심스럽게 흙을 붓질해가며 과거를 추리하듯이, 경관생태학자는 경관을 볼 때 그 아래 오랜 시간 쌓여온 생태계와 인간의 영향을 밝히고자 노력한다.

대표적인 경관유산연구는 중앙아메리카 남부의 저지대, 지금은 몰락한 마야 문명이 빛났던 지역과 그 곳의 숲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천 년간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마야문명은 서기 1,000년 경 갑자기 몰락하였다. 천년이 지난 지금 숲은 남은 마야의 흔적을

완전히 뒤덮은 듯 했지만, 학자들은 마야인들이 그곳의 기후와 식생, 토양과 영향을 주고 받았던 흔적을 유적뿐만 아니라 숲의 식물과 동물 생태계에서도 여전히 찾아내고 있다 (Ford and Emery, 2008). 자연의 힘과 인간의 흔적, 즉 숲의 회복력(resilience)과 인간영향의 지속성은 놀라운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백 년 이상 한반도의 중심지였던 서울, 그 서울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은평 한옥마을과 그 주변의 식생은, 당연히 경관유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대상지라 할 수 있겠다. 사대문 안은 인간의 힘이 압도적이었을 것이고, 반면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산간오지는 자연이 지배했겠지만, 서울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이곳은 인간의 힘과 자연의 힘이 계속 엮치락뒤치락해온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의 식생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에 따라 작용했던 힘들을 추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2. 식생, 은평구, 은평 한옥마을의 식생

은평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식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적 집단도 종종 자신을 대표하는 식물이나 꽃, 나무를 지정하고는 한다. 특정한 식물종이 지닌 사회적 의미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투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보편적인 집단의 요구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식물종이 토착종인가도 중요하겠고, 설사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와 자리잡은 식물이라도 어찌 되었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역의 인간사와 자연사를 아우르는 특성을 내포한 식생을 논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현재 어떤 식생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기술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식생은 하나의 식물종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식생이 어떤 곳에 있는 식물의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과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속성을 감안한다면, 식생이란 그 곳의 자연사와 인간사가 얽혀 이루어진 복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평 한옥마을의 형식, 옛 방식을 참고하여 새로 지어진 건물들로 구성된 새로운 마을이라는 형식이 지닌 복합성은 그곳의 식생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연구진이 표방하는 목적이 은평 한옥마을, 나아가 은평구 지역의 자연 및 인간사의 아카이빙에 준하는 작업의 첫걸음임을 감안한다면, 이곳의 식생 특성을 어떻게 특정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생 연구에서 살펴 봐야 할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록과 자료가 존재하는지, 즉 문헌뿐만 아니라 토지 피복분류도, 인공위성 영상과 고지도 등의 공간자료와 옛 사진 등 동원할 수 있는 데이터 와 이들을 시간과 공간으로 어떻게 엮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세부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기초적인 식생 관련 자료 중에서도 경관과 생태계를 우점 하는 1차 생산자인 산림을 중심으로 임상도, 토지피복, 항공영상, 위성영상, 고지도 오버 레이, 지형 등의 자료를 통시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연결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2. 식생 현황

2.1. 주요 수종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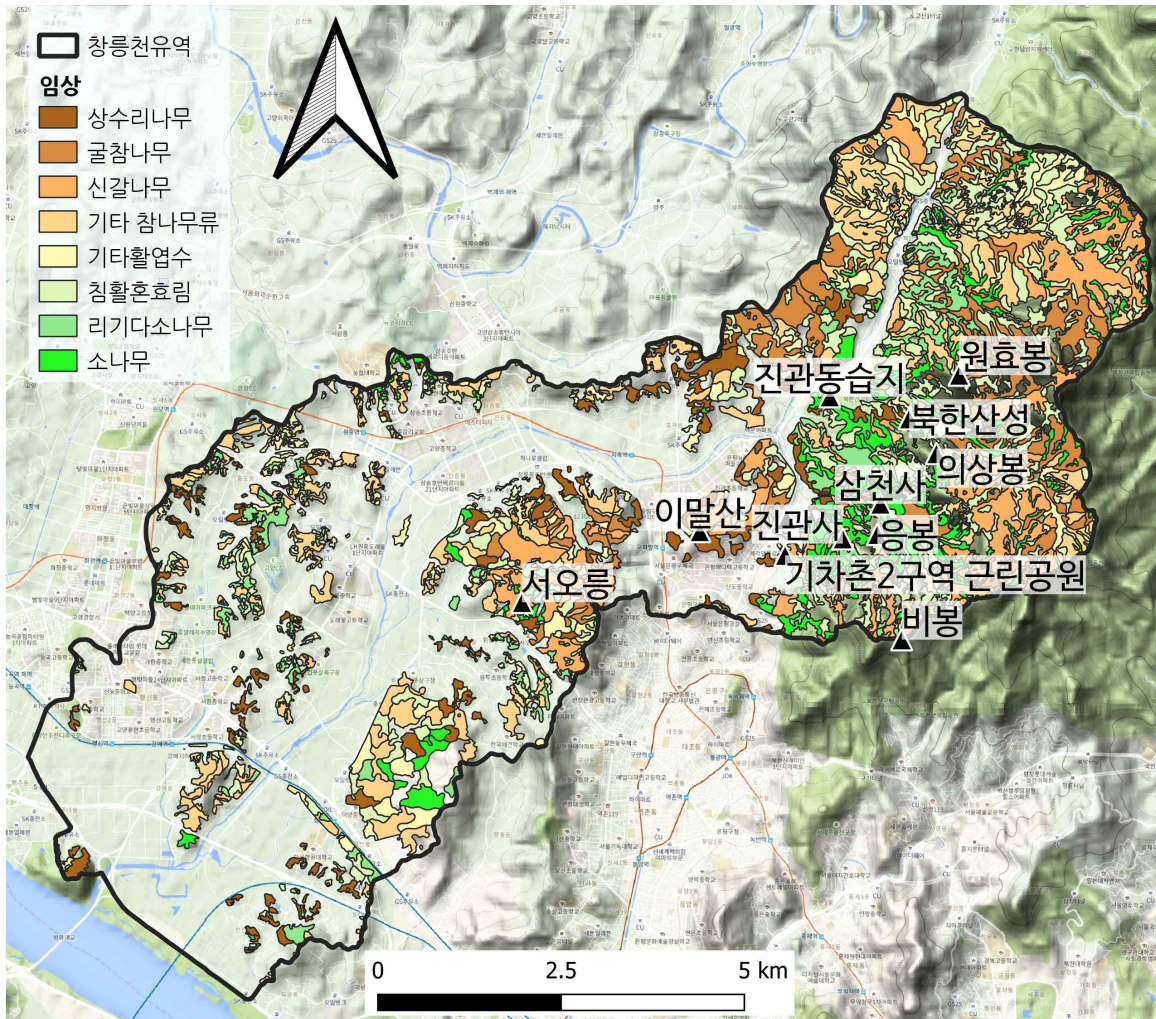
연구지역이 포함된 창릉천 유역 전체의 식생은 임상도 기준으로 참나무류가 49.3%(기 타참나무류 16.2%, 신갈나무 14.7%, 굴참나무 11.3%, 상수리나무 7.1%)로 가장 넓은 면적 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침활혼효림 (19.4%)와 기타활엽수 (15.7%)가 따랐다. 소나무는 9.3%, 리기다소나무는 6.3%로 활엽수에 비해 작은 비율을 보였다 (표 7-1, 그림 7-1). 대부 분의 조림수종이 소나무 및 리기다소나무였음을 감안한다면, 많은 식생이 천연림에 의한 2차림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북한산 국립공 원 및 인근 지역의 조림 관련 자료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사면별 수종 비율을 살펴보면, 북동사면의 소나무류 면적 비율(17.4%)이 남서사면 (13.2%)에 비해 약간 높았고, 참나무류의 면적 비율은 북동사면(49.4%)이 남서사면 (49.2%)와 거의 비슷하였다 (표 7-1, 그림 7-1). 침활혼효림과 기타활엽수의 비율도 각각 북동사면에서 18.2%, 15.0%와 남서사면에서 20.9%, 16.7%로 비슷하였다. 따라서 사면에 따른 임상의 분포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7-1〉 사면별 수종 비율

	사면별 면적 (ha)				합계(ha)	비율(%)
	E	N	S	W		
침활혼효림	238	155	197	146	736	19.4
기타참나무류	179	160	118	158	615	16.2
기타활엽수	179	144	135	138	596	15.7
신갈나무	186	198	71	103	558	14.7
굴참나무	135	74	135	83	427	11.3
소나무	153	72	81	46	352	9.3
상수리나무	83	50	78	60	271	7.1
리기다소나무	87	63	46	44	240	6.3

출처: 산림청, 2021, 임상도(1:5,000)



〈그림 7-1〉 창릉천의 산림 임상 분포(1:5,000 임상도)

출처: 산림청, 2020

연구지 임상의 직경급은 중경목(82.2%, DBH 18-30cm)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약간의 소경목(16.4%, DBH 6-18cm)이 있었다(표7-2). 영급을 살펴보면 4영급(36.4%, 수령 31-40년)과 5영급(45.4%, 수령 41-50년)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7-3). 6영급 이상은 6%, 3영급 이하는 12% 정도로 분포하였다. 국립공원 경계 이내와 이외 모두 비슷한 영급 및 경급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7-2〉 산림 임상의 직경급별 면적과 비율

직경급	직경급 코드	면적(ha)	비율(%)
치수	0	5	0.1
소경목	1	638	16.4
중경목	2	3,189	82.2
대경목	3	48	1.2

〈표 7-3〉 산림 임상의 영급별 면적 비율

영급	면적(ha)	비율(%)
1	4	0.1
2	29	0.7
3	443	11.4
4	1410	36.4
5	1760	45.4
6	232	6.0

* 치수: DBH <6cm, 소경목: DBH 6-18cm, 중경목: DBH 18-30cm, 대경목: DBH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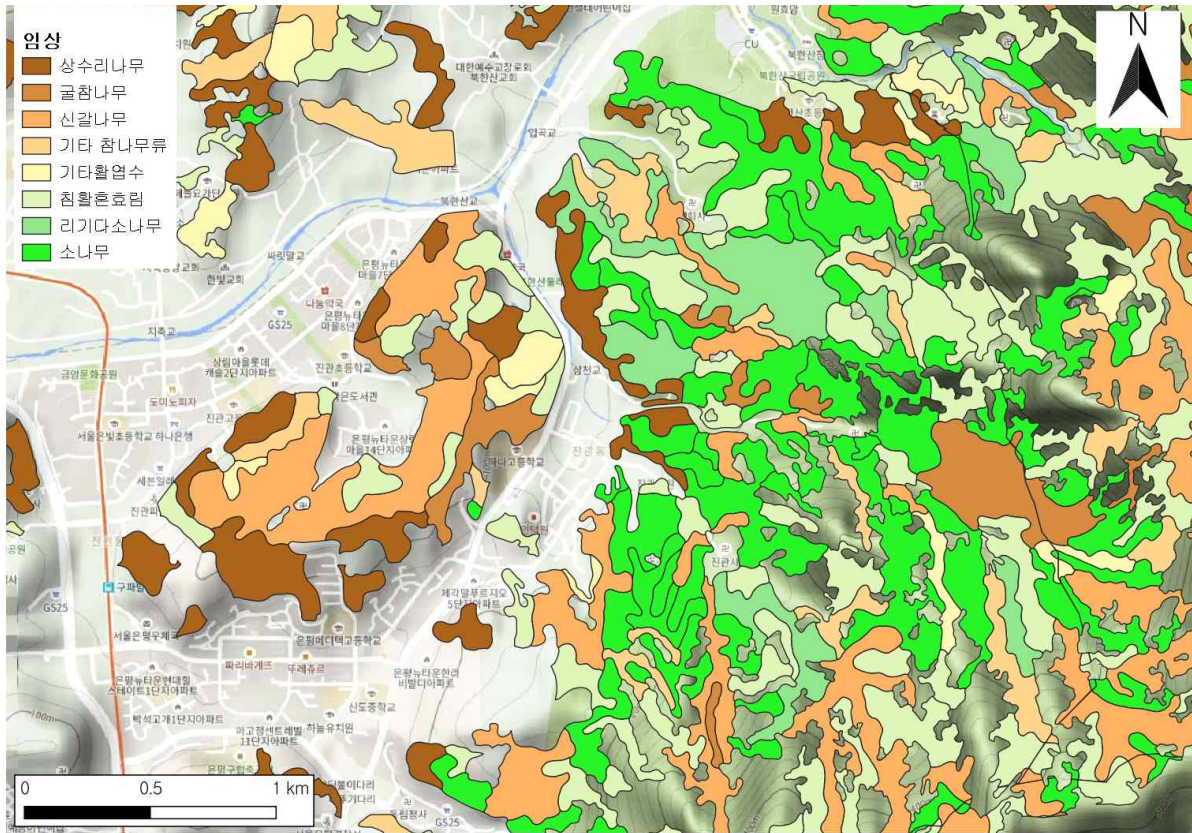
* 영급: 1(1-10년), 2(11-20년), 3(21-30년)...

종합하면, 연구지역의 임상은 참나무류 중심의 임상이 산림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침활혼효림과 소나무, 리기다소나무림이 따랐다. 전체적인 임상 분포에 사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급과 경급을 살펴보면 중경급과 31-50년의 수령을 지닌 면적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2. 한옥마을 인근의 산림 분포와 특성

한옥마을 인근의 산림 분포 특성은 전반적인 임상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북한산 방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7-2). 한옥마을 인근 지역 중 북한산 국립공원 방면과, 진관내천 건너의 이말산 지역의 차이는 두드러졌다. 북한산 방면의 식생은 최인근의 신갈나무림과 침활혼효림이 위치하고 있으나, 그 너머에는 소나무림이 상당한 면적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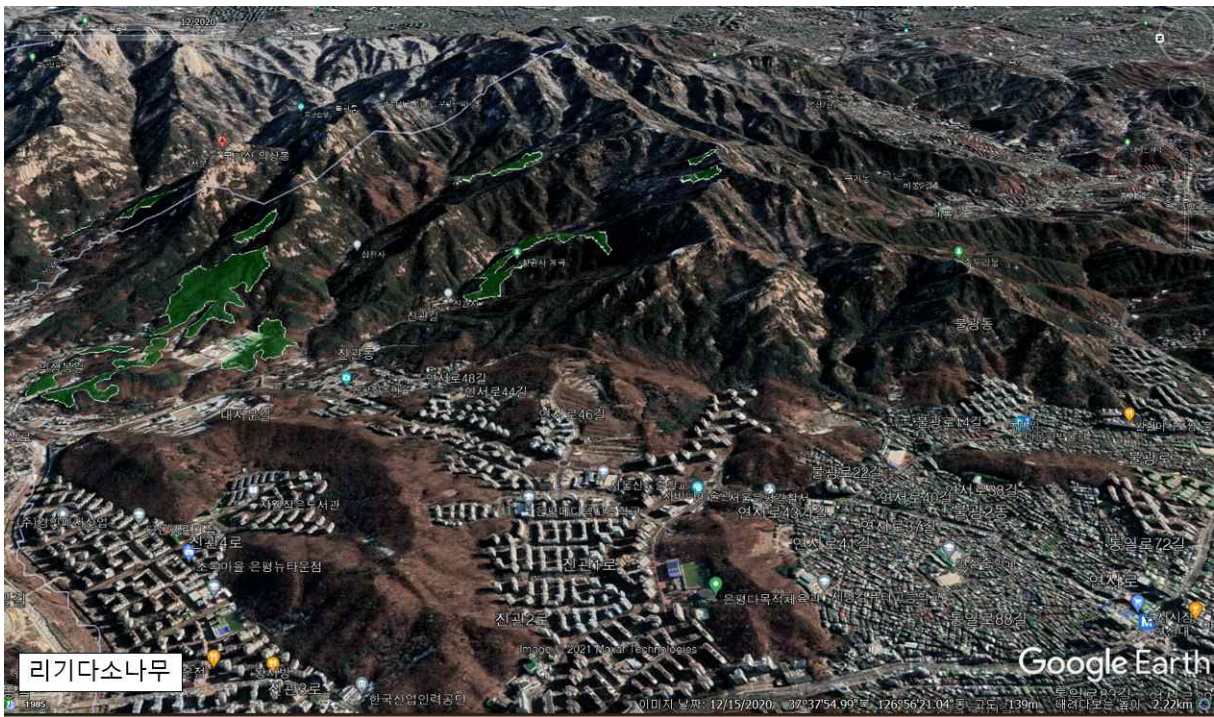
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참나무류와 섞여 분포하였다. 또한, 진관사와 삼천사 계곡 상부에는 상당한 리기다소나무 임상이 분포하고 있어 과거 조림의 가능성을 비쳤다.



〈그림 7-2〉은평 한옥마을 인근의 임상. 1:5,000 임상도(산림청, 2020)



〈그림 7-2-1〉 소나무 분포 현황



〈그림 7-2-2〉 리기다소나무 분포 현황



〈그림 7-2-3〉 굴참나무 분포 현황



〈그림 7-2-4〉 상수리나무 분포 현황



〈그림 7-2-5〉 신갈나무 분포 현황



〈그림 7-2-6〉 기타 참나무류 분포 현황

진관내천 건너의 이말산의 경우 활엽수가 두드러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말산과 인근은 내시와 궁녀의 묘가 다수 존재하고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말산은 지형상 진관내천과 삼천사 계곡이 내려오는 길을 막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임상도상 말굽 모양의 바깥쪽이 진관내천을 접하고 있고 하천변은 침활혼효림이 얇게 분포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기타활엽수가 중간에 섞여 있는 양상을 보였고, 부분적인 침활혼효림을 제외하면 침엽수의 분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말산 내부를 답사하면서 곳곳에 2000년과 2001년에 조성된 소나무 조림지가 있었으나, 상당히 밀식한 상태이며 타 수종과의 경쟁으로 인해 생육상태는 좋지 않았다(그림 7-3).



〈그림 7-3〉 이말산 등산로 인근의 소나무 조림지

출처: 저자 촬영

인근 은평뉴타운이 조성되고 착공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2005년도에 조성된 조림지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곳은 상수리나무 20그루, 산벚나무 30그루, 때죽나무 30그루, 진달래 100그루를 심은 곳으로, 은평구청과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 이전에 정착민이 개간했던 산중 텃밭을 정리하고 조림하여 조성된 곳이었다(그림 7-4). 활엽수 중심의 조림을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수종을 심었다는 점, 그리고 참나무류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마을 인근에 많이 분포하며 도토리 생산량이 높은 상수리나무를 심었다는 점 등이 이전의 단일 침엽수종 위주의 조림과 달라서 흥미롭다.



〈그림 7-4〉 2005년 은평뉴타운 개발 시기에 은평구청과 시민단체가 조성한 활엽수림

이말산 식생에서 참나무류 등 활엽수의 확장을 보여주는 흔적은 이말산과 서쪽이 개발되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의 항공사진과 지금의 위성 및 항공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7-5, 6, 7). 임상도에서 나타났듯이, 2016년 활엽수 잎이 나기 전인 4월에 촬영된 위성영상은 이말산 대부분 지역에 걸쳐 활엽수가 주로 분포하고, 일부 지역에 침엽수가 혼재함을 보여준다(그림 7-5). 반면 1972년 12월과 75년 3월, 활엽수 잎이 없는 시기의 항공영상을 살펴보면 이말산 남쪽의 북사면(못자리골 방향)에는 침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말산 북쪽은 대부분 활엽수가 퍼져있다(그림 7-6, 7). 과거 이말산 남쪽에 침엽수림 지역에 50년간 참나무류가 차지한 자리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말산 내부(못자리골)의 아파트 단지는 1970년대에 몇몇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논이었고, 이는 현재 습지로 복원된 작은 연못 자리도 마찬가지이다(그림 7-8). 옛날 못자리골의 마을나무였을 몇 그루의 나무들은 안타깝게도 그 위치에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그림 7-8, 파란원). 다만 못자리골 복원 습지 앞에 그 중 이식된 것으로 보이는 느티나무 한 그루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활착이 잘되지 않아 고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그림 7-9). 그 외 서울시 노거수 DB에 나와 있는 못자리골 노거수는 해당 위치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림 7-5〉 이말산과 못자리골 항공사진

지도 출처: Copernicus-Google Earth (2016.4.11.)



〈그림 7-6〉 이말산과 못자리골 항공사진

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1972.12.8.)



〈그림 7-7〉 이말산과 못자리골
 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1975.3.27.)



〈그림 7-8〉 이말산 못자리골 확대 항공영상.

파란원은 현재 못자리골에 지정된 노거수들의 옛 자리와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서울시, 네이버지도(1975년과 2021년)



〈그림 7-9〉 이말산 못자리골의 느티나무 노거수의 하나로 추정되는 수목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사 중이다. 2021.10.24. 필자 촬영

2.3. 특별한 식생

○ 은평 한옥마을 식생

은평 한옥마을은 새로 개발된 곳이지만, 한옥마을의 위치와 진관사 및 삼천사의 규모로 보아, 원래의 마을은 사찰과 연관이 있는 기존의 사하촌의 성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예전 항공사진 상으로 해당 지역이 온전히 촬영된 곳이 없어 가늠하기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식생에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였다.

현재 은평 한옥마을의 식생은 신설된 한옥 부지 내의 개별적 조경과 가로수, 그리고 진관내천 맹꽁이 서식지 및 습지 근처의 남아있는 보호수 군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로수

는 느티나무가 주를 이루었으며, 한옥마을 전체의 도로를 따라 식재되어 있었다(그림 7-11).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선택한 것은 흔한 일이지만, 특히 진관내천이 한옥마을을 만나는 지점에 다수 존재하는 느티나무 보호수를 감안한다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7-12). 느티나무 보호수 군락은 진관내천과 연결된 습지이자 맹꽁이 서식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에서 많게는 250년 이상의 수령을 지닌 노거수도 있었다(표 7-4).³¹⁾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마을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였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였으나, 답사 과정에서 노거수 이외에 옛 마을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노거수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위치 정보는 정확하지 않아 기록된 노거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서울시 노거수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한옥마을 내에 있는 보호수는 총 3그루의 느티나무였으며, 그 외 진관사 경내와 인근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이말산 내의 못자리골의 현대아이파크 14단지 아파트 단지 근처와 못자리골 습지 근처에 느티나무 노거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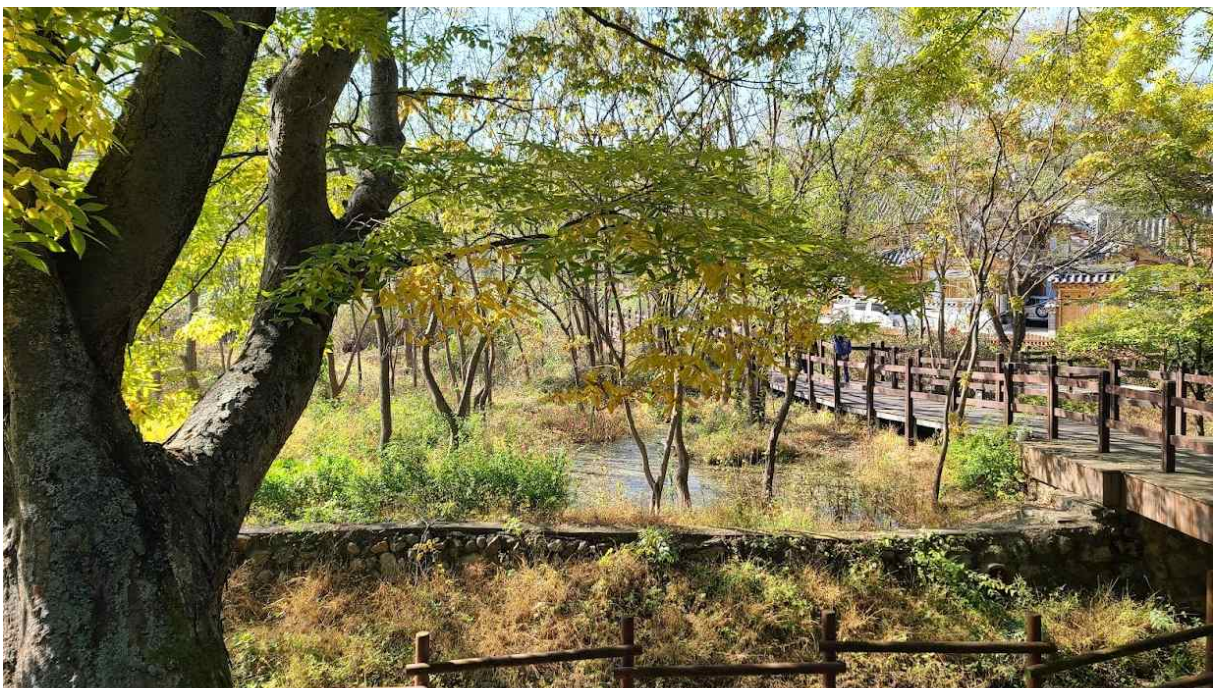
〈그림 7-10〉은평 한옥마을 가로수

출처: 저자 촬영

31) 지정일인 1981년의 수령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령에 40년을 더함



〈그림 7-11〉은평한옥마을 진관내천 및 맹꽂이 서식지 인근의 느티나무 보호수
출처: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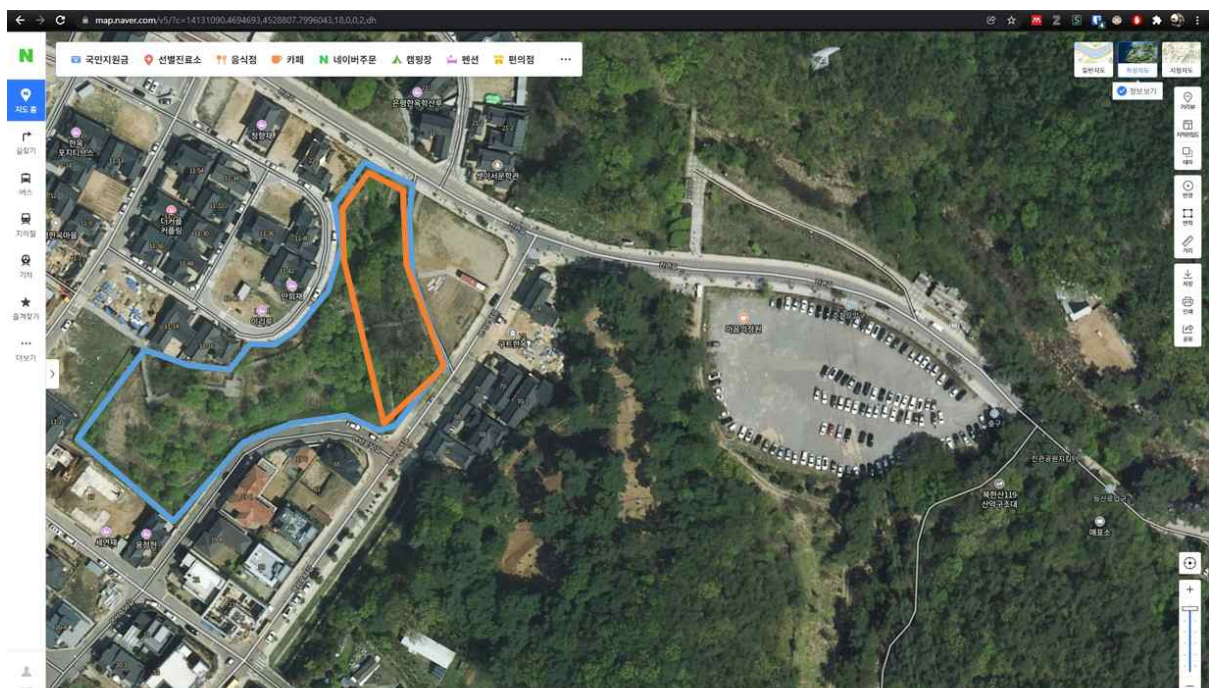
〈그림 7-12〉은평 한옥마을의 느티나무 보호수 군락과 맹꽂이 서식지 습지
진관내천과 남쪽의 또 하나의 작은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이다. (출처: 저자 촬영)

〈표 7-4〉 은평한옥마을 인근의 보호수 목록

수종	수령	수고	흉고둘레	소재지	위도	경도	지정품목	지정년월일
은행나무	115	26	282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37.6379446	126.9433108	1-8-14-21(동나무)	1981.10.27
느티나무	215	18	276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37.6376465	126.9432845	1-8-14-22(동나무)	1981.10.27
느티나무	150	13	380	은평구 진관외동 101-1번지	37.6452878	126.9302437	1-8-15-1-16(마을나무)	1982.10.30
느티나무	165	18.5	368	은평구 진관내동 212번지	37.6413187	126.9393458	1-8-14-10-15(마을나무)	1981.10.27
느티나무	215	13	295	은평구 진관내동 52-1	37.6410128	126.9409628	1-8-14-10-15(마을나무)	1981.10.27
은행나무	115	26	282	은평구 진관외동 1	37.6379614	126.946689	1-8-14-21(동나무)	1981.10.27
느티나무	215	18.9	235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37.6420801	126.9317064	1-8-14-22(동나무)	1981.10.27
느티나무	215	16	230	은평구 진관외동 52-1번지	37.6414908	126.9416305	1-8-14-20(동나무)	1981.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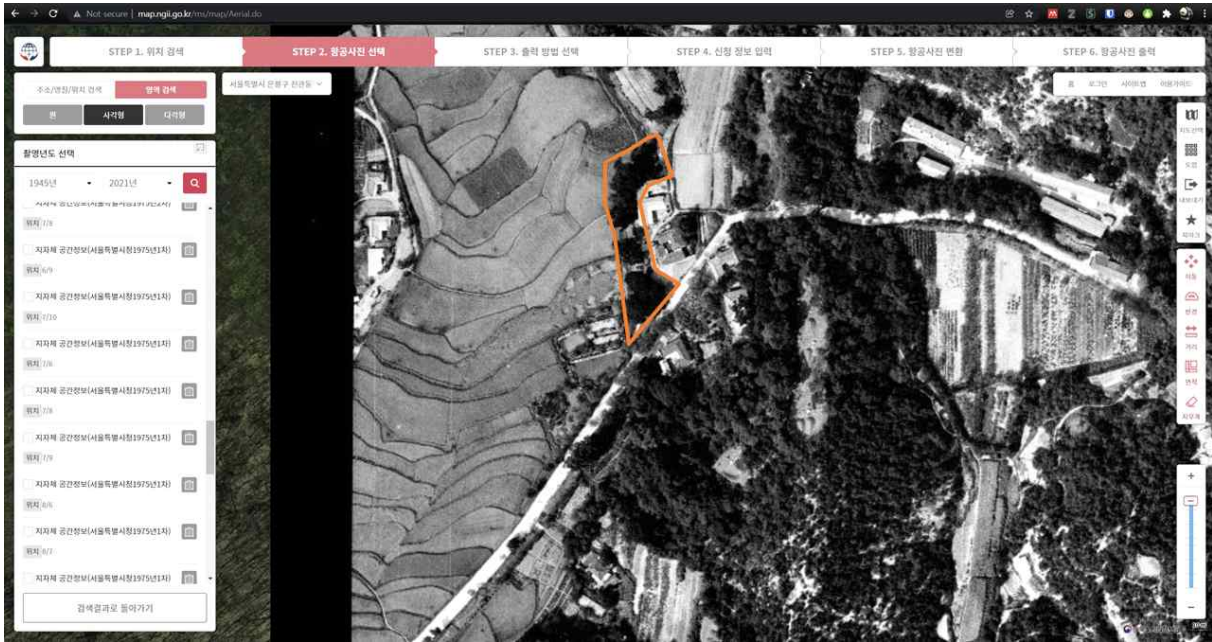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보호수 및 노거수 위치정보,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한편, 항공사진을 살펴본 결과 한옥마을 내 노거수가 분포하고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맹꽂이 서식지 습지는 노거수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인근의 논이었던 곳을 습지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11, 12). 또한 현재 은평 한옥마을 지역은 과거 1972년에는 일부 주택과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13).



〈그림 7-13〉 은평한옥마을의 노거수 분포지역(주황색)과 맹꽂이 서식지 습지(파란색)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



〈그림 -14〉 은평한옥마을 노거수 지역 인근 항공영상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1975.9.9.)



〈그림 7-15〉 과거 은평 한옥마을 지역 항공영상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1975.3.27.)

○ 산지습지 및 묵논습지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진관습지, 은평구 진관동 287-3번지 일대, 북한산 국립공원 내)는 면적 16,639m²에 걸쳐 분포한다. 진관습지는 2002년 12월 30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 제 2002-448호로 지정되었다. 진관습지는 묵논이자 산지습지로 알려진 곳이다. 묵논이란 기존에 논으로 경작되었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경작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말한다. 논으로 활용되었기에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 습지의 성격을 유지하며 천이가 진행되며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 산지습지는 산지 인근에 연목이나 늪 등이 형성되어 다양한 습지식물이 자생하는 곳을 일컫는다. 따라서 진관습지는 묵논이라는 인간 영향과 산지 습지라는 자연 환경이 오랜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며 형성된 곳이며 지금도 그 영향 아래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식생은 1996년, 1994년, 그리고 1991년에 경작이 중단되어 해당 시기에 따른 구역으로 나뉘어 조사된 바 있다(박은하와 오충현, 2014). 연구에 따르면 경작 중단 이후 토지 소유주에 의한 다양한 생산활동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앞서 언급된 지역이 각각 배수 후 쟁기질, 방치, 그리고 복토 후 묘포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지습지나 묵논습지의 자연스러운 천이과정을 거치지 못해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안타깝게도 진관습지는 문이 잠겨 있었으며,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결과 소유주가 엄격히 출입을 금한다고 하여 직접 답사는 불가능하였다(그림 7-14, 15).



〈그림 7-16〉 진관습지 입구

출처: 저자 촬영(2021.10.24.)

한편 이말산 내부의 도심생태습지공원의 '복원된 습지'는 항공사진 판독결과 1970년대까지는 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6, 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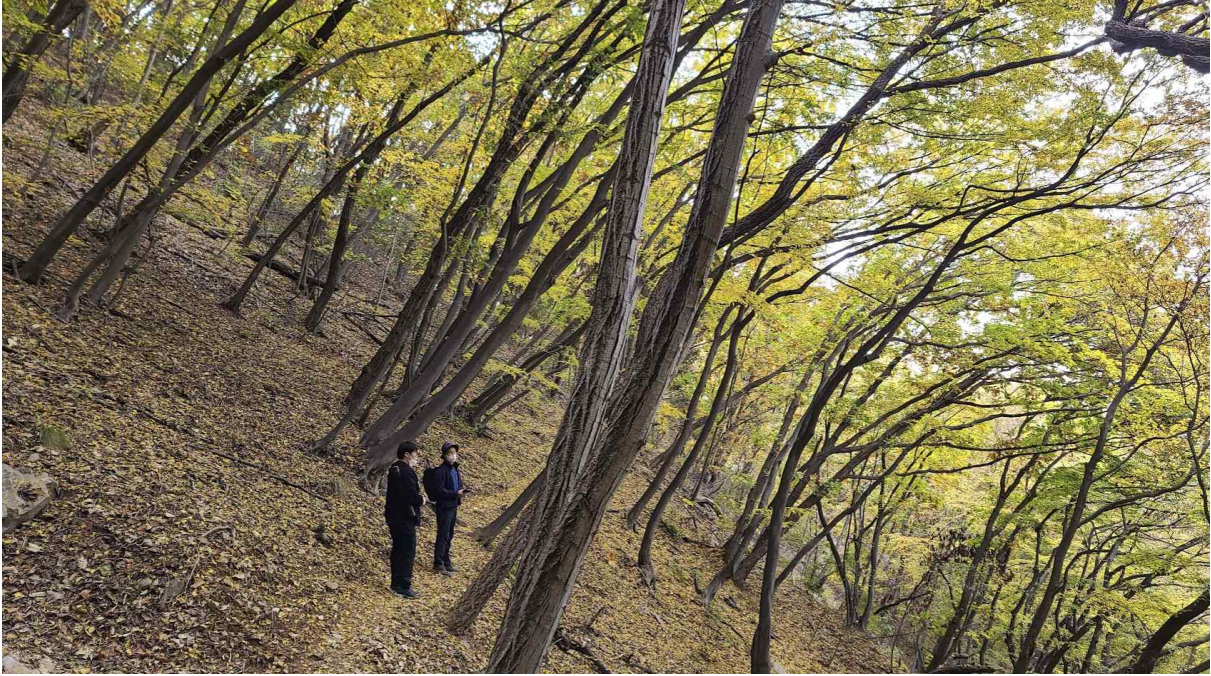


〈그림 7-17〉 이말산 내 못자리골 도심생태습지 간판

출처: 저자 촬영(2021.10.31.)

○ 서오릉 일대의 서어나무 군락

서어나무는 내음성이 강해 우리나라 온대림 및 이차림의 주요 수종이자 천이과정에서의 대표적인 극상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주로 인간의 간섭이 적은 천연림 중심으로 서어나무 군락이 발견되는데, 창릉천 유역에 포함되는 서오릉 일대는 서울과 인접한 곳임에도 대경목의 서어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은평 지역의 식생이 강력한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잘 보호된 숲까지 복잡다단한 경관유산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7-18〉 서오릉 서어나무 군락

출처: 저자 촬영(2021.10.30.)

3. 식생의 변화

연구 지역은 2000년 들어 은평뉴타운 개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곳이다. 은평뉴타운의 개발은 광범위하게 펼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식생이 극심한 교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는 위성영상, 토지피복도 변화, 그리고 오래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repeated photography 기법을 응용하여, 연구 지역에서 발생한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향후 다양한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 및 식생사 등 경관유산연구를 위한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3.1. 토지 피복의 변화

연구지역의 토지 피복 변화를 1989년과 2019년의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로 비교한 결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가화 및 건조지역과 나지였으며, 각각 881ha에서 2,054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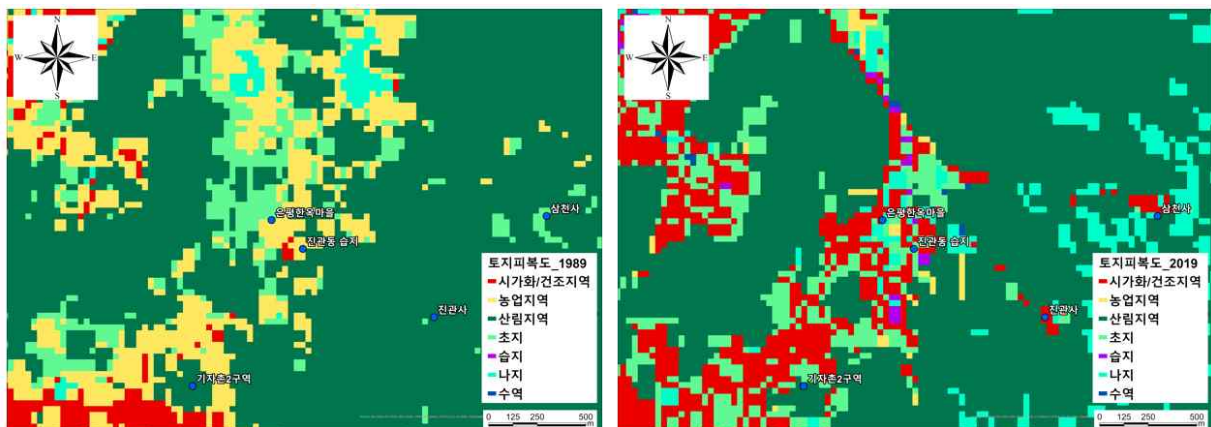
로 232% 증가, 252ha에서 1,306ha로 500% 증가하였다(표 7-5).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피복은 농업지역으로, 1989년 3,699ha에서 2019년 1,451ha로 61% 감소하였다.

〈표 7-5〉 연구지역의 토지피복 변화

대분류	1989년		2019년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시가화/건조지역	881	6.90	2,054	16.00
농업지역	3,699	28.80	1,451	11.30
산림지역	6,790	52.90	6,366	49.60
초지	1,168	9.10	1,383	10.80
습지	36	0.30	192	1.50
나지	252	2.00	1,306	10.20
수역	3	0.00	77	0.60
합계	12,829	100.00	12,829	100.00

출처: 환경부, 1989, 2019, 토지피복지도

은평 한옥마을 인근의 토지피복만을 살펴보면, 1989년까지도 은평한옥마을을 비롯하여 이말산을 두르는 진관내천과 창릉천변, 그리고 이말산 내부까지 모두 광범위하게 농업지구 및 초지가 분포되어 있었다(그림 7-19). 1989년까지는 시가화된 지역이 기자촌 2구역 이남까지였으며, 이때까지는 구파발역 이남으로 도시화의 북측 한계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9년 토지피복도는 앞서 언급된 대부분의 농경지와 초지에 걸쳐 시가화가 진행 및 완료되었으며, 그 중간에 공원이나 녹지 형태로 작은 초지가 흩어져 남아있을 뿐이다. 전체 유역 내에서의 이와 같은 피복변화 양상의 전반적인 경향은 NASA의 Landsat 인공위성 영상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그림 7-20).



〈그림 7-19〉 은평 한옥마을 인근의 토지피복 변화

출처: 1989 - 2019, 환경부, 토지피복도



〈그림 7-20〉 연구지역의 1986년과 2021년의 Landsat 영상

3.2. 산림 식생의 변화와 반복사진법 repeated photography

현재 은평 한옥마을을 두르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이말산 등 주변 산지는 모두 울창한 숲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면 이와 같은 울창한 숲이 형성된 것은 불과 5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0-70년대까지 대한민국 대부분의 산림은 황폐화된 상태였으며, 북한산 국립공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많은 기록과 영상은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체계적인 산림청의 주도 하에 국가적 차원의 산림자원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NFI(National Forest Inventory) 자료가 축적되고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연구는 NFI를 활용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된다. 나아가 조사 자료가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마을 단위의 경관유산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4km 간격이라는 NFI의 공간해상도의 한계와 사유지와 관련된 민감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효용성은 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인이 과거에 찍은 경관 사진을 재방문하여 똑같이 촬영하여 두 사진을 비교하는 방법론인 반복사진법 repeated photography의 활용을 고려해볼 만하다(Moseley, 2006). 다양한 민간 출처의 역사 사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구성하여 식생 변화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분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 및 비교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 가능한 것이다. 시간을 넘나드는 시민과학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책꽂이의 가족앨범이나 서랍 깊숙이 담긴 사진들의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사 및 경관유산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간단히 적용해 보고 그 확장성을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 북한산 행궁지 인근의 식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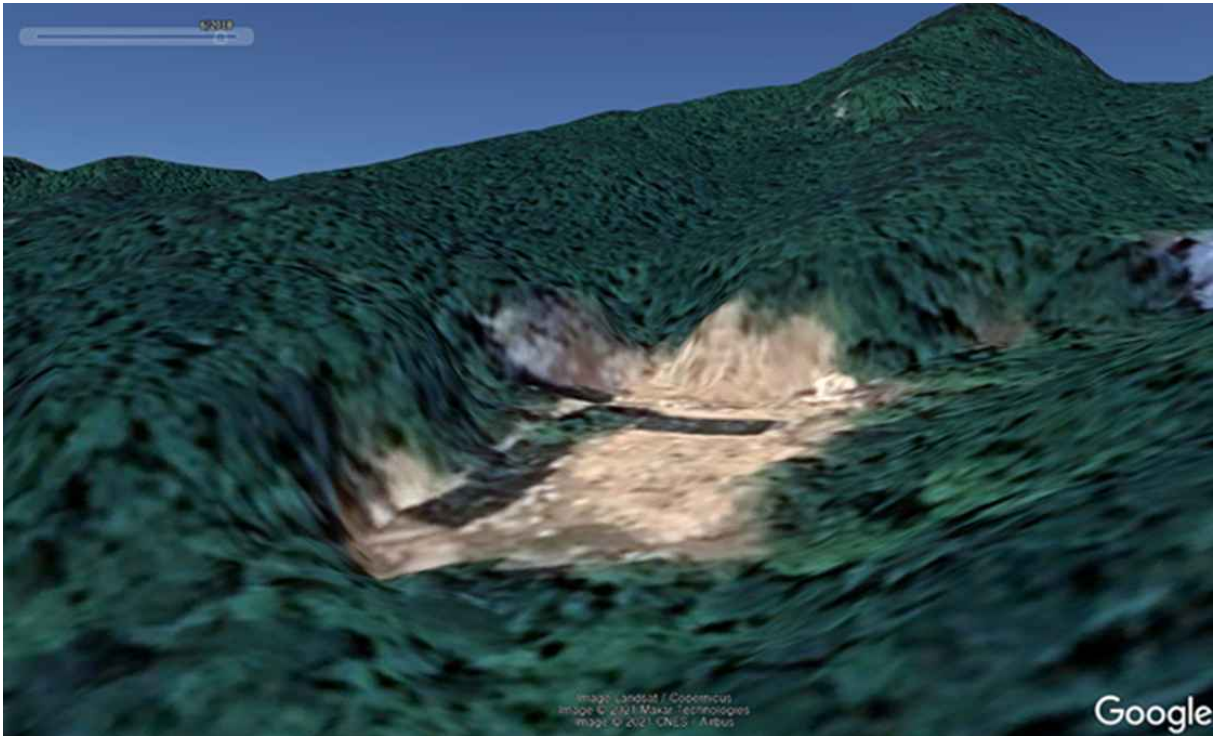
북한산 국립공원의 북한산성 행궁지 인근에서 1890-1900년대에 촬영된 사진을 최근의 인공위성영상과 지형도 오버레이를 구글 어스 프로에서 캡처하여 비교하였다(그림 7-21, 22, 23, 24, 25, 26). 1900년대 경의 행궁지 사진은 인근의 험벗은 산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그림 7-21, 24). 행궁지와 궁성 내의 수목을 제외하면, 경관의 대부분은 땅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를 2018년 5월(늦봄)과 2019년 2월(늦겨울) 영상과 비교하면, 산지 대부분

이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였을 뿐 아니라, 행궁터가 소실된 이후 발굴지 주변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림 7-22, 23, 25, 26). 특히 겨울 영상과 여름 영상을 비교하면 활엽수와 침엽수 분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한 천이의 양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림 7-24, 25, 26의 행궁지 인근 식생 분포와 생물 계절적 요소를 살펴보면 침엽수와 활엽수의 사면별 분포에 따른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다. 현재 능선과 남서사면을 중심으로 침엽수가 더 많이 자리 잡았고, 그 이외의 북사면 방향은 활엽수가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한다(그림 7-23, 24). 해당 위치의 과거 식생과 비교해보면 능선과 남서사면에 나지 혹은 암반이 강하게 노출된 위치가 현재 침엽수의 자리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그 외 사면과 계곡부의 숲은 활엽수가 우점하고 있다. 현재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침엽수 등이 척박한 토양과 수분조건을 더 잘 견딘다는 산림생태적 원리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벌어진 조림녹화사업의 영향, 그리고 1983년 국립공원으로의 지정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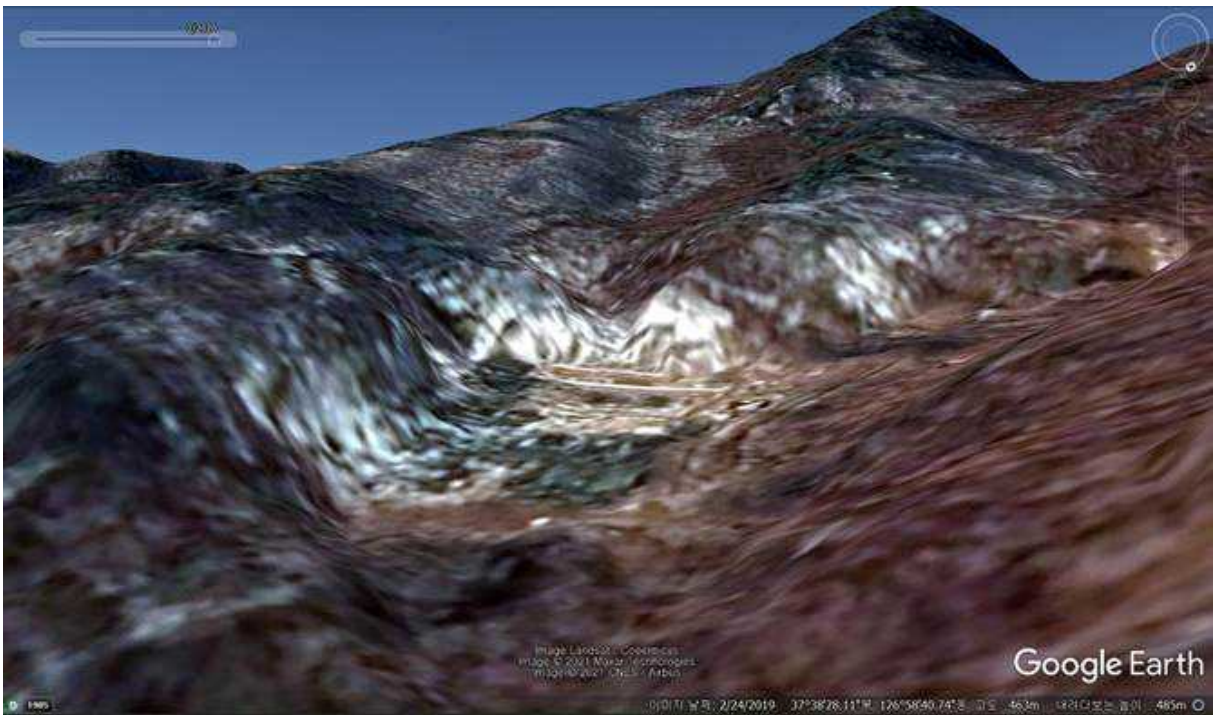


〈그림 7-21〉 북한산성 행궁터(1890-1900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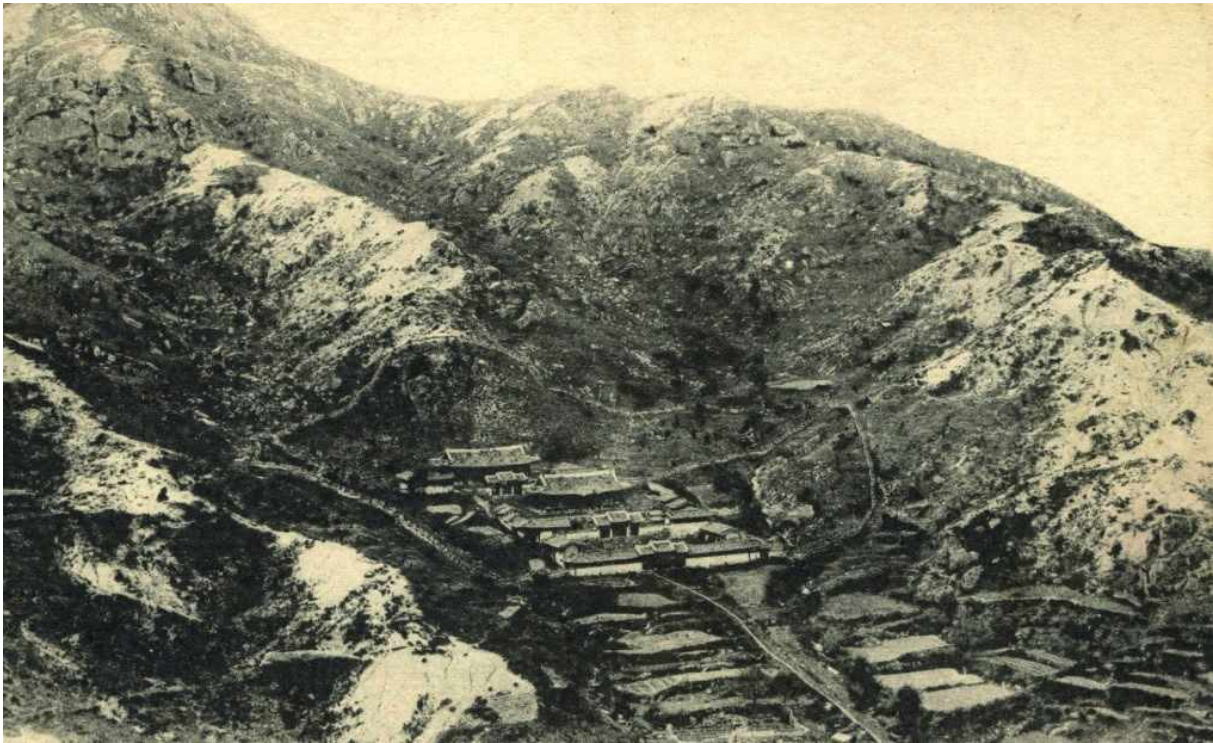
출처: 로버트 네프 컬렉션



〈그림 7-22〉 북한산성 행궁지
출처: Copernicus – Google Earth Pro (2018.5..16.)



〈그림 7-23〉 북한산성 행궁지
출처: Copernicus – Google Earth Pro (2019.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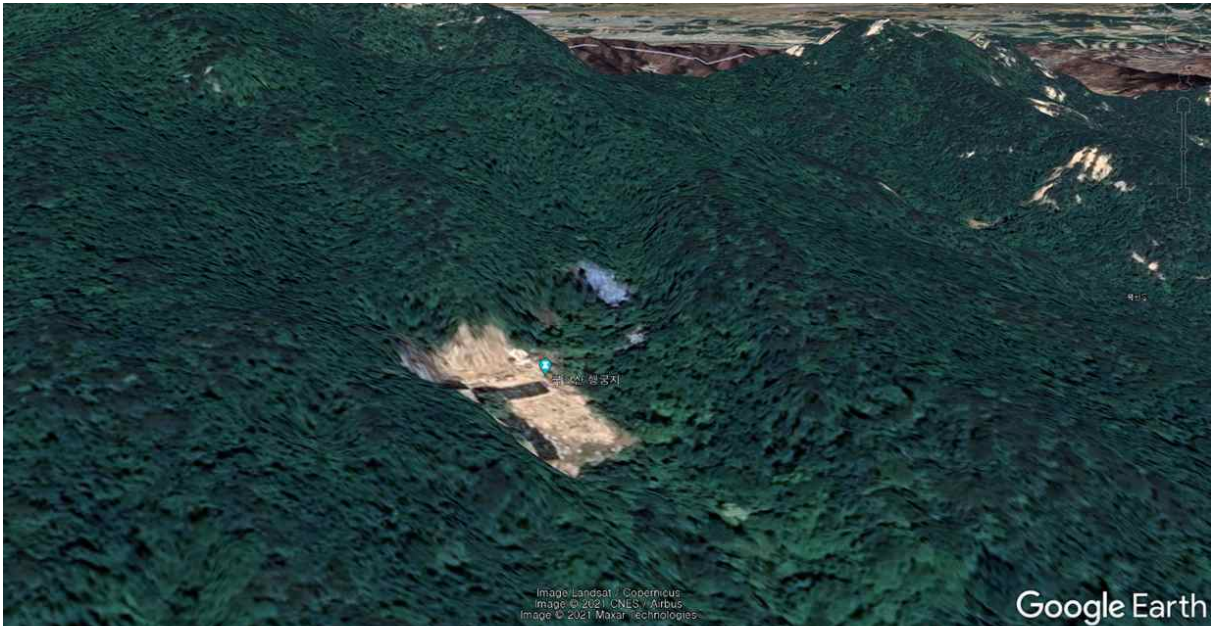
〈그림 7-24〉 북한산성 행궁(1900년대 추정)

출처: 로버트 네프 컬렉션



〈그림 7-25〉 그림 7-13과 비슷한 위치에서 조망한 북한산성 행궁지

출처: Copernicus – Google Earth Pro (2020.4..)



〈그림 7-26〉 그림 7-13 위치에서 조망한 북한산성 행궁지

출처: Copernicus - Google Earth Pro (2018.5.)

○ 북한산 국립공원 중흥사 인근의 식생 변화

의상봉 인근에서 북한산 산세를 조망한 1911년의 역사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였다(그림 7-27, 28, 29, 30). 그림 7-27, 28, 29, 30의 왼쪽 하단에 위치한 건축물은 중흥사인데, 1915년 대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다가 최근에 복원되었다. 이 사진에서도 100여 년 전의 북한산은 거의 모든 지역이 숲이 없었던 상태였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인지 사찰 인근은 식생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그림 7-27). 이후 1986년 12월 위성 영상은 Landsat 초기 영상의 낮은 해상도 때문에 자세한 수준에서의 의미 있는 분석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림 7-27>에 비하면 크게 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28). <그림 7-29>는 2006년 Copernicus 위성영상으로, 중흥사의 복원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침엽수와 활엽수의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29>에서는 복원 중인 중흥사의 모습이, 그림 36에서는 복원이 마무리된 중흥사가 보인다. <그림 7-27>과 비교한다면 사찰과 인근 식생과의 대조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경 식생의 변화가 너무 극심하여 의미 있는 비교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Sentinel 기반의 Copernicus 영상은 단일 개체목 혹은 수 개의 개체목을 묶어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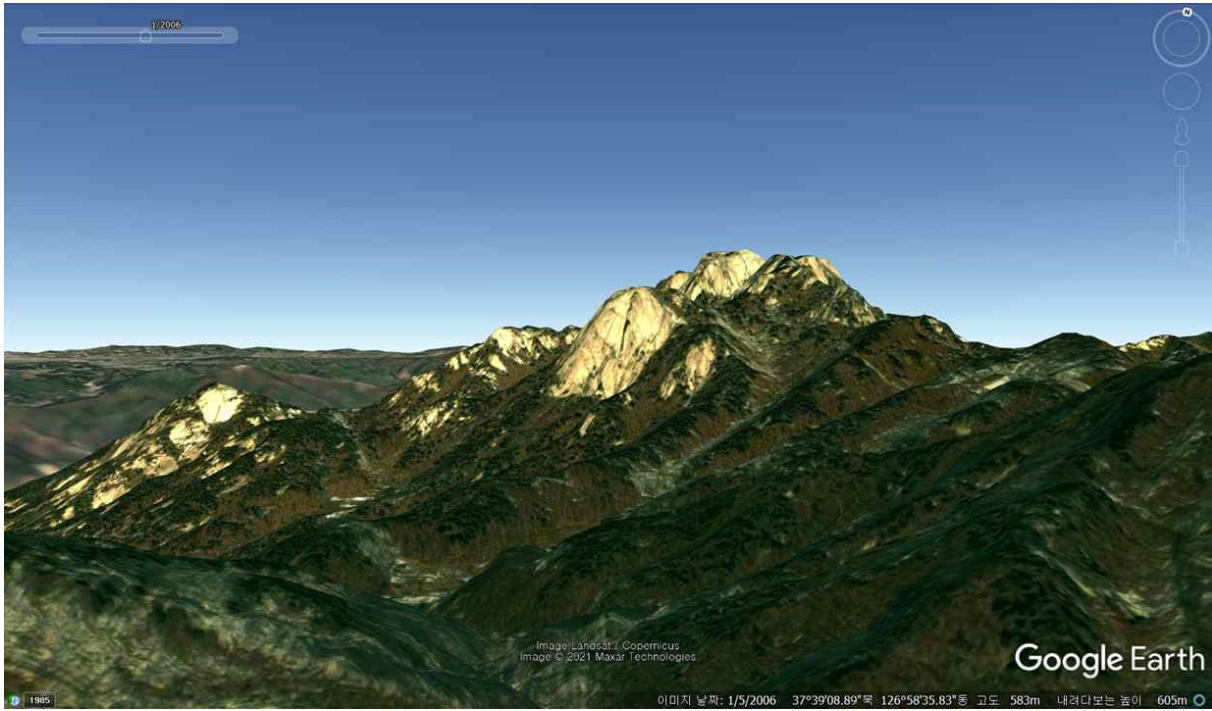


〈그림 7-27〉 의상봉에서 바라본 북한산 산세(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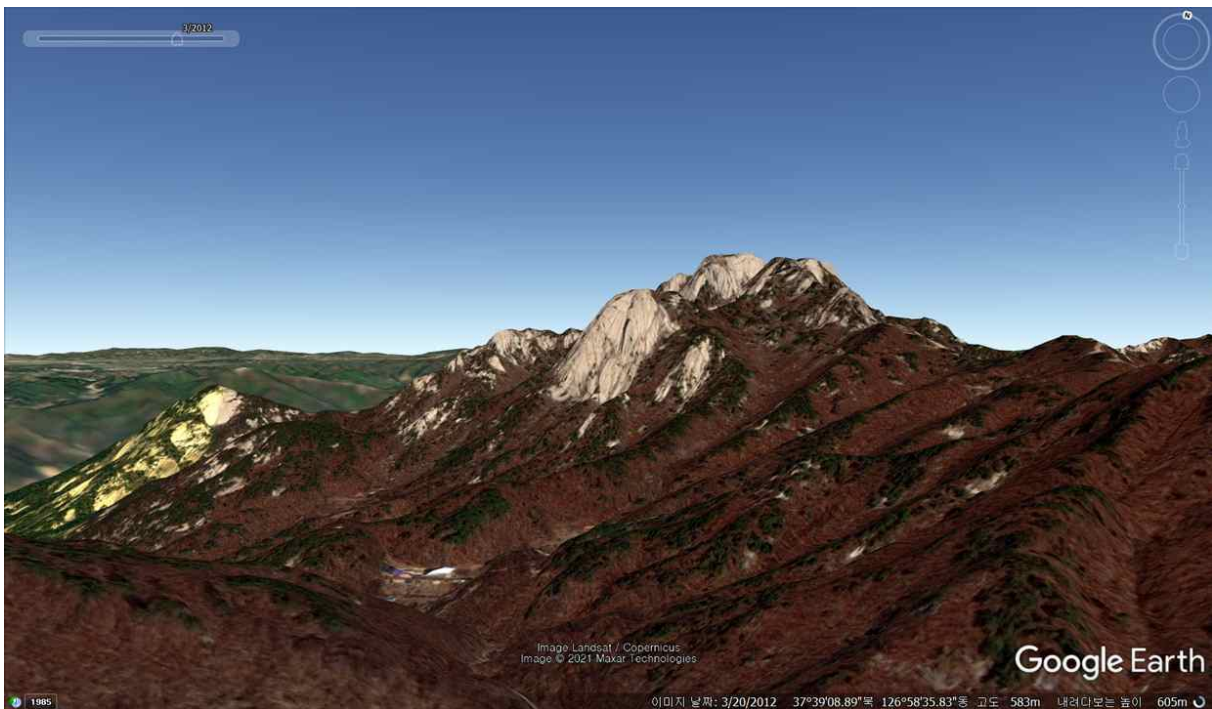
〈그림 7-28〉 그림 7-27과 비슷한 위치에서 조망한 북한산

출처: 1985년 12월 Landsat5 영상



〈그림 7-29〉 그림 7-27 위치

출처: Copernicus – Google Earth Pro (2006.1.5.)



〈그림 7-30〉 그림 7-27 위치 조망

출처: Copernicus – Google Earth Pro (2012.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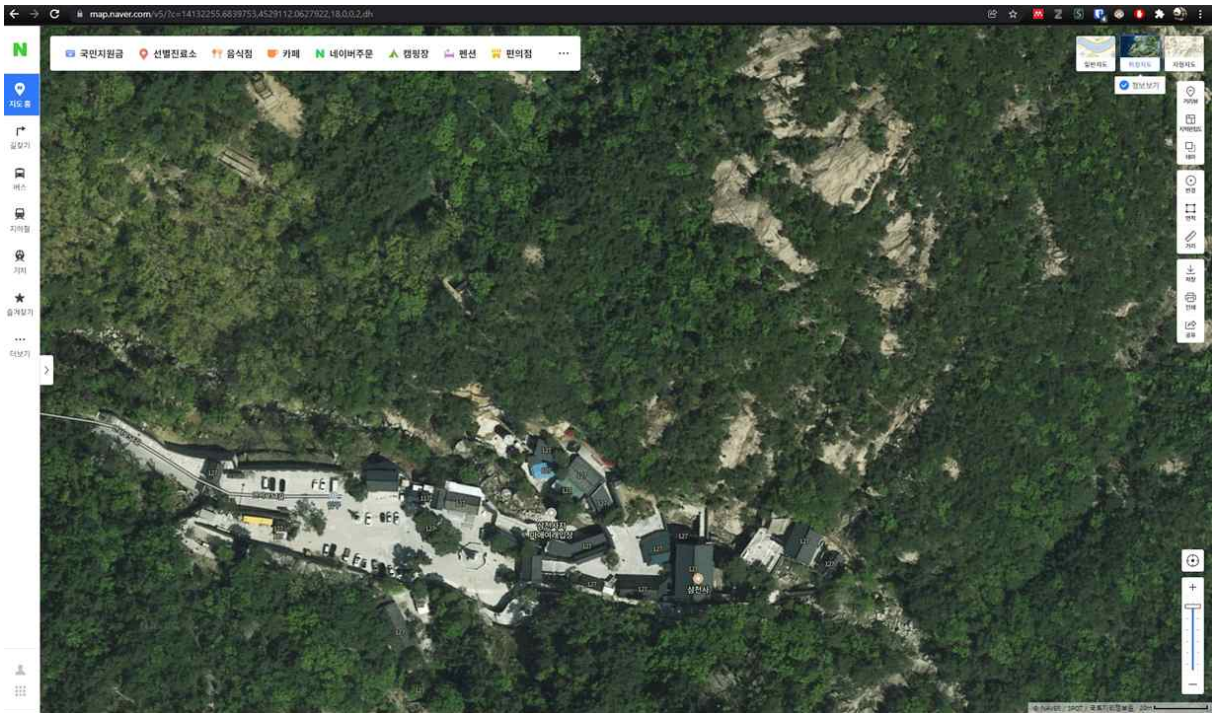
〈그림 7-31〉 그림 7-27 위치 조망

출처: Copernicus – Google Earth Pro (2018.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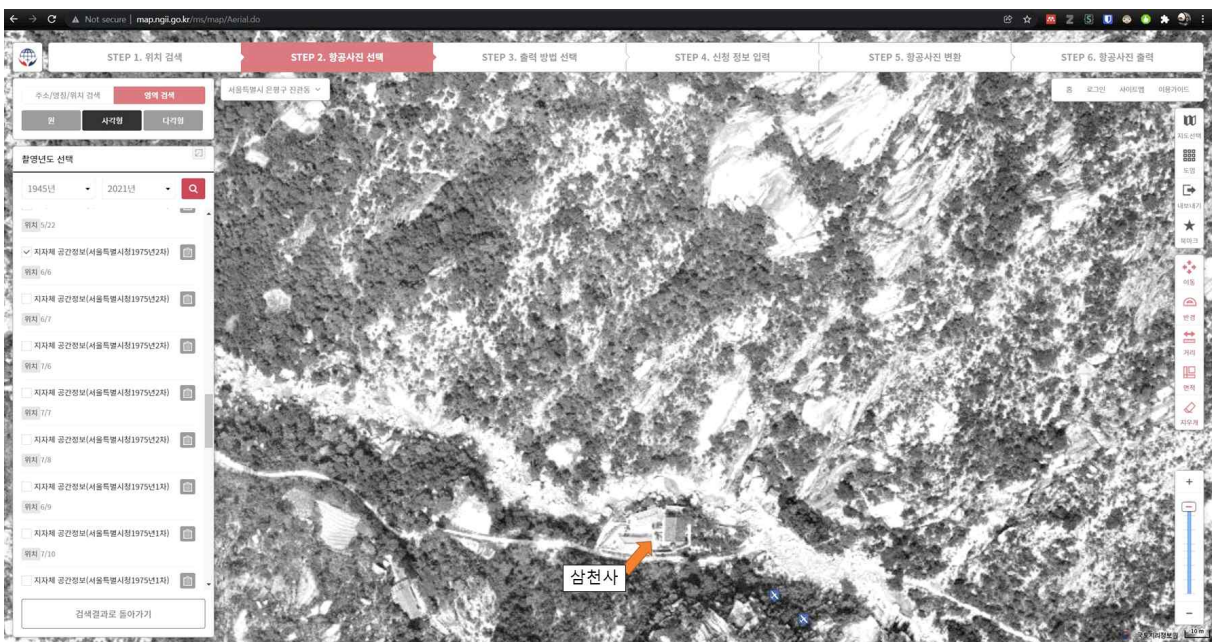
그러나 고해상도 영상을 통한 repeated photography를 대면적에 적용하기 위한 Sentinel 영상 활용은 제한적이다. 육상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Sentinel-2 이후의 영상이 이용 가능할 것인데, 이는 2015년 이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repeated photography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후의 사진 아카이브가 기록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 진관사와 삼천사 인근 식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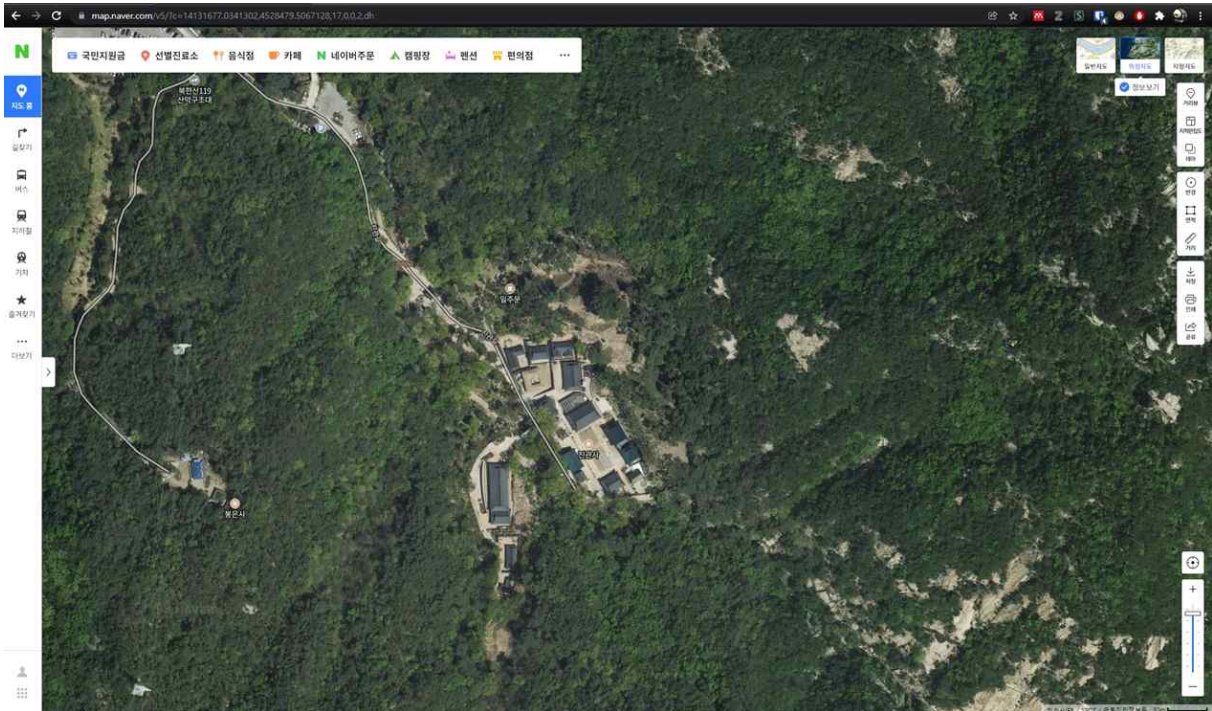
은평 한옥마을 인근의 진관사와 삼천사 관련된 과거 1975년의 항공영상을 현재의 항공영상과 비교하여 보았다(삼천사: 그림 7-32, 33; 진관사: 그림 7-34, 35). 두 영상 모두 여름에 촬영된 것임을 감안하면, 1975년까지도 삼천사 인근의 수목 분포는 지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수목의 개체수도 적을 뿐 아니라, 개별 수목의 수관도 상당히 작다. 노출된 암반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1975년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관찰되는 암반이 현재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진관사의 과거와 현재 항공영상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그림 7-3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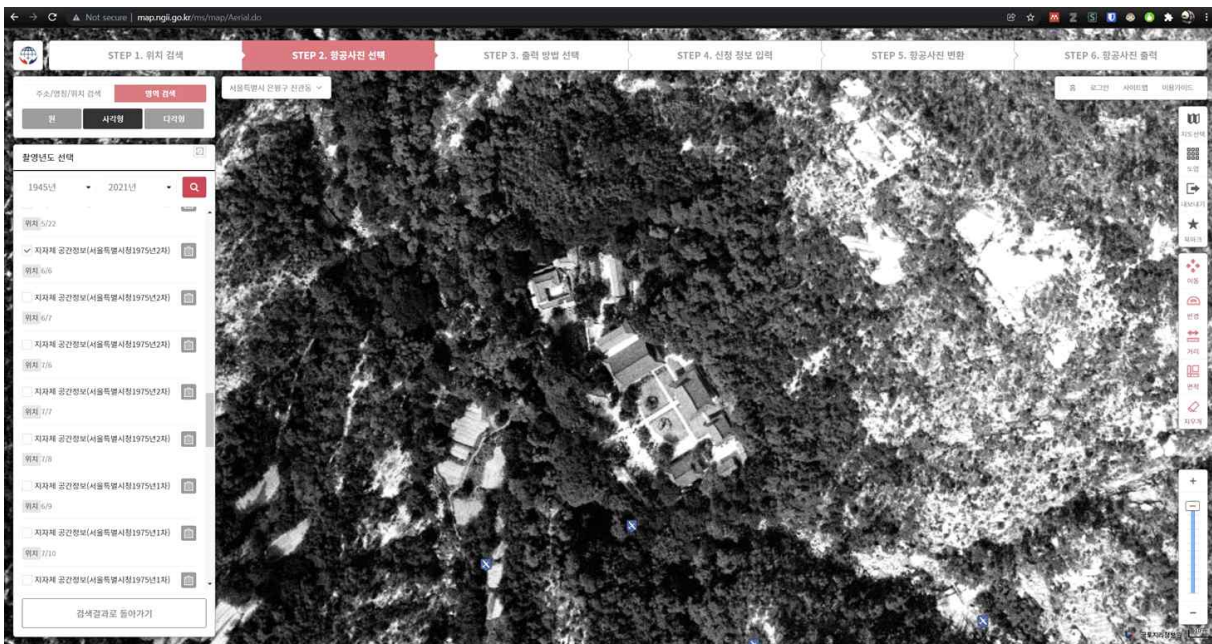
〈그림 7-32〉 삼천사 최근 항공영상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



〈그림 7-33〉 삼천사 과거 항공영상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1975.9.9.)



〈그림 7-34〉 진관사 최근 항공영상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



〈그림 7-35〉 진관사 과거 항공영상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1975.9.9.)

4. 마치며

4.1. 요약

이 세부 연구에서는 식생경관은 해당 지역의 자연사와 인간사를 모두 반영하는 복합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지의 식생을 살펴보았다. 식생의 유형과 공간적 패턴, 특성 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깝고 먼 곳의 생태, 자연, 인간의 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경관유산 landscape legacy의 관점으로 식생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산림청이 제공하는 1:5,000의 고해상도 임상도와 수치고도모형 등의 발전된 공간자료를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사진, 항공사진, 위성사진, 노거수 기록, 지역사 및 개발사, 현지답사와 제한적인 인터뷰 등의 부수적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식생을 만들어온 다양한 자연과 인간의 영향을 고민해 보았다.

그 결과 연구지는 100년, 50년, 20년 등 어떤 시간 스케일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100여년 전 가장 깊은 산 속까지도 험벗었던 곳이 이제는 울창해졌고, 한편으로 20년 전까지 논밭으로 경작되던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또 나무가 심어져 숲이 되기도 하였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상에서는 변화과 다양성은 모든 스케일에서 나타났다. 못자리골이나 지금의 은평 한옥마을이 있던 옛 마을의 공간부터 진관내천같은 소하천 또는 실개천, 그리고 창릉천 유역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은평 한옥마을은, 과거에 진관내천 상류이자 진관사 아래에 자리잡았던 작은 마을과 논밭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된 수십채의 2층 한옥집이 밀집된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불과 수년 전의 일이다.

이말산과 그 내부의 작은 마을과 논밭은 2000년대 들어 그 아래 창릉천변, 구파발천, 물푸레골천 등을 비롯하여 90년대까지 도시화의 북방한계선을 순식간에 넘은 은평 뉴타운 개발에 순식간에 송두리째 사라졌다. 대신 뽕뽕한 아파트단지가 자리를 잡았고, 이는 불과 약 15년 전의 일이다. 우리는 군데군데 약간의 논을 남겨 연못을 파고 풀과 나무를 심어

'습지를 복원'하거나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옛 마을을 지키던 나무들은 노거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남겨지고 때로는 옮겨 심겨졌다가 몸살을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가기도 한다.

창릉천 유역 전체의 공간을 살피면, 지난 100여년 간 험벗은 산에는 어떤 곳은 자연적으로, 어떤 곳은 사람의 도움으로 숲이 울창하게 자라났고, 급기야 척박한 땅에서 겨우 버티며 과거에 얼마 되지 않던 숲을 이루던 소나무들은 맹렬하게 추격하는 참나무 등 활엽수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 와중에 왕릉 인근에는 사람 손길 없는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서어나무 군락을 찾아볼 수 있다.

4.2. 아카이빙의 의미

위에서 이야기된 변화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전공의 전문가 혼자서 하나의 조사 방법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관유산으로서 식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빙 작업은 경계를 허물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자료들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관유산으로서의 식생을 이해하기 위해 아직도 남아있을 기존 주민들을 찾아 인터뷰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을 비단 인터뷰 내용만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는 시각적 기록(즉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제작한다는 적극적인 디지털화 아카이빙의 작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메타데이터는 그 자료의 시공간적인 위치에 대한 주요한 단서(혹은 라벨)이 될 것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트윈 기술이 적용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자료들이 시공간적으로 꿰어져 생각하지 못했던 풍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4.3. 후속 연구 제안

먼저 항공사진을 활용한 식생 변화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힘이 언제 어

뎡게 얼마나 강하게 작용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세부연구에서 제시한 내용과 자료, 추론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민간 혹은 시민 영역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법론을 고민하고 시험적인 적용을 시도하는 것도 식생중심의 경관유산의 공백을 채우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참고문헌

■ 논문, 보고서, 저서

- 곽정인·한봉호·염정현·정진미, 2013, "서오릉 식생구조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3(2), 57-58.
- 박은하·오충현, 2014,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4(1), 83-84.
- 박은하·오충현, 2014, "진관동 습지에서 휴경지와 훼손지 초본군락 비교,"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4(2), 24-25.
- 윤광성, 2007, "묵논 습지의 토양 및 식생 특성 TT - Soil and Vegetation Characteristics of Abandoned Paddy Field,"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2), 129-142.
- 이선·이미정·김효정·권오원·송호경, 2004, "서오릉의 산림군락구조 분석,"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7(2), 62-67.
- Ford, A., and Emery, K. F. (2008). Exploring the legacy of the Maya forest. *Journal of Ethnobiology*, 28(2), 147-153. <https://doi.org/10.2993/0278-0771-28.2.147>

■ 인터넷 자료

- 김흥준, 2020.8.8., *1915년 폭우가 삼킨 행궁, 100년 뒤 파보니*, 중앙일보. Retrieved December 5, 2021,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3791#home>



08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과 활용

8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과 활용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1. 대상지의 야생동물 현황 분석

1.1. 포유류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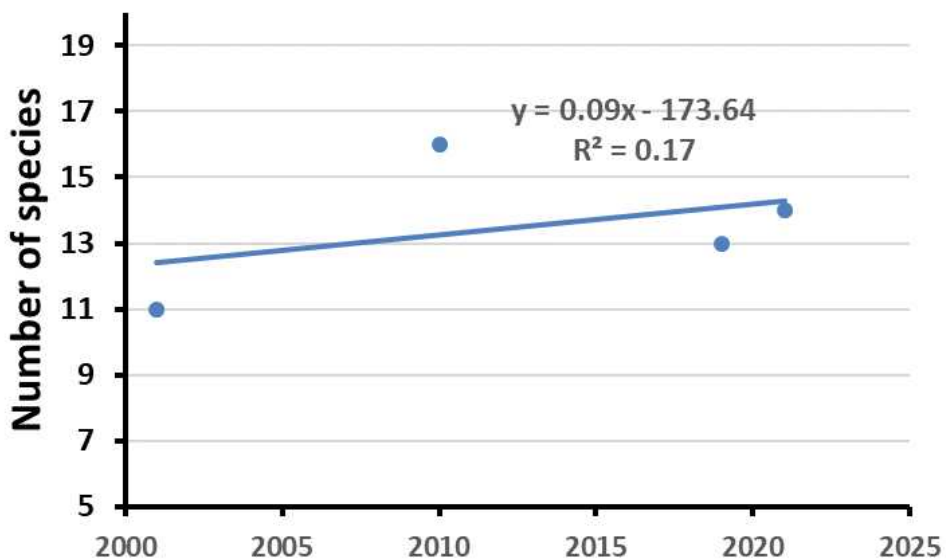
본 연구는 북한천, 창릉천, 이말산, 서오릉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기록된 기존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중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장 조사는 2021년 7월 24일, 10월 30일, 12월 5일에 걸쳐 대상 지역을 방문하여 관찰 및 흔적(발자국, 식흔, 분변 등)을 토대로 서식 현황을 판단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유류는 총 1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 자료와 최근 SNS 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최대 15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천연기념물 산양은 2021년 봄철에 인왕산에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용마산에도 분포하여, 북한산 지역의 바위 지대에서 서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흰넓적다리붉은쥐는 양호한 임상에서 흔히 포획되는 소형설치류로서, 서오릉 부근의 서어나무숲에서 서식가능성이 높다. 삶은 2014년 이후 북한산에서 관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멧토끼도 관찰기록이 없었으나, 향후 서식지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종의 포유류를 확인하였으며, 총 관찰 종 수는 연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그림 8-1). 다만, 영양단계(초식성-Herbivores, 육식성-Carnivore, 잡식성-Omnivore)별로 출현 종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식성 동물(고라니 등)은 연도별로 증가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잡식성 동물과 육식성 동물의 종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7-2). 육식성보다 잡식성 동물 종수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들개와 들고양이의 조사지역 내 유입에 따른 종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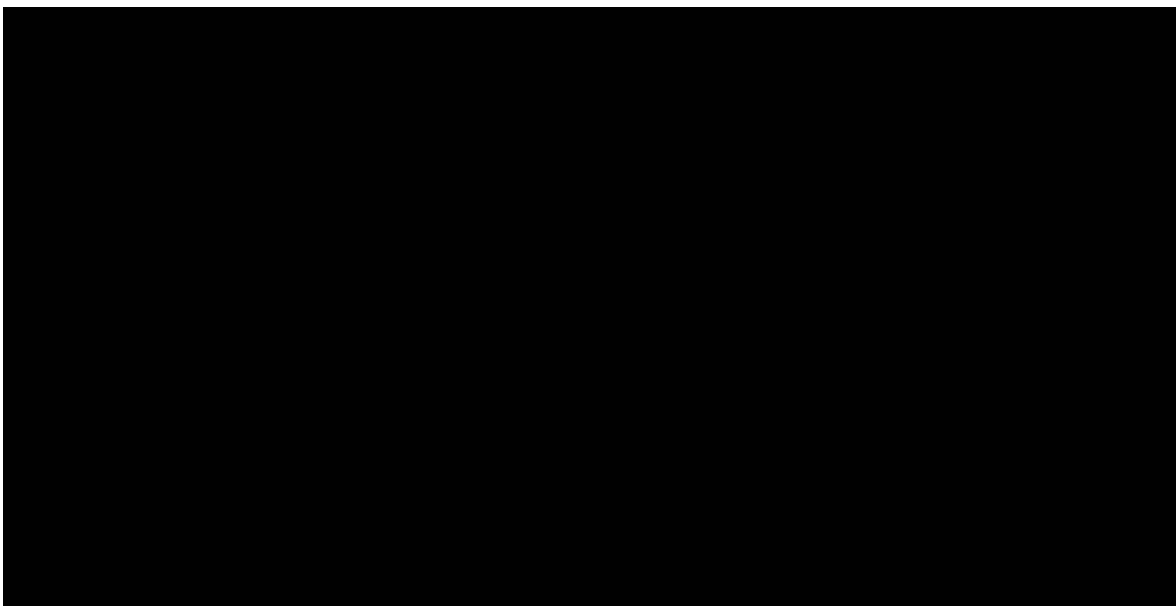
한편, 대륙밭쥐, 흰넓적다리붉은쥐, 작은땃쥐 등 소형포유류 중 토양 및 낙엽층에서 토양소동물을 먹이자원으로 하는 포유류의 출현빈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설치류는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종자 산포에 순기능을 하여 숲의 동태(dynamics)와 연결되는 지표종이다. 이 종에 대한 개체군 밀도 및 분포 등 정밀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진관습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인자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8-1〉 대상지역의 포유류 관찰 종수의 연도별 변화 분석

〈표 8-1〉 대상지역의 포유류 서식 추정 목록

목(Order)	과(Family)	국명	학명
우제목(Artiodactyla)	멧돼지과(Suidae)	멧돼지	<i>Sus scrofa</i>
	사슴과(Cervidae)	고라니	<i>Hydropotes inermis</i>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개	<i>Canis familiaris</i>
	고양이과(Felidae)	고양이	<i>Felis catus</i>
	족제비과(Mustelidae)	오소리	<i>Meles leucurus</i>
		족제비	<i>Mustela sibirica</i>
진무맹장목(Eulipotyphla)	두더지과(Erinaceidae)	두더지	<i>Mogera robusta</i>
	고슴도치과(Erinaceidae)	고슴도치	<i>Erinaceus europaeus</i>
설치목(Rodentia)	청설모과(Sciuridae)	청설모	<i>Sciurus vulgaris</i>
		다람쥐	<i>Tamias sibiricus</i>
	쥐과(Muridae)	등줄쥐	<i>Apodemus agrarius</i>
		집쥐	<i>Rattus norvegicus</i>



〈그림 8-2〉 대상지역의 포유류 영양단계별 총 종수의 점유 비율(%)의 변화

〈표 8-2〉 포유류상 선행 연구와의 비교

국명	2001	2010	2019	2021	영양단계	법적보호종
산양				△	Herbivore	천연기념물
멧돼지		●	●	●	Omnivore	유해동물
고라니		●	●	●	Herbivore	유해동물
노루		●			Herbivore	
너구리		●	●	●	Omnivore	
개	●	●	●	●	*	외래종
고양이	●	●	●	●	*	외래종
삿		●			Carnivore	천연기념물
오소리			●	●	Carnivore	
족제비	●	●	●	●	Carnivore	
작은땃쥐			●		Herbivore	
우수리땃쥐	●				Herbivore	
두더지	●	●	●	●	Omnivore	
청설모	●	●	●	●	Herbivore	
다람쥐	●	●	●	●	Herbivore	
등줄쥐	●	●	●	●	Herbivore	
집쥐	●	●	●	●	*	
생쥐	●				*	
흰넓적다리붉은쥐	●	●		+	Herbivore	
대륙발쥐		●			Herbivore	
고슴도치		●		●	Omnivore	
총수	11	16	13	13+2		

1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89pp.

2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09. 북한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8차년도. 604pp.

3 국립공원관리공단. 2010.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691pp.

● 서식, △ 공식발표 없으나, 시민관찰자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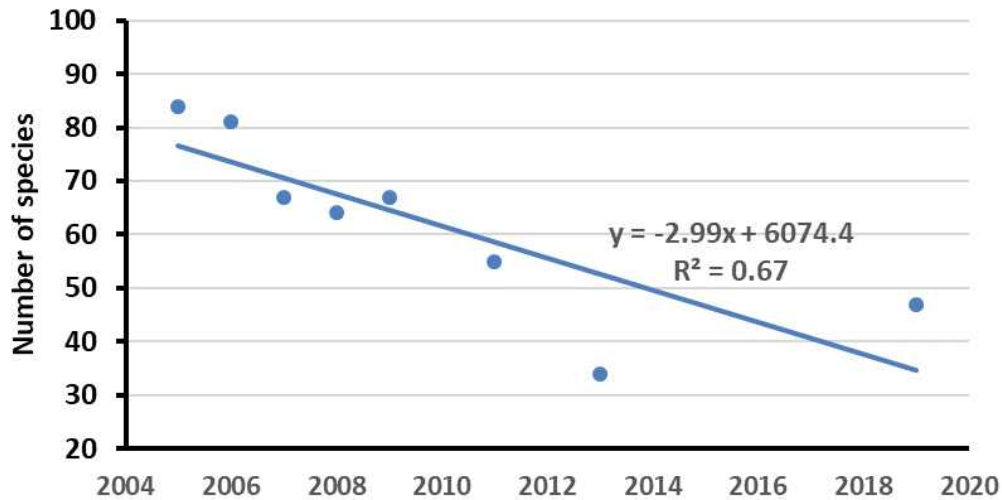
+ 서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정밀 조사 과정을 통하여 서식가능성이 있음.

1.2. 조류 현황 및 특성

조류는 금번 조사기간 동안 총 39종을 기록하였으며, 비봉 근처에서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와 서오릉 근처에서 황조롱이를 기록하였다. 1992년부터 대상지역을 포함한 북한산에서 조류상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금번 조사 자료는 비번식기에 수행하여서, 연도별 변화 분석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기존 자료 총 10건 중에 연도별 분석 자료로 활용가능한 9건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간 총 116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천연기념물 11종류, 멸종위기종 8종이 서식하였다(표 8-3, 그림 8-9). 조류 종수의 연도별 종수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8-3). 여름철새인 제비와 산림성 조류 중 농경지, 하천, 산림

을 동시에 이용하는 때까치류, 멧새류, 솔새류 등의 출현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조류는 다양한 서식지인 습지, 농경지, 계류, 인가,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으나, 최근 대상지역에서 논과 밭 면적의 감소 등과 아시아 공간 규모에서 기후변화 영향도 종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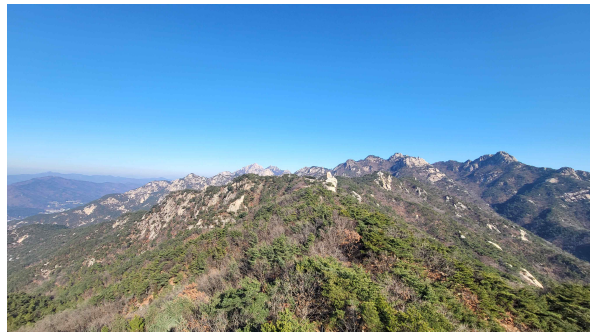
〈그림 8-3〉 대상지역에서 연도별 관찰 조류 종 수의 변화

조류의 이동성(migration) 측면에서 약 30년간 텃새는 34.5%, 여름철새 31.9%, 겨울철새 16.4%, 나그네새 17.2%의 종 구성을 나타냈다. 번식 공간으로 활용한 조류 종수 비율이 66.4%이고, 월동하거나 잠시 머물다가는 조류는 33.6%이다. 대상지역은 서쪽으로는 문수산과 동쪽으로는 운악산과 연결되는 한북정맥에 위치한 산줄기에 있어서, 이동성 조류는 쉽게 월동하거나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12월 5일 비봉 능선에서 총 3마리의 독수리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북한산은 한북정맥과 연결되어 있어 한반도를 이용하는 조류의 이동경로임을 알 수 있다.

조류의 이동성 측면에서 겨울철새와 나그네새의 감소 기울기보다 여름철새의 감소 기울기가 컸으며, 텃새도 감소추세이다. 30년간 산림의 축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작지, 하천, 습지 등 다양한 그린인프라의 비율의 감소는 이러한 다양한 서식지를 이용하는 조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하천, 경작지, 산림을 동시에 이용하는 조류의 서식을 유도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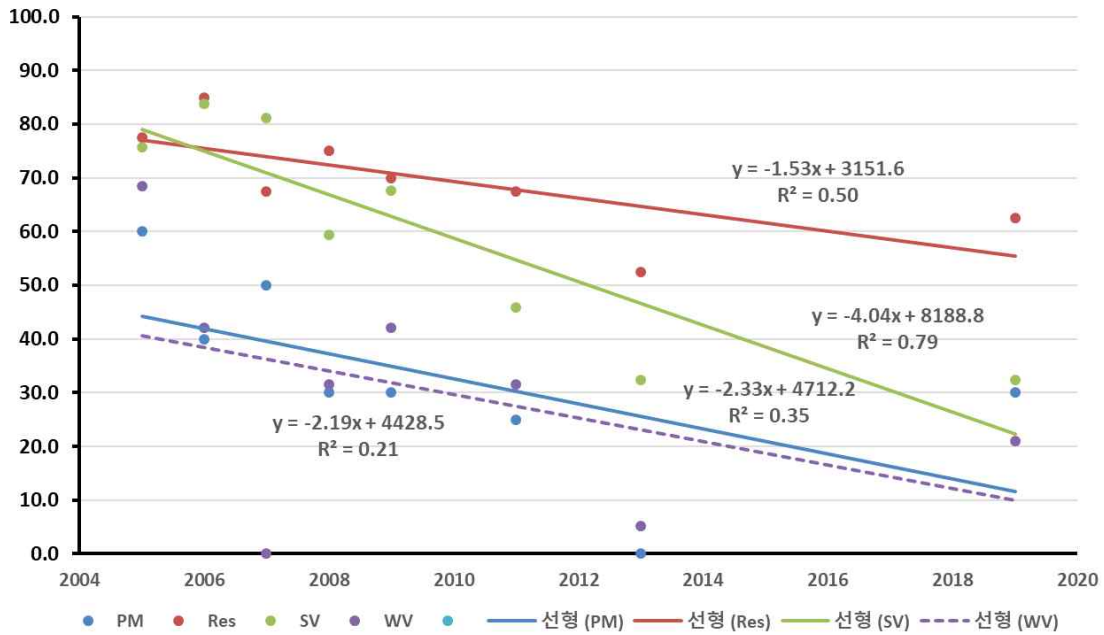


독수리 범상(soaring) 모습(2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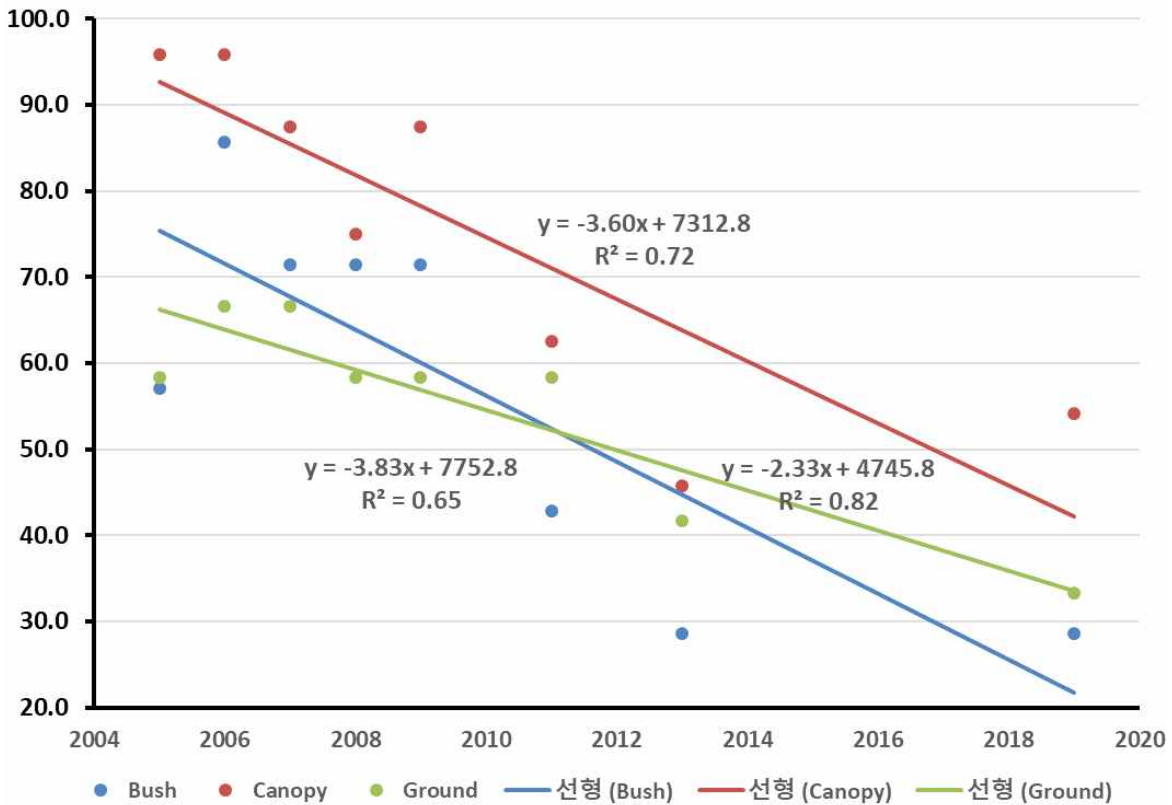
한북정맥과 연결되는 북한산(21.12.5.)

〈그림 8-4〉 한북정맥과 연결된 북한산에서 독수리의 범상 모습



〈그림 8-5〉 조류군집 이동성 측면에서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조류는 번식을 위해 동지 자원을 이용하는데, 동지 자원을 유사하게 이용하는 그룹별로 분석하여, 동지자원의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감소 기울기 값은 관목층(Bush, -3.83), 수관층(Canopy, -3.60)과 지면(Ground, -2.33)의 순이었으며, 지면 기울기 값은 상관성(0.8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수층 비율이 높아지고, 등산로가 많아지는 조건에서 지면을 동지로 이용하는 조류에게는 불리한 서식 여건으로 작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관목층 동지 길드의 급한 감소는 등산 인구 증가 등으로 관목층 비율 감소뿐만 아니라, 들개와 들고양이의 포식(predation)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8-6〉 조류의 등지 길드별(수관층, 관목층, 지면)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한편, 나무구멍(Hole, -2.17) 등지 길드의 감소 기울기는 낮았지만, 바위(Rock, 0.56)는 연도별로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패턴을 나타냈다. 특히, 인가(House, -4.50)는 가장 급히 종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비, 딱새, 참새 등 대상지역의 인가에서 주로 번식한 조류 종 수의 출현이 급하게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인간 주거지에서 공존하는 제비와 딱새의 번식지는 처마 아래에 위치하지만, 최근 인간의 주거 양식에서 처마를 선호하지 않는 주거 양식의 선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도 있는 인과관계 연구도 필요하지만, 은평한옥마을을 생물서식지로서 유지 관리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바위는 생물의 온열 미세서식처(thermal microhabitat)이며, 큰유리새, 굴뚝새는 이끼와 식물 줄기를 활용하여 등지를 만든다. 또한, 인간은 바위에서 쉼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맹금류는 바위는 조망 서식처(vantage cover)이며, 사냥한 먹이

(prey)를 핸들링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다.

인간의 바위 이용에 관한 인식증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조상들의 유산(遊山)정신에 입각한 산행문화이 개선도 필요하다. 바라보는 바위와 등반해야 하는 바위의 산행 역사를 제대로 돌아보아서, 모든 지역의 바위를 등반할 것이 아니라, 보전할 바위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하다.

〈그림 8-7〉 조류의 동지 길드별(나무구멍, 인가, 바위)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조류는 번식기에 이용하는 먹이자원은 다양하지만, 일정한 유형이 있으며, 이 유형별로 조류 군집을 이해하고 향후 먹이자원의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감소 기울기 값은 관목층과 지면(Bush, -3.69), 포식자(Predator, -3.67), 하천(Aquatic, -2.99), 수관층(Canopy, -1.99)의 기울기로 종 수 점유비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관목층과 지면의 감소 비율은 유의성(0.85)이 높았다.

30년간 숲의 면적과 체적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관목층과 지면에서 먹이를 먹는 조류는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지빠귀류, 멧새류, 후투티 등 지면에서 토양소동물을 먹이자원으로 이용하는 조류는 등산이용객 증가 및 들개, 들고양이 밀도 증

가와 관련이 있는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8-8〉 조류군집 등지 길드 측면에서 조류 종 수의 연도별 비율(%) 변화

은평한옥마을 인근 산림에서 대경급(40년생 이상) 임목을 보전하고, 고사목(coarse wood debris)을 그루터기(stump), 서 있는 고사목(snag), 쓰러진 나무(fallen trees)별로 방치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의 조성보다는 산림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대이다. 토양의 양료 개선을 위하여 확폭 및 침식된 등산로의 관리가 필요하고, 등산객 관리, 휴식 년제 등 실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지역에서 도시숲의 유지 관리는 공간 구획(zoning)을 통해 보전구간, 이용구간, 완충구간으로 나누어서, 은평한옥마을 중심의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나타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사회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표 8-3〉 북한산국립공원 및 진관습지의 관찰 조류 목록의 비교 목록

Korean name	Scientific name	Mig.	NGuild	FGuild	1992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9	2021	NM	ES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SV	Canopy	Aquatic			2	3	2			1		1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us	SV	Canopy	Aquatic	1		3	2	1	1	1						
송대백로	Egretta alba	SV	Canopy	Aquatic			3	3	4	2	3	2	2		2		
쇠백로	Egretta garzetta	SV	Canopy	Aquatic			8	4	3	3	1	3		1			
왜가리	Ardea cinerea	Res	Canopy	Aquatic			1	2	3	2	2	2	1		3		
원앙	Aix galericulata	Res	Hole	Aquatic			9	4	4	3		2			2	*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Res	Bush	Aquatic											4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Res	Bush	Aquatic			3	7	6	8	3	6	2	1	12		
솔개	Milvus migrans	PM	*	*	1												
참매	Accipiter gentilis	WV	*	*			1					1			1	*	II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SV	Canopy	Predator			2	1	1	1	1					*	II
새매	Accipiter nisus	Res	Canopy	Predator		1	1	1	1		1					*	II
조롱이	Accipiter gularis	Res	Canopy	Predator										1			
말뼉가리	Buteo buteo	WV	*	*			2	1		2	1	1		1	2		

Korean name	Scientific name	Mig.	NGuild	FGuild	1992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9	2021	NM	ES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WV	*	*			3				1	2			3	*	II
왕새매	<i>Butastur indicus</i>	PM	*	*		1											
새호리기	<i>Falco subbuteo</i>	SV	Canopy	Predator			1	2	1			1		1			II
쇠황조롱이	<i>Falco vespertinus</i>	WV	*	*			1										
황조롱이	<i>Falco tinnunculus</i>	Res	House	Predator	1		2	1	2	1	1	1	1		2	*	
매	<i>Falco peregrinus</i>	Res	Rock	Predator										1			
들평병	<i>Tetrastres bonasia</i>	Res	Ground	Bush			2										
평병	<i>Phasianus colchicus</i>	Res	Ground	Bush	1	1	6	7	4	4	1	8	1	1	2		
꼬마물떼새	<i>Charadrius dubius</i>	SV	Ground	Aquatic					4	6	2	2			1		
흰목물떼새	<i>Charadrius placidus</i>	Res	Ground	Aquatic					2	2	2	1					II
삾도요	<i>Tringa glareola</i>	PM	*	*			2	2	3	3	4	4			2		
갭작도요	<i>Actitis hypoleucos</i>	SV	Ground	Aquatic			1	1					1		2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Res	Canopy	canopy	1	1	21	12	11	13	14	13	4	1	7		
매사촌	<i>Cuculus fugax</i>	SV	*	*			1										
검은등뺨꾸기	<i>Cuculus micropterus</i>	SV	*	*	1	1	3	3	2	2	3	1	1	1			
뺨꾸기	<i>Cuculus canorus</i>	SV	*	*	1	1	1	3	2	2	2	1	1	1			
멍어리뺨꾸기	<i>Cuculus saturatus</i>	SV	*	*	1		1		1		1	1					
두견이	<i>Cuculus poliocephalus</i>	SV	*	*				2	1							*	
수리부엉이	<i>Bubo bubo</i>	Res	Rock	Predator				1								*	II
소쩍새	<i>Otus scops</i>	SV	Hole	Predator		1	3	1	1	1	3	1				*	
찰부엉이	<i>Asio otus</i>	WV	*	*		1											
솔부엉이	<i>Ninox scutulata</i>	SV	Canopy	Predator				1	1	1	1					*	
쭈박새	<i>Caprimulgus indicus</i>	SV	Canopy	canopy			1	1	1	1	1						
물총새	<i>Alcedo atthis</i>	SV	Hole	Aquatic			2	2	1	2	1	2					
호란새	<i>Halcyon coromanda</i>	SV	Hole	Aquatic											1		
파랑새	<i>Eurystomus orientalis</i>	SV	Hole	canopy		1	2	4	6	3	3	2	2	1			
후투티	<i>Upupa epops</i>	SV	Hole	bush			1	1	1	1							
정딱다구리	<i>Picus canus</i>	Res	Hole	canopy			3	4	4	3	3	1	1	1	2		
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ajor</i>	Res	Hole	canopy	1	1	4	2	2	2	2	2	1	1	2		
까막딱다구리	<i>Dryocopus martius</i>	Res	Hole	canopy	1		1		1		2	1		1		II	II
큰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leucotos</i>	Res	Hole	canopy		1	2	2			2			1	1		
이물쇠딱다구리	<i>Dendrocopos nanus</i>	Res	Hole	canopy			1										
쇠딱다구리	<i>Dendrocopos kizuki</i>	Res	Hole	canopy	1	1	4	3	6	4	4	2	1	1	1		
제비	<i>Hirundo rustica</i>	SV	House	canopy	1		5	4	8	6	2		3				
귀제비	<i>Hirundo daurica</i>	SV	House	canopy				2									
물리새	<i>Dendronanthus indicus</i>	SV	Ground	Aquatic					1								
노랑할미새	<i>Motacilla cinerea</i>	SV	Ground	Aquatic	1	1	4	2	2	4	5	4	1	1			
알락할미새	<i>Motacilla leucopsis</i>	SV	Ground	Aquatic	1	1	4	1	2		1				2		
백할미새	<i>Motacilla lugens</i>	WV	*	*			6										
말종다리	<i>Anthus rubescens</i>	WV	*	*			6				1	2					
황농새	<i>Anthus hodgsoni</i>	PM	*	*			3	3	5	3	4						
직박구리	<i>Hypsipetes amaurotis</i>	Res	Canopy	canopy	1	1	12	18	8	14	12	8	7	1	10		
칠때까치	<i>Lanius tigrinus</i>	SV	Bush	Predator				1									
때까치	<i>Lanius bucephalus</i>	Res	Bush	Predator			2	2	2	2	1	1					
황여새	<i>Bombycilla garrulus</i>	PM	*	*	1												
홍여새	<i>Bombycilla japonica</i>	PM	*	*	1												
굴뚝새	<i>Troglodytes troglodytes</i>	Res	Rock	Aquatic	1	1	1	1		1				1	1		
물까마귀	<i>Cinclus pallasi</i>	Res	Rock	Aquatic													
바위종다리	<i>Prunella collaris</i>	WV	*	*	1												
멧종다리	<i>Prunella montanella</i>	WV	*	*			2	1		3							
쇠유리새	<i>Eritacus cyane</i>	SV	Ground	bush				2			1						
울새	<i>Eritacus sibilans</i>	PM	*	*	1		4		5								
유리딱새	<i>Tarsiger cyanurus</i>	PM	*	*	1	1	8	5	5	3	4			1	1		
딱새	<i>Phoenicurus aureus</i>	Res	House	canopy	1	1	5	4	5	4	3	6	1	1	3		
검은딱새	<i>Saxicola torquata</i>	PM	*	*	1	1	2		1		2			1			
호랑지빠귀	<i>Turdus dauma</i>	SV	Canopy	bush	1	1	2	1	2		1	2					
뒤지빠귀	<i>Turdus hortulorum</i>	SV	Canopy	bush		1	2	5	3	1	2	1	2				
검은지빠귀	<i>Thrdus cardis</i>	PM	*	*			1										
흰배지빠귀	<i>Turdus pallidus</i>	SV	Canopy	bush	1	1	3	1		2	1		2	1			
개봉지빠귀	<i>Turdus naumanni eunomus</i>	WV	*	*		1	3				3				3		
노랑지빠귀	<i>Turdus naumanni naumanni</i>	WV	*	*	1	1	8	3		1	2				3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a</i>	Res	Bush	bush	1	1	120	40	30	60	90	110	36	1	15		
쭈새	<i>Cettia squameiceps</i>	SV	Bush	bush	1	1		1	1	1	1						
노랑눈썹솔새	<i>Phylloscopus inornatus</i>	PM	*	*	1							1		1			
노랑허리솔새	<i>Phylloscopus proregulus</i>	PM	*	*						2					2		
쇠솔새	<i>Phylloscopus borealis</i>	PM	*	*			2		2	2				1			
되솔새	<i>Phylloscopus tenellipes</i>	PM	*	*					1								
산솔새	<i>Phylloscopus occipitalis</i>	SV	Ground	bush	1	1	5	2	6	4	8	2	3	1			
상모솔새	<i>Regulus regulus</i>	WV	*	*	1	1	4							1			
흰눈썹황금새	<i>Ficedula zanthopygia</i>	SV	Bush	canopy	1		3	2	1	1	1						
노랑딱새	<i>Ficedula mugimaki</i>	PM	*	*		1	5	3	2	1							
큰유리새	<i>Cyanoptila cyanomelana</i>	SV	Rock	canopy	1	1	3	3	2	3	2		1	1			
제비딱새	<i>Muscicapa griseisticta</i>	PM	*	*			3	4	1	2	2			1			
쇠솔딱새	<i>Muscicapa latirostris</i>	PM	*	*	1		1	3						1			
오목눈이	<i>Aegithalos caudatus</i>	Res	Canopy	canopy	1	1	7	5	6	8	6	10		1	4		
쇠박새	<i>Parus palustris</i>	Res	Hole	canopy	1	1	17	11	6	12	10	7	2	1	3		
진박새	<i>Parus ater</i>	Res	Hole	canopy	1	1	3	3	2	2	1			1	2		
곤줄박이	<i>Parus varius</i>	Res	Hole	canopy	1	1	6	5	3	3	3	4	2	1	3		
박새	<i>Parus major</i>	Res	Hole	canopy	1	1	29	18	10	16	19	13	5	1	2		

Korean name	Scientific name	Mig.	NGuild	FGuild	1992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9	2021	NM	ES
동고비	<i>Sitta europaea</i>	Res	Hole	canopy	1	1	3	2	2	3	2	1	2	1	3		
나무말발이	<i>Certhia familiaris</i>	WV	*	*				1						1			
멧새	<i>Emberiza cioides</i>	Res	Ground	canopy				1		1							
희배멧새	<i>Emberiza tristrami</i>	PM	*	*		1	1	3	3		1	3					
노랑눈썹멧새	<i>Emberiza chrysophrys</i>	PM	*	*							1						
쭈새	<i>Emberiza rustica</i>	WV	*	*			16	3		6	9	8		1			
노랑턱멧새	<i>Emberiza elegans</i>	Res	Ground	canopy	1	1	20	11	13	15	10	15	1	1	5		
꼬까참새	<i>Emberiza rutila</i>	PM	*	*			1	2									
되새	<i>Fringilla montifringilla</i>	WV	*	*	1			20		5		19					
방울새	<i>Carduelis sinica</i>	Res	Canopy	canopy			1	2	2			3					
검은머리방울새	<i>Carduelis spinus</i>	WV	*	*	1						6						
양친이	<i>Carpodacus roseus</i>	WV	*	*			2	5									
긴꼬리홍양친이	<i>Uragus sibiricus</i>	WV	*	*				2			2						
콩새	<i>Coccothraustes coccothraustes</i>	WV	*	*			2			1	2						
말뼉부리	<i>Eophona migratoria</i>	SV	Canopy	canopy			1		1		1						
참새	<i>Passer montanus</i>	Res	House	bush	1	1	32	29	23	40	36	60	35		26		
찌르레기	<i>Sturnus cineraceus</i>	SV	Hole	canopy			8	3	4			2					
피꼬리	<i>Oriolus chinensis</i>	SV	Canopy	canopy	1	1	6	5	2	4	5		2	1			
어치	<i>Garrulus glandarius</i>	Res	Canopy	canopy	1	1	8	4	2	4	2	2	1	1	3		
물까치	<i>Cyanopica cyana</i>	Res	Canopy	canopy			5	6		6	4	6		1	4		
까치	<i>Pica pica</i>	Res	Canopy	canopy	1	1	28	22	12	21	14	11	6	1	6		
까마귀	<i>Corvus corone</i>	Res	Canopy	canopy	1	1	10	13	5	5	11	4	1				
큰부리까마귀	<i>Corvus macrorhynchos</i>	Res	Canopy	canopy			10	7		7	9		4	1	13		
116종					48	43	84	81	67	64	67	55	34	47	39	11	8

Mig.-Migration (Res-Residents, SV-Summer Visitors, WV=Winter Visitors, PM-Passage Mi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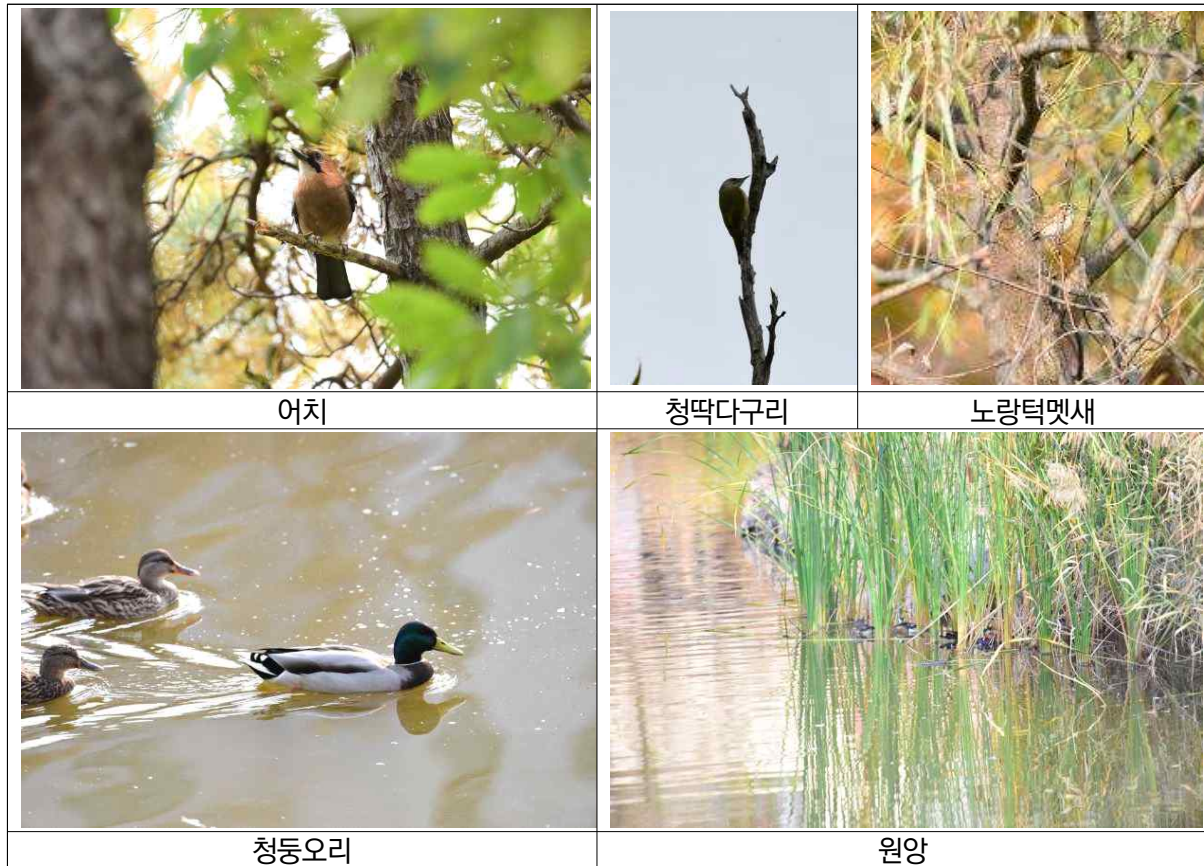
NGuild-Nesting guild, FGuild-Foraging guild, NM-Natural Monuments, ES-Endangered Species

국립공원관리공단. 1992.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62pp.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289pp.

국립공원관리공단. 2019.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328pp

황보연, 손수근, 이기태, 지형우, 정상욱 (2014) 북한산국립공원내 진관동습지의 조류현황과 보호관리방안, 국립공원연구지,5:1, 1-10.



〈그림 8-9〉 조사기간 동안 관찰된 조류

2. 서식지 모형에 의한 중요 서식지 분석

2.1. 중요 조류종의 선정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국형 i-Tree³²⁾ 모듈을 미국 산림청과 공동 개발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류의 잠재적 서식지를 분석하여 지역별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산림청의 선행 연구 결과(Lerman et al. 2014)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상종과 서식인자를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총 9종을 대상으로 잠재 서식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한국은 총 6종(붉은머리오목눈이, 곤줄박이, 오색딱다구리, 흰배지빠귀, 꿩, 동고비)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은평구 지역만 별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고, 중요 서식지 분석에 활용하였다.



© Vincent Wang - ebird,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 Santiago Caballero Carrera - ebird, 동고비
Sitta europaea



© Ian Davies - ebird,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 Charles Thomas - ebird,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 Adam Higgins - ebird, 흰배지빠귀
Turdus pallidus



© Matt Davis - ebird, 꿩
Phasianus colchi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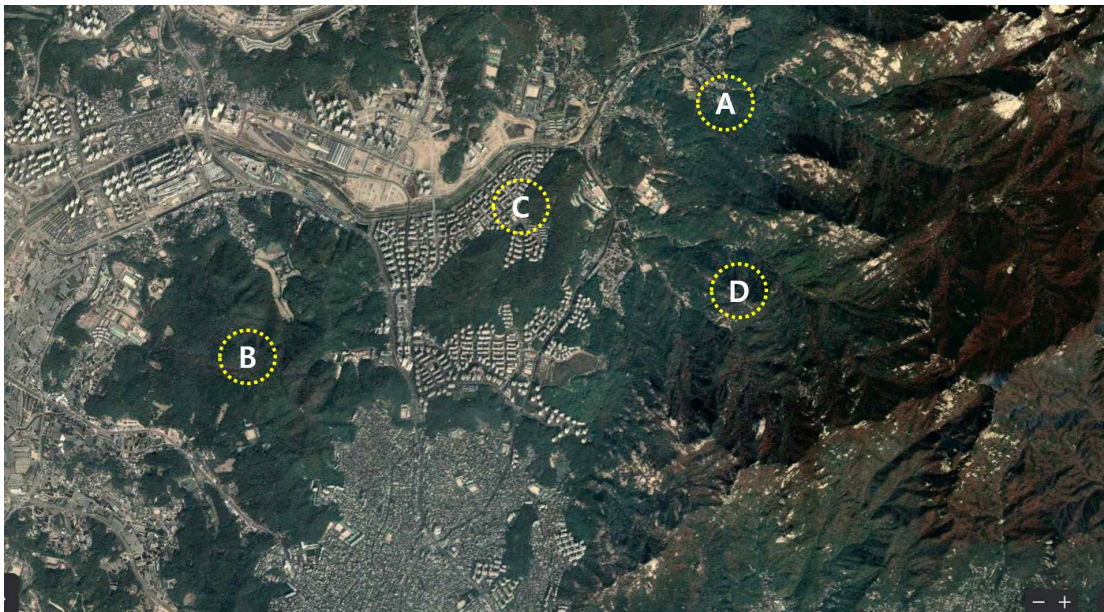
〈그림 8-10〉 잠재 조류 서식지 모형 작성을 위해 선정한 6종

³²⁾ i-Tree: Inventory of Tree resources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미국 산림청과 관련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도시숲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tools)

2.2. 중요 조류 서식지 선정

잠재 조류 서식지 적합성 결과에서 북한천의 진관습지, 서오릉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거점(hot spot)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 연못, 저수지 등의 수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경우, 이말산의 연못과 진관사과 삼천사의 계곡 지역도 중요한 서식지로 판단된다.

〈그림 8-11〉 은평구 및 대상지에서 6개종의 잠재 서식지 적합성(붉은색 1.0, 청색 0.0)



〈그림 8-12〉 조류다양성의 중요 거점(A-진관습지, B-서오릉, C-이말산 연못, D-진관계류)

3. 마을 활성화 및 전시자원으로서 야생동물 자원 발굴

3.1. 문화생물종의 발굴 및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국립공원관리공단(2021)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추사관에 소장된 추사의 진관사 시(소장품명: ‘공입진관사(共入津寬寺)’는 ‘예산김정희증가유물일괄(보물 제547-2호)’ 중에 추사가 철종 2년(1851)에 쓴 『신해년책력(辛亥年冊曆)』의 중간에 낱장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다. 진관사 대응전 글씨는 추사가 제주와 북청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과천 과지초당(瓜地草堂)에 도착해 봉은사에 내왕하기 시작했던 1852년 10월 이후부터 운명했던 1856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고, 진관사 대응전의 중수 기록을 고려해본다면 1854년에 글씨가 쓰였을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사의 「공입진관사」 작성 시기를 추사 말년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적혀있다.

共入津寬寺 공입진관사

南風四月時 남풍사월시

山門松影落 산문송영락

野樹鳥聲遲 야수조성지

倚檻月初上 의함월초상

臨溪雲更滋 임계운갱자

好是塵外趣 호시진외취

何論竹與絲 하론죽여사 正禧 정희

진관사(津寬寺)에 함께 들어서니

남풍 부는 사월이네.

산문에 소나무 그림자 드리우고

들판의 나무에선 새소리가 흐드러지네.

난간에 기대니 달이 막 떠오르고

계곡에 다다르니 구름은 더욱 불어난다.

바로 속세 밖의 풍취인데

어찌 사죽(絲竹:악기)을 따지겠는가?³³⁾

원문

‘공입진관사(共入津寬寺)’ 해석

33)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21. 추사의 여정을 따라, 「삼각산기행시축」, p.49.

그러나, (사)한국산서회 인문산행위원회(2021)의 「《삼각산기행시축(三角山紀行詩軸)>을 통해 본 북한산 “추사의 길”」에서 “비 내리는 날 진관사에서 묵다(冒雨宿津寬寺)”라는 표제로 해석하였다. 또한 “1800년경부터 1815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있다.”³⁴⁾라고 주장하였다. (사)한국산서회 인문산행위원회(2021)는 시구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다함께 진관사에 들어가니,
시절은 남풍 부는 4월이네.
산문에는 소나무 그림자 어른거리고,
숲속 나무에는 새소리 한가로운데,
난간 위로 막 저녁달이 떠오르고,
넷가에는 저녁노을이 붉게 타오르네.
종구려, 진실로 티끌세상 밖의 정취이러리,
무엇하러 애써 피리 불고 거문고 타려 하리오.

(사)한국산서회 인문산행위원회(2021)의 ‘비 내리는 날 진관사에서 묵다(冒雨宿津寬寺)’ 해석

이를 토대로, 시구에서 표현한 4월과 저녁달 뜨는 시각과 저녁노을로 판단해보니, 연도를 확정할 수 없으나, 보름과 가까운 날에 해당된다. 생물계절성으로 보았을 때, 현재 4월 초순에 박새류 등 산새의 산란이 시작하는 시기이고, 나뭇잎이 개엽되지 않아서, 저녁달이 떠오르거나, 저녁노을이 붉게 타오른 모습을 넷가에 즐겼을 것으로 추측한다.

野樹鳥聲遲(야수조성지)를 “들판의 나무에선 새소리가 흐드러지네.”라고 해석한 부분은, 생태적으로 4월에 달이 떠오르는 상황에서는 산새들은 흐드러지게 노래하지 않으므로, “새소리 한가로운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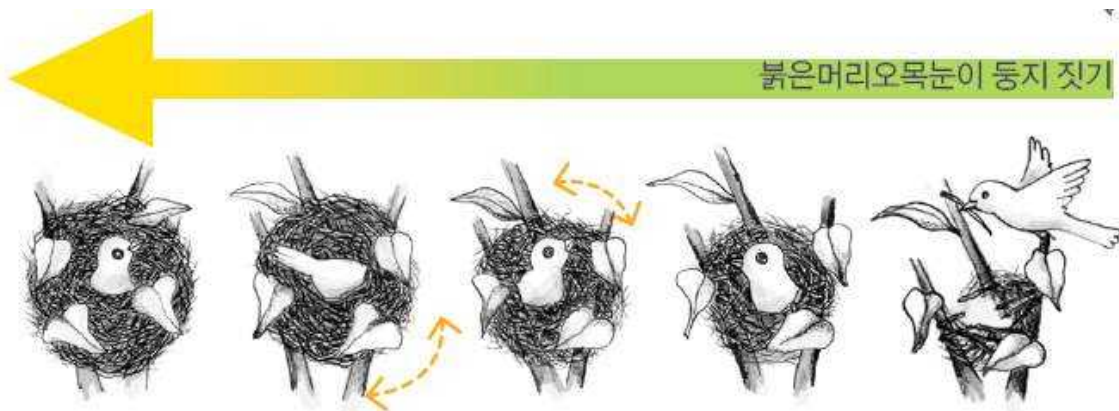
34)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21. 추사의 여정을 따라, 「삼각산기행시축」55쪽.

대상지역의 여건상 진관습지로서, 붉은머리오목눈이(일명 뱀새)를 문화생물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종은 빠꾸기의 탁란상대조류로서 생물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진관습지의 식물 줄기를 이용하여 둥지를 재현하여 만드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8-13〉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

출처: 저자 촬영(2008.5.22.홍릉숲)



〈그림 8-14〉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 만드는 과정

추사가 진관사에 들어오면서 냇가에 저녁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과정에서 냇가의 습지에서는 뱀새가 소리를 "지졸, 지졸", "휘휘휘휘"하면서 움직였을 것이다. 숲속으로 들어왔을 때, 달이 떠오르고, 새소리가 한가로운 모습은 코로나 시대 각박한 도시민에게 주는 진관계곡의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於入津寬寺 南風四月時
 山門松影落 山門松影落
 野樹鳥聲遲 野樹鳥聲遲
 倚欄月初上 倚欄月初上
 臨溪雲更濕 臨溪雲更濕
 好是塵外趣 好是塵外趣
 何論竹與絲 何論竹與絲

共入津寬寺 宗印 眞觀寺
 南風四月時 南風 四月時
 山門松影落 山門 松影落
 野樹鳥聲遲 野樹 鳥聲遲
 倚欄月初上 倚欄 月初上
 臨溪雲更濕 臨溪 雲更濕
 好是塵外趣 好是 塵外趣
 何論竹與絲 何論 竹與絲

진관사(津寬寺)에 함께 들어서니
 남풍 부는 사월이네.
 산문에 소나무 그림자 드리우고
 들간의 나무에선 새소리가 흐드러지네.
 난간에 기대니 달이 막 떠오르고
 계곡에 다다르니 구름은 더욱 붙어난다.
 바로 속세 밖의 풍경인데
 어찌 사죽(絲竹:악기)을 따지겠는가?

(본문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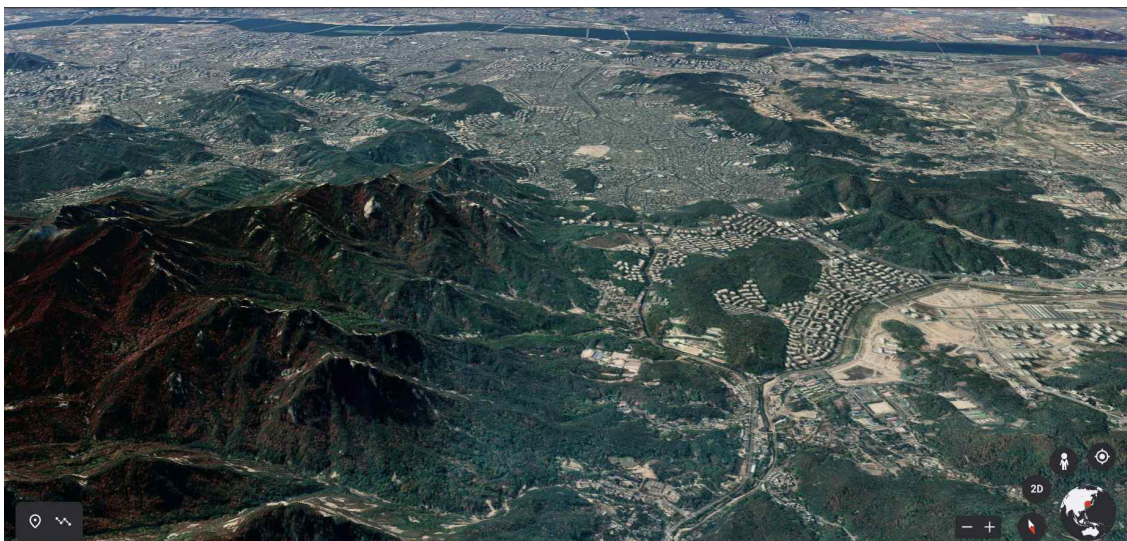
<그림 8-15>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그림(p.116)



〈그림 8-16〉 붉은머리오목눈이(2006.2.9.양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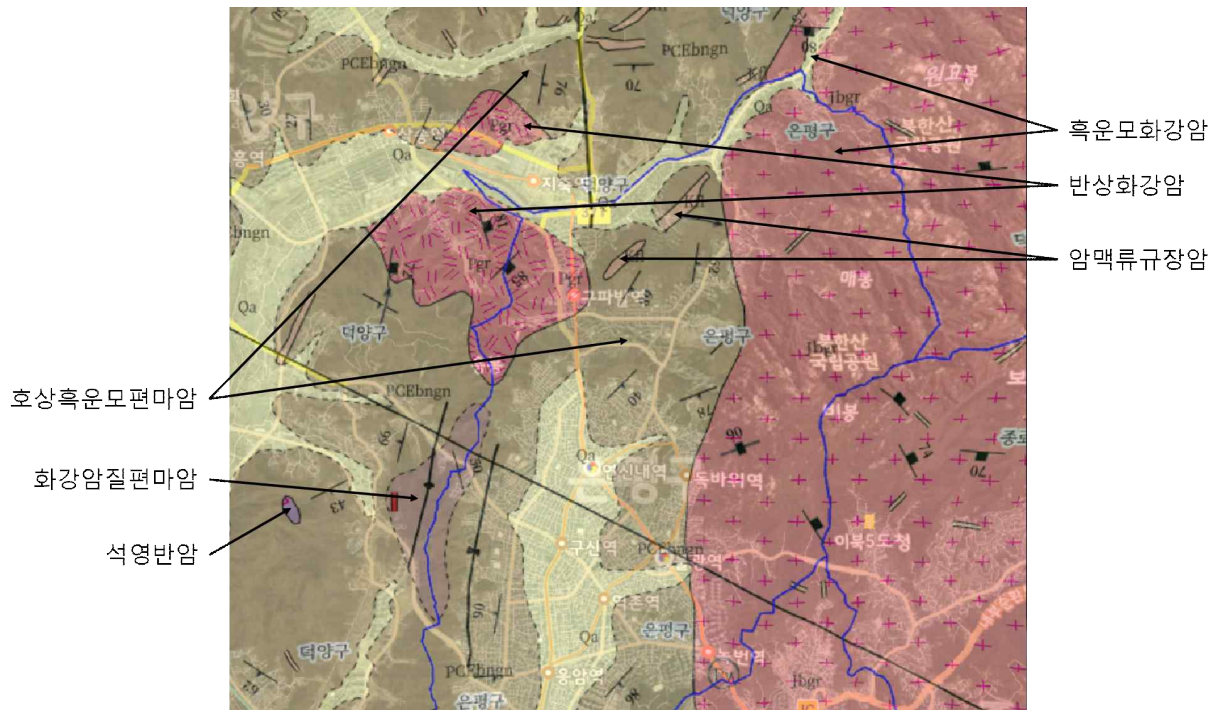
3.2. 유산코스 및 중요한 서식지의 문화콘텐츠로 활용

조사 중 관찰된 독수리의 시점에서 북한산, 진관사, 한옥마을, 이말산, 서오릉은 연결되는 산줄기이며, 북한천, 창릉천이 한강과 만나는 물줄기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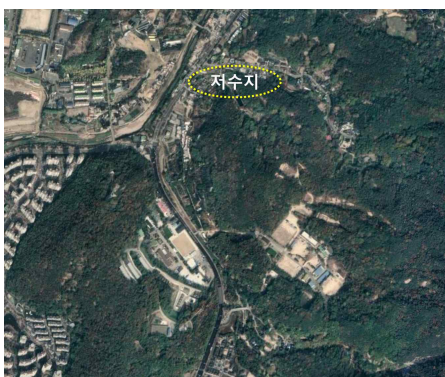
〈그림 8-17〉 독수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지역 산줄기와 물줄기

가까운 지역에서 소나무숲과 서어나무숲을 볼 수 있고, 습지가 있는 서식지 이질성은 다양한 생물을 유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추사의 소나무와 새소리는 진관사 지역의 생태성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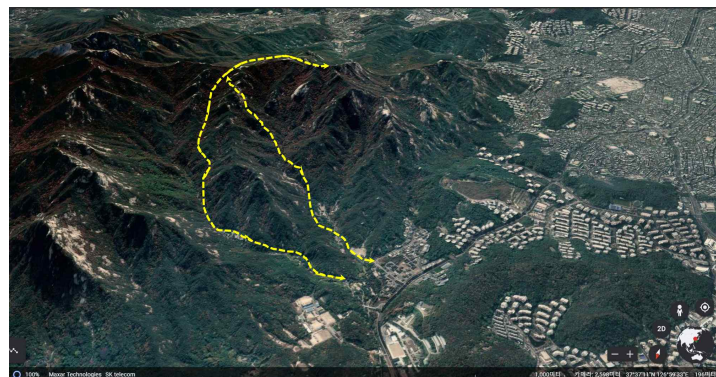


〈그림 8-18〉 화강암과 편마암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대상지역

대상지역에서 이말산 습지와 삼천사 계곡 부근의 저수지를 활용하고, 진관습지를 스폰지 도시(sponge city)로 활용하여 습지공원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8-19〉 삼천사 계곡의 습지



〈그림 8-20〉 진관사 계곡을 중심으로 한 유산 코스



〈그림 8-21〉 은평한옥마을의 모습(상, 7.24)과 진관사의 생물서식공간(중/하, 7.24)

4. 결론

4.1. 요약

2021년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유류는 총 1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 자료와 최근 SNS 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최대 15종으로 서식한다고 판단한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종의 포유류를 대상지역에서 확인하였으며, 총 관찰 종 수는 연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초식성 동물(고라니 등)은 연

도별로 증가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잡식성 동물과 육식성 동물의 종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육식성보다 잡식성 동물 종수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들개와 들고양이의 조사지역 내 유입에 따른 종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대륙밭쥐, 흰넓적다리붉은쥐, 작은땃쥐 등 소형포유류 중 토양 및 낙엽층에서 토양소동물을 먹이자원으로 하는 포유류의 출현빈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설치류는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종자 산포에 순기능을 하여 숲의 동태(dynamics)와 연결되는 지표종이다. 이 종에 대한 개체군 밀도 및 분포 등 정밀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진관습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인자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간 총 116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천연기념물 11종류, 멸종위기종 8종이 서식하였다. 조류 종수의 연도별 종수는 감소하고 있다.

여름철새인 제비와 산림성 조류 중 농경지, 하천, 산림을 동시에 이용하는 때까치류, 멧새류, 솔새류 등의 출현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조류는 다양한 서식지인 습지, 농경지, 계류, 인가,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으나, 최근 대상지역에서 논과 밭 면적의 감소 등과 아시아 공간 규모에서 기후변화 영향도 종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류의 이동성(migration) 측면에서 약 30년간 텃새는 34.5%, 여름철새 31.9%, 겨울철새 16.4%, 나그네새 17.2%의 종 구성을 나타냈다.

대상지에서 30년 관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류의 이동성 측면에서 겨울철새와 나그네새의 감소 기울기보다 여름철새의 감소 기울기가 컸으며, 텃새도 감소 추세이다. 30년간 산림의 축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작지, 하천, 습지 등 다양한 그린인프라의 비율의 감소는 이러한 다양한 서식지를 이용하는 조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하천, 경작지, 산림을 동시에 이용하는 조류의 서식을 유도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인간 주거지에서 공존하는 제비와 딱새의 번식지는 처마 아래에 위치하지만, 최근 인간의 주거 양식에서 처마를 선호하지 않는 주거 양식의 선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도 있는 인과관계 연구도 필요하지만, 은평한옥마을을 생물서식지로서 유지 관리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바위 이용에 관한 인식증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조상들의 유산(遊山)정신

에 입각한 산행문화이 개선도 필요하다. 바라보는 바위와 등반해야 하는 바위의 산행 역사를 제대로 돌아보아서, 모든 지역의 바위를 등반할 것이 아니라, 보전할 바위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하다.

30년간 숲의 면적과 체적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관목층과 지면에서 먹이를 먹는 조류는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지빠귀류, 후투티 등 지면에서 토양소동물을 먹이자원으로 이용하는 조류는 등산이용객 증가 및 들개, 들고양이 밀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은평한옥마을 인근 산림에서 대경급(40년생 이상) 임목을 보전하고, 고사목(coarse wood debris)을 그루터기(stump), 서 있는 고사목(snag), 쓰러진 나무(fallen trees)별로 방치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의 조성 보다는 산림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대이다. 토양의 양료 개선을 위하여 확폭 및 침식된 등산로의 관리가 필요하고, 등산객 관리, 휴식년제 등 실천적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 관리는 공간 zoning을 통하여, 보전구간, 이용구간, 완충구간으로 나누어서, 은평한옥마을 중심의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나타날 수 있는 시민사회 플랫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있어야 한다. 잠재 조류 서식지 적합성 결과에서 북한천의 진관습지, 서오릉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거점(hot spot)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 연못, 저수지 등의 수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경우, 이말산의 연못과 진관사과 삼천사의 계곡 지역도 중요한 서식지로 판단된다.

대상지역의 여건상 진관습지로서, 붉은머리오목눈이(일명 뱀새)를 문화생물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종은 빠꾸기의 탁란상대조류로서 생물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진관습지의 식물 줄기를 이용하여 동지를 재현하여 만드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에서 소나무숲과 서어나무숲을 볼 수 있고, 습지가 있는 서식지 이질성은 다양한 생물을 유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 낸다. 대상지역에서 이말산 습지와 삼천사 계곡 부근의 저수지를 활용하고, 진관습지를 스폰지 도시(sponge city)로 활용하여 습지공원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4.2. 아카이빙으로서 의미

- 은평지역의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선행 자료 정리 및 변화상 분석
- 대상지에서 문화생물종 붉은머리오목눈이 제안
- 대상지에서 진관습지, 한옥마을, 이말산 연못, 서오릉의 생물다양성 거점 제시
- 선행 자료 분석으로 은평한옥마을의 생물과 공생 방안 제시
-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시구 분석에 의한 "추사의 길" 유산(遊山) 코스 제안

4.3. 후속 연구

- 양서류, 파충류, 어류에 대한 선행 자료 정리 및 변화상 분석
- 대상지에서 수행된 유산기의 생태적 해석 및 활용 방안 연구
- 북한산성의 생태적 가치 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

4.4. 기타 주요사항

- 진관사의 사료 접근을 위한 조계종 차원에서 협력 필요
- 진관사 주변 어르신들의 전통생태지식 확보 필요

5. 참고문헌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21, 추사의 여정을 따라, 「삼각산기행시축」, p.49.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2,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p.162.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p.289,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0,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p.691.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9,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p.1328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09, 북한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8차년도. p.604.
- 황보연·손수곤·이기태·지형우·정상욱, 2014, "북한산국립공원내 진관동습지의 조류현황과 보호관리방안," 국립공원연구지, 5(1), 1-10.
- Galetti M, Rodarte RR, Neves CL, Moreira M, Costa-Pereira R (2016) Trophic Niche Differentiation in Rodents and Marsupials Revealed by Stable Isotopes. PLoS ONE 11(4): e015249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52494>
- Lerman S.B., Nislow K.H., Nowak D.J., DeStefano S, King D.I., and D.T.Jones-Farrand. 2014. Using urban forest assessment tools to model bird habitat potential.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22:29-40.



09

제조명과 종합

9

재조명과 종합

이도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1. 시작하며

한 상의 코스 요리를 대접받은 기분이었다. 코스는 8가지 음식으로 이루어졌다. 음식 재료는 대략의 귀땀으로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식감도 제법 경험했다. 저마다의 요리가 나오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여 제대로 맛볼 여지를 가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그런데도 뜻밖의 흥재를 한 기분과 조금 얼떨떨한 심정으로 요리 평을 쓰고 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며 일군 자취를 지구라는 거대한 쟁반에 담은 유형·무형의 산물이다. 그 쟁반 곳곳의 기후 풍토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지역 문화가 담긴다. 지역 문화는 지구 쟁반에 놓인 더 작은 그릇인 셈이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문화 그릇이 얹힌 거대한 쟁반의 한 귀퉁이, 은평의 땅에 담긴 요리 맛을 보기로 했다. 누구는 이웃 땅들의 풍모를 살펴 은평의 공간적 맥락을 살폈다(입지). 누구는 은평의 한 자락인 한옥마을을 상지가(相地家)의 눈으로 읽었다(풍수). 누구는 고지도를 놓고 땅의 이름 뒤에 놓인 사연을 더듬었다(지명). 누구는 옛사람이 남긴 자취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의 속내를 찾아보았다(유적).

음식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맛이 있지만 어떤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라 맛깔이 달라진다. 비슷하게 문화의 묘미는 그것이 담긴 자연에 따라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요리사가 자신의 작품인 음식 성격을 고려하여 그릇을 선택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먼저 선택한 자연을 바탕으로 문화를 일구어가는지라 전자와 비교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점에서 비교된다. 이제 문화의 바탕이 형성되는 대략적인 자연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땅은 크고 작은 유역(流域)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지형이 특히 뚜렷하다. 이를테면 한반도 지도에 백두대간과 정간, 정맥 산줄기만 그려보면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 대동강 유역 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는 그 유역들이 여러 작은 유역들의 위계적인 집합으로 이루어졌다(이도원, 2001). 여기서 위계는 큰 그릇 안에 조금씩 작아지는 그릇들이 순차적으로 담긴 모습을 말한다. 하나의 유역은 한쪽이 터져 있고 바닥에 흠이 쌓인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릇의 가장자리 안쪽으로 떨어진 물이 그릇에 고이듯이 유역의 테두리인 분수계 안으로 내린 비만 유역에 모인다. 다만 유역은 완벽한 그릇과 달라 고인 물이 계속 머물지 않고 터진 쪽으로 일부가 흘러나간다. 이때 흘러내린 물은 다음 크기(위계의 상위 수준)의 유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반복한 다음 마지막에는 바다로 이어진다. 연이은 유역들에 남은 물이 토양에 오래 머무는 덕분에 그 안으로 미생물에 이어 식물과 동물이 찾아와 삶의 터로 삼는다. 따라서 지형 과정이 만든 유역은 자연경관의 바탕도 된다.

우리가 마주치는 자연경관은 긴 세월을 거쳐 서서히 드러난 산물이다. 이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아주 먼 옛날 지질 활동은 굴곡이 진 경관의 바탕을 마련했다. 그 바탕 위로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려 물이 흐르면서 땅을 다듬었다. 지형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땅 거죽부터 생물들이 찾아와 걸모습을 다듬었다. 먼저 미생물과 지의류들이 차례차례 토양의 성상을 바꾸고, 뒤를 이어 식물들이 찾아왔다. 이 생물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생하는 과정에서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의 자리 물림이 이어졌다. 누군가 넓은 면적의 맨 땅을 200년 가량 지켜보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 변화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물들의 자리 물림을 천이(遷移) 또는 생태계 발달이라 한다. 이것은 땅을 덮는 식물들이 시간과 함께 초본을 거쳐 관목, 양수, 음수로 바뀌는 자연 현상을 말한다. 사실 양수는 그늘에 견디지 못하는 약음수(shade-intolerant tree)로, 음수는 그늘에 견디

는 내음수(shade-tolerant)라 하는 것이 식물들의 속성에 제대로 어울리는 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나무는 저마다 맞는 적절한 정도의 햇빛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으나 양수인 썸이니 말이다.

한편 산사태와 태풍, 산불 등, 흔히 말하는 자연피해가 발생하며 숲속에 커다란 맨땅이 드러나거나 노쇠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크고 작은 숲틈(forest gap)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절이 이어지게 되면 숲틈에서는 뒤늦은 천이 과정이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경관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땅거죽이 여기저기 다른 질감과 색상의 식물들로 덮여 있어 마치 한 장의 모자이크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까지는 야생이 그린 모자이크, 즉 자연경관의 형성 과정이다.

그런 땅 위에 토지이용을 포함하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문화 활동이 들어서면 새로운 경관이 생긴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문화경관이다. 그 문화경관의 형성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이도원 외, 2001).



〈그림 9-1〉 경관 형성 과정

식물 천이와 함께 새를 포함하는 동물들의 변화도 동반하지만 그림에서는 표현하지 않았다.
출처: 이도원, 2001.

이 글의 구성은 먼저 1부 인문 분야와 2부 자연 분야로 나누었다. 1부 인문 분야는 (1) 입지, (2) 풍수, (3) 지명, (4) 문화유산 순서로 소개했다. 2부 자연 분야는 자연경관이 가시적으로 출현하는 시간 순서에 따라 (5) 지형과 토양, (6) 수문, (7) 식생, (8) 야생동물로 구성했다. 지금부터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세부 주제의 글을 쓴 사람은 필자라 하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글쓴이로 구분하여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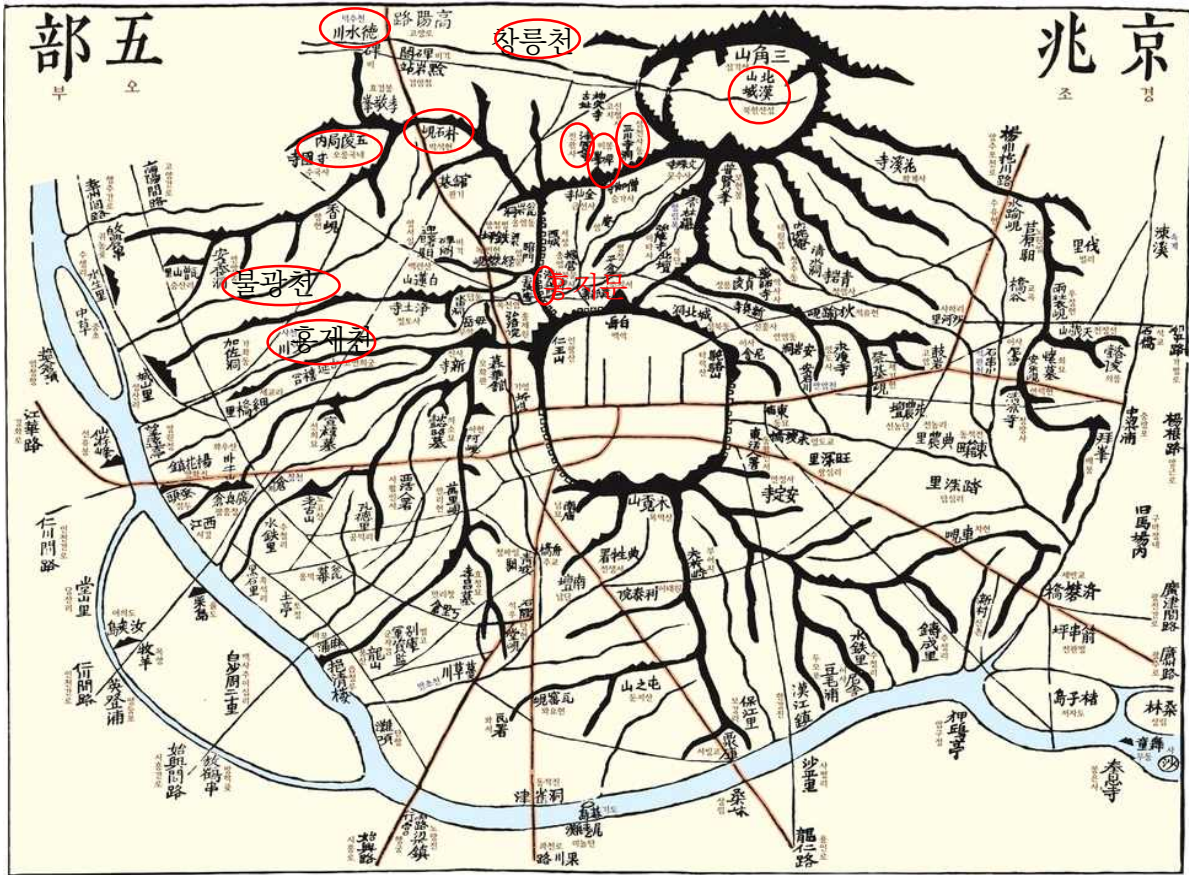
아래 내용은 앞의 8꼭지 글을 검토하며 이해한 생각으로 구성된다. 다행히 대부분의 필자들과 오랜 인연 덕분에 많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적게는 두세 차례 함께 답사를 다니며 비슷한 주제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작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글쓴이의 알팍한 공부 탓에 이해 정도의 차이에 따라 결실이 고르지 못하고, 귀중한 연구 결과의 알짜를 놓쳤을 수도 있다.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필자들의 되먹임도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2. 살펴 읽기

각 주제의 글을 첫 독자의 눈으로 읽으며 요약하는 동안 떠오른 새로운 생각과 의문을 정리했다.

2.1. 입지

은평한옥마을을 포함하는 진관동 일대의 특성은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과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일부인 경조오부도를 보면 확실해진다. 박정원 “은평한옥마을의 역사적·입지적 조건”에서 기술한 주요 지역들이 도성 밖 북서쪽 일대의 산줄기와 물줄기 사이에서 어떤 공간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가 오롯이 기재되어 있다. 멀게는 한반도 전체로부터 시작하여 한양도성과 북한산, 북한산성, 서오릉, 진관사를 거쳐 다가오며 지난 세월 얽힌 사연을 풀어놓았다. 거대한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는 길잡이가 된 셈이다.



〈그림 9-2〉 경조오부도에 표시해본 주요 지명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경조오부도를 한 번 보자. 우선 이 지도는 앞에서 설명한 유역과 분수계가 무엇인지 단박에 알게 한다. 한양도성 땅이 바로 분수계에 싸인 청계천 유역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을 남경으로 정한 다음 겨울에 눈이 남아 있는 선을 따라 성을 쌓게 했다는 일화는 '청계천 유역의 분수계를 따라 돌을 놓으라.'는 뜻이었다. 일조량 차이로 남사면의 눈이 북사면보다 빨리 녹으면서 마루금(분수계)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사면 방향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사면의 눈이 녹는(기화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증발산과 토양 수분 함량, 식생의 변화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두자.

지도에서 도성 바깥 서북쪽 공간을 쉽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한양도성은 사람들이 삶을 꾸려가던 핵심 공간이다. 지금은 고양시에 속하는 서오릉은 일부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사후에 거처하는 공간이다. 그 둘 사이에는 홍제천(沙川)과 불광천, 창릉천(德水

川)을 포함하는 유역의 땅이 완충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완충공간은 다시 북한산 기슭을 따르는 경계로 두 영역으로 구분하는 듯하다. 북한산 낮은 기슭은 사람들이 죽음과 화해하던 영역이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고려를 무너뜨리며 왕씨 일족과 지지자를 무참히 살해한 이성계와 이방원 등은 사자들의 양갓음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한편 살아남은 친척과 백성들을 달래는 가시적인 행동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다. 진관사의 국행수륙제는 그 기능을 대표하던 행사 중 하나다. 더불어 이말산과 이웃한 기슭은 사후 세계에서 왕족들을 돕는 내시와 궁녀들의 영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웃한 저지대는 죽음과 화해하는 활동을 지원하던 사람들이 기대어 살던 영역이다.

유사시에 왕을 포함하는 도성의 핵심 인물들이 북한산성으로 도피했을 듯한 경로도 지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평소에는 거의 닫혀있던 경복궁 북문 신무문(神武門)과 도성 북문 숙청문(肅淸門)(나중에 숙정문으로 개명)을 통해 홍지문을 넘어 탕춘대성을 따라 북한산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박정원)” 경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글은 역사적 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은평한옥마을의 3가지 미래가치를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 둘째,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 셋째, 21세기형 주거공간의 모범사례로의 정착이다. 첫째 제안은 우리의 연구 결과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 지형 생성 과정이 안겨준 천혜의 자연조건 덕분에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간의 영향을 쉽게 받는 수문 체계와 식물, 동물 생태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풍수의 비보책 적용과 현대적인 자연과학적 원리들을 응용하여 주거지역 일대의 어수선한 풍경을 일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인문 분야의 연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와 셋째 제안은 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둘째는 현대적인 편의성을 한옥마을 건축에 반영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셋째 제안을 실현하자면 공간 경영에 상당한 고민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방문객의 힐링을 충분히 얻는 관광 행위와 주민의 삶이라는 기능이 한 공간에 섞였을 때 자칫 드러날 수도 있는 갈등을 공간과 운영 과정에서 완화하는 길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2.2. 풍수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한된 공간에 대한 풍수적 해석은 필자가 이미 비교적 친절하게 요약해놓았다. 소개한 공간은 (1) 북한산 향로봉에서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능선과 (2) 한옥마을, (3) 한옥박물관, (4) 이말산과 화의군 이영의 묘지 4곳이다. 이 중에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자. 마지막 부분인 음택 문제는 글쓰기가 다를 수 없는 사항이다.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산줄기 특성은 이렇게 보았다. "살기를 띤 살룡으로 시작되고 점차 내려올수록 순화되어 생룡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산 향로봉에서 산줄기가 마을로 향해 일직선으로 빠르게 달려오듯 하지 않고, 중간에 굽은 형국에 대한 설명이다. 풍수에서는 용의 몸통에 비유하는 산줄기가 중후하고 힘차게 꿈틀거리며 마을로 다가오는 형국을 길(吉)한 것으로 본다. 이 시각에 어떤 합리성이 있을까? 산줄기의 형상이 듚직하고 부드러우면 대체로 물을 어느 정도 간직할 만한 토양을 기대할 수 있다(보수 효과). 또한,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줄기를 이웃한 물길은 대체로 곡선을 그리며 흐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가 내릴 때 산의 토양은 물을 어느 정도 품을 여지가 있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은 느릿느릿 사람들의 공간으로 다가오고는 더디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 보수 효과와 느린 흐름은 화강암이라는 기반암에서 생성된 한옥마을 일대의 메마른 땅을 그나마 다독겨려주는 효과를 은근히 발휘하리라.

한옥마을이 제비집형 와혈로 특히 우세한 우백호가 3겹으로 싸여 있다는 표현도 결국 물 공급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전체적인 사신사 지형으로 잘 에워싸인 국면은 아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표현이 아닐까? 마을 입지는 빗물을 넉넉히 받고 간직하여 용수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줄기가 3겹인 입지는 물을 받아 마을로 공급하는 이웃 땅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다. 동시에 그 산줄기는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마을에서 일어날 증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풍수 원리에 따라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인 원효봉(元曉峰, 510.2m) - 의상봉(501.5m) - 금봉(407.5m, 가사당암문의 서쪽으로 보이는 봉우리, 풍수에서 흔히 오행에 따라 산을 5가지로 나누는데 투구 모양의 산에 필자가 金峰이라는 이름을 붙임) - 용출봉(571m) - 용

혈봉(581m) - 증취봉(593m) - 응봉(332.9m)을 은평한옥마을의 안대상(案對上)으로 평가한다. 필자는 특별히 금봉과 용출봉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각기 부귀의 기운을 발휘한다.”라고 칭송한다. 이는 서양건축과 달리 실내에서 밖을 내다볼 바깥 풍경을 다루던 우리 전통 건축에서 고려하던 대로다(유현준, 2020). 기막힐 정도로 탁월한 이 안대상은 아파트 장벽 속에 갇혀 우울한 도시민들을 달래줄 기회 요소가 되겠다. 이 풍경은 은평한옥마을 미래가치의 핵심 중 하나일 것이다(본 원고 1장 박정원의 글 참조).

뒤를 이어 한옥마을 주산이 너무 나약하다며 한옥박물관의 규모 확장을 하나의 비보책으로 던지시 내비친다. 필자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제각말푸르지오5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산줄기가 야트막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게다가 커다란 교통로가 산줄기를 잘라내어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접근성은 한층 좋아졌으나 마을이 서쪽이 더욱 열려버린 형국이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포근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감싸는 실체가 더욱 절실하다. 사람들이 상주하지 않는 박물관을 증강하면 마을을 가리는 효과가 향상된다. 그렇게 하여 건물 높은 곳에 전망공간을 확보하고 방문객들이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안대상을 눈으로 즐기며 홀로 사색하거나 동료들과 서로 마음을 나눌 기회를 누릴 기회를 늘려준다면 환영받지 않겠는가? 이왕이면 실내외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계절과 취향에 따라 달리 즐기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

한옥마을은 북한산의 급경사의 골짜기를 거쳐 빠르게 흘러내린 물을 얻고 있으나(급격한 득수) 용수로 활용하기엔 넉넉하지 않을 듯하고(빈약한 취수), 일시에 빠져나가는(빠른 거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수구 지역이 잘 닫혀 있어(關鎖)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풍수적으로는 좋은 조건이다(본 원고 5장 박수진의 글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반암과 지형, 토양 특성에 따라 고지대의 급경사를 한꺼번에 빠르게 흘러내리지만 맹꽂이 습지를 포함하는 마을 공간이 넉넉한 물을 저수하기엔 협소한 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은 짧은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일시에 몰려오는 빗물을 좁은 배출구(수구)가 감당하지 못하여 범람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까(본 원고 6장 송동하의 글 참조)? 홍수 피해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풍수는 물과 식량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필수자원을 마을이라는 국한된 공간에서 취득하던 농업중심의 자급자족의 사회에서 나온 유산이다. 그런 만큼 대량의 자원을 외부에서 구하는 도시공간에 적용할 때는 어긋나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한 취사선

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빠뜨리기 어려운 주제가 된다. 첫째, 대부분의 입지 공간 선택에 풍수 원리가 반영되었고 그 과정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 대두한 자원과 환경 문제가 대부분 자급자족을 벗어나며 야기된 만연한 물질의 외부순환 과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이도원 등, 2012). 필수자원의 공급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외의존도를 완벽하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도시와 마을 자체로 해결하는 양을 최대한 늘어나는 것이 대안이다. 이때 풍수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통지식이 된다.

2.3. 지명

지도와 지지는 인간만이 만들고 남길 수 있는 유산이다. 이 유산은 제작자의 마음을 통해 고스란히 투영된 당시의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필자는 남아 있는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 19세기 중반 이후 제작되고, 은평 지역의 내용을 포함하는 11종 16장의 지도와 지지(地誌)를 선정하여 그 안에 나타나는 지명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했다. 그러나 꼼꼼하게 자료를 탐색하기에는 주어진 연구기간이 너무나 짧았으리라. 그래서 <표 3-2>를 정리하는데 바탕이 된 쓸모 있는 기초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우선 다음 3가지 내용을 확인했다.

첫째, 『대동여지도』 「경조오부」와 『동여도』 「경조오부」에서는 자연·행정·인문지명(31개)이 두드러졌고, 『여지도』 「도성」, 『광여도』 「도성도」, 『지승』 「경성」에서는 고개 이름이 충실하게 표시되었다. 둘째, 8종의 지지(地誌)에서는 연서역(延曙驛)에 대한 위치 정보와 금암참(黔巖站)의 파발참 위치가 연결되어 발참과의 거리 정보가 상세하다. 경기읍지나 양주군읍지에는 삽입지도가 첨부되어 있어 지명의 위치를 알기 쉽다. 셋째, 『조선기본도』 중에 1919년 발행된(1918년에 측도·제판) 「경성」 도엽에 지금의 은평 지역 48곳의 이름이 들어 있다. 그중에는 많은 지명이 조선후기 고지도와 지지(地誌)에 표기된 지명과 달랐다. 이를테면 '박석현(전석현)'와 '녹번현'은 각각 '갈고개'와 '패일재'로 바뀌었다. '녹번리'와 '전석리' '녹번현'과 '전석현(박석현)'에서 유래되었다. 이 변화를 찬찬히 검토하면 일제가 무슨 속셈으로 1914년 우리의 행정구역과 이름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는지 알아내는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가 산경표를 세밀하게 검토한 덕분에 앞에서 유역을 처음 소개하며 백두대간과 정간, 정맥을 빌려왔던 글쓴이는 신중해졌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 3-10>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림에서 굵게 한복정맥이라고 표현한 산줄기는 한강의 지류인 곡류천 유역과 장릉천 유역을 나누는 산줄기로 도봉산-노고산-장명산을 잇는 능선이다, 그러나 그 명칭은 엄격한 원칙에 따르면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큰 강을 나누는 분수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정맥의 자격 요건이다(박수진의 글에서 그림 5-2 설명 참고). 도성으로 이어지는 도봉-삼각산-백악산 산줄기를 격상시킬 요량으로 예외를 만든 것이다. 우리 땅의 산줄기와 유역의 자연적 위계를 현대인이 인식한 것은 산경표 덕분이다. 그러나 산경표가 문화적 중요성(조선시대 한성 중심의 사고)을 예외로 다루며 자연 체계에 예외 사항을 삽입한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다. 산경표에서 비슷한 예외가 산줄기 끝부분에서 더러 나타난다(박선영 개인 정보).

이 연구를 통해 정리한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조선후기에서 현대까지 은평 지역의 지명 변화 특징과 장소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후속 작업이 기대된다.

2.4. 문화유산

은평한옥마을과 인연을 맺으며 오랜만에 한반도 지도를 펼쳐본다. 조선의 사신들이 한양을 떠나 북으로 먼길을 떠날 때 어떤 노선을 따랐을까? 한양-개성-평양-의주를 지나 중국 땅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소위 여행길의 초입인 은평에는 그렇게 노변문화가 생겼다. 은평은 한성부의 연은방(延恩坊)과 상평방(常平坊)을 합친 이름으로 한양의 '성저십리(城底十里)' 서북지역이라는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교외문화를 일구었다. 필자는 두 문화가 어우러지며 생산한 (1) 신혈사, (2) 비석과 관련된 인물들의 설화, (3) 왕과 귀족들의 사후 세계인 무덤, (4) 역참과 봉수, (5) 성황당과 동제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엮었다. 이들 이야기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요약할 재간이 없는지라 내용을 일별할 수 있을 정도로 소제목을 나열해둔다.

첫째, 기념유산으로 고려 현종과 신혈사와 진관사의 일화를 포함하고, 둘째, 비봉의 신라진흥왕순수비 유지(新羅眞興王巡狩碑 遺址)와 조선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 검암기적비(黔巖紀蹟碑), 은언군 신도비, 은언군 묘소구역 금표비, 통일로 기념비를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세 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조선의 북망산(北邙山)으로 불리는 이말산 일대 묘소군과 얽힌 사연이다. 200개 이상의 묘소가 있었다지만 대략 80여 묘소의 실체가 밝혀져 있을 뿐이다. 그중에서 정조의 배다른 형제이며 철종의 조부인 은언군 이인 묘소와 상선(尙膳) 노윤선(蘆允千) 묘역, 영조생모 숙빈최씨의 부모 최효원(崔孝元)부부 묘역, 조선의 대표적 역관 가문에 속한 우봉 김씨 묘역, 상궁 옥구임씨 묘비의 주인공들과 얽힌 사연을 듣게 된다. 아울러 진관사 길에서 만나는 묘역의 주인공인 세종의 아홉째 아들(서자로서는 맏이) 화의군(和義君)과 숙용심씨묘표(淑容沈氏墓表), 영산군 이전의 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이 정도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말산 일대는 왕과 가깝지만 대체로 한 등급 떨어지는 신분들의 사후 공간으로 배려된 것으로 짐작된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역참과 봉수에 관한 것으로, 영서역(延曙驛)과 검암참(黔巖站) 혹은 검암참, 봉헌봉수를 포함한다. 영서역은 조선시대 중국과 서북 땅으로 가던 사신과 관리들이 도성에서 나와 공무를 시작하던 곳이다. 영서역 가까이에 있던 능양군의 별서는 인조반정을 모의했던 산실이다. 거사 당일(1623년 음력 3월 12일 밤) 주력부대를 이끈 신하 이서(李曙)가 늦게 나타나며 능양군의 애를 태웠던 사연으로 지금의 불광천은 연신내(延臣川)라는 지명을 얻었고, 나중에 연서역 이름은 거기서 유래되었다. 이 일대는 숙종 때 환국정치를 낳은 인동장씨 장희빈 일족의 마을과 부친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검암참은 도성을 나와 만나는 첫 번째 참이었다. 날씨가 근무자 형편에 따라 운용하기 곤란한 봉수를 보완하여 임진왜란 이후 중국의 파발제(擺撥制)를 도입하며 남긴 유적이다. 이곳 참과 봉수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던 외침 등 급한 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성에 신속히 전달하던 임무를 맡았던 곳이다.

다섯째, 구파발 금성당제와 진관내동 사신성황당, 진관외동 제각말 산신제, 박석고개 성황당 일화를 소개한다. 모두 신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마을에 뿌리를 내린 주민들이 정기적인 제사를 올리며 스스로 위안도 받고 공동체 의식도 키웠을 것이다. 아울러 도성에서 나와 외지로 떠나던 사람들도, 멀리서 도성으로 들어가던 사람들도 여기

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2.5. 지형과 토양

글의 중심 내용은 6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것은 (1) 은평한옥마을과 이웃 지역의 지형 형성 원인과 특성, (2) 경기 북부의 지형과 한북정맥, 유역 분포, (3) 암석과 지형, 토양의 관계(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필자가 둘로 나눈 내용을 묶어서 정리), (4) 기반암과 지형의 문화적인 산물인 교통로, (5) 반구형의 구릉 이말산 지형을 낳은 지질적 특성, (6) 명당인 한옥마을의 지형발달이다. 이 내용을 차례로 한 문단씩 요약해보자.

은평한옥마을에서 멀리 보이는 지역은 광주산맥을 이루는 북한산 북사면이다. 원산에서 시작하여 서울까지 160km에 걸쳐 북동-남서의 사선방향으로 발달한 추가령구조곡은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를 잇는 자연적인 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이 구조곡의 남쪽 경계인 광주산맥은 험준한 산악지역이다. 이 공간 맥락은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지형 분포 특성을 규정한다.

한북정맥 소개는 앞의 박선영 글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그림 5-2>를 보면 임진강과 한강을 나누는 더 큰 산줄기를 제쳐놓고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줄기를 정맥으로 승격한 예외성과 함께 서울 북쪽 지역인 은평과 양주 땅의 유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승격 덕분에 한북정맥의 지맥이 된, 북악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동쪽으로는 중랑천의 지천인 우이천과 성북천(안암천), 그리고 한양도성을 관통하는 청계천이 차례로 놓여 있다. 반면, 서쪽에는 임진강과 창릉천 유역 사이에 있는 곡류천과 창릉천, 불광천과 홍제천이 차례로 남쪽을 차지한다.

북한산로를 경계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중생대 화강암과 선캠브리아기 편마암이 넓게 분포한다. 화강암에서 유래된 동쪽 북한산 일대는 급경사 산악지역이다. 화강암 지역은 풍화 과정에 얽은 유효 토심과 굵은 토양 입자 구성을 야기한다. 그 결과 토양 수분보유능력이 매우 낮고 배수가 양호하다. 이러한 곳에서는 비가 내릴 때 급류가 빠르게 흘러내려 홍수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 아울러 저조한 토양 수분보유능력은 메마른 땅의 주요 원인이라 높은 식물의 광합성(일차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의 접근성 또한 어렵기

때문에 농경지로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불리하여 숲으로 존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삼천사와 진관사, 북한산성을 포함하는 유적들과 산기슭의 무덤은 그러한 특성에 어울리게 선정된 토지이용의 결과인 셈이다. 반면에 북한산로 서쪽은 경기편마암복합체의 땅이다. 화강암에 비해 풍화작용으로 생성되는 토양 입자는 상대적으로 가늘다. 그런 만큼 토양 수분과 영양소 함량을 포함하는 성상과 식물 및 동물 종들이 동쪽의 화강암 지대와 차별되는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문화적 산물인 교통로는 화강암과 편마암과 만나는 연약부인 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하천을 이웃하며 달리다가 분수계의 낮은 고개를 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분수계란 북한산 북사면 각 계곡들의 양쪽으로 뺏어내린 산줄기를 말한다. 흥미롭게도 그 산줄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개 또한 화강암과 편마암이 맞닿은 지역이다. 문외한으로서 지형 분야의 글을 읽으며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면 왜 같은 두 암석의 경계부에 고개가 생기는 것일까? 글의 논리 속에 짐작의 여지가 보인다. 어쩌면 아주 아주 먼 옛날 고개(안부) 좌우 물길이 이어졌거나 아주 가까이에서 시작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땅의 용기와 함께 산줄기를 나란히 양쪽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깊어지며 안부를 가로지르던 물길은 점점 멀어진 것이 아닐까? 이 짐작의 잘잘못은 지형학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겠다.

하늘에서 보면 이말산이 말굽 모양이 된 사연은 무엇일까? 이말산도 인접 지역과 마찬가지로 호상편마암이다. 그러나 풍화와 침식에 강한 규장암 암맥이 반구형의 양끝면에 관입하여 편마암 침식이 어려워지며 구릉성 봉우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지형을 상지가의 관점에서 해석한 풍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명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현대 지형학적 논리로 설명했다. 은평한옥마을의 지형 발달 과정에 나타난 풍수적인 장점을 살리는 데 참고가 될 내용이다.

2.6. 수문

지형 분석에 의 창릉천 유역의 상류지역은 기반암이 노출되고, 토심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토양 입자마저 굵고 거친 땅이라는 사실은 밝혀졌다. 불투성의 기반암 지역에서는 빗물이 대부분 땅 위로 흘러내리고, 토심이 얇은 곳에서는 땅속에 간직되는 물의 양이 적어진다. 서로 모여 빈틈(토양학 용어는 孔隙)이 없을 정도로 토양 입자가 지나치게 가늘면 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하지만 지나치게 굵으면 입자들 사이의 빈틈이 넓어져 수분보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물이 토양 입자 사이에 머물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상자글 1」로 소개한다.

이 특성으로 창릉천 상류 동쪽 경사지에 비가 내리면 땅 위로 흐르는 물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산지에서는 사태가 나거나 하류지역에서는 홍수 피해가 흔히 발생한다. 이런 사유를 거쳐 나온 정성적인 현상은 수리수문 분야의 연구로 어느 정도 정량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수문 연구 결과를 보면 비가 쏟아지는 여름이 오면 북한강과 진관천을 비롯한 북한산 계곡에서는 급류와 범람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집중 강우는 계절풍 기후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곳 계류에서는 유난스러운 지질지형 특성과 맞물려 독특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급류와 범람은 재난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기회 요소도 된다. 후끈한 여름에는 열기를 식혀줄 청량감을 보태고 장쾌한 물줄기의 박진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득 궁금해진다. 차가운 겨울 정신 번쩍 들게 할 정도의 하얀 얼음 계류도 볼만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 신뢰가 가는 정량적 수문자료를 생산하여 계류의 현명한 관리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치지 말고, 역으로 그 물을 활용하는 길은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홍수 역사와 현재의 상황 분석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미래의 수문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비가 오면 접근하기 어려운 명소의 영상을 드론으로 확보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그래픽으로 계류의 급격한 성쇠가 연출하는 현장감과 계절 변화를 연출하는 시청각 자료를 구축할 방도가 없을까?

한옥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진관천의 유역 토지는 숲 72%(활엽수림 31%, 침엽수림 27%, 혼효림이 14%)와 바위 20%, 도로 2%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공원의 일부이기도 하

지만 넓은 숲과 바위 지대는 급경사로 인간의 개발을 거부한다. 더구나 도시 가까이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특이한 땅이다. 이 조건은 자연을 유지하며 그저 바라보아도 좋을 때를 지녔다. 아울러 현재의 숲 상태에서도 진관사를 거쳐가는 물길이 창릉천에 이르기 전에 홍수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따져보면 진관천 유역은 특별하게 다루어야 하는 공간이며, 보다 정교한 수문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천의 특이성으로 창릉천 유역의 유난스러운 수문 현상은 하천생태계의 지형을 포함하는 비생물적 요소들 및 크고 작은 동식물의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홍수가 초래한 지표 침식으로 운반되는 토사는 굵고 거친 편일 것이다. 은평구를 이웃한 지역의 홍제천의 여러 이름중 하나인 모래내(沙川)는 이런 하상의 특성을 부각한 것이다. 창릉천 또한 하류로 갈수록 저들끼리 마모되어 미세해지기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 중류 구간에 퇴적되어 모래 하상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짧은 연구 기간에 지역의 주요 물길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지만 창릉천 지천에는 그저 오수 방류라는 국한된 역할만 맡겨진 듯한 모습이었다. 계류와 지천뿐만 아니라 방치된 창릉천 생태계의 포괄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인 활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생물적·무생물적 기능을 발굴하여 자연의 잠재력을 살리고 하천 관리의 모범을 만들 의지가 지역의 행정기관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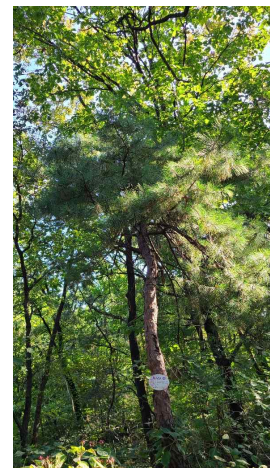
2.7. 식생

특히 가을에 진관사 유역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비봉과 그 좌우로 이어지는 능선에 올라 진관동과 이웃한 고양시의 지축동 방면을 조망하면 산은 넓은 초록색과 낙엽이 진 나무들의 어울림, 바위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그 풍경 안에 북한산 북사면 경사지와 노고산 남서쪽 사면은 넓은 면적의 초록색 대부분은 늘푸른나무의 소나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세 가지 사연이 얽혀 낳은 결과로 보면 된다. 그것은 (1) 조선 시대의 남벌로 1970년대 녹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만연했던 산림 황폐와 (2) 천이라는 생태학적 원리, (3) 화강암이 넓게 차지하는 이 일대의 지질 특성이다 -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는 뒤에 추가하는 「상자글 2」에서 자세하게 서술한다.

흥미로운 것은 노고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동남사면에는 소나무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반대쪽 사면은 낙엽수림이 점령한 광경이다. 앞선 지형 분석에서 소개한 내용처럼 양 쪽 사면 모두 선캠브리아기에 생성된 호상흑운모편마암 지역으로 북한산 지역에 비해 토양 입자가 상대적으로 미세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유효토심도 조금 더 깊다(5장의 글). 따라서 식생이 대비되는 광경은 기반암의 구성 요소보다는 사면의 방향에 따른 차이가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소나무가 제법 남아 있는 노고산 동남사면은 반대쪽 사면에 비해 일조량이 높아 증발산량이 높다. 따라서 토양 수분함량이 낮아지고 소나무가 낙엽활엽수에 밀려나는 천이 시기가 늦어진 것이다. 그러면 계곡부는 왜 낙엽수림이지? 궁금하면 계곡에서는 토양 수분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상자글을 보시라. 한편 전체적으로 북한산 북사면에 비해 노고산 동남사면의 낙엽활엽수림 면적이 넓은 것은 깊은 유효토심 덕분이다. 그것이 주원인 아니라면 이말산 동쪽 부분을 포함하여 진관동 일대 낮은 구릉지대에 소나무가 많이 남아 있는 현상과 함께 1970년대 땃감을 화석연료로 대체하기 전까지 양호한 접근성으로 사람들이 벌채하여 아예 자연 회복이 늦게 시작되었을 여지도 있다.



(가) 2021년 12월 5일 비봉과 향로봉 사이 능선



(나) 2021년 10월 24일 이말산

〈그림 9-3〉 (가) 북한산 능선에서 바라본 창릉천 전경과
(나) 높이 자란 넓은잎나무들 아래 갇혀 위축된 소나무

여기서 한 가지 숙제를 제기하고 싶다. 노고산 정상과 비봉에서 올라 각각의 남북사면 식생을 비교해보면 두 산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 증발산량은 비슷하더라도 기반암 차이에 의한 토양 특성(유효토심과 토양 입자 조성이 특히 중요)을 비교하면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진관동 일대 넓은 숲은 자연갱신으로 산지가 회복된 결과로 보인다. 연구지역의 식생이 임상도 기준으로 1970년대 전국에 널리 심었던 리기다소나무 임상이 전체 중 약 6.3%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편, 그 무렵 거의 식목하지 않았던 참나무숲 49.3%, 기타 활엽수 15.7%, 침활혼효림 19.3% 차지하는 결과는 숲이 스스로 복원된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표 7-1 참고). 이말산 일대의 수목 연령이 대략 30~50년인 것은 숲의 회복 시기와 관련이 있다. 북한산 북사면 넓은 면적의 송림은 식목사업보다는 땔감을 화석연료로 대체한 덕분에 가능했던 자연 천이가 낳은 결과일 것이다.

서울시의 남아 있는 상수리나무 숲 분포를 임상도에서 추출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은평구에 상대적으로 넓게 남아 있다(박찬열 미발표 자료). 우리의 식생 분야에서는 연구지역의 숲 면적 49%를 참나무속 나무들이 차지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현황은 은평구가 고려해 볼 만한 미래 사업의 잠재력이기도 하다. 그 잠재력은 「상자글 3」의 내용이 뒷받침한다.

2.8. 야생동물

숲이 있으면 산짐승이 있다. 짧은 기간에 한옥마을과 이웃한 땅에서 삶을 부지하고 있는 모든 산짐승들을 망라하여 정리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로 야생동물들을 개관했다. 그 내용에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116종의 새들이 관찰되었고, 그중에는 천연기념물 11종류에 멸종위기종 8종이 포함된 사실과 연도에 따라 종수가 줄어든 현상도 기술되어 있다. 지역 야생동물은 잠재적인 자원이라 감소 현실은 개선해야 할 방향을 은근히 알리는 것이다.

야생동물들의 서식공간으로서 진관습지와 이말산 연못, 한옥마을과 함께 이웃한 서오릉을 주목한 것은 그 지역들이 허물어지는 긴 세월의 부침 속에서 고유한 서식 기능을 적

으나마 아직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간은 지키며 그 기능을 지원해줄 이웃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대인의 몫이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기억 속으로 간직될 야생동물 이야기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한옥마을의 매력은 한층 더 증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3가지 내용은 비슷한 쓸모를 겨냥하고 있다. 그것은 (1) 삻꾸기의 탁란과 서식지로서의 진관습지와 관계 속에서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문화생물종으로서의 잠재력과 (2) 제비와 딱새 등지 공간을 마련하는 한옥마을과 새의 공생, 그리고 (3) 두드러진 북한산의 바위가 지닌 색다른 서식 환경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중국 전통 유적 관광지에서 쉽게 목격되는 경극 공연에 버금갈 옛 삶과 지역의 생태를 소재로 꾸민 볼거리를 아직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먼저 진관습지의 붉은머리오목눈이(일명 뱀새)를 문화생물종으로 제안했다. 필자는 탁란이라는 생태적 현상과 정교한 등지에 주목한다. 물론 뱀새는 속은 줄도 모른 채 삻꾸기 알을 부화하고 자기보다 큰 새끼를 키워내기도 하는 동물이다. 무엇보다 그저 만나기만 해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매력덩어리다. 맵시는 양증맛고 날렵하다. 떼지어 얽혀 있는 나뭇가지와 풀썩 사이를 쟁싸게 옮겨 다니는 몸짓도 경쾌하다. 덤불에 숨어 움직일 때가 아니면 쉽게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경쾌한 재잘거림을 선사한다. 전문가는 “비, 비, 비, 비”, “씨, 씨, 씨, 씨”, “찍, 찍” 하고 운다는데(이우신, 2003) 내 머리엔 무슨 까닭인지 “조롱, 조롱, 조롱, 비비비” 하던 녀석들의 소리만 떠오른다. 아무튼 식물이 무성한 진관습지와 충분히 짝을 이룰만한 동물인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시에 등장한 새 소리가 마음을 끈다. 흥미롭게도 추사의 시 ‘공입진관사(共入津寬寺)’는 따로 전해지고 있는데 신관사를 함께 갔던 일행의 시 묶음인 『三角山紀行詩軸』의 24수 안에는 새소리 5번과 새 1번의 표현이 발견된다(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21). 새(소리)는 그만큼 시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모양이다(정민 2003).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새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으니 이를 어찌쩌나. 제일 큰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 새들의 옛 서식지인 숲을 잘라낸 탓이라. 자투리땅에 상수리나무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심어 새들을 달래는 도토리 축제도 고려해보고 싶다(상자글 3 참고). 아울러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한시와 유산기 등에서 당시의 생태와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찾아낼 필요도 있다. 그동안 갈래갈래 나누어진 분

과학문의 풍토에서 등한시했던 일이다. 생물학자와 인문학자가 손잡고 그런 내용을 발굴하고 생물과 문화가 연결된 전통 지식을 찾아내고 이야기를 꾸미는 숙제가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이 지역과 역사적인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추사의 비문 해독 덕분에 비봉의 비가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전까지는 각각 고려와 조선의 건국에 관여한 도선국사 또는 무학대사와 비석과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추측이 있었다(위의 김덕현 글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21). 그러나 추사가 청나라 옹방강(翁方綱, 1733~1818)에게 금석학을 배우고, 그의 아들 옹수곤(翁樹崑)의 조언을 얻어 1816년 탁본함으로써 비로소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때 경주의 돌로 비석을 만들었다고, 건립연대가 568~576년 사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냈다(한국일보 2021년 12월 18일 배기동의 글).

그 길을 찾아 “추사의 길”을 복원하자는 제안도 마음을 끈다. 그렇다면 추사는 비문을 해독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비봉과 진관사를 찾았을까? 추사의 시, ‘공입진관사’에는 진관사라는 명칭이 아예 들어 있고 진관사의 대웅전 현판 글씨도 썼다고 하니 인연이 깊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는 어떤 길을 따라 비봉과 진관사로 오갔을까? 추사가 살던 거처와 비봉, 진관사를 잇는 경로일 것이다. 진관사에서 시를 지은 다음에는 길을 에둘러 승가사를 거쳐 비봉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문 판독을 위해 왕래했던 경로가 늘 같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근대사에서 있었던 김신조 루트의 진관사 계곡 구간과 추사가 즐겨 갔던 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더 멀게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세운 주체들과 일꾼들이 다니던 길은 또 어떨까? 고려 현종은 개성에서 어떤 길을 지나 진관사로 피신했을까(1장 박정원과 4장 김덕현의 글 참고)?

당시 숲길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저마다 다를 수도 있다. 길은 대체로 지형 안에서 수월하고, 때로는 불거리가 있거나 자신을 은폐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지는 법이다. 여기에 지형과 물길, 식물, 동물, 이동의 목적이 어우러져 시대에 따라 어떤 길을 찾아내었는지 탐색해 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비단길 경로를 현대 지형도를 기반으로 찾아본 지형학자가 궁리해 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5장 저자 박수진의 미발표 자료)?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8개 분야로 나누어진 주제들을 요약하며 얻은 새로운 착상과 떠오른 궁금증을 모아 정리해보았다. 이 과정에 여러 내용 사이를 잇는 관계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여 결과의 중요성과 함께 빈틈을 찾아 장래 연구 방향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애초의 희망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결과를 모두 논리적인 글로 제시할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해두는 마음으로 나열하며 글을 마치려고 하다.

1. 한옥마을과 은평구, 이웃한 경기 북부 유역의 지리적 공간적 맥락
2. 진관사 계곡을 포함하는 창릉천 유역에 있는 옛 마을과 사찰의 시공간적인 관계
3. 특히 고령의 주민들이 긴 생애 동안 익힌 자신들만의 경험과 지혜 발굴과 기록
4. 각 주제의 상호관계를 엮어 매력적인 이야기와 그림, 영상자료로 꾸밀 방안

더욱 포괄적이고 알찬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새로운 분야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학술적 결과를 다양하고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양가 있는 나물들을 제대로 갖추고 섞어 만든 맛깔나는 비빔밥 같은 작품을 언젠가 마련할 수 있으려나?

4. 참고문헌

■ 논문, 보고서, 저서

경기도박물관 옮김, 2003, 먼나라 꼬레. 경인문화사, 서울.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7, 북한산성 사료총서 제1권, 경기M&A, 수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21, 추사의 여정을 따라, 「삼각산기행시축」 49쪽.

김정화 옮김, 2003, 내가 본 조선, 조선인, 가야넷, 서울.

배재수·김은숙·장주연·설아라·노성룡·임종환, 2020,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 온돌 확대에 따른 산림 황폐화,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유현준, 2020, 공간이 만든 공간, 을유문화사, 서울.

이도원, 2001, 경관생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이도원, 2020, 출근길 생태학. 지오북, 서울.

이도원, 박은진, 김은숙, 장현정 옮김, 2001. 생태학: 과학과 사회를 잇는 다리(개정3판). 사이언스 북스, 서울.

이도원·박수진·윤홍기·최원석, 2012,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지오북, 서울.

이우신, 200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 현암사, 서울.

정민, 2003,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효형출판, 서울

5. 상자글

상자글 1: 토양 입자와 물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서 시간관리 전문가가 강연을 했다. 그는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주먹돌로 채웠다. 돌이 채워지자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항아리가 가득 찼지요?" 학생들은 대답했다. "예"

이제 강사는 작은 자갈들을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다. 큰 돌 사이에 자갈이 끼어 들어갔다. 다시 물었다.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

잠시 땀을 들인 강사는 모래를 항아리에 넣은 다음 흔들고는 다시 물었다.

"이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까?" "아니요."

강사는 말없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

"이 시연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다.

"우리의 시간 일정이 가득 찼더라도, 노력하면, 다른 일을 그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란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먼저 큰 돌을 항아리에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큰 돌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사람들에게 당연히 토양보다 인생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의 인생 교훈에서 토양 특성에 내포된 중요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그 특성은 물과 식물, 나아가 흙 속에 사는 미소 동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토양의 최소단위를 이루는 흙알갱이들은 모여서 떼알(aggregate, 토양학에서는 粒團이라 한다)을 이룬다. 기회가 있으면 부식질이 풍부한 흙을 조금 집어 살짝 비벼 보기 바란다. 많은 작은 알갱이들로 서로 붙어서 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알갱이를 엮매는 위대한 자연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날이 흩어져 있는 흙 알갱이를 서로 붙으려면 접착력이 필요하다. 그 힘은 화학적·물리적·생물적 작용으로 생긴다. 화학적·물리적 힘은 대체로 그냥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생물적 힘은 생물이 에너지를 투자해야 생기는 것이다. 흙 떼알을 묶는 생물적 힘은 주로 미생물이나 작은 실뿌리가 분비하는 유기물에서 나온다.

분비되는 유기물은 생물이 애써 흡수하고 자기 몸 안에서 공을 들여 가공한 생산품이다. 미생물은 그 생산품을 굳이 몸 밖으로 내면서 왜 흙 알갱이를 묶는 일을 계속할까? 몸 안

에 두고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는 데도 말이다. 무언가 자기에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억 년 동안 그런 짓을 버리지 않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흙알갱이를 묶어서 무언가 자기에겐도 보탬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헛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자연선택압이 미치지 않으리라.

떨어진 작은 낱알로 이루어진 흙보다는 떼알로 구성된 흙 안에 더 넓고 불규칙한 모양의 빈틈이 생긴다. 시간관리 전문가가 들려준 교훈을 되새겨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가? 그 빈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다른 것들, 그것은 대체로 미생물의 삶에 필수적인 물과 영양분이다. 바로 그것이다. 떼알 만들기는 빈틈 안으로 물과 자양분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얻은 길이다. 아주 작은 미소동물들도 떼알 내부의 틈에 거처를 마련하고, 영양소 순환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생물에게 그 빈틈은 자원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고, 또 깃들여 사는 터전도 된다. 그 덕분에 미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식물은 물과 영양분을 수월하게 얻어 삶을 꾸려갈 수 있다. 그 과정에 축적된 유기물(탄소 함유)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밝혀진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대기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낳는 커다란 창고로서 떼알은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Wiesmeier 외, 2019).

참고문헌

Wiesmeier, M., Livia Urbanski, Eleanor Hobley, Birgit Lang, Margit von Lützwow, Erika Marin-Spiotta, Bas van Wesemael, Eva Rabot, Mareike Ließ, Noelia Garcia-Franco, Ute Wollschläger, Hans-Jörg Vogel, and Ingrid Kögel-Knabner, 2019, Soil organic carbon storage Geoderma, 333(1), 149-162.

*시간 관리 전문가 일화는 다음 책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고 검토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는 Bennett, A. 1910. How to Live on 24 Hours a Day. 22장. 구글 인터넷 자료에서는 출처가 불확실하다고 한다.

상자글 2: 경관과 식생

우리 경관에서 숲은 지표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다. 이 현상은 지질작용이 먼저 울퉁불퉁한 지형을 낳고, 그 위에 기후와 수문 작용인 바람과 물의 흐름으로 다듬어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산지가 우세한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옛날에는 화전으로 넓은 면적의 숲을 태우기도 했지만 그런 행위는 도성에서 아주 먼 지역에서나 가능했다.

도성을 이웃한 은평구 일대는 아마도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고려시대에는 넓은 면적의 숲이 덮고 있었을 것이다. 찾아온 사람들은 다루기 쉬운 곳부터 조금씩 영역을 넓혀 가며 땅을 바꾸었으리라. 오랜 자연의 천이 과정으로 발달한 숲은 사람들의 간섭(마을 조성, 농경지 마련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는 토지이용)으로 조금씩 위축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천이란 자연의 이치를 말한다. 맨땅은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과 열악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지의류와 이끼 같은 생물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가꾸면서 조금씩 비옥한 땅이 된다. 어느 정도 살만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풀과 관목이 차례로 들어와서 토양을 더욱 발달시키고 뒤를 이어 소나무가 정착한다. 큰 키의 소나무들이 높이 자라 햇빛을 차단하면 풀과 관목이 밀려 나간다. 그렇게 한동안 소나무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세력을 뽐내는 시기가 있다. 소나무는 참나무속 식물(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이나 이웃한 서오릉 뒷산에 보이는 서어나무를 포함하는 넓은잎나무들보다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견디는 능력 덕분에 한동안 나고 자란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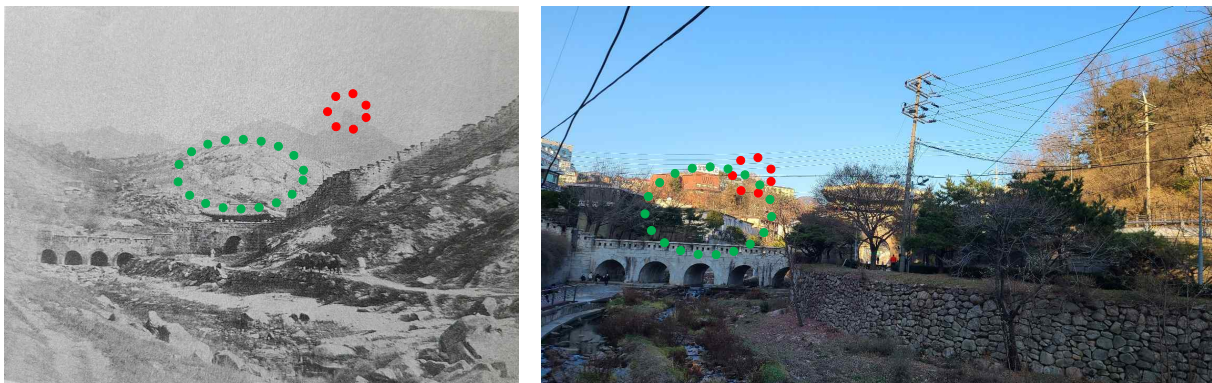
그 능력이란 소나무들이 곰팡이의 일종인 균근과 공생하며 얻는 재간이다. 소나무는 빛을 받아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을 균근에게 주고, 균근은 가늘고 긴 균사를 먼 지대의 토양까지 뻗쳐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고는 소나무와 나누어 쓴다. 그렇게 자연생태계에서 그들은 서로 도우며 메마른 땅으로 파고드는 넓은잎나무(활엽수림)들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소나무들이 가꾸는 땅이 더욱 비옥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끈기 있게 기다린 때가 무르익어 넓은잎나무가 소나무 위의 공간을 점령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다. 기회는 대체로 계곡을 포함하는 저지대에서 먼저 찾아온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넉넉하고, 비바람에 밀려온 유기물들이 쌓여 부식질이 쉽게 넉넉해지기 때문이다(이도원, 2020)

사람들이 살기 전 오랜 시간을 거쳐 식물들이 마음껏 경쟁하고 자란 원시림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이의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의 산야는 조상들이 처음 찾아왔던 먼 옛날 울창한 숲이 있었을 것으로 상상해도 좋다. 그러나 조선 때 우리의 산야는 처참하게 훼손되었다. 조선이 무너져 가던 시기에 우리 숲의 현장을 목격했던 외국인의 기록을 잠시 보자(김정화, 2003). 1889년 여름 조선 북부 경흥 원산 평양 서울을 답사한 러시아 육군 중령 베벨리는 당시 조선의 산림 실태를 이렇게 한탄했다. “인간이 자연의 장엄한 선물을 이토록 무분별하게 흠치고 파괴할 수 있을까? ...(중략)... 독특한 난방구조로 인한 무의식적이고 비생산적인 연료 소비, 혹독한 추위의 겨울, 밀집해 있는 주민들, 산림 채벌에 대한 조정의 감시와 규제 부재 등이 산림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조선 말기의 진관동 일대를 포함하는 북한산 일대의 산림 황폐 실상은 <그림 9-4>의 풍경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하다. 바닥이 드러난 산지 풍경은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산성 사료총서 1권』의 1910년대 북한산성 일대 사진들과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1900년대 초 북한산성 행궁 부근과 의상봉 일대의 사진(그림 7-18과 7-22)에서도 보인다.



<그림 9-4> 조선후기 흥지문 일대 풍경과 오늘날 모습(동그라미 색은 동일 지역)

출처: (가) 1901년 프랑스인 루이 마랭이 찍고 프랑스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경기도박물관 2003)

(나) 2021년 12월 5일 이도원 촬영

전국적으로 만연했던 이 시기의 산림 황폐와 토질 악화는 17세기 소빙기 이상저온에 대응하여 온돌을 널리 보급하고, 땀감을 산에서 구하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벌채와 함께 숲은 망가지고 1970년대까지 자연 천이가 진행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연탄을 필두로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수입하며 전국의 산야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최근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그런 우리 산림의 역사를 뒷받침한다(배재수 외, 2020).

그래서 글쓴이는 70년대 이후 숲의 복구 성공은 녹화운동 자체보다 우리 땅으로 대량 공급된 탄소(화석연료)가 촉진시킨 광합성 덕택이라 본다. 왜냐하면 지금도 에너지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수입할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짧은 기간에 북한과 비슷한 숲으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고양하는 정책이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길이다.

아무튼 그렇게 창릉천 유역은 천이 과정과 사람들의 이용으로 소나무숲과 극상 상태를 향해 달려가는 낙엽활엽수림이 바위투성이의 땅을 자리 잡은 풍경으로 변모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창릉천 유역의 숲 분포를 임상도로 추출하여 지형도에 중첩해보았다(그림 7-1). 특히 자연 천이의 중간 과정에 나타나는 소나무와 '사람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리나무 분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람들의 활동'이란 「상자글 3」에서 인용하는 조선왕조실록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참고문헌

이도원, 2020, 출근길 생태학, 지오북, 서울.

상자글 3. 은평구와 상수리나무 숲

임상도를 근거로 만들어진 식생분포도에서도 송림이 북한산 일대 산록을 넓게 차지하는 반면 상수리나무는 인가 가까운 낮은 산기슭에 나타난다. 송림의 현실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북한산 사면은 토심이 얇고, 토양 알갱이가 굵어 수분보유능력이 매우 낮은 땅이라 천이가 느리게 진행된 결과인 셈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땅에 부식질이 쌓이고 그에 따라 토양 수분과 땅의 비옥도가 향상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도토리가 싹이 트고 재빨리 자라 소나무 키를 넘으면 햇빛을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그늘 속의 소나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숲은 넓은잎나무들이 차지하는 생태계가 된다. 그렇게 처량해진 소나무들은 이말산을 걸으며 찬찬히 살펴보면 목격할 수 있다. <그림 9-3>의 (가) 사진에서 산기슭과 일부 계곡에 낙엽활엽수림이 들어찬 풍경도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그 사진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제법 넓은 지역에 걸쳐 낙엽활엽수림이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고도가 제법 높기는 하지만, 추측하건대 넓은 완경사 지역은 위쪽 경사지로부터 운반되고 물질이 쌓여 이루어진 토양일 것이다. 넉넉한 토양 덕분에 천이가 빨리 이루어져 소나무들이 밀려 나가고 참나무속 나무들을 포함하는 낙엽활엽수림의 임상을 이룬 것이리라. 해가 바뀌기 전날 문수봉을 찾은 길에 목격한 현장 사진을 참고하기 바란다(그림 9-4).



<그림 9-5> 삼천사 계곡의 활엽수림

출처: 저자 촬영(2021년 12월 31일)

그러나 우리 산에서 참나무속 식물 중 원래부터 상수리나무가 점령한 자연림은 매우 드물다. 조선 때 구황식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심은 상수리나무가 자라 열린 다음 도토리를 다람쥐나 어치를 포함하는 야생동물들이 모아서 저장하는 과정에 싹이 트고 다시 자라서 분포한 숲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포함된 아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

호조에서 임금에게 올리기를 “농사가 흉년이 든 각 고을의 구황(救荒)할 초식(草食)은 정한 수량이 많을 때는 일을 전폐하기에 이르고, 적을 때는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오니, 지금부터 대호(大戶)에는 60석, 중호(中戶)에는 40석, 소호(小戶)에는 20석, 잔호(殘戶)에는 10석으로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서 도토리(橡實)를 예비토록 하고, 농사가 비교적 잘 된 각 고을은 반드시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적당하게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朝鮮王朝實錄 世宗 25卷, 6年(1424 甲辰/永樂 22年) 8月 20日(壬戌)

병조에 전지하기를 “남산의 안팎과 백악산(白岳山)-무악산(毋岳山)-성균관동(成均館洞)-인왕산(仁王山) 등과 같이 소나무가 희소한 곳에는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 등을 심게 하라.” 고 하였다. 傳旨兵曹: 南山內外面、白岳山、毋岳山、成均館洞、仁王山松木稀疏處, 種栝子橡實等木. 朝鮮王朝實錄 世宗 64卷, 16年(1434 甲寅/宣德 9年 4月 24日(辛未))

이 역사적 기록과 이어진 세 가지 흔적을 은평한옥마을 인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서울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은평구에 상수리나무 숲이 많이 남아 있는 사실이다. 다른 두 가지는 현장 답사 과정에 목격한 경험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식생 분야 연구 결과가 보여주었듯이 창릉천 유역 면적 8,032ha의 반을 넘는 토지를 숲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시작된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숲 면적의 반(3,813ha) 가까이가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속 식물들로 덮인 임상이다(1,877ha). 그 숲 중에는 국립공원에 속하지 않는 면적이 반이 넘는다(1,031ha). 공원 바깥의 참나무속 임상을 은평구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생산되는 도토리와 숲 현장을 한옥마을의 매력 요소로 거듭나게 가꿀 수 있다.

두 번째는 삼천사 진입로에서 등산객들을 유혹하는 음식점들에서 비롯된 이야기다. 2021년 10월 말 그곳을 지나며 물에 담긴 도토리알과 빵아서 말리는 가공품을 목격했다. 무심코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주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른 집에서는 도토리를 물에 담아 탄닌을 우려내는 장면을 찍게 도와달라고 하니 주인이 이렇게 되받았다. “사진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발정신이 투철하여 내가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답니다.” 나의 기대는 주인의 거부감으로 구겨지고 문득 궁금증이 돋았다. 저 도토리들이 어디서 왔을까? 주변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모았겠구나. 이 일대는 국립공원 안이거나 바로 이웃한 땅이다. 목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만치 공원 안에 흩어져 있는 도토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음식점 부근에 있는 상수리나무들의 사연이다. 그곳 나무들은 웬만한 씨름선수들 몸통처럼 굵고 늠름하다. 줄기가 유난히 굵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들은 세종의 명으로 심은 그 나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수백 년 전 싹이 틈 도토리로부터 시작되어 세대에 세대를 이은 후계목일 수는 있겠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이말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평 지역에서 비슷하리라.

은평구의 상수리나무들 줄기를 가만히 보면 어색한 기미를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 굴곡 없이 죽 올라가던 줄기의 한 부분이 불룩해져 자연스럽지 않다. 심한 곳에서는 힘들었던 과거를 뚜렷이 보여주는 나무의 상흔도 더러 있다. 이 흔적은 도토리를 줍던 사람들이 돌로 두드려 생겼던 상처가 아문 자국이다. 그 높이는 대략 어른들의 키 정도다. 사람들이 높은 나무에 달린 도토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돌을 치켜들고 줄기를 찢었던 결과다. 흥년이 들면 옛사람들은 그렇게 도토리를 주워 허기를 달래곤 했다. 상수리나무 줄기의 상흔은 세대를 이어온 나무들의 몸통에 세대를 잇던 사람들이 굶주림에 맞섰던 행위가 새긴 자취다. 무심했던 사람들이 자연에 새겨둔 역사적 기록이라 할까?



〈그림 9-6〉 삼천사 진입로에서 만난 상수리나무들

출처: 저자 촬영(2021년 10월 16일(좌상)과 12월 5일)

내 눈에는 이런 상수리나무의 모습이 주민과 행정기관이 고려해야 할 만한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토리ва 그것을 생산하는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찾아보길 권유하는 것이다. 권유 뒷면에는 나름대로 절실한 속내가 있다.

도토리는 다년생식물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자원이다 - 실제로 스페인과 일본에서는 도토리를 먹인 돼지를 아주 비싼 값에 거래한다. 알다시피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량은 일년생 식물에서 비롯된다. 쌀과 밀, 옥수수, 배추, 시금치 등 밥상에 오르는 식품들은 매년 씨앗을 뿌려 수확한다. 이 식물들은 생산하는 과정에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나 대부분 먹거나 버려지며 일어나는 빠른 분해로 거의 모든 탄소가 금방 이산화탄소로 방출된다. 따라서 길게 보면 일년생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참나무속을 포함하는 다년생식물은 매년 성장하면서 목질부에 이산화탄소를 축적한다(이도원, 2020). 그래서 스웨덴의 저명한 환경학자 요한 록스트림도 다년생식물로부터 많은 양의 사람 식량과 가축 사료를 획득하는 전환이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라 했다(김홍욱, 2017). 그는 스스로

보금자리인 지구의 생명부양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류의 아찔한 처지를 경고하며 “지구 한계(planet boundary)”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지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식량과 사료를 다년생식물에서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홍욱 옮김, 2017,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에코리브르,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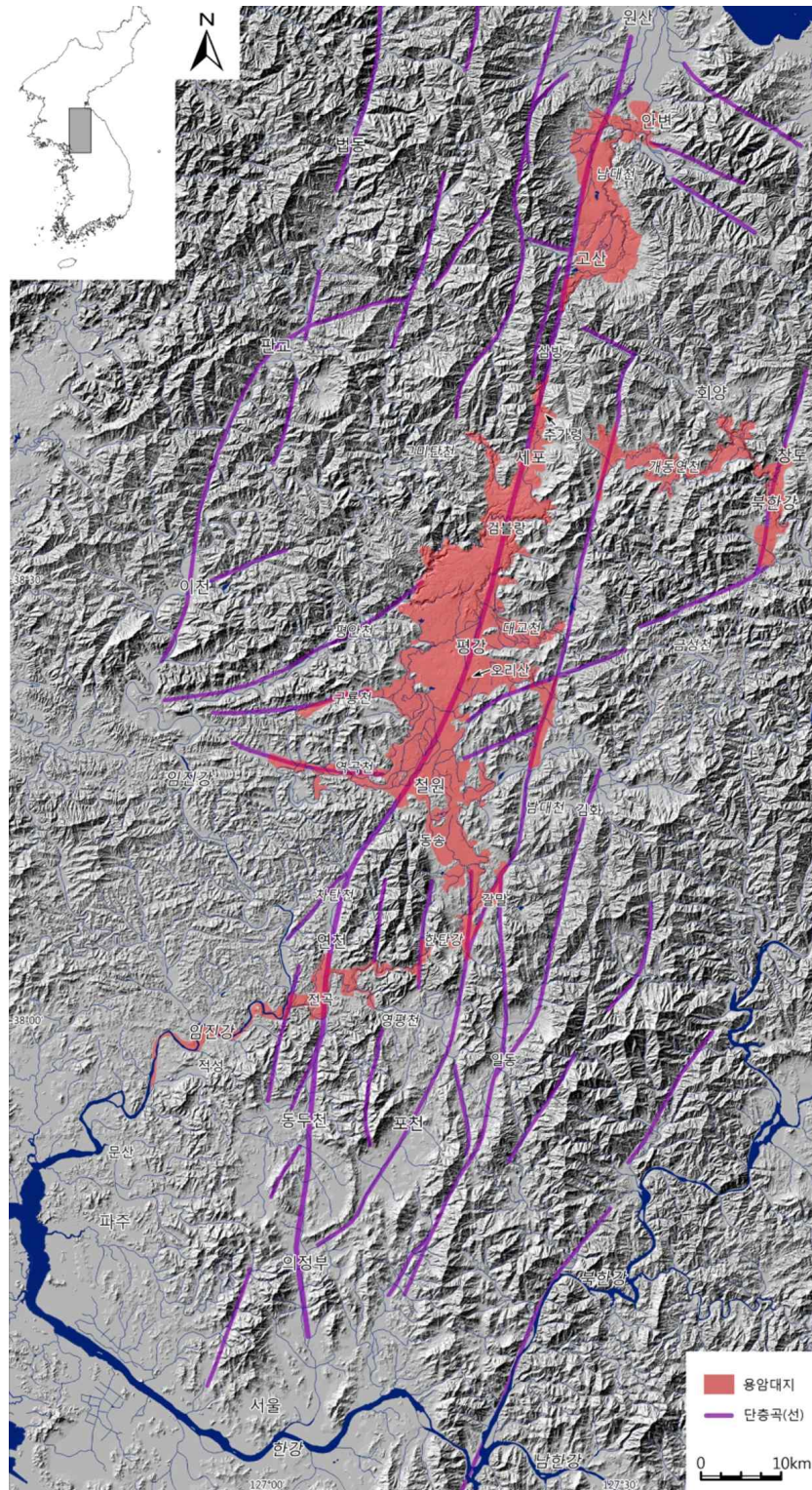
이도원, 2020, 출근길 생태학, 지오북, 서울.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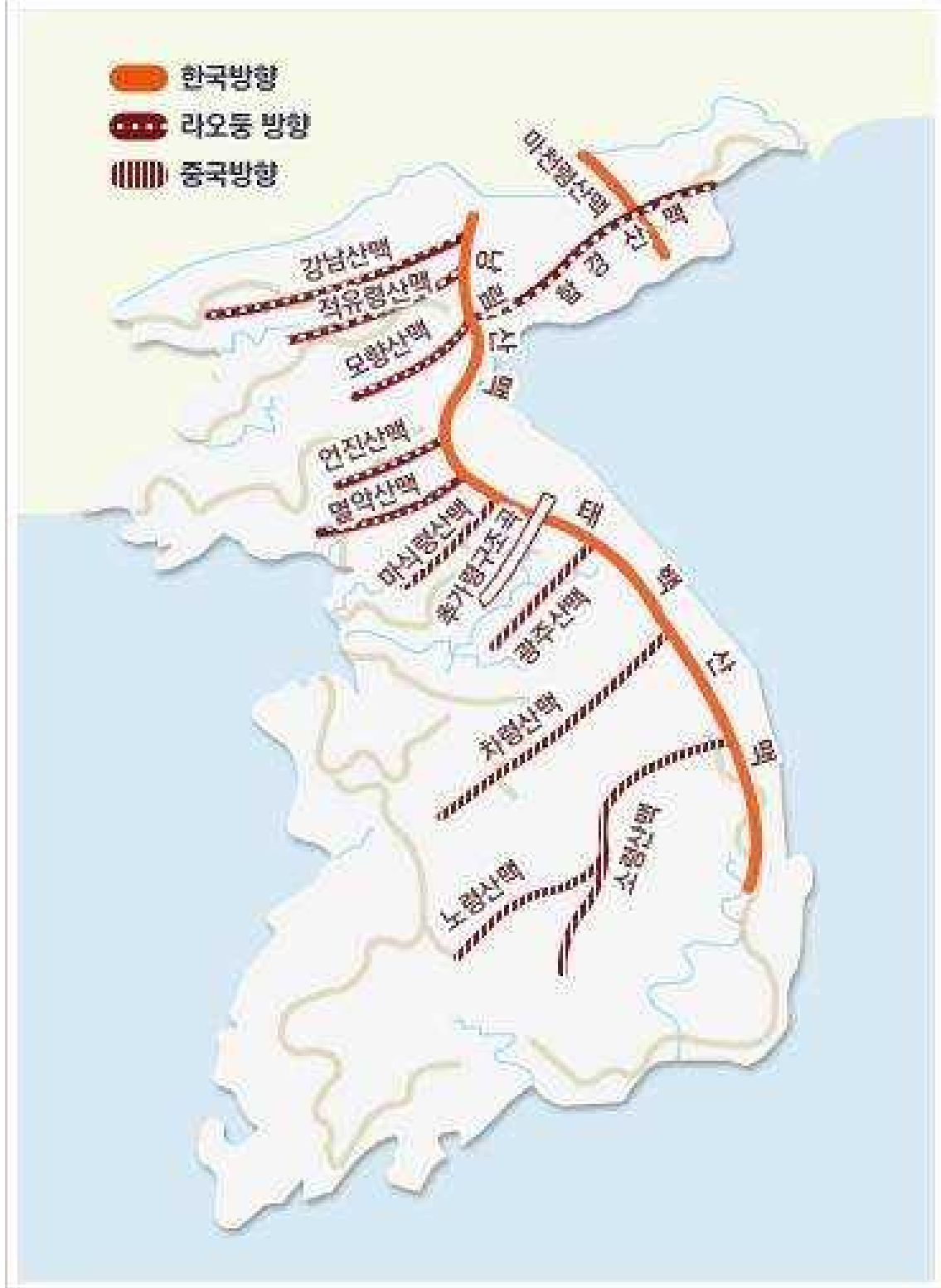
부록 1. 추가령 구조곡 일대의 지형 기복과 단층곡, 용암대지 분포

이민부·이광률, 2016, "추가령 구조곡의 지역지형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1(4), 473-490, p.477



부록 2. 한국 산맥체계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2012/popup/conser_040105_map0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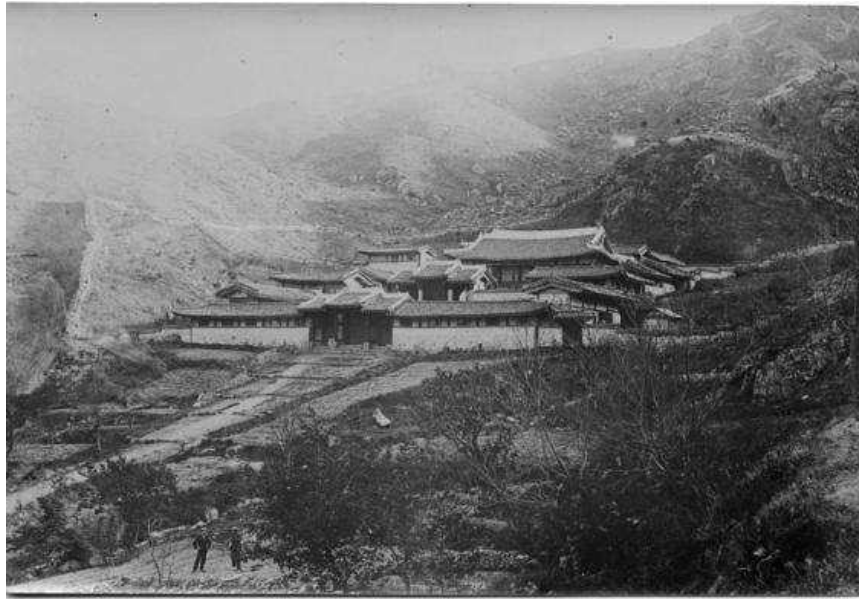
부록 3. 중앙Sunday 북한산성 홍수 관련 기사

1915년 폭우가 삼킨 행궁, 100년 뒤 파보니 서양 램프가...

입력 2020.08.08 00:02

업데이트 2020.08.08 23:10

왕은 노심초사했다. 1879년 홍수를 겪자, 고종은 북한산성 행궁(行宮·전란 시 임금의 거처)과 공해(公廩·관가의 건물)의 안위를 물었다. 총융사 조희복이 고종에게 아뢰었다.



촬영 시기가 1890~1900년대로 추정되는 북한산성 행궁의 모습. 이 사진은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역사학자 로버트 네프가 수집했다. [사진 로버트 네프 컬렉션]

“북한산성 각지의 공해는 올해 홍수 뒤 더욱 무너지고 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각 공해가 대부분 이와 같으니 몹시 걱정됩니다.” 왕이 하교하기를 “이곳은 바로 도성의 뒤 보루로서 기내(畿內·한양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를 편안히 다스리게 하는 곳이라 소중함이 더욱 특별하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8월 29일)

하지만, 행궁을 비롯한 북한산성 여러 건물은 여러 차례의 큰비가 만든 충격에 골격이 틀어졌고, 물길에 쓸려 내려갔으며, 흙에 깔렸다. 1915년, 1925년 호우는 역사의 물줄기가 요동치는 속에서 민초를 억눌렀다. 북한산성에도 큰 재앙이었다.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6일까지 7일 연속 입산 통제를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7일(오후 5시 기준)까지 북한산에 내린 비는 489mm. 이명종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재난안전과 계장은 “만약 기상특보가 다시 발효돼 지속한다면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까지 입산 통제를 할 수 있다”며 “7일 연속 입산통제를 한 건 최근 10년간 처음”이라고 말했다.

8월의 첫 주말인 지난 1일, 서울 진관동 북한산성 입구에는 입산통제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수십 명의 등산객이 입구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 계장은 “입산 통제는 무엇보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비가 오면 산에서 실족의 위험이 커진다. 지반이 약해져 토사가 허물어질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산성의 70%가 자리 잡은 경기도는 지난 6일 산림 산사태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하늘에서 찍은 행궁 터. 행궁은 발굴 작업 뒤 현재 6차 정비 중이다. [사진 경기문화재단]

100여 년 전, 129칸의 북한산성 행궁은 이런 산사태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졌다. 1712년 북한산성이 지어진 지 200년이 갓 지난 때였다.

1915년 7월 30일 자 매일신보는 북한산 헌병대의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전한다. ‘북한산하의 일촌 거의 전멸, 17명이 바위 아래에 참혹히 죽음’ 제목의 기사 내용은 이렇다. ‘북한산에 물이 났다는 소식은 24일 오전 11시경…대해의 해일과 같이 몰려드는 큰 소리와 함께 백운대와 그 부근의 산에 모였던 빗물이 일시에 왈각…북한산에 거주하는 인민은 약 150인이요 호수가 42호인데, 15호가 흘러가 3분의 1은 잃어버려…’

이날 행궁 관리인 부부와 그 자녀들도 희생됐다. 대한성공회 관련자도 부상을 입었다. 성공회는 행

궁을 수리한 뒤 1912년부터 10년간 빌려 쓰는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피서지로도 쓰였다.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의 정창진 요셉 부제는 "당시 트롤로프(한국명 조마가) 주교가 세인트 제임스 행사를 26일 행궁에서 열려고 했다"며 "행사 준비를 위해 성공회 사람을 북한산성에 올려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마가 주교는 26일 현장에 도착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서신으로 알렸다. 이는 대한성공회 기관지인 모닝캠 146호(1915년 10월 발간)에 나와 있다. 이후 100년, 2012년부터 이어진 행궁 발굴 작업 중 서양의 램프와 주물 스토브가 나왔다. 경기문화재단은 성공회 일행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산성 행궁이 폭우로 유실 된 1915년 이후 100여 년 만의 발굴 작업 중 나온 서양식 램프. 당시 대한성공회 주마가 주교와 그 일행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경기문화재단]

동장대도 1915년 집중호우에 무너졌다. 3개 장대 중 나머지 남장대·북장대는 19세기 말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월간 영문지 ‘더 코리아 리뷰’(코리안 리퍼지토리의 후신)는 1903년 10월호에 북한산성 8경을 꼽았다. ‘▶노적봉의 저녁노을 ▶봉성암의 종소리 ▶동장대의 달빛 ▶나한봉의 구름 ▶상운암의 폭포수 ▶원효암의 낙조 ▶청하동의 스님바위 ▶산영루의 물 구경’이 그것이다. 이 중 건물은 동장대와 산영루다.’

산영루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쓸려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을축년 대홍수는 한강 하류 하

천설계 기준으로 활용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수주 변영로(1898~1961)는 『명정 40년』 속 ‘을축년 표류기’로 대홍수의 공포를 전했다. ‘말 아니 하여도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려니와, 비라 하기로니 그때의 것 같은 줄기차고 기승스런 비는 드물었을 것이다. 기십 일을 연이어 주야의 별(別) 없이 온다든지 나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하늘이 뒤집힌 듯 그냥 퍼붓는 것이었다. 사람마다 개벽을 생각하고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노르베르트 베버 아바스(가톨릭의 고위 성직자)가 1911년 찍은 북한산성 내 산영루. 산영루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유실 됐다. 뒤의 능선에 1915년 집중호우로 무너진 동장대가 보인다. [사진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100여 년 전 북한산 산영루 앞 계곡에 아이가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위. 바위는 100여 년 전보다 바닥으로 조금 더 내려 앉았고, 근처 수풀이 자라 이제 바위 뒤로 산영루는 잘 보이지 않는다. 김홍준 기자

을축년 대홍수는 7월 9일부터 9월 초까지 4차례 걸쳐 일어났다. 이 기간 태풍은 4개나 지나갔다. 1, 2차인 7월 9~12일, 7월 15~19일에 748.9mm가 쏟아졌다. 한강 물이 광화문 앞까지 들이닥치고, 용산역 기차가 물에 잠겼으며, 한강의 흐름이 바뀌었을 정도다.

조선일보 7월 18일 자 호외는 이렇게 전한다. '뚝섬 상부에 있는 신천리, 잠실리 두 동리는 약 1000호에 약 4000명이 전부 물속에 들어서 모두 절명 상태에 있다는데 그곳은 무인고도(無人孤島)와 같이 되어 배도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구조할 도리가 전연 없으며 17일 밤 10시경부터 살려달라는 애호성이 차마 들을 수 없이 울려왔는바 그동안 모두 사망하였는지도 알 수 없더라.'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근처의 봉은사 주지였던 청호스님이 뱃사람을 수소문해 708명을 구해 절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을축년 대홍수 사망자는 647명. 피해액은 1억 300만원으로,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약 58%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북한산 산영루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쓸려 내려간 뒤 2014년 복원 됐다. 사진은 지난 8일의 산영루 모습. 김홍준 기자

이때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성의 대표적인 건물이 산영루다. 산영루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603년 나온 『유삼각산기』에 이정구가 ‘산영루 옛터’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차례 중수와 훼손이 거듭됐다. 그러다가 1915년 7월의 집중호우로 타격을 입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10년 뒤 을축년 대홍수 때 10개의 주춧돌만 남긴 채 유실된 것이다. 박현욱 경기문화재단 연구사는 “현재까지 산영루는 사진 등의 기록을 통해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최근에 1935년 이후 유실설도 나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산성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대서문 옆 수문은 이미 18세기에 큰비에 쓸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1745년 성능 스님이 그린 ‘북한도’에 수문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산성은 구한말에 접어들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실제 고종실록에도 1893년 5월 ‘북한산

성 중수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시상함'이란 기사 이후 북한산성 관련 내용은 없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승병이 강제 해산되자 사찰들이 버려졌다. 금위영·어영청·훈련도감의 병영지인 유영은 이미 19세기 말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와중에 1915년 집중호우와 1925년 을축년 대홍수까지 겹쳐 북한산성은 극도로 피해를 겪었다. 을축년 대홍수 때는 행궁지 옆으로 없던 계곡이 생겼다는 북한동 주민의 증언도 있다.

박현욱 연구사는 “국운이 쇠락하는 시기에, 행정력이 북한산성까지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산성의 유적들은 1900년 전후의 정세 혼란기 속 '관리 소홀→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패턴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북한산성에 143개소가 있었던 성량의 터. 성량은 북한산성의 초소로, 19세기 후반 관리 소홀로 피해를 겪은 뒤 큰비를 여러 차례 맞고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경기문화재단]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행궁은 발굴 완료 상태로 6차 정비 중”이라며 “행궁이 100여년 전 산사태로 유실된 만큼 복원은 배수로 정비 등으로 장기간 안정성이 보장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영루는 2014년에, 동장대는 1996년에 복원됐다. 고양시는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계속되는 빗속에 100여 년 전 북한산성이 큰비로 입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 rimrim@joongang.co.kr

1925년 을축년 대홍수

- 일시: 7월 9일~9월 6일간 총 4회.
- 강우량: 1차 7월9~12일,
2차 7월15~19일 9일간 748.9mm
- 인명 피해: 647명
- 한강 최고 수위: 뚝섬 13.59m,
인도교 11.66m, 구룡산 12.47m
- 가옥 피해: 유실 6363호,
붕괴 1만7045호, 침수 4만6813호
- 경지 피해: 논 3만 2183단보
(1단보는 남한 기준 991.74m²),
밭 6만7554 단보 유실.
- 피해액: 1억 300만원(당시 조선총독부
한 해 예산의 58%)